

# 항공

AIR FORCE QUARTERLY

제 1 호  
1987

특집 : 정묘년의 한반도 안보



공군본부

# 새벽을 난다

(박목월 詩 중에서)

새 날

장미빛으로 밤아오는

새벽을 나는

찬란한 편대

구름아래서

영원으로 출렁거리는 바다는

아직도 짙은 포도빛으로

잠잠하고

조국의 산하는

어둠에 잠겼는데

우리는 난다。

하늘을 지키려는

우리들의 의지만이

강철같이 빛나는

첫 새벽을 난다。



# '87年은 「必勝의 領空防衛態勢 確立」의 해

공군은 '87년을 필승의 領空防衛態勢 확립을 위하여 확립의 해로 정했다. 김익기참모총장은 「일 년새 새해가 맞이하는 첫날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공군력을 더욱 내걸었게 중장 발전시키고자 마음과 같은 작살을 발구했다.

초전필승의 완벽한 임전태세 지속유지

경제적 군운영체제 조기정착

필승의 정신전력 극대화 총력 경주



## ▼ 공군지휘관 회의





김인기 참모총장은 비행안전에  
 앞장서온 유공장병을 표창하고  
 공적을 치하했다.

◀ 비행안전 시상식

원벽한 기지방어에 있어 군경  
 의 활동은 매우 크다.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 수백동력을 배양하  
 고 있는 군경의 날렵한 모습

▼ 군경시뮬훈련



▲ 비상탈주로 이착륙훈련

유사시 보수도로를 훌륭한 발진 카  
 지, 좌당동제 등 민·경의 긴밀한 협  
 조아래 작전지역으로 재출격하고 있  
 는 F-4D





▲ 바레인 공군 장교단, 참모총장 예방



▲ 미공군 특수 활동본부장 접견



우방국과의  
유대강화

▲ 주한 말레이시아대사, 공군본부 방문

체력은  
곧 전투력

서울운동장에서 펼쳐진 3군 사관학교 체육대회



# 영문

AIR FORCE QUARTERLY

제 1 호  
**1987**  
(통권 제200 호)

**권 두 언** 인화단결은 최고의 병법 ..... 이 은 봉 ( 2 )

**특 집** 정묘년의 한반도 안보

소련의 태평양전략과 한반도 정세 ..... 김 학 기 ( 6 )

급진좌경사상의 형태분석과 비판 ..... 조 복 신 ( 13 )

우리 경제현실과 대응 ..... 김 준 호 ( 23 )

북괴의 '88서울올림픽 방해책동..... 정 운 증 ( 32 )

「금강담」 그 감춘 뜻 ..... 이 기 옥 ( 37 )

김일성 사망설의 전말과 배경분석 ..... 지 용 우 ( 43 )

고르바초프의 신경제정책 ..... 김 부 기 ( 49 )

✓ 정보화시대에의 대처 ..... 박 종 선 ✓ ( 56 )

포클랜드전에서의 공중비화 ..... 이 문 호 ( 71 )

보안의 기초이론 ..... 오 세 찬 ( 81 )

공군교리 고찰 ..... 서 성 도 ( 86 )



'87 공군운영목표 해설      필승의 영공방위태세 확립의 해 ..... (90)

정신전력이 군기강에 미치는 영향 ..... 장 종 호 (93)

항시전장    공중감시 ..... 류 유 대 (116)

군사지식

미국의 새로운 전략폭격기 B-1B 실전배치 ..... 이 희 권 (124)

소련의 항공무기 발전추세 및 전망 ..... 최 양 수 (134)

중공군의 현대화 및 문제점 ..... 윤 쾌 환 (146)

일본 항공자위대 현황(1) ..... 이 상 곤 (154)

미군 징계제도에 관한 고찰 ..... 이 태 종 (168)

미공군 인사제도 및 구조소개 ..... 임 우 규 (185)

「프라이드」로 결정했습니다 ..... 권 우 성 (197)

\* 수 필    • 첫눈 내리는 날의 단상 ..... 권 용 은 (200)

\* 시    • 술    개 ..... 조 병 화 (202)

호국백일장 입상작 중에서      푸른 창공의 꿈 • 산문 ..... 김 태 근 (203)

공    군      • 시 ..... 김 윤 정 (204)



### ◀ 진중창작미술작품 전시회

장병들이 여가를 이용, 제작한 미술작품. 그러나 그 수준만은 「국전 출품감」이었다는 사계 권위자의 심사평



김인기참모총장은 전시된 장병들의 작품을 관심있게 돌아보았다.

▲ 작품 심사



### 시민위안 공군군악연주회

사진은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모습

### 장교부인회 위문활동

장교부인회에서는 국군통합병원을 방문, 위문품을 전달하고 장병들을 위로했다.



---

---

# 공군

AIR FORCE QUARTERLY

1987년 제 1 호 (통권 제200호)

---

參謀總長 統率方針

**精兵強軍이 되자**

必勝의 精神戰力

必勝의 技術, 技備

必勝의 指揮, 管理

**공군본부**

## 人和團結은 最高의 兵法



政 訓 監

空軍大領 李 殷 鳳

孫子は 戰鬪에서 勝利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敵軍의 마음을 屈服시켜야 한다고 主張하고 「攻心爲上, 攻城次之」라는 말을 남겼다. 그러나 哲人 孟子는 戰爭에 勝利하기 위하여서는 自軍 내의 人和團結이 最優先임을 주장하고 「天時不如地利, 地利不如人和」라는 孫子보다 次元높은 兵法을 남기고 있다.

現代의 戰爭은 軍人들만의 戰鬪가 아니고 民·官·軍이 三位一體가 되어 싸워야 하는 總力戰이며 陸·海·空의 統合된 戰術이 要求되는 總和戰인 關係로 孟子의 이 말은 時, 空間을 超越한 兵法임에 틀림없다.

悠久한 人類歷史 속에 밤 하늘의 彗星처럼 나타나서 驚天動地시켰던 수 많은 民族과 國家들이 痕跡도 없이 消滅된 것을 알 수 있으며, 反對로 술한 外侵과 國難 속에서도 곳곳이 命脈을 지켜온 民族과 國家들도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같은 現象은 무슨 原因 때문에 發生했는가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다. 즉, 歷史 속에 生存한 民族들은 平素에 個人과 個人 間의 人和團結을 이루었고 이를 밑거름으로 하여 民族全體가 總和團結을 維持했기 때문에 언제 무슨 國難을 당했어도 이를 슬기롭게 물리치고 勝利를 이룩했던 것이다. 이는 現代戰爭史에 거의 神話같은 저 有名한 Israel과 Arab 사이의 「六日戰爭」도 따지고 보면 戰爭에서의 敗北는 곧 民族全體의 消滅이라는 信念아래 國民 個個人이 總和團結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人和團結은 결코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어떤 集團에서 組織員 相互간에 人和가



形成되려면 最小限 몇 가지 先決條件이 存在해야 한다.

첫째, 相互간에 不信의 要因이 되는 不正行爲가 除去되어야 한다.

둘째, 가진 者가 못가진 者에 너그러워야 한다.

셋째, 公과 私가 分明해야 한다.

물론, 이 외에도 더 많은 要因이 存在하지만 人和團結을 위해서는 적어도 前述한 세 가지는 지켜져야만 目標가 達成될 수 있는 것이다. 아무리 튼튼한 堤坊이라 할지라도 조그마한 틈이 생기면 걸잡을 수 없이 쉽게 崩壞된다는 事實을 보더라도 人間集團이 強力한 凝集力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극히 작은 일 하나라도 서로가 깊이 信賴할 수 있도록 明明白白하게 處理되어야 하는 것이다. 不信은 바로 人和의 最大의 敵인 것은 두 말할 必要가 없다. 지금 우리들에게는 그 어느때 보다도 總和團結이 必要한 때이다.

半万年 歷史 속에서 헤아릴 수 없이 숭한 外侵을 당한 우리 民族은 그 때마다 一致團結하여 抗爭함으로써 國難을 克服했던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서 우리 韓民族에서 最初이자 最高로 重大한 役事이며 先進祖國 建設의 轉換點이 될 88 서울올림픽대회와 平和的인 政府移讓을 同時에 成就시켜야 하는 時期가 성큼 다가왔다. 우리는 이 두 가지 大役事를 훌륭히 成功시켜야만 政治, 經濟, 社會, 文化 等 多方面에서 先進祖國의 市民意識을 高揚시킬 수 있고 나아가서 世界 속에 韓民族의 얼을 깊이 심을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88 서울올림픽은 2000年代를 向한 韓民族의 國運의 昇期를 가져다 주는 絶好의 天時임이 分明하며 아울러 世界史의 趨勢인 汎太平洋時代(The Age of Pan-Pacific Region)를 向하여 가는 路程에 있으므로 天惠의 地利를 맞은 것이다.

---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絶好의 天時와 地利를 잘 利用하여 우리의 國運을 슬기롭게 開拓하여야만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天時나 地利도 모두가 人和만 못하다는 孟子의 말이 바로 이 時代를 맞이하는 우리 民族을 두고 한 말이라면 지나친 飛躍이 될지 모르겠다.

좋은 일이나 즐거운 일은 서로가 和合하면 그 結果가 두 배의 效果를 가진다는 말이 있듯이,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맞은 우리가 서로 서로 和合하고 團結하여 이를 対処해 나간다면 그 結果는 엄청나게 크리라 쉽게 짐작이 된다.

그러나 好事多魔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좋은 天時와 地利가 있는 反面에 이를 妨害하려는 北傀의 끈질긴 挑發과 악랄한 陰謀가 도사리고 있음을 잠시나마 잊어서는 안 된다. 86 아시안 경기대회의 成功으로 아시안의 舞臺에서 서서히 밀려나기 始作한 北傀는 다가오는 서울 올림픽이 成功으로 開催될 경우 世界의 政治舞臺에서 이제는 발을 붙일 수가 없는 것은 明若觀火한 事實이다. 이에 焦燥와 不安을 느낀 金日成 集團은 무슨 手段과 方法을 動員해서라도 우리의 서울 올림픽대회를 妨害하고자 兇惡의 挑發策動이 予想되고 있다.

그들은 지금 民族의 靈山인 金剛山에 흥측한 夢을 만들고 이를 利用하여 서울을 水葬시킬 도발을 태연히 자행하고 있으며 온 世界의 분노에 찬 抗議도 들은 채 하지 않고 工事를 계속 進行하고 있다. 우리는 眞實로 그들이 經濟的 理由로 한다면 대신 電力을 供給해 주겠다고 提議하였으나 그들은 이를 拒否하고 있으니 무슨 弁明으로도 그들의 陰兇한 計策을 숨길 수는 없는 것이다. 이를 惡用하여 서울이 위험하다는 流言을 퍼뜨려서 世界人民들이 서울 올림픽에 不參하도록 꾸미는 高次的인 心理戰과 동시에 實際로 우리의 서울을 물바다로 만들려는 속셈인 것이다.

---

우리는 이와 같이 北傀의 兇計를 안 이상, 이에 슬기롭게 대처하여 國難을 未然에 防止시키고 우리가 目標한 國家大事를 成功的으로 完遂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내부로부터 上敬下愛하고 公과 私를 嚴正히 区分하여 人和團結을 確立하고 外部로는 물샐틈 없는 鐵桶 警戒를 이룩하여 北傀의 反民族的 行爲를 事前에 粉碎시키도록 心血을 기울여야 하겠다.

슬픈 일이나 고통스런 일은 서로가 合心하여 해결하면 半의 勞力으로도 쉽게 풀린다는 말이 있다. 그러므로 이같이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에게서 더욱 人和團結의 重要함이 강조되는 것이다.

이제 다가오는 民族雄飛의 大役事를 앞두고서 우리 民族이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고 理解하여 작게는 人和를 이루고 크게는 總和團結을 이룩하여 대처함으로써 이를 成功的으로 完遂할 수가 있는 것이다. 쇠는 불에 달구어 두드릴수록 強忍한 것이다. 지금 우리들이 同時에 맞는 試鍊과 希望을 잘 克服한다면 반드시 韓民族은 雄飛하여 世界史에 길이 비칠 東方의 蠟燭이 되리라 確信한다.

우리 민족이 雄飛하느냐 아니면 挫折하느냐는 모두가 우리 손에 달려 있다. 半万年 歷史에 처음으로 맞은 天時를 우리 모두가 合心하여 슬기롭게 보낼 때 우리 民族은 찬란한 未來를 保障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87년도 우선적으로 실시할 우리 空軍의 使命은 人和團結을 통한 必勝의 領空防衛 態勢를 確立시키는데 있는 것이다.

## ■ 특집 : 정묘년의 한반도 안보

# 蘇聯의 太平洋戰略과 韓半島 情勢

金 鶴 起

(外大·蘇聯 및 東歐問題研究所 研究員)

### 1. 序

1985년 3월 고르바초프政權이 등장한 이래 蘇聯은 아시아·태평양으로의 進出을 본격화 하였다. 極東地域에 軍事力을 증대시킴과 동시에 시베리아를 포함하는 東部地域의 開發에 黨은 經濟發展의 우선권을 둔다고 천명하였다. 특히 1986년 7월 蘇聯共産黨書記長 고르바초프는 “蘇聯도 아시아·태평양 國家”라고 규정짓고 이 地域에 대한 蘇聯의 進出을 공식화하였다.

이같은 배경에서 지난 1984년 5월 김일성의 蘇聯訪問 이후 고위급 사절단의 상호방문이 현저하게 증대되었고 1986년 10월에는 김일성이 또 다시 蘇聯을 방문하였다.

그러한 과정점서 蘇聯은 北韓에 대한 軍事援助를 확대하고 北韓은 蘇聯에 淸津, 南浦港의 蘇聯艦隊寄航을 허용하는 등 相互 軍

事關係를 밀착시켜 왔다.

韓半島가 蘇聯의 太平洋進出의 길목에 위치하여 蘇聯의 새로운 아시아·태평양政策의 첫번째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우리는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本稿에서는 蘇聯의 새로운 아시아·태평양政策이 나오게 된 背景과 戰略을 蘇聯의 國內狀況과 연관지어서 軍事的, 經濟的 要因 중 어느 것에 더 중점을 두는지 살펴보고 그에 따른 韓半島情勢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對外政策이 國內狀況의 반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 나라의 國內政治나 經濟에 대한 分析은 필수적이다. 특히 經濟問題로 고심하는 현재의 蘇聯對外政策은 더욱 그러하다.

### 2. 蘇聯의 國內狀況

經濟的 未發展狀態에서의 動員體制가 이

특한 급격한 經濟發展이 1960年代 중반을 기점으로 蘇聯에서는 점차 그 한계성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흐루시초프를 축출하고 성립된 브레즈네프의 保守主義 政權은 어쩌면 그 당연한 결과로서 軍事優位政策을 표방하여 1962年 쿠바 위기에서의 열세를 만회하고 1970年代 후반에는 美國의 世界戰略을 위협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반면 中央集權的 計劃經濟體制의 병목현상은 그 가속도를 더하여 왔고 낮은 인센티브는 經濟沈滯는 물론 科學-技術發達의 낙후를 초래하여 現代 科學戰에서 美國에 대한 상대적 열세로 世界戰略에 차질을 가져올 수도 있게 되었다.

그러나 1980年代 초반에 들어와 브레즈네프를 수반으로 하는 保守派 政治局員들이 年齡에 의하여 급격히 물러나게 되자 經濟狀況의 악화와 더불어 政治局內 進歩主義者들이 점차 세력을 장악하게 되었다. 안드로포프와 체르넨코를 주축으로 하는 進歩와 保守派間의 과도기적 갈등기간을 지나 현재는 고르바초프가 이끄는 進歩主義者들이 蘇聯을 이끌어가게 되었다.

고르바초프가 改革主義者로 政治局을 주도하기는 하나 브레즈네프 집권기의 오랜 保守化政策으로 인한 黨 및 政府官吏들의 官僚化와 經濟體制 및 이데올로기에서 오는

고르바초프의 太平洋戰略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선 시베리아 開發과 어느 정도의 體制改革을 통하여 經濟를 활성화시키는 범주 내에서 군사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짙다. 여기서 아시아, 太平洋地域에서 증대되어 가는 蘇聯의 軍事的 必要性的 問題가 韓半島를 둘러싼 4強과 관련하여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다음과 같은 改革의 장애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놓여 있다. 첫째, 經濟成長과 生産性 向上을 위해 세계적인 科學-技術革命(ST R)에 참가해야 하나 이것은 西方經濟體制와 상호 관련을 맺어야 하므로 蘇聯의 經濟原則에 排除된다. 둘째, 政策決定에 專門家들의 참여 증가가 필요하나 고도로 집중된 리더십과 충돌하게 된다. 셋째, 經濟成長要素의 集中的 확대와 消費者의 要求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하나 이것들은 中央集權的 計劃 및 스탈린주의적 近代化 관리방법 및 個人的 欲求를 뒤로 미루고 重工業 優先政策을 취해온 蘇聯經濟體制와 모순된다. ☆)

이상의 문제점들을 시정하려고 고르바초프는 1985年 3月 蘇聯共產黨 書記長에 선출되고 나서 1986年 3月 第27次 蘇聯共產

☆) R. F. Laird and E. P. Hoffman, "The Competition between Soviet Conservatives and Modernizers : Domestic and International Aspects," in Hoffman and Laird (ed.), *The Soviet Polity in the Modern Era*, New York: Aldin Publishing Company, 1984, pp. 827~830.

党大会에 이르기까지 불과 1년여 만에 12명의 政治局 正委員 중 4명, 7명의 候補委員 중 5명, 書記局員 6명을 새로이 선출하거나 승진시키고 3명의 正委員, 候補委員 2명, 書記局員 2명을 퇴진시켰다. 그중 새로 선출된 자들의 대부분이 經濟專門家라는 점에서 고르바초프의 改革意志를 엿볼 수 있으며 蘇聯歷史上 이처럼 빠른 交替가 없었다는 점에서도 그것이 단순히 고르바초프 개인의 權力을 위한 것이 아니라 政策的 측면에서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蘇聯 權力엘리트의 변화 이외에도 國防相과 外相의 교체는 고르바초프 政權의 對外政策과 관련하여 중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지금의 國防相인 소콜로프가 3명의 國防第一次官 중 말석이라 할 수 있는 무임소직에서 國防相에 취임했다는 것과 前任者인 우스찌노프가 1976年 4月 國防相이 됨과 동시에 政治局 正委員으로 선출되었는데 비해 소콜로프는 政策決定機構인 政治局에서 투표권이 없는 候補委員에 머물러 있다는 점은 党的 政策決定에 軍의 영향력을 배제시키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外相에 있어서도 1957年 이래 對美中心의 外交를 주도해온 그로미코를 外交經驗이 없었던 세바르드나제로 경질시킨 것은 外交를 보다 다양화시키겠다는 것이었으며 이는 고르바초프 등장 이후 지금까지의 蘇聯外交行態로 확인되고 있다.

蘇聯의 政策은 民主的 集權主義 原則에

따라 상당한 討論을 거쳐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最高政策決定機構인 政治局에 經濟專門家 출신이 많다는 점과 軍의 영향력이 감소되어 있다는 점은 당면한 經濟問題 해결에 고르바초프 政權이 보다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3. 蘇聯의 太平洋戰略 背景

蘇聯의 太平洋戰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르바초프 政權의 對内外政策의 基本背景을 고려해야만 할 것이다.

첫째, 고르바초프 政權의 基本問題는 무엇보다도 經濟에 있다.

蘇聯의 經濟沈滯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經濟沈滯와 科学-技術의 낙후는 蘇聯式 經濟体制 만이 成長과 技術的 進歩를 이룩할 수 있다는 이데올로기적 주장을 완전히 무너뜨려 蘇聯의 존립에까지 위협을 줄 수 있고 蘇聯式 經濟体制가 非效率的이라는 인상을 주면 이를 따르려는 第3世界 國家들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며 그에 따라 對共產圈 主導權 다툼에 있어서도 中共에게 뒤쳐질 위험성을 내포하게 된다. 특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中共의 經濟改革이 성공하게 될 경우 그 문제는 심각한 단계에 이를 수 있다.

이같은 문제점 때문에 1986年 27次 党大会에서 개정된 蘇聯共產党 新綱領은 “科学-技術進歩의 근본적 촉진은 党 經濟戰略의

근본문제”라고 규정하고 西方世界와의 교류도 확대할 뜻을 시사하였다. 즉 “蘇聯共産党은 經濟, 科学과 技術분야에서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기초 위에서 국가들 간의 광범위하고 장기적이며 안전한 관계를 발전시킬 것을 주장한다.”라는 것이 그것이며 또 27次 蘇聯共産党大会에 제출하는 蘇聯共産党 中央委員會의 政治報告書나 12次 5個年計劃 및 2000년까지의 經濟計劃書에서도 그것을 강조했다.

둘째, 美國의 戰略防禦計劃(SDI) 저지에 있다.

1983年 3月 美國이 SDI를 발표한 이래 蘇聯은 이의 저지에 온갖 政治的 이데올로기의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27次 党大会의 政治報告書에서 고르바초프는 “우리는 《별세계 戰爭》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아주 자세히 언급하였습니다. 美國은 벌써 이 강령에 많은 동맹국들을 끌어들이었습니다. 사태는 되돌릴 수 없는 성격을 띠 위협이 있습니다.……《별세계 戰爭》강령은 금후 軍備競爭의 자극으로서도, 결정적 軍備撤廢로 향하는 길에서의 장애로서 이용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蘇聯은 戰略武器와 우주문제들과는 직접적 관계없이 따로 유럽지역에서 중거리 로켓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그 방향에서 실제적 걸음을 내디딜 용의가 있습니다.”라고 주창하였으며, 1986年 10月 레이카비크 美-蘇頂上會談에서도 상당한 양보를 하면서까지 이를 저지하려고 노력했다.

이와 같이 고르바초프政權이 SDI 저지는 물론 全面的 核武器撤廢 등을 제안하고 나서는 데에는 平和攻勢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앞에서 지적한 經濟問題로 인해 당분간 자신의 지위문제와도 관련하여 SDI에 대항하는 武器競爭에 적극 가담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평할 수 있다.

실제로 SDI가 蘇聯측 주장처럼 순수 防禦計劃만이 아니라 攻擊武器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에서 美國이 새로운 武器競爭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점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며 核戰爭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정과 기술적 측면에서 SDI가 완전히 제 기능을 발휘하자면 20~30년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것은 순수 軍事的 目的에서가 아니라 軍-産 複合체로 특징지워지는 美國의 지배계층이 西方 各國의 尖端 技術을 自國中心으로 통합함으로써 쇠퇴하여 가는 美國中心의 世界經濟體制를 재편하여 經濟主導權을 다시 장악하려는 經濟的 음모가 개입되어 있다는 蘇聯의 이데올로기적 비난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

결국 SDI는 蘇聯의 經濟問題와 관련된 軍事問題라는 점에서 그에 대한 저지에 앞으로도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세째, 蘇聯의 太平洋戰略은 유럽地域의 停滯라는 기반 위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美·蘇間의 相互核抑制能力이 있는 상황에서 유사시 실질적으로 이용 가능한 것은 在來式武器가 유일한 수단이라는 것을 고려

한다 하더라도 유럽地域은 東·西間의 대치가 너무 견고하다. 또 2次大戰 이후 유럽地域은 상호 세력권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으며 발생한다 하더라도 나토와 바르샤바조약軍間의 정면대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짙어 상호 위협 부담이 너무 크다. 게다가 1975年 유럽安保·協力에 관한 헬싱키協定이 체결되어 양진영은 사실상 안정상태에 있다. 따라서 蘇聯이 계속 勢力을 확대시킬 수 있는 地域은 유럽 이외의 地域이며 특히 아시아·태평양地域의 중요성이 커가고 있으므로 유럽의 안정이라는 바탕 위에서 이 지역으로의 진출을 본격화하는 것이다.

이같은 점은 27次 党大會에 제출한 政治報告書에서도 고르바초프는 “유럽지역은 이미 확립된 헬싱키 회담의 기반 위에서 안정조성에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아시아·太平洋地域의 의의가 커가는 만큼 이 地域의 연구를 심화시켜야 한다”는 언급과 또 1986年 7月 블라디보스톡에서 행한 연설에서도 “太平洋地域은 유럽地域 만큼 軍事化 되지는 않았지만 그 軍事的 潜在力은 실로 막대하여 그 결과가 너무 위험하다…… 여기에는 대규모적 核列強들이 위치하고 있다… 大洋의 서부지역에서 동부지역에 이르기까지 많은 나라들의 科学 - 技術 및 工業潜在力은 어떠한 軍備競争도 추진시킬 수 있게 한다……”는 주장에서 확인되었다.

네째, 蘇聯의 太平洋戰略 배경에는 시베

리아 開發이라는 問題가 개입되어 있다.

지금까지의 蘇聯領土開發은 유럽地域에 치우쳐 있어서 그 地域의 資源은 거의 고갈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에 비해 極東地域을 포함하는 시베리아地域은 대체로 未開發狀態에 머물러 있었고 資源 매장량도 엄청난 것으로 밝혀졌지만 교통과 기술부족뿐만 아니라 심각한 勞動力 부족과 주거난으로 개발이 늦어져 왔다.

시베리아開發이 늦어진다는 것은 蘇聯의 資源問題 뿐만 아니라 太平洋에서의 교류에 뒤떨어지는 요소로 작용하며 軍事的인 측면에서도 위험요소를 내포하게 된다. 왜냐하면 이 地域은 주요 産業基地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 일상적인 輸送問題는 배제한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그것이 문제가 될 경우 1905年 露·日戰爭에서의 패배와 같은 戰略的인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고 軍駐屯 자체에도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꼽힐 수 있다.

여기서 蘇聯은 1984年 9月 바이칼湖에서 아무르江 하류에 이르기까지 장장 3,400km의 제2 시베리아(BAM) 철도를 개통하고 1985年 11月에는 BAM 철도와 야쿠츠크市를 연결하는 새로운 철도건설 사업에 착수하였다.

이같은 蘇聯의 시베리아開發은 단순히 原料供給地로서가 아니라 이 地域 자체를 産業基地化한다는데 의미가 있으며 이 점은 또 고르바초프의 블라디보스톡 선언에서도 잘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고르바초프政權이 새로 權力

基盤을 다진 신흥세력이라는 점에서 앞에서 지적한 政策들이 長期的인 目標로 進行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같은 것은 蘇聯 政治行態에서 나오는 것으로 政治局에서 한번의 世代交替가 이루어지면 政治局内の 多數派를 형성하여 심각한 政策실패를 거듭하지 않는한 브레즈네프政權이 그랬던 것처럼 장기간 집권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특히 고르바초프의 나이로 보아 그가 69세까지 집권한다 하더라도 2000년까지의 政策추진이 가능하게 된다.

이상으로 판단해 볼 때 고르바초프의 太平洋戰略은 長期的인 측면에서 우선 시베리아 開發과 어느 정도의 体制改革을 통하여 經濟를 활성화시키는 범주 내에서 軍事政策을 시행할 가능성이 짙다. 여기서 아시아·太平洋地域에서 증대되어가는 蘇聯의 軍事的 必要性的 問題가 韓半島를 둘러싼 4強과 관련하여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다.

#### 4. 蘇聯의 太平洋戰略과 韓半島 政勢

蘇聯은 아시아·太平洋地域의 重要性이 높아감에 따라 이 地域의 軍事力 제고는 물론 戰略的 拠点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 왔다. 釜山灣의 海軍基地化나 遠洋戰略의 확대 등이 그것이었다. 또 고르시코프(S. G. Gorsikov)지도 하에서 海軍力을 급속히 증대시켜 오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地

理的인 불리함 때문에 美國에 비해 大洋에서의 戰略的 劣勢는 피하기 어려웠다. 즉 戰略的 側面에서 蘇聯이 유사시 南太平洋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北太平洋地域을 통과해야만 하나 이 地域은 美國과 日本에 의하여 저지를 받게 된다.

여기서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것은 蘇聯은 韓國을 완전히 美國의 屬國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이같은 인식으로 蘇聯은 1981年 후반들어 韓·美頂上會談에 이은 韓·日頂上會談, 「팀 스피리트」훈련의 확대 등을 三角軍事同盟으로 비난하기 시작한 이래 그 강도를 더하여 왔다.

예를 들어 1984年 12月 24日 蘇聯의 軍事機關紙 「赤星」은 “美國의 지배층은 美國의 太平洋 연안으로부터 하와이, 일본, 近東 및 페르시아에 이르는 地域까지 緊急配置軍의 이동과 증원 및 병참공급 확보를 위해 西太平洋을 확고히 통제하려고 美·日·韓 三角軍事同盟 결성을 획책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蘇聯의 이같은 인식은 日本의 再軍備와 「팀 스피리트」훈련 규모의 증대 등으로 더욱 더 자극을 받았을 것이므로 北韓에 대한 蘇聯의 軍事的 必要性은 높아만 갔다.

北韓으로서도 우리에게 비해 軍裝備의 숫적 우세에도 불구하고 蘇聯의 現代式武器를 필요로 하고 있으므로 蘇聯과 北韓의 관계는 최근에 들어 급격히 밀착되어 갔다. 특히 美國이 韓國에 F-16機 제공을 결정한 이후 부터 北韓은 蘇聯으로부터 MIG-23機 등을

도입하려고 노력하여 왔으며 그 댓가로 蘇聯航空機의 北韓領空通過를 허용하고 淸津, 南浦港을 개방한 듯하다.

결과적으로 韓半島에서의 軍備競争이 치열해져 왔지만 문제는 蘇聯이 직접적인 對北支援을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가이다. 즉 韓半島에서 두 개의 韓國을 유지하는 선인가 아니면 北韓으로 하여금 독자적인 對南挑發을 가능케 하는 범위까지 인가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결과론적으로 보아 蘇聯은 앞으로 수년간은 韓半島의 現狀維持를 바랄 것이며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軍事的인 側面에서 蘇聯은 極東으로 軍事力을 증대시키고 있지만 北韓에 직접적인 軍事援助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과 우리에게 별로 달갑지 않은 표현이지만 韓國을 美國의 屬國으로 보고 있고 韓·美·日 三角軍事同盟體制가 존재하고 있다는 시각에서 韓半島에서의 戰爭勃發은 蘇聯의 安定이라는 측면에서도 개입이 불가피하나 그것은 현재의 蘇聯國內事情과 배제된다는 것이다. 최근에 蘇聯이 北韓領空通過權 등을 얻어낸 것도 직접적인 對北支援이라기 보다는 太平洋 進出이라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經濟的인 側面에서 蘇聯은 시베리아開發 등에 日本이나 西方의 技術을 도입

해야 할 입장에 있으므로 韓半島에서의 緊張은 그같은 필요성에 역효과를 자아낸다.

특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中國의 經濟改革이 성공할 경우 蘇聯의 地位는 더욱 위험하게 되므로 蘇聯으로서는 經濟問題가 우선적 위치에 있게 된다. 또 고르바초프政權이 성립되지 불과 2년이 채 못된다는 점에서 經濟改革에 실패할 경우 그들의 리더십도 위태롭게 된다.

셋째, 政治的인 側面에서 蘇聯은 고르바초프政權 출범 이후 “아시아 安保會議” 개최 및 全面的 核軍縮 제안 등 평화공세를 취해온 점이다. 유로코뮤니즘 국가들이나 第3世界에 대한 蘇聯의 主導權 回復이라는 측면에서도 평화공세는 당분간 필요하다. 특히 “아시아 安保會議”는 브레즈네프가 제안한 것이지만 고르바초프도 1985年 5月 ‘간디’ 인도수상에게 제안한 이래 1986年 7月 블라디보스톡 선언에서도 태평양에 접하고 있는 모든 국가들의 참석 하에 ‘헬싱키’ 식으로 “太平洋協議體”를 제의하면서 회의장소로 ‘히로시마’로 구체적인 제시까지 하였다. 물론 이것은 “太平洋共同体”나 “太平洋經濟協助”가 美國의 강요에 따른 反社會主義的 도식에 따라 진행된다는 시각에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긴 하지만 蘇聯은 그만큼 아시아·太平洋地域에서도 당분간은 安定을 바란다고 해석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 急進左傾思想의 形態分析과 批 判

趙 福 新

〈戰友新聞論說委員〉

## 1. 머 리 말

**共**産主義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미 理念의 문제도, 思想의 문제도 아니다. 그것은 절실한 死活의 문제인 것이다.

유럽이나 日本의 청년들에게는 마르크스나 레닌의 哲學과 革命理論이 討論의 문제로 그칠 수 있고 「左傾化 놀이」가 한 때의 幻想症勢로 끝날 수 있지만 韓國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우리에게서는 金日成 体制의 노예가 되어 죽음의 세월에 빠져들지도 모르는 위험한 덩어리이다. 이 地球上에서 前無後無한 殺人·暴力집단인 北傀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특수한 安보狀況下에서 社會安定과 國家發

展을 저해하는 急進左傾思想의 浸透와 이로 인한 汚染은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다.

全斗煥大統領은 이와 관련, 지난해 8월 11일 하계기자회견을 통해 “容共적인 急進思想은 우리에게 관념적인 요구나 일시적인 社會病理現狀이 아니라 바로 國家安보와 國民生存權에 대한 挑戰”이라고 전제하면서 “民族의 正統성과 自由民主主義体制을 수호한다는 次元에서 急進主義者들의 반국가적인 容共思想에 대해서는 비단 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힘을 합쳐서 대처해야 만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反國家的인 容共思想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킨

바 있다.

최근 우리 社會에서 論難이 되고 있는 急進左傾思想이란 1970년대 후반기를 전후하여 등장한 左派에 치우친 思想들로서 現存의 우리 體制, 즉 自由民主主義體制를 부정함과 아울러 批判하면서 이를 파괴시킬 목적 하에 구성된 一切의 革命的인 理念體系를 통칭한다. 여기에는 周知하는 바와 같이 新마르크스主義를 비롯하여 從屬理論, 買辦資本論, 解放神學 등이 있다.

이러한 急進좌경 사상이 內包하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은 그 構成理論이 共產主義와 직접 관련되어 있거나 이와 유사한 社會·政治的 理論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急進좌경사상의 공통적인 특징은 국민 大衆의 불만과 갈등의 원인이 既存의 體制와 支配者에 있다고 看做, 국민대중들을 선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急進좌경사상의 實體를 꿰뚫어 보면서 이를 올바르게 分析·批判·受容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滅共精神武裝을 더욱 튼튼하게 다져나가야 할 것이다.

## 2. 急進左傾思想의 概念 및 分析·批判目的

急進思想이란 용어는 사용자의 사용목적과 시대적·사회적 背景에 따라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한 마디로 간단하게 定義를 내린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에 속한다.

종래의 急進사상이란 18세기 이후 英國, 프랑스, 美國 등 기타의 나라에서 나타난 政治思想으로서 過去制度와의 완전한 斷絶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정신상태나 학설 혹은 政治的 입장을 말한다.

그러나 現今에 와서는 위에서 지적한 종래의 의미로서의 急進思想과는 달리 民主化란 명분으로 '70년대 후반기에 주로 大學社會의 理念서클을 통해 韓國에 들어와 反資本主義와 社會主義 건설을 표방함으로써 社會에 많은 문제점을 露呈시키면서 暴力手段을 정당화하고 있는 急進사상을 일컫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急進사상이란 자본주의 社會를 社會主義體制로, 자유주의 社會를 全體主義體制로 바꾸기 위해 자본주의 社會의 大衆들을 革命主力軍으로서 동원해 내는데 사용하는 일체의 혁명적 理念체계라고 정의할 수 있다.

上記와 같은 急進思想은 1970년대 후반기부터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다양하면서도 복잡한 理論을 갖고 後進產業社會에 침투, 자본주의를 반대함과 아울러 反美感情을 선동하고 새로운 社會주의체제 建設을 내걸면서 심각한 社會혼란과 國家危機를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脈絡에서 볼 때 急進사상이 노리는 궁극적인 목적은 명백하다. 즉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저항논리를 심어줌으로써 이들을 體制抵抗勢力으로 동원, 體制를 전복케 하고

社會主義革命을 유도하는데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動員된 저항세력들이 자신들의 행동이 결과적으로 조국의 발전을 沮害하는 우를 범하면서도 急進思想의 허위의식에 사로잡힌 나머지 문제의 심각성을 지나쳐 버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급진좌경사상의 목적을 勘案할 때 급진좌경사상을 分析·批判하는 목적은 뚜렷해 진다.

첫째는 우리의 理念과 體制를 위협하는 左傾思想으로부터 우리의 이념과 체제를 守護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의무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다.

둘째는 現實的 與件과 狀況을 고려해 볼 때, 우리에게 보다 많은 自由와 幸福을 가져다 줄 수 있는 理念이 과연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밝혀두기 위해서이다.

셋째는 좌경사상이 내포하고 있는 暴力革命的 理論이 共產主義의 赤化統一 전략과 脈을 같이하고 있음을 再認識시킴으로써 일체의 폭력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넷째는 좌경사상이 내포하고 있는 虛構性·欺瞞性을 分析·폭로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좌경이념에 추호도 현혹되거나 동요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에서 急進左傾思想의 諸形態를 분석하고 그 내용을 비판하려고 한다.

### 3. 急進左傾思想의 形態分析과 批判

#### 가. 新마르크스主義 (Neo-Marxism)

마르크스主義는 그 自体가 內包하고 있는 虛構性과 非眞理性, 暴力性이 역사의 실행과정을 통해 충분히 폭로·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도 심각한 양상으로 도전하고 있다. 특히 제 2차 世界大戰 이후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소련의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부정하는 新마르크스주의 (Neo-Marxism)의 등장은 외국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학계에서도 깊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自由主義 국가에서는 마르크스주의를 共產社會建設이라는 美名下에 노동자들을 선동, 자본주의사회를 전복시키기 위한 鬪爭哲學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新마르크스주의자들은 다른 觀點에서 마르크스주의를 보고 있다. 즉 이들에 의하면 마르크스주의라는 것은 자본주의사회에서 경제적인 착취, 피착취관계에 의해 억압당하고 있는 人間들의 人間性을 回復시키기 위해서는 勞動者들이 暴力革命으로 자본주의사회를 전복, 새로운 社會主義社會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人本主義的 理論이라는 것이다.

한편 新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이같은 논리를 오늘날 現代産業 자본주의사회에 적용

시키려 하고 있다. 즉 현대산업사회에서는 경제적 착취에 의해서가 아니라 文化·心理的인 억압에 의해서 人間性을 喪失하게 되는 바 이 人間性을 回復시키려면 勞動者 階級이 아닌 知識人과 學生이 暴力革命을 主導 共產社會를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新마르크스주의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基本認識을 堅持해야 한다. 즉 첫째는 우리가 革命理論으로만 알아왔던 마르크스주의를 人本主義로 해석함으로써 사상적인 混亂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豊饒와 福祉의 現代産業社會를 마르크스주의적인 관점에서 비판하고 프롤레타리아가 아닌 지식인과 학생을 革命主体勢力으로 중요시함으로써 현실적으로 急進左傾運動의 理論的 根據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上記와 같은 新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분석·비판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新마르크스주의는 자본주의와 마르크스주의를 다같이 비판하는 中道指向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비판적 受容보다는 무비판적·긍정적으로 수용할 위험성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자본주의사회의 産業化 과정에서 露呈되기 쉬운 빈부의 격차, 大企業의 壟斷, 노동자들의 疏外, 한탕주의 心理 등이 新마르크스주의와 接木되어 反體制, 反政府的인 혁명투쟁에 불을 붙이게 되고 자신들의 과격한 暴力行爲를 정당화하는 革命

의 道具로 사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新마르크스主義에 대한 分析·批判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新마르크스주의자들이 기도하는 궁극적인 목적과 저의가 무엇인가를 꿰뚫어 봄으로써 이를 비판적으로 受容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결론적으로 新마르크스주의자들의 자본주의사회에 대한 批判은 자본주의사회가 갖고 있는 潜在力과 그 발전단계에서 고도의 人本主義的인 福祉社會에로의 진행가능성, 점진적인 자기 수정의 능력과 가능성을 전적으로 거부하려는 誤謬를 범하고 있다.

또한 新마르크스主義者들은 마르크스와 같이 지나치게 現代社會에 대해 절망하면서 革命에 호소하는 무책임한 낙관주의를 드러내고 있다. 즉 新마르크스 주의자들은 현대산업사회는 기술의 지배에 따라 全体主義的 경향으로 흐르고 文化心理的 억압이 늘어나 人間性을 喪失하게 되는 바 이러한 人間性 回復을 위해서는 暴力革命을 통해 자본주의사회를 타도하고 共產主義社會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들의 이같은 주장은 현대산업사회가 人間性回復을 위해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사실을 看過하는 誤謬에서 비롯되고 있다. 더우기 現代産業社會의 모순으로 지적인 人間性 상실문제는 오히려 公산주의사회에서 더욱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본주의사

회에 국한시킨 것은 자본주의체제를 거부하는 意識化의 틀을 제공하자는데 그 底意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新마르크스주의는 10여년 전에 美國과 西歐에서 한 때 유행했던 사상으로 지금은 젊은이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으나 이런 思想이 우리나라에 뒤늦게 상륙하여 위험한 左傾思想으로서 從屬理論, 解放神學, 買辦資本論 등과 더불어 청년학생들의 意識化의 방편으로 이용되고 있는 現實을 우리는 빈틈없이 경계해야 한다.

#### 나. 從屬理論 (Dependency Theory)

從屬理論은 학문적인 思潮에 의거하여 자연적으로 발생된 것이라기 보다는 라틴아메리카에서 전개된 民族解放運動의 실천과정에서 나타난 하나의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로서 주로 제3세계의 經濟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을 규명하는 이론이다.

從屬이란 한 나라의 經濟가 다른 나라의 經濟의 발전이나 膨脹에 의해 희생되는 것을 의미한다. 종속이론이 제기하는 核心的인 주장은 제3세계의 低發展은 제3세계가 갖고 있는 本源的·本來的인 상태가 아니라 先進資本主義國家인 中心國에 의해 人爲的으로 조성된 상태라는 것이다.

즉 從屬理論家들은 국제자본주의 국가를 美國, 英國 등과 같은 先進資本主義圈에 속하는 中心國과 後進資本主義 국가에 해당하는 周辺國으로 분류하고 중심국은 상업,

기술, 자본, 자원 등의 우월성을 갖고 주변국을 經濟적으로 支配, 종속시킴으로 주변국은 빈곤의 惡循環을 되풀이 할 수 밖에 없다고 강변한다.

이러한 論理에 입각하여 종속이론가들은 원래부터 사용하던 概念인 相互依存은 종속으로, 共同協力은 不平等과 착취로, 비교우위를 불평등 교환 등으로 바꿔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看過해서 안 될 것은 종속이론가들이 주장하는 發展代案이란 여러 가지 형태의 新左傾思想들이 그러하듯이 經濟적 평등, 人間解放과 소외의 극복 등 人本主義를 표방하여 자본주의의 經濟秩序를 용납하지 않고 革命을 통한 社會主義 體制를 選好한다는 점이다.

종속이론은 強大國中心의 開發理論에 代替되는 제3세계의 독자적인 개발이론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가치를 인정받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다음과 같은 誤謬를 범하고 있다.

첫째, 接近方法上的 誤謬를 지적할 수 있다. 종속이론은 後進國이 발전하지 못한 이유로서 先進國의 制約을 너무나 앞세우고 있다.

국제경제질서에서 後進國을 先進國의 從屬變數로 간주하고 후진국이 선진국경제에 의해 他律的으로 支配될 뿐 후진국 자체의 독자적인, 自律性과 主体性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도 종속이론이 내포하고 있는 誤謬로서 지적할 수 있다.

이같은 誤謬는 오늘날 '후진국이 경제개발에 全力投球하면서 국제 경제질서에 적응, 主体的인 국가발전을 꾀하고 있는 現實에서 더욱 명약관화해 진다.

둘째, 從屬概念上的 誤謬다. 즉 선진국과 제3세계 간의 복잡한 경제 유통과정과 多元的인 무역관계를 종속이라는 單一概念만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너무나 단순하고 조작적이라는 인상을 준다.

왜냐하면 종속문제는 비단 후진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선진국에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들면 석유, 광물자원, 농산물 등 특정 자원문제만 하더라도 선진국도 후진국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의 국제적 현실이다. 또 후진국이 선진국의 상품을 수입하지 않으면 선진국경제도 침체를 면할 수 없기 때문에 후진국이 선진국에 반드시 從屬되어 있다고만 볼 수는 없다.

셋째, 종속이론은 假說을 내세우는데 있어서도 誤謬를 범하고 있다. 즉 국제자본주의의 경제질서를 종속과 비종속, 中心과 周辺으로 劃一的으로 区分, 양자의 관계를 착취관계로만 규정함으로써 調和와 協力を 통해 共同發展이 이루어지고 있는 現實을 外面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후진국의 빈곤은 제국주의 수탈정책과 多国籍企業을 통한 선진국의 新植民主義 정책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후진국 자체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처럼 설정해 놓은 假說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資本主義를 착취관계로만 보는 것도 잘못으로 지적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자본주의를 채택한 오늘날의 先進國은 조화와 협력을 根柢로 하여 눈부신 經濟發展을 가져 왔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從屬理論은 發展戰略上的 誤謬를 범하고 있다. 즉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는 제3세계의 진정한 발전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前提下에 자본주의 붕괴를 위해 외국자본가와 국내 買辦資本세력 간의 聯合을 暴力革命으로 파괴시키고 나아가서는 봉건적인 국내 殘存세력을 제거하여 自給自足體制를 통한 自力更生政策을 추진해야 한다는 종속이론의 주장은 국가발전을 둔화시킨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從屬理論家들은 暴力革命에 의한 脫從屬만이 사회주의 국가건설과 주변국의 실질적인 발전을 가져온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그 어떤 국가를 불문하고 오늘날 국제시장과의 협력없이 결코 自立經濟의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는 것이다.

더우기 輸出增進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밖에 없고, 또 그동안 종속이론가들의 예측과는 달리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우리 나라로서는 先進國과의 斷絶을 核心으로 하는 종속이론을 결코 수용할 수가 없다.

특히 종속이론의 최근경향은 마르크스주의적 생산양식론이나 階級對立을 첨예화하여 暴力革命을 부채질하는 社會主義革命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에 대한 정확한 批判的 受容態度를 지니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 4. 買辦資本論(Theory of Comprador Capital)

買辦資本이란 본래 植民地 및 반식민지에서 民族資本에 對立되어지는 概念으로 사용되는 말인데 이는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외국자본과 自國의 市場을 중개하는 자국 내의 貿易商人 또는 외국상사의 대리업자가 갖는 資本이 협의의 買辦資本이며 광의로는 외국자본의 援助를 받거나 외국자본과 결합, 외국자본의 이익을 위하여 활약하는 金融자본 및 貿易資本을 일컫는다.

그러나 현대적 의미에 있어서는 비록 外國資本과 직접 結탁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反民族的 기능을 하는 자본, 다시말하면 外資에 從屬되고 의존하는 모든 사회적 자본, 특히 관료적 独占資本을 모두 망라하여 일컫는 바 이는 후진국의 재벌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上記와 같은 다양한 의미를 지닌 買辦資本이 형성되는 構造的인 동기와 그 誤謬를 규명하려고 하는 理論이 買辦資本論이다. 매판자본론의 形成과정과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2차대전 후 中南美 諸國은 자본주의적 국제 經濟秩序 속에서 工業化를 통한

경제발전계획을 수립했으나 과거 植民地時代의 遺産이라 할 수 있는 内部構造의 취약성으로 인해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들 국가에는 애당초 의도하던 經濟成長은 이루어지지 않고 外國資本과 技術에 의한 從屬의 深化만을 가져 오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들 外國資本의 이익을 위하여 反民族的으로 활약하는 土着資本, 다시말해 買辦資本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외국자본과 매판자본의 結탁으로 인해 민족적 成長 잠재력은 더욱 많이 수탈되며 從屬에서 헤어날 가능성은 날이 갈수록 희박해 지는 것이다.

또한 買辦資本의 개입으로 인해 한층 더 深化된 종속상태는 결국 주변국 내의 경제·사회적구조를 분해시키고 再編成하는 단계에까지 이르게 된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落後된 발전단계의 克服은 불가능해지며 이러한 惡循環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新帝國主義의 侵略手段으로 看做되는 外國資本과의 連繫를 斷絶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같은 내용의 매판자본론은 中南美의 특수한 狀況을 배경으로 從屬理論의 한부분을 이루면서 生成·發展되어 왔던 것이다. 그렇지만 現實批判을 위해서는 냉철한 分析이 선행되어야 한다.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買辦資本論의 핵심적 概念인 매판자본이라는 용어자체가

특수하고 구체적인 現實에 相應하는 객관적 존재양식으로 엄밀히 정의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마음대로 해석될 수 있는 소지를 남겨 놓았다.

매관자본론은 後進國의 모든 구조적인 경제문제를 외국자본과 매관자본의 결합, 특히 외국자본의 逆機能에서 비롯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論理는 西歐의 정통적 發展理論이 後進國의 모든 경제 停帶 現狀의 원인을 後進國 내부에서 찾으려고 했던 것과 동일하게 後進國의 經濟落後의 원인을 先進國의 책임으로 전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매관자본론의 이러한 주장을 일단 수긍한다고 해도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誤謬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買辦資本論은 모든 문제가 내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외생적인 것이라고 간주하였기 때문에 스스로의 잘못된 경제개발정책에 대한 자주적 반성의 기회가 상실된다.

둘째, 資本이 갖고 있는 원래의 屬性을 잘못 이해하는 誤謬를 범하고 있다. 즉 가능한 더욱 많은 利潤을 획득하기 위해 움직이는 것이 자본의 屬性인 바 이를 이해하고 그 가능한 被害에 대하여 국민적 合意를 바탕으로 대처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外國資本이 갖는 有益한 역할마저 부정하려고 한다.

세째, 이와 같은 誤謬를 내포하고 있는 買辦資本論을 추종하게 되면 未開發의 상태는 더욱 오래 지속될 위험이 커지는 것이다.

以上 세 가지 誤謬 이외에 매관자본론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弱點은 모든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종합적인 觀點에서 관찰하지 않고 資本이라는 하나의 生産要素를 중심으로 다른 모든 생산요소들을 그 下位에 세워놓은 理論이라는 점이다.

買辦資本論은 특히 인간이 수행하는 정신적·육체적 노동의 중요성을 지나쳐 버려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자체적 力量을 스스로 부정하는 모순에 빠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買辦資本論은 자본주의의 경제질서 파괴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산주의의 世界赤化戰略과 脈을 같이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買辦資本論은 오늘날 공산주의국가에서 시도하고 있는 제 3세계 전략인 統一전선전술을 실천하기 위한 하나의 方法論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똑바로 인식해야만 하는 것이다.

## 5. 解放神學

解放神學은 대체로 라틴아메리카에서 일어난 神學으로 억압당하고 있는 民衆들을 해방하기 위한 운동의 이론적 기반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것은 라틴아메리카의 社會環境 속에서

宣敎活動에 나섰던 改新敎 교역자와 가톨릭 사제들이 그 사회에서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신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努力하는 가운데 형성되었다.

解放神學者들은 종래의 종교가 개인영혼의 구제에만 목적이 있다고 지적하고 보다 중요한 것은 理想的인 인간사회를 이 地上에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방신학자들이 주장하는 理論의 核心 내용은 해방이며 이 해방은 인간의 人間化를 저해하는 모든 형태의 억압과 착취로부터의 해방, 즉 정치적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다.

해방신학자들에 의하면 라틴아메리카가 경제개발정책에 실패한 원인은 世界經濟를 좌우하는 先進資本主義 국가의 착취와 이들과 결탁한 국내의 利權官僚나 단체들의 억압에서 비롯된 것이며 따라서 이들의 支配로부터 해방되는 것 만이 本國의 개발을 성취하는 條件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解放神學論자들은 전통적인 基督教觀에서 설명되고 있는 罪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역사적, 사회적 억압으로부터의 해방과 경제적, 문화적으로 從屬되어 있는 買辦企業, 매관료로부터의 해방을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 해방신학자들은 전통적인 基督教神學으로 벗어나 下層階級을 중심으로 한 민중교회를 제시하여 이들에게 계급적 基督教觀을 意識化시키고 있다.

解放神學은 자본주의를 社會惡이자 罪의 根源으로 규정, 자본주의를 타도하는 것이 해방이라고 주장하면서 예수를 정치적 메

시아, 해방자, 혁명지도자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觀點에서 解放神學은 神學을 政治化시키는 한편 階級主義 신학을 지향하여 壓制者(지배자, 착취자)와 被壓制者(눌린자, 가난한자, 피착취자) 계급으로 나눈 다음 教會는 疏外당하고 있는 피압제자의 편에 서서 壓制者의 정치적·경제적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의 실천을 위해서는 社會主義革命을 해야 하는 바 그 혁명은 暴力手段을 동원해도 정당화된다는 論理를 전개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解放神學은 라틴아메리카의 從屬理論에다 공산주의의 프롤레타리아 革命論을 모방하여 교회가 현실참여를 통해 정치적·경제적 억압으로부터 고통을 받는 後進社會를 해방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므로 解放神學은 순수신학으로 보기 어려우며 하나의 정치적·사회적 革命 이데올로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上記와 같은 解放神學은 根本的인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批判的 受容態度를 堅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해방신학이 神의 存在를 부정하고 體制 파괴적이며 원한의 논리로 일관하는 마르크스思想을 어떤 형태로든지 受容한다는 것 자체가 근본적인 모순이다.

현실적인 면에서 보더라도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마르크스의 社會主義 생산양식론보다 훨씬 경제발전적임을 입증하고 있음에 반해 마르크스이론을 실천한다는 공산주

의 사회의 현실태가 더심한 貧困과 착취와 탄압과 階級對立을 연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시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解放神學이 주장하는 暴力革命 자체가 신학적으로도 非道德的이며 비 기독교적임을 시인하고 보편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참된 神學이 되어야 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 中南美의 解放神學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그 영향을 받아 70년대 이후부터 일부 急進的인 과격신학이 民衆神學을 표방하면서 교회의 現實參與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은 자본주의 体制의 모순과 그에 따른 富의 불균등의 현안문제를 침소봉대하면서 경제발전을 위축시키는가 하면 國民和合을 저해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해방신학은 첫째, 南美的 특수한 狀況을 그 背景으로 삼고 있다는 점. 둘째, 韓國의 경우 解放神學者들의 주장과는 달리 제3세계에 비해 對內外的으로 건실한 經濟發展을 하고 있다는 점. 셋째, 특히 해방신학이 階級對立과 暴力革命을 조장하고 궁극적으로 사회주의 건설을 지향하는 등 마르크스주의를 社會分析의 道具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批判的 受容태도를 堅持해야만 하는 것이다.

## 6. 結 論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急進左傾思想 전반에 걸쳐 흐르는 공통적인 基本論理

는 수탈과 착취계급인 支配勢力과 피착취 억압계급인 民衆勢力이라는 계급투쟁론적인 2분법에서 출발, 현실을 分析하면서 자본주의의 모순점을 비판한다는 점이다.

急進左傾思想의 신봉자들은 支配와 착취라는 모순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暴力의 사용을 긍정하면서 民衆이 主体가 되는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明若觀火한 것은 民衆이란 말처럼 애매하고 감상적인 용어를 정치적인 主体로 들고 나왔던 權力치고 全體主義化되고 독재정치화되지 않은 예가 없으며 勞動者, 農民을 선동하기 위한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현실을 부정·파괴하기 위한 용어로서의 사회주의를 국가이념으로 채택한 국가치고 國富增進에 실패하지 않은 국가가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急進左傾思想은 모두가 우리의 토양에서 자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환경적인 여건이 상이한 지역에서 발생하였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 나름대로의 확고한 批判能力을 배양해야만 할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 내부에는 비록 극소수이긴 하지만 急進批判 運動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 급진비판 운동자들의 이론적인 배경인 急進左傾思想에 대한 비판적 능력의 견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다.

## ■ 특집 : 정묘년의 한반도 안보

# 우리 經濟現實과 対応

金 雋 鎬

〈事務官·經濟企劃院〉

### 1. 머리 말

**우** 리 經濟의 實相을 理解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하여는 우리 經濟가 어느 정도 發展되어 있는가, 지금 段階에서 부딪치고 있는 問題는 무엇이며, 앞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한다.

經濟의 現實과 座標에 대한 正確한 認識과 理解가 없이는 아무리 우리가 經濟問題를 걱정하더라도 生産的인 것이 될 수 없으며, 持統的인 經濟發展을 뒷받침할 수 있는 各 經濟主体의 合理的 經濟行爲도 期待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觀点에서 우리 經濟의 持統的인 發展을 위한 各自가 하여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이야기 하기 앞서 우리 經濟의 발전모습과 過程,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課題를 먼저 살펴 보고자 한다.

### 2. 우리 經濟의 回顧

#### 가. 우리 경제의 발전모습

우리 경제는 지난 '60~'70년대 세계에서 그 類例를 볼 수 없는 高度成長으로 絶對的인 貧困狀態에서 벗어나 新興工業國으로 불리면서 先進化를 향해 끊임없이 모두가

노력하고 있다.

不過 20年이라는 짧은 期間에 가난한 農業爲主의 經濟에서 脫皮하여 다른 先進國들이 100余年에 걸쳐 이룩한 工業化에 成功하였고, 그 結果 이제 우리는 世界에서 國民 總生産을 集計하는 108個國 가운데 19位 ('84年 기준, The World Bank Atlas 1986)를 記錄하면서 1人당 所得 2,000弗을 넘어서는 中進國의 하나로 浮上하였다.

### 나. 어떻게 發展해 왔는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 經濟가 그 짧은 期間에 이와 같은 發展을 이루어 볼 수 있었는가?

돌이켜 보면, 우리가 經濟開發을 始作한 '60年代 初盤은 6·25戰爭의 傷痍가 채 아물지 않은 狀態였고, 그 當時의 經濟與件은 國土는 좁고 人口는 많은데다가 賦存資源도 거의 없는 狀況이었다.

唯一하게 가진 資源이라고는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當時 우리가 選擇할 수 있는 經濟開發의 戰略은 그 많은 人的 資源을 어떻게 効率的으로 活用할 수 있느냐 하는 方向에서 밖으로 눈을 돌려 輸出을 中心으로 經濟의 活路를 開拓해 나가는 일이었다.

이를 위해서 우선 工場을 짓고, 工場이 돌아 가도록 電力施設을 擴充하고, 道路를 만드는 등 社會基礎施設을 갖추어야 했으나, 當時의 낮은 所得水準과 貧弱한 國內貯蓄水準으로는 도저히 이를 堪當할 수 없어 外國資本을 導入하여 不足한 國內貯蓄을 메

오늘을 사는 이 땅의 우리들은 우리 經濟에 대한 正確한 認識을 바탕으로 各自가 國家經濟의 主人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깊은 省察과 다짐이 있어야 하겠다.

꾸는 方法을 選擇하게 되었다.

以上과 같은 戰略에 “우리도 꼭 잘 살아야 하겠다” “우리 後孫에게는 결코 ‘가난’이라는 恨을 물려 주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國民의 끈질긴 執念과 한결같은 發展意志가 한데 結合되어 우리는 오늘날과 같은 經濟發展을 이룩해 온 것이다.

만약 그 當時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운 經濟與件에서 輸出市場의 積極的 開拓, 外資의 導入·活用이라는 要素들을 結合시키는 智慧와 國民의 團合된 發展意志가 없었다면, 과연 우리가 지금의 中南美地域이나 東南亞地域의 一部 國家들보다 더욱 發展된 狀態에 到達할 수 있었겠는지 斷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60年代 中盤까지만 해도 아시아 後進國들 가운데 比較的 앞서 있던 버마가 經濟發展의 活路를 안에서 찾는 소위 “對內指向的 開發戰略”의 채택으로 오늘날 1人당 所得 200弗에도 미치지 못하는 最後進國의 하나로 轉落했다는 儼然한 現實이 바로 이를 實證的으로 뒷받침해 주고 있다.

家庭에서도 子息이 많아 教育시킬 能力이 없으면 그 중 가장 有望한 子息을 가려서

級學校에 進學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經濟開發을 始作한 '60年代에는 限定된 投資財源을 効率的으로 活用하여 可能的 짧은 期間에 最大限의 成果를 올리기 위해서 工業化에 最優先順位가 주어졌고, 大量生産의 利點을 活用해서 生産에 必要的 費用을 最大限 줄여 나가려는 소위 規模의 經濟를 追求하여 大企業을 中心으로 한 成長戰略이 採択되었다.

그리하여 '60年代에는 일손이 많이 들어가는 纖維, 合板, 신발産業 등 소위 單純勞動集約的 輕工業에 重點 投資하고, '70年代에 들어서면서부터는 '60年代의 成果를 바탕으로 農漁村 開發과 함께 熟練된 勞動者를 必要로 하는 機械, 造船, 電子産業 등 重化學工業의 建設에 着手하였다.

그러나 '70年代의 産業高度化 過程은 外部에서 밀어닥친 두 차례의 石油波動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그 結果 우리 經濟·社會에 적지 않은 弊害와 副作用을 가져오게 되었다. 石油값은 몇 배씩 뛰어 오르고, 거의 모든 國際 原資材 값이 暴騰하는 狀況下에서 우리는 이미 始作된 農漁村 開發과 重化學工業 建設에 많은 財源을 投入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것이 '70年代 後半에 이르러 우리 經濟에 많은 負擔을 안겨 주었던 것이다. 限定된 財源이 一部分野에 集中되고 無理한 財政支援에 따른 財政赤字가 繼續되어 非能率과 인플레 현상이 派生되었고, 여기에 生必品價格의 上昇과 國際 原資材값의 暴騰까지 加勢되어

우리 經濟의 體質은 인플레 속에 急激히 脆弱해지고, 여러 가지의 經濟·社會的 弊害를 가져오게 되었다.

即 産業은 對外的인 競爭力을 잃고, 企業은 技術開發과 經營合理化, 生産性 向上 努力을 게을리 하고, 不動産投機가 盛行하면서 低所得者와 俸給生活者의 生活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狀況이 인플레의 弊害로서 露出되기 始作하였던 것이다.

#### 다. '80年代 들어서의 經濟政策 基調

以上과 같은 經濟社會的 어려움 속에서 '80年代를 맞이한 政府는 무엇보다도 우리 經濟가 慢性的인 인플레現象에서 完全히 脫皮하고, 經濟構造를 能率的으로 再整備하여 앞으로 不確實하게 展開될 對外與件에 能動的으로 対応해 나갈 수 있는 經濟體質과 競爭力을 強化시키는데 經濟政策의 重點을 두게 되었다.

그러나 여러 해를 두고 經濟의 구석구석까지 스며든 인플레의 弊害와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깊이 뿌리박힌 期待心理를 말끔히 씻어내는 일은 하루아침에 쉽사리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各界各層 國民의 많은 苦痛이 隨伴되고 持續的인 努力을 必要로 하는 일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 5年間 勤勞者는 낮은 幅의 賃金上昇, 農民은 쌀과 보리의 낮은 取買價引上, 企業은 資金事情의 惡化와 原價切減努力, 政府는 公務員俸給引上 抑制 및 緊縮予算 등 各界各層의 國民 모두가 苦痛

을 分担해 올 수 밖에 없었다.

다음으로 政府는 우리 경제사회의 構造가 複雜・多樣化되고 있어 더 以上の 不必要한 政府介入이나 干涉은 오히려 經濟社會의 能率을 低下시킨다는 認識下에서 産業支援方式을 過去의 業種中心에서 機能中心으로 轉換시키고, 段階的인 金融産業의 自律化를 推進하고, 認・許可制度 등 各種 政府規制를 緩和 내지 簡素化시키는 등 自律政策을 積極推進하여 왔다.

아울러 우리의 産業과 企業의 競爭力을 提高하여 經濟體質을 強化해 나가기 위해 對內競爭 促進을 위한 制度的 裝置로서 公正去來制度를 마련해서 漸進的인 對外開放政策을 推進하여 왔다. 이와 같이 '80年代에 들어 經濟政策 基調를 轉換하고, 國民各自가 苦痛을 堪耐하면서 모두 한 걸음씩 讓步해 옴으로써 우리 經濟는 物價가 安定되고, 經濟體質이 強化되었으며, 特히 不動產 投機와 같은 不勞所得이 없어지고, 企業은 技術革新에 눈을 돌려 原價節減과 品質改善에 많은 努力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國際收支가 黒字로 돌아서고 貯蓄이 投資額을 웃돌게 됨으로써 우리의 오랜 宿願인 外債를 줄일 수 있는 契機가 마련되었을 뿐만 아니라 外債를 더 이상 지지 않고서도 스스로의 힘으로 커 나갈 수 있는 “自力成長時代의 開幕”을 펼치게 된 것은 온 國民의 舍心努力한 結果라 할 수 있다.

### 3. 우리 經濟의 課題와 対応

#### 가. 우리 經濟의 課題는 무엇인가?

그렇다면 우리 經濟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가?

우리 經濟는 지금 對內外的으로 해결해야 할 적지 않은 課題를 안고 있다. 對外的으로는 우리 商品에 대한 美國의 덤핑판정 등 主要 先進國의 保護主義 障壁이 높아가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中共을 비롯한 東南亞 國家의 追擊은 날로 加速化 되고 있는 實情이다. 게다가 그 동안의 經濟開發 過程에서 累積된 外債가 450億弗을 넘는 水準에 있어 經濟運用에 적지않은 負擔을 주고 있다.

또 '80年代 以後 推進하여 온 經濟安定, 自律, 開放, 競爭의 原理가 우리 經濟社會에 完全히 뿌리를 내리고 各 經濟主體들의 이에 대한 適應能力이 充分히 培養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對內的으로는 아직도 解決되기에는 時日이 必要한 農業과 工業, 都市와 農村, 大企業과 中小企業間의 不均衡, 企業家와 勤勞者間 또는 相互 다른 所得階層間의 葛藤 등을 發展的으로 解消시켜 나가는 일 역시 앞으로 解決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重要한 課題이다.

더우기 所得 2千弗을 넘어선 오늘날 各階層이나 經濟主體들의 漸增되는 欲求와 期

待水準을 어떻게 우리 經濟能力이 許容하는 適正한 範圍內에서 管理해 나가고 앞으로의 發展에 必要한 實踐으로 誘導하느냐 하는 것도 매우 重大한 課題로 登場하고 있다.

#### 나. 앞으로 어떻게 対応해야 할 것인가?

以上과 같이 밖으로부터의 새로운 挑戰과 試鍊이 밀려오고, 안으로는 解決해야 할 課題들이 적지 않은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마침 '86年들어 原油價下落, 國際金利下落, 「엔」貨價値의 上昇 및 달러가치의 下落이라는 3低의 好機를 맞아 우리 국민은 이에 대처하여 기민하게 우리 經濟에 有利하도록 最大限 活用함으로써 40億弗 정도의 黑字를 내는 經濟運用上의 획기적인 轉換期를 맞이했다 하겠다. 이것은 中東建設 붐으로 黑字를 냈던 '77年 한 해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黑字를 낸 적이 없는 우리 經濟로서는 대단히 경사스러운 일임에 틀림없다. 실제로는 다른 나라들도 3低현상을 다 같이 누리면서도 많은 나라들이 國際收支를 크게 改善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중남미 국가들이 가중되는 외채부담으로 상환불능 선언을 한 事實은 우리와 좋은 對照를 보이고 있다.

지난 '80年代 前半에 物價安定 바탕 위에서 內實있는 성장을 이루는데 4~5 年이나 걸렸듯이, 모처럼 맞은 黑字基調를 持續시키기 위하여는 最小限 2~3年間은 黑字基調의 定着을 最優先 經濟政策으로 삼아

'90年代 初盤에는 黑字經濟를 完全히 體質化하고 '90年代 中盤에는 현재의 日本처럼 對外資産이 總外債를 앞지르는 債權國의 면모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黑字基調로의 順調로운 進行은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이를 위해서는 참고 人내하며 “한국국민은 일벌레”라는 별명을 들을 정도로 열심히 제품 하나 하나의 끝 마무리 손질에 정성을 들여 만들어야 할 것이고, 어느 분야에서든 끊임없는 自己革新의 努力과 제 1인자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무슨 일에도 몸과 마음을 바치는 魂신의 정열을 불태우는 正心력을 發揮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기회를 잘 살리지 못하고 점차 증대되는 國民 各界各層의 欲求에 맞추기 위해 지금까지 國民 모두의 合心 努力으로 다져온 安定基盤을 무너뜨려 각자가 요구하는 임금도 올리고, 농민이 요구하는 取買價도 올리고 기업이 요구하는 돈도 풀고…… 하는 인기에 편승하는 經濟정책을 펴 나간다면 우리 經濟는 어디로 치달을 것인가? 만약 이렇게 해서 일시적으로는 內需는 振作되고 경기는 좋아질지 모르나 物價가 오르게 되어 우리 商品의 對外競爭力이 弱化됨으로써 輸入은 늘어나고 輸出도 여의치 않게 되는 동시에 저축이 되지 않아 투자재원이 우리 손으로 마련되지 않으므로 해서 또 다시 외자에 의존하게 되어 外債圧迫에 經濟運用의 어려움을 안겨 주어 애쓰고 達成해 놓은 黑字基調에서 뒷

걸음 처진다면 이것은 누구의 責任이 되겠는가?

또한 輸出이 잘 안 됨에 따른 실업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지 않아도 對外開放의 뜻을 잘못 理解한 一部 階層의 外製選好傾向과 過消費風潮가 根絶되지 않고 있는 現實에서 과연 저축분위기를 해치는 消費를 부추겨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간단히 말해서 이 세상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써야 할 사람은 많고, 즉 자원은 有限한데 人間의 欲求는 無限하므로 우리 모두는 항상 적당한 선에서, 분수에 맞는 선에서 자기 스스로가 合理的인 選擇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들 각 개인은 欲求와 期待를 적당한 선에서 스스로가 管理해 나갈 때 이 나라의 經濟發展의 原動力을 끊임없이 힘차게 先進化의 길로 치달려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結局 우리는 앞으로 對內的으로는 物價安定基盤을 더욱 確固히 定着시키고 汎國民的인 外債節減努力을 強化해 나가며, 對外的으로는 先進國의 保護主義障壁에 能動的으로 對應해 나가면서 國際收支의 黒字基調를 꾸준히 定着시켜 나감으로써 純外債없는 自力成長의 튼튼한 基盤을 構築해 나가야 할 責任과 義務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責務를 誠實히 遂行해 나가기 위해서는 過去 어느 때보다 온 國民의 苦心

努力이 絶對적으로 必要한 時点이라 하겠다.

우리는 過去 20余年間 온 國民의 團結된 意志를 바탕으로 어려운 經濟与件과 逆境을 슬기롭게 克服하고 急速한 經濟發展을 이룩해 온 底力을 가지고 있거니와, 앞으로도 우리 國民 모두가 合心하여 知慧와 슬기롭게 가지고 對應해 나가면서 우리 앞에 놓인 課題의 실마리를 하나씩 하나씩 着實히 풀어나간다면 우리가 바라는 先進經濟圈에의 進入은 分明히 可能하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볼 때 經濟主体인 政府·企業·家計가 正確한 經濟現實의 認識과 理解를 바탕으로 各自 自己의 맡은 바 하여야 할 일을 보다 充實히 實踐해 나가는 일이어야 말로 우리 經濟의 將來를 左右하는 決定的인 要件이 된다 할 것이다.

#### 4. 우리 各自의 할 일

##### 가. 現代經濟社會와 나

오늘날 經濟가 發展되고 複雜·多樣化 되어감에 따라 經濟社會에 있어서 나 自己의 役割과 責任은 그 比重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 社會의 構成도 “나”라는 한 사람으로부터 出發되고 나는 바로 나라 經濟의 主人인 國民의 한 사람으로서 各自 맡은 分野에서 最善을 다하는 자세를 갖추어 나갈 때 자신에게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라는 社會의 發展을 가져 온다는

사실을 再認識하여야 하겠다. 따라서 家計의 一員으로서이자 社會의 構成員으로서 우리 各自의 役割은 실로 莫重한 것이 아닐 수 없다.

## 나. 우리 各自의 할 일

앞에서 우리 經濟의 앞길에는 解決하고 克服해 가야 할 적지 않은 課題들이 놓여 있고, 이를 解決하기 위해서는 各 經濟主体들의 經濟現實에 대한 正確한 理解와 맞은 바 일의 充實한 實踐이 必須不可缺하다는 것을 強調한 바 있다.

그러면 우리 各自에게 要請되고 있는 하여야 할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하자.

앞에서도 言及한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國際收支의 黒字時代로 힘차게 進入하여 自力成長의 기틀을 튼튼히 다지기 위한 努力이 切實히 요구되는 시험에 서 있다. 우리는 지금 450億弗이 넘는 外債를 안고 있다. 外債는 基本的으로 벌어들이는 外貨보다 쓰는 外貨가 많을 때 쌓이게 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國際收支의 赤字가 되기 때문에 輸出을 늘리고 輸入을 節約해 나가는 것이 外債를 줄여 나가는 基本이 된다.

多幸히도 지난 5年間 物價安定基調가 確立되어 国内貯蓄이 빠른 速度로 늘고 있고, 이에 따라 外債없이도 投資財源을 自力으로 調達할 수 있게 되어 '86년부터 國際收支가 黒字로 돌아서면서 純外債는 서서히 줄어들어 '90年代 中盤에는 債權國으로 轉換하게 될 展望이다.

그러나 이러한 國際收支의 黒字基調로서의 持續的인 擴大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며 우리의 消費水準을 분수에 맞게 줄여 나가면서 輸出이 持續的으로 伸張되어야 만 可能한 것이다. 또한 國際情勢란 항상 급변하기 쉬워서 우리가 누려오고 있던 3저의 호기도 언제 어두운 먹구름으로 변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이와 같은 見地에서 대외경제 여건이 不利해질 때를 憵備하여 앞으로 2~3年間 대외여건의 호전이 持續되리라는 展望下에서 그 동안에 우리의 經濟體質을 한층 더 튼튼히 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黒字基調를 體質化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금처럼 美國에서 벌어들이는 흑자로 일본에서 생긴 적자를 메꾸어서는 우리의 수출을 계속 늘리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우리의 수출을 늘리되 外貨稼得을 보다 重視하는 內實있는 輸出戰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상품 "Made in Korea"를 전 세계 구석구석에서 볼 수 있는 "전 세계를 向한 輸出戰略"이 있어야 하겠다.

그리고 앞으로의 21세기는 尖端技術에 의해 모든 산업이 움직이게 될 것이므로 첨단기술에 대한 연구와 개발을 끊임없이 추진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産業界와 大學, 研究機關이 협조체제를 이룩하고, 기술시대의 主役인 高級頭腦와 機能人力을 배출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하겠다.

國際化時代에 対応하여 主要先進國의 開放要求에 수동적으로 대처하기 보다는 政府間 그리고 民間次元의 通商協力을 더욱 強化하고 한편으로는 開放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개방이익이 극대화 될 수 있는 國益 優先의 통상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70年代 後半 先進國의 開放壓力이 없을 當時부터 우리 스스로의 自主的·能動的 選擇으로 開放施策을 推進해 오고 있다. 最近 美國의 開放壓力이 強化되면서 一部 國民들은 先進國의 不當한 壓力이나 要求에 따라 政府가 受動的으로 開放을 推進하고 있는 것처럼 誤解하고 있으나 政府는 우리 産業의 對外競爭力을 強化하고, 消費者의 選擇權을 保障해 줌으로써 國民福祉를 向上시킨다는 觀點에서 이미 '70年代 後半부터 漸進的으로 開放施策을 펴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開放施策의 推進過程에서 開放의 趣旨를 理解하지 못한 一部階層의 지나친 外製選好 風潮가 도사리고 있는 것은 빨리 불식되어야 할 것이다.

以上에서 우리는 消費水準을 분수에 맞게 줄여나가며, 黑字基調를 體質化 해 定着시켜 나가고, 첨단기술에 대한 연구와 개발 및 국제화시대에 대응하여 국익에 우선하는 통상전략을 통하여 개방이익을 극대화하여야 함을 들어 보았다. 그럼 중점적으로 우리들 각자가 해나가야 할 일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合理的인 消費生活을 營為하면서 貯蓄

하는 習性을 生活化 해 나가는 일이라 하겠다.

오늘날의 잘 사는 先進國들 처럼 우리도 現在보다 더욱 풍요로운 未來의 삶을 누리 기 위하여는 日常生活에 있어 衝動的·誇示的이고 自己분수에 맞지 않는 消費行爲를 最大限 自制할 줄 알아야 하며, 값비싼 外國製品이나 有名商標가 붙은 製品만을 無條件 믿고 選好하는 잘못된 消費風潮를 버리고 各自가 知慧와 즐거움을 가진 “生活의 經濟學博士”가 되겠다는 信念으로 合理的인 消費生活을 해 나가야 하겠다.

이와 같은 合理的인 消費生活과 아울러 淸淨이라도 “티끌모아 泰山”이 된다는 생각으로 항상 이를 貴重히 알고 貯蓄하는 習性을 生活化함으로써 每事에 짜임새 있고 計劃性 있게 日常生活을 運營해 나가야 할 것이다. 貯蓄은 個人的으로는 將來를 對備해서 오늘의 消費를 自制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나 國民 한 사람 한 사람의 貯蓄이 모아져서 획기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産業施設과 企業資金으로 活用되고 自力成長時代를 持續시킬 수 있는 重要한 意味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 5. 맺 음 말

앞에서 우리는 우리 經濟가 어느 程度 發展되어 왔는가, 지금 段階에서 부딪치고 있는 問題는 무엇인가, 앞으로 解決해 나가야

할 問題는 무엇이며 이를 위해 要請되는 우리 各自의 할 일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살펴 보았다.

우리 경제는 아직은 先進國의 문턱에 이르지 못했으나 1人當 所得 2,000弗 水準을 넘어서서 全般的인 經濟力面에서 빠른 速度로 先進經濟에 接近해 가고 있다.

그러나 일찌기 先進國들도 經驗했던 바와 같이 1人當 所得 2,000弗 水準의 狀況은 經濟社会的 變化가 매우 빠른 時期이며, 特別히 國民의 物質的 消費水準이 크게 膨脹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우리의 경우에도 냉장고, 세탁기와 같은 耐久消費財의 수요가 급증하고, 中間所得 階層의 消費가 高級化 되어 가는 등 類似한 양상을 보이고 있거니와 이러한 消費는 可視的이므로 그 波及效果가 빠르고 크며, 國民들의 期待消費水準을 上昇시키고 있다. 또 一部 國民 가운데는 消費가 美德인 풍

요로운 사회에 사는 것처럼 生活하는 階層이 存在하고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를 冷徹한 立場에서 바라보면 우리의 所得水準은 아직 好衣好食하고 사치할 수 있는 풍요롭고 余裕있는 段階는 결코 아니며, 아직도 우리 經濟에는 解決하고 克服해 나가야 할 일이 적지 않다.

따라서 오늘을 사는 이 땅의 우리들은 우리 經濟에 대한 正確한 認識을 바탕으로 各自가 나라경제의 主人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깊은 省察과 다짐이 있어야 하겠다. 특히 自力成長時代를 계속 꽃피워 머지않은 장래에 債權國으로 도약하고 선진 복지국가에 이르는 길은 우리 각자가 하여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일단 시작된 일은 반드시 해내고야 말겠다는 굳은 의지와 강한 추진력을 발휘하여 나갈 때 「可能性」이 「現實」로 보다 빨리 눈앞에 다가올 것이다.

# 北傀의 88서울올림픽대회

## 妨害策動



鄭 雲 宗

〈경향신문 기획위원  
정경연구소〉

1

**북** 한공산집단은 '88서울올림픽 개최를 내심 못마땅해 하는 정도를 넘어 이를 방해하려 온갖 책동을 다 벌이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4월 6일 소위(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의 「白書」라는 것을 발표하고 『제24차 올림픽을 서울에서만 진행하는 것을 반대하며 조선의 북과 남이 공동으로 주최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서울이 갖가지 여건상 國際行事 개최지로 적합치 않다』는 논

리를 펴고 있다. 심지어 『무서운 공해지대일 뿐 아니라 전염병의 만연지대로 AIDS(후천성 면역 결핍증) 환자만도 60만명이 넘는다』(노동신문 '86. 4. 7) 등의 허위선전을 늘어 놓고 있다. 신문 방송 등 선전매체를 통한 모략 비방 선전과 함께 지난해 8월 28일에는 평양에서 청년학생들을 대거동원한 가운데 이른바('86아시아경기대회 규탄 평양 청년 학생집회)를 개최한 것을 필두로 30일에는 남포에서, 9월 1일에는 황성에서 그리고 9월 3일에는 사리원에서 각각 군중집회를 개최 아시안게임 비난 책동을 일삼았다.

북괴의 '88서울올림픽 방해책동은 이미 성공적으로 끝난 '86아시안게임을 겨냥, 여러모로 확대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각종 선동집회에서 나온 비방구호도 악의적인 것들로 가득차 있다. 각국 선수단의 신변보장과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모의 훈련과 경비활동을 『야수적인 탄압책동』 『民族 내부의 반목과 이간을 격화시키고 대결과 분열을 고취하려는 책동』 운운하며 『아시아 경기대회를 반대 배격하는 노동자·농민 청년학생들에게 열렬한 지지와 성원을 보낸다』 운운하며 일부 과격학생들의 소요를 부채질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북한은 또 지난해 9월 1일 대남흑색선전기구인 소위 「한국민족 민주전선」 일본 대표부들을 앞세워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회 불참을 선동하는 「아시아 각국의 정부와 정당 단체들과 체육인사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북한공산집단의 '86·'88방해책동은 특히 많은 나라들이 서울올림픽에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등 올림픽 불참을 노골적으로 권유한 내용들을 비롯해서 「올림픽 개최장소로 설정된 서울의 경기장과 체육시설들이 국제경기를 할 수준에 훨씬 미달하는 한심한 상태」라는 등의 언동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 다시말해 그들은 서울이 올림픽 개최지로 「不適」하다는 주장에서부터 이른바 「두개조선 조작」 등 정치적 모략 비방을 담은 내용들로 집약된다.

## 2

북한공산집단의 이같은 '88올림픽 방해책동은 다음 몇 가지 점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첫째는 서울올림픽개최가 성공적으로 치루어졌을 때 상대적으로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한국의 국제적 지위향상을 매우 못마땅해 하고 있음을 들 수 있다. 서울올림픽의 개최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주도적 입장을 한층 강화시켜 주는 계기가 된다.

'88서울올림픽 개최는 경제적으로 한국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의 산업발전면에서 이를 전망해 보면 올림픽 관련사업을 위해 2조 4천억원의 자본이 투입되고 이렇게 되면 여러 산업부문에서 연관효과를 파급시켜 결과적으로 각종 산업부문에서 더 많은 액수의 생산이 증대될 것이며 그에 따라 국민의 소득과 고용이 증가될 것이다.

산업별로 보면 '88올림픽은 우리나라의 건설업은 물론 전자제품 등 여러 제조업 부문에서 생산 소득 고용효과를 유발하고 있다. 그밖에 대회 개최를 위한 각종 사회간접자본 투자는 우리민족의 영원한 재산이 됨은 말할 것도 없다. 전자, 통신, 관광 등 각 분야에 걸쳐 나타날 경제적 효과는 국력신장을 가속화시켜 명실공히 선진공업국가에로의 진입을 가능케 하리라 생각된다.

이렇게 볼 때 서울올림픽을 방해하려는

북괴의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는 자명해진다. 그것은 한국의 비약적 경제발전이 가뜩이나 격차가 벌어져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북한의 입장을 더욱 더 곤란케 하리라는 분석이다.

GNP면에서 5배이상 앞서 있는 한국경제는 서울올림픽 개최로 엄청난 선진경제 수준으로 발전할 것이며 상대적으로 열약한 북한경제의 취약성이 국제사회에 적나나 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서울올림픽 개최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올림픽 개최를 선진화의 계기로 활용한 일본의 경우만 하더라도 동경올림픽을 계기로 일본은 관련산업의 발전,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국민의식의 선진화를 기하였음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지위가 크게 향상됨으로써 일본의 경제와 사회를 앞당겨 선진화 하게 되었던 것이다.

일본의 경제학자들은 오늘의 선진 일본 경제가 동경올림픽만에 의해 이룩된 것은 아니지만 동경올림픽이 일본경제의 고도성장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고 분석하고 있다. 동경올림픽이 일본경제의 고도성장을 앞당기고 불붙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88올림픽으로 부강해 질 한국이 부럽다 못해 이제는 배가 아플대로 아파지지 않았나 생각된다.

### 3

북한은 또 '88서울올림픽 개최가 자신의 「적화혁명전략」에 중대한 차질을 가져다 준

다고 분석했을 것이 분명하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북한공산집단의 한반도 적화통일 전략은 폭력혁명에 의한 파괴를 주된 목표로 하고 있다. 그들은 항시 평화적 통일 방안을 추구하는 것처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무력과 폭력에 의한 남한 내의 혁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동시에 이를 실천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 그들은 남한 내에 공산지하당을 조직하고 그것을 핵심으로 한 소위 반미 구국통일전선의 결성과 탈권투쟁을 해야 하며 남북을 합동시키는 형식을 통한 공산화 통일의 실현이 그들의 속셈이다.

북한의 대남전략 저의는 특히 다음 몇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북한이 남북대화에 성의를 보이는 것 처럼 위장함으로써 그들의 국제적 이미지가 개선과 이를 토대로 경제난 타개를 노리는 점을 들 수 있다. 남북대화로 한반도에 긴장이 완화된 것처럼 보이게 하고 그것이 마치 북한의 화해주도로 이루어진 양허위선전함으로써 「랭군만행」으로 추락된 국제적 이미지를 개선해 보겠다는 속셈이 그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대화를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고 그 책임을 우리쪽에 전가시키는 수법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말하자면 和戰양면의 전술을 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로 노리는 것은 駐韓美軍의 조기철수 기도라 할 수 있다.

중공을 창구로한 대미우회 접근시도 그리고 이를 계기로 「3자회담」을 개최하고 궁

극적으로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그들의 대남전략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

세째로는 김정일 체제전환에 따른 대내적 갈등 해소를 들 수 있다. 강압적이고 교조적인 김일성 부자 세습체제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불만과 불평이 갈수록 팽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를 만회해 보려 획책하고 있다. 북한이 '88올림픽을 방해하려는 것도 따지고보면 이러한 대내적 갈등요인을 해소해 보겠다는 저의가 복합적으로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네째로 들 수 있는 것은 우리사회의 혼란과 국론분열 획책이다. 북한은 그들이 대화에 임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대내적 갈등을 해소하고 대외적으로는 위장평화공세를 펴나감으로써 국제여론을 오도하려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남북대화 진행 중에 땅굴을 뚫고 휴전선 부근에 공격 기갑사단을 전진배치했는가 하면 소련으로부터의 전투기 대량도입 등으로 나타난 북괴동향은 한마디로 말해 그들의 양면성을 적나라 하게 드러낸 실증들이다. 야누스적 속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북한 정체, 그것은 전쟁방지와 평화정책을 바라는 겨레의 여망에서 볼 때 갈수록 우리의 경계심을 고조케 한다.

#### 4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가 主人이 되어 치를 제10회 아시안게임은 참가선수단의 규모나 웅장한 경기장 및 첨단적인 부대시설면

에서 역대 어느 대회보다도 월등히 뛰어났다는 것이 세계 스포츠 전문가들의 일치된 평가였다. 당장 올림픽을 치러도 될만한 경기장 시설과 규모는 사마란치 IOC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밝힌대로 그 「완벽」함에 모두가 놀라움을 표시하고 있다.

'86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는 바로 '88서울올림픽의 디딤돌을 굳게 다진 점에서 지대한 성과를 올렸다고 볼 수 있다. '86아시아 경기대회의 성공은 특히 1년 후로 다가온 '88올림픽의 성공적인 완수를 예고해주고 있다. '84LA올림픽이 미국사람들의 결속을 다짐했듯이 '86아시안게임은 우리 민족의 영원한 결속과 전진, 그리고 번영을 약속해 주었다. 이번 아주대회에서 보여준 높은 문화수준 질서의식의 발양은 '88올림픽 개최 국민다운 면모를 아낌없이 과시했다고 볼 수 있다.

전세계 인류의 평화의 제전인 '88올림픽을 향한 힘찬 새출발 그 광파르는 대도약을 향한 일대 전기라 아니할 수 없다.

'88올림픽을 긴 안목으로 보면 민족통합을 평화적으로 성취하기 위한 제전이며 민족의 동질성을 평화적으로 회복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단일민족 국가로서의 통일을 평화적으로 달성하여 우리 민족의 존재양식을 영원히 보존하고 길이 빛내기 위해 민족의 창조적 지혜와 슬기를 총집결, 규합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런대도 북한공산집단은 엉뚱한 계략으로 우리를 기만하고 있다.

북한은 아시안게임을 비방과 방해만을 일삼아 오다가 24회 서울올림픽에 관해서는 「공동주최」만 실현되면 『통일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게 된다』(로동신문 6.30)고 하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 처럼 떠들어 대고 있다.

24회 서울올림픽을 남북한이 공동으로 개최하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논리는 억지에 지나지 않는다. 북한의 속셈은 서울에서 올림픽이 개최된다는 것이 참을 수 없을 패배의식과 모멸을 느끼게 함으로써 우선 반대해 놓고 보겠다는 것 밖에 안된다.

그리고 서울올림픽의 「공동주최」를 주장하는 것도 사실은 공동주최에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올림픽을 방해하려는 음모공작의 일환인 것이다.

북한이 진실로 서울올림픽의 공동주최에 뜻이 있다면 IOC의 권유와 한국측의 제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IOC주관 하의 로잔회담에서 몇개 종목의 경기 개최권을 북한측에게 주겠다고까지 했다. 이러한 IOC와 한국측 아량과 포용성에 비하니 북한측은 계속 편협된 생각으로 자신들의 고집만 앞세운다면 결국 북한측 손해로 끝나 버릴 것은 뻔하다.

중공은 물론 소련과 동구권도 서울올림픽에 참가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알려진 소식이다. 그런데도 북한공산집단의

서울올림픽에 대한 방해책동은 날이 갈수록 격렬해 지고 있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그것은 그들의 목적이 우리 내부의 혼란을 조장하려는 데 있음은 길게 설명할 나위조차 없는 일이다.

아직도 변하지 않은 북한의 赤化야욕과 서울올림픽 방해 책동이 갖는 반민족성은 6천만 겨레의 지탄과 응징으로 죄값을 지불하는 길 밖에 없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것은 대북경각심 고조다. 북한의 대남폭력 혁명노선이 달라지지 않았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북한의 모략과 비방 책동에 현혹되지 않도록 올바른 국제여론을 주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88올림픽을 통일접근의 시각에서 이를 이해하고 그러한 통일 접근논리의 실천이 민족 대화합의 전기로 나타나야 할 줄 안다. 북한의 '88올림픽 참가도 그런뜻에서 민족대화합의 대도에 동참하는 길이 될 것이며 비방과 모략으로 일관된 '88올림픽 방해책동을 즉각 중단하고 국제사회에서 한 민족의 자긍심을 마음껏 발휘하여 한 민족의 우수성을 만방에 과시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일 것이다. 북한의 '88올림픽 이해가 부정적이고 반 민족적인 것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자면 남북대화의 재개를 통해' 올림픽을 이해하려는 북한의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본다. 중단된 남북대화의 재개 이를 통해 民族의 화해와 통일기반이 구축되기를 간망해 마지 않는다.

# 금강댐, 그 감춘 뜻



李 己 玉

〈政博·漢陽大教授〉

**個** 人の生涯에도, 集團의 歴史에도

크고 작은 벽이 다가서는 마디들이 수 없이 있게 마련이다. 그것이 天災地變일 수도 있고 人間이 만든 덧일 수도 있다. 그러한 벽들이 挑戰이고, 個人이나 集團은 그 도전을 슬기롭게 받아 넘김으로써 生存하고 繁榮하게 된다. 그런데 만약 挑戰에 올바르게 대응치 못할 때 破滅이, 그리고 敗亡이 약속되는 것이다.

挑戰들은 天災地變으로 통하는 자연발생적인 것도 물론 있다. 그러나 人爲적인 것이 많고, 그것은 상대가 어떤 성격을 가진 個人이나, 集團이나에 따라 対応策도 달라질 수 밖에 없다.

人間의 行為는 道德, 倫理, 良心, 常識, 그리고 法律이라는 규제 장치에 의하여 濾過되고 規制되고 있다. 集團의 行為 역시 그와 비슷한 제동장치가 있다. 그래서 相對의 行為를 예상할 수 있고, 또한 어느 線에서의 規制觸發이 가능한가도 알 수 있기에 均衡과 秩序 속에 共存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전혀 초월적인 規制 不能性 異端兒라든가, 예측불능성 狂亂集團이 있다. 그래서 그런 存在를 만나 상대해야 하는 個人이나 集團은 비극적 상황에 있다고 한다.

北韓은 우리와 한 핏줄, 한 말, 한 글자, 한 文化, 한 歷史를 공유했기에 같은 모양새를 하고 있기에 우리 民族이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우리 意識(We Feeling)이라고는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予測不能性 狂亂集團이 되어 있는 저들과 休戰線으

우리의 능력이 하나된 意志와 상승효과를 나타낼 때  
저들이 망상을 버리고 理性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다.

어떠한 도발이라도 우리는 여유있게 봉쇄시켜 가면서  
우리 体制의 優越性和 合理性을 그들이 체득하여 승복하  
게 해야겠다.

로 이웃하고 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분  
명 비극적 상황이며 어쩔 수 없는 現實이  
요, 굴레인 것이다.

### — 금강댐 概觀 —

저들이 지금 일을 벌이고 있다.

이름은 금강댐.

위치는 休戰線 北方 10km.

강원도 창도군 임남리에 건설되고 있다.

그 규모는 길이 일천 일백 m, 높이 이백  
m, 완공시 총 저수량 200억t에 이른다. 참  
으로 엄청난 대규모다. 우리 나라 최대 규  
모댐인 소양댐의 7배에 달한다. 예상 수물  
면적만도 43개 里·뽕에 걸쳐 310km<sup>2</sup>, 삼만  
일천 정보다.

山川이 수려하기로 유명한, 그래서 失鄉  
民을 더욱 애절하게 하는 광범위한 地域이  
물 속에 흔적도 없어지는 결과가 오는 것  
이다. 그들은 주로 찰흙과 자갈, 모래 등을  
사용해서 건설하는 사력댐으로 築造하고 있  
다. 막대한 경비가 들 것은 물론이고, 저  
수량의 10%만을 水力發電用으로 쓰게 된

다니 완공 후 經濟性도 90% 死藏이라는 결  
론이다.

駐中共 北韓 大使가 밝힌 바에 의하면  
금강댐은 소련의 經濟援助로 이루어지고 있  
다고 한다. 自力이든 外債든 援助든 간에  
經濟的 막대한 投入이 부담이 될 것은 물  
론이고, 사후에 기대되는 產出이 10%의 効  
果性 밖에 없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經濟  
外的 目的性을 감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 금강댐의 영향 —

금강댐이 완공된 후의 예상되는 우리에  
게 미칠 영향을 개괄해 본다.

#### ○ 氣象變異에서 오는 영향

人工湖水가 氣象環境에 미치는 영향은 그  
규모와 위치에 따라 차이가 크다. 금강댐의  
경우, 소양댐 완공 후 춘천지방에 안개와  
서리 일수가 크게 증가한 것을 월등 능가  
하는 變化를 가져 올 것으로 본다.

특히 겨울철에 강원도와 수도권 일부지  
역에 暴雪 및 酷寒日數가 대폭 늘어날 것

이 예상된다.

### ○ 生態系에 미치는 영향

금강댐이 완공되면 北漢江 上流의 流入水量이 현재보다 58%나 減量, 북한강 상류의 유역제곡의 수위가 크게 낮아지는 결과가 온다. 生態系에 심각한 변화가 잇달아 발생하게 된다.

天然紀念物과 稀貴魚種으로 보호를 받으며 북한강에 棲息하는 황쏘가리, 열목어, 얼음치 및 빙어 같은 물고기류가 멸종될 것이고, 이곳에 棲息하는 수달도 먹이 감소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 ○ 우리 生活에 미치는 영향

그 뿐인가.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國民生活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다. 흐르는 물을 막으니 젖줄을 묶는 결과가 올 것은 불을 보듯 흰하다. 北漢江 水域의 流入水量이 확연히 감소하여 팔당하류에서는 하천 유지용 물의 부족현상이 생길 것이다. 그러한 물의 不足과 부족에서 오는 水質惡化는 生活 및 工業, 農業用水에 質的, 量的 지장을 漸增시킬 것이다. 자연 우리의 水力 發電量이 감소될 것이요, 하천 연안은 荒廢할 것이며, 漢江을 끼고 사는 우리 住民의 生活은 飢餓화 할 것이다.

### ○ 가장 두려운 영향

공사가 상당히 진척되는 과정에서, 또는 완공 후라도 人爲的이든 天災地變이든 故意

든 실수든 事故든 원인 여하간에 댐이 崩壞된다면 그것은 참으로 언급하기 곤란한 결과가 올 것이 뻔하다.

금강댐이 사력댐이고, 사력댐은 地震이나 洪水 등으로 붕괴 빈도가 콘크리트댐에 비해 잦다.

노아의 洪水?

交通·通信 마비, 그건 지엽적일 뿐이다. 상상 못할 물기둥이 모든 우리의 것을 흔적도 없이 쓸어버릴 것이다. 水素爆彈에 맞먹는 위력 운운 하지만——.

물을 이길 장사는 자고로 없는 법. 불이야 물로 다스리지만, 물은 다스릴 길이 없기에 제일 무섭다고 하는 것이다.

우리는 '75년도에 제 2의 越南일 것이다 라는 비양거림과 멸시를 밖으로부터 받았다. 그러나 묵묵히 建設했고, 도미노理論을 무색하게 했다. '85년에는 제 2의 필리핀이라는 소리를 안팎에서 해댔다. 그러나 만년을 무릅쓰고 그런 類의 말이 구현되지 못하게 조용히 均衡을 유지해 왔다.

지난해엔 '86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치러내면서 제 2의 日本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底力이요, 漢江의 奇蹟이다라고 내심 큰 자부심을 갖게 만든 우리가 건설해 놓은 모든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그 '우리가 건설해 놓은 모든 것'이 성난 물기둥에 쓸려 쓸대밭이 될 것이 예상된다라는 사실이다. 이것이야말로 國家 生存에의 도전인 것이다.

북한 측은 댐 건설목적이 순전히 北韓의

經濟開發에 있다고 電力供給, 農業用水供給에 역점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면 그 規模나 位置가 너무 非經濟的이고, 非合理的이라는 점에서 석연치 않다. 地理的 인접으로 인한 國家的 共有 河川紛爭이 있었던 사례는 歷史的으로 상당 수 있다.

최근에는 라인강 汚染問題를 놓고 관계 諸國間의 合意를 도출하는 과정을 우리는 지켜 보았다. 이렇게 해서 當事國間에 河川 共同協力 委員會를 조직하여 平和的으로 紛爭을 해결하는 것이다. 나아가서는 하천을 共同管理하여 相互 利益 極大化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그런데 우리의 현재 금강댐의 경우는 어떤가. 그 댐의 건설이 南韓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는 그들이다.

그러나 단 한 마디 의논이 없었다. 공사가 표면화 하면서 우리 측은 연일 계속적으로 糾彈, 抗議,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군중시위를 벌여오고 있다. 그러나 계속해서 묵묵히 비밀리에 공사를 추진시키고 있다. 그것으로 그들의 저의는 분명히 드러났다. 금강댐은 水資源의 武器化 術策인 것이다. 三國誌의 水攻法을 지금 설마 그렇게 고전적이라 하지만 그들 무기로써 무모한 불장난, 아니 어처구니 없는 물장난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水資源 무기화의 전력을 갖고 있다.

民族戰爭 中이던 '51년 5월에는 화천댐을 폭파시켜 我軍을 수장시키려 했었던 일

이 있었다. '46년 5월에는 연백평야의 수원인 구암저수지가 38線 以北에 위치한다는 조건을 무기로 썼었다. 물길을 끊어 이남지역 농사를 망쳐버렸던 것이다. '48년에는 당시엔 38도선 이북에 위치하던 화천댐의 방수를 차단하여 우리 측에 물 부족의 고통을 주었다. 分斷 초창기부터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괴롭혀 왔고, 무엇이나 무기로 삼았다.

금강댐은 대구폭동, 여순반란, 6·25, 1·12 청와대 습격사태, 육여사 시해, 무장간첩단 남파, 도끼만행, 땅굴파기, 아웅산사건 등 일련의 대남과외 전술 연장선 상에서 이해될 수 밖에 없다.

댐 건설은 의도적 도발인 것이다. 그들은 현재 世界 輿論에서 고립되어 있다. 우방이라고 믿는 共產國家들마저도 '社會主義의 異端兒', '反 共產主義 狂亂集團'으로 소외시키는 경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패쇄정책의 限界를 속속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금년에 서울에서 아시안게임이 성공적으로 치러졌고, '88서울올림픽이 전 세계 호응리에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狀況은 북측을 자극하고 초조하게 한다. 따라서 기상천외의 무엇인가를 시도해야 했고 그것이 금강댐인 것이다. 그 댐 공사는 완성되든, 또는 중단되든, 중단된다면 중단되기까지 건설되는 過程에서 다방면의 戰略的 음모를 내포한다.

지금 착공단계에서 예상되는 음모를 살펴본다.

첫째, 한반도의 南北紛爭을 國際社會에 부각시켜 자신들의 고립된 국제적 위치를 만회할 기회로 삼는다는 점. 오로지 經濟目的을 강조하여 우리측을 생트집 잡는 억지집단인 것으로 國際的 인상을 왜곡시켜 보려는 의도를 넣고 있다.

둘째, '88서울올림픽 전에 어떻게든 문제를 일으켜 南北 雙方 相互緊張을 고조시키고 적개심을 심화시켜 이를 계기로 軍事的 도발을 合理化 시키려는 음모를 담고 있다.

셋째, 항상 그들과의 대치관계에서 방어적 입장에 있는 우리의 대응자세를 예측하고 時間이 갈수록 經濟的 우위가 두드러지는 우리측 經濟力에 막대한 소모 내지 損失을 주려는 戰略的 음모를 감추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있을 리 없지 않은가.

이미 政府는 '平和의 댐'이라는 이름의 대응댐을 건설하기로 하고 全 國民 호응리에 모금이 진행되고 있다. 經濟力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하겠지만 그것은 그들의 錯誤다. 그들이 예상한 것 같은 타격없이 거뜰히 대응댐을 쌓을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그런 방어, 대응 목적만의 댐을 그토록 막대한 비용을 들여 건설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허망한 소모이긴 하다. 그러나 生存의 危脅으로부터 자기방어의 수단이라는 점에서 어쩔 수 없는 現實이다.

댐은 하루 이틀에 쌓아지는 것이 아니다. 금강댐이나 平和의 댐이나 같다. 그러기에 損失을 적게 하기 위해선 하루 빨리 공사

를 중단하고 망상의 꿈에서 깨는 것이다.

아무리 소련의 援助로 築造된다 하더라도 그렇다. 파탄에 직면해 있는 자신들의 經濟狀態를 고려하지 않고 그토록 대규모 댐 건설을 추진한다는 것은 또 하나의 기형인 것을 그들은 깨닫고 부끄러워해야 한다. 이 문제를 놓고 그 해결방안으로 몇 개의 案을 제시하고자 한다.

### ○ 對 北韓

共有 河川問題 協議 機構를 국제관계에 준해서 설치하자. 충분히 對話를 나누고 직접 南北韓 기술진에 의한 재 검토를 해야 한다. 규모를 縮小하든가, 위치를 바꾸든가, 또는 공사를 중단하든가 등 모든 決定이 合意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제도화가 시급하다.

### ○ 對 國際機構, 國際輿論

國際社會의 여론이 상식과 순리에 따라 국제관계를 어기는 북측의 만행을 간과하지 못하도록 동원 가능한 모든 外交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소련의 댐 건설 원조를 중단하도록 第3國을 통한 外交를 펴야 한다. 國際 司法裁判所에 제소해야 한다. 물론 判決이 決定되어도 当事者間에 협의하라는 判決일 것이고, 북측이 귀먹은 듯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측에 유리한 국제 여론조성에 작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北韓이 정상인의 常識이나 良心으로는 상

상할 수 없는 기상천외의 行動을 저지르는 집단이라는 사실은 世界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물을 水資源을 우리의 生存을 위협하는 가공할 무기로 쓰려는 금강댐 건설 따위의 협박, 군사적 모험, 책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의 対応策에는 留保가 없는 법이다. 그것을 그들은 알아야 한다.

또한 이러한 큰 挑戰 앞에는 우리 内部의 단합된 합의의 軸이 굳건해야 어렵지 않게 대응해 나갈 수 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그 어떤 구별도 이 문제 앞엔 있을 수 없다. 오로지 안심하고 살기 위한 方案을 창조하려는 단합된 意志만이 있는 것이다.

누가 우리의 安全을 지켜 주겠는가. 오로지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다. 우리의 能力이 하나된 意志와 상승효과를 나타낼 때 저들이 망상을 버리고 理性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다. 어떠한 도발이라도 우리는 여유있게 봉쇄시켜 가면서 우리 体制의 優越性和 合理性을 그들이 체득하여 승복하게 해야겠다.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 감으로써 우리 社會의 安定과 유지·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우리 社會가 안정될 때만 우리가 北韓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集團과 대치하고 있다는 비극적 상황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부디 금강댐이 基礎段階에서 중단될 수 밖에 없는 다면적 惡件 造成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일 뿐, 결코 우연이나 幸運의 소산일 수 없다. 現時點에서 금강댐 저지의 가장 효과적 方案은 우리의 확고부동한 一體感 造成을 통한 國民意志의 응결이요, 그 表出이라 하겠다.

# 金日成 死亡說의 顛末과 背景分析

北傀가 과연 일부의 관측처럼 남한과 美軍의 정보판단능력을 시험하고, 한국의 國際的 信賴度를 추락시키기 위해 죽지도 않은 金日成을 자연사도 아닌 「銃擊사망」 또는 「爆死」 따위니 自害수법을 쓰면서까지 사망설을 조작해냈을까, 그렇다면 그로 인해 저들은 구체적으로 무슨 이득을 얻었던 말인가. 오히려 자유세계로부터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해괴한 集團」이라는 나쁜 인상과 경제심만 살 뿐일텐데…….



지 용 우  
(경향신문논설위원)

## 3일간의 寸劇

**작**년 11월, 세계의 매스컴을 한바탕 흥분시켰던 金日成의 死亡說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됨으로써 3일 간의 寸劇으로 끝났다.

金日成의 死亡說은 그 이전에도 4차례나 있었으며 重病說은 수 없이 나돌았었다. 하

지만 그런 사망설이나 중병설은 대부분이 西方側 소식통을 인용, 보도한 뉴스였거나 北韓을 방문했던 日本여행자들의 입을 통해 퍼졌던 소문으로 어디까지나「說」이상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번의 사망설은 거의 사실인 것처럼 국내외 매스컴들이 취급함으로써 「金日成」이 드디어 죽었구나」하는 놀렘과 함께 快哉를 부르게 했다.

특히 金日成에 의한 北韓공산주의정권 수립 후 南北分斷의 고통 및 6·25 同族相殘, 그리고 지난 37년간 끊임없는 再侵 위협에 시달려온 우리국민들은 金의 사망으로 남북통일 실현에 어떤 결정적 轉機가 도래하는게 아닌가 하는 기대에 부풀었던게 사실이다.

그러나 그런 기대도 金日成이 3일 뒤 북한을 방문한 잠빈·바트문흐 蒙古국가主席 겸 인민革命黨서기장을 영접차 平壤공항에 나타난 것이 확인됨으로써 산산이 깨졌다. 바트문흐를 맞는 平壤공항에는 金日成 외에도 부주석 林春秋·李鐘玉, 외교부장 金永南과 인민군 총참모장 吳克列이 출영했음이 서방 주요통신과 中共관영 新華社통신, 그리고 북한의 중앙통신과 平壤방송 등에 의해 보도되었다.

그러면 어째서 휴전선일대의 北傀 스파이들은 멀쩡히 살아있는 金日成을 마치 狙擊을 받고 죽은 것처럼 슬프게 떠벌여 대고 장송곡같은 침울한 곡을 내보내고 半旗까지 거는 소동을 벌였을까.

## 休戰線 北傀障地の 異常氣流

한 마디로 西方側과 우리 국방당국까지도 金日成의 사망설을 거의 사실로 믿게 된 것은 북한사회에서는 완전히 神格化 되다시피한 金을 설마 「총맞아 죽었다」고 모독하면서까지 對南心理戰을 펼 이유가 있을까 하는 의문 때문이었다. 정상적인 상식으로 는 도저히 그런 奇想天外한 짓은 아무리 非理性집단인 북괴라 해도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북괴는 우리의 상식을 뒤엎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증거를 이번에 보여준 것이다.

그러면 金日成 사망설은 왜 그렇게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세계 매스컴의 촉각을 곤두세우게 했는가. 우리는 이 세기적 해프닝의 震源부터 캐보는데 이번 사건과 北韓의 권력구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金日成 사망설이 최초로 퍼진 곳은 日本이다. 週末인 11월 15일 하오 일본 외교가에 나돌기 시작했다. 사망설의 내용은 15일 상오 9시계 開城부근에서 金日成이 타고있던 열차에서 폭발물이 터져 金이 현장에서 사망했다는 사실을 駐韓美軍정보기관이 포착했다는 것이다. 이 소리가 東京주재 韓國특파원들에게도 수시간 뒤에 전해 졌고 韓日양국언론사에서 日本외교경로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국내 모일간지에 찔막

하게 보도되면서 삼시간에 충격적인 빅 뉴스로 확산되었다. 이와 때를 같이해 休戰線 일대에서도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西部전선쪽 北傀의 전방초소에 설치된 對南전선용 스피커에서 「위대한 아버이 金日成수령이 열차안에서 충격을 받고 서거하셨다」는 내용의 방송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게다가 金日成의 40년 통치업적과 金正日의 치적까지 나열됨으로써 日本에서의 死亡뉴스와 일치돼 金日成이 죽은게 확실하다는 心証을 굳히게 했다. 심지어 서부, 중부 및 동부전선의 북괴군 확성기들은 「金正日동지를 우리의 새로운 수령으로 모시자」는 방송까지 수십차례나 했음이 청취되었다고 한다. 우리 국방당국이 金의 사망을 단정하지는 않았지만 사망쪽으로 거의 기울어졌던 것은 비단 휴전선일대의 북괴대남방송만을 액면 그대로 믿었던 때문은 아니다.

「열차폭발설」과 「金의 사망설」을 제보했다는 유엔사의 통신첩보까지도 종합한데서 내린 결론이었다고 풀이된다.

### 高度의 心理戰說

그러나 이 모든 그럴싸한 諜報와 휴전선 일대에서의 북괴의 방송연극과 사망설을 둘러싼 갖가지 억측들은 金日成자신이 3일 후 平壤공항에 모습을 나타냄으로써 산산이 깨어졌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세기적 誤報」로 끝나지 않고 우리쪽 입장에서는 뼈아픈 致

命打를 안겨주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측 정보의 공신력이 이 사건으로 적지아니 추락되었을거라는 점이다. 金日成의 생존이 확인된 후 우리사회 일각에서는 즉각 정부와 언론의 발표와 보도과정에서 신중성이 결여되었고 침착하지 못했다는 비판론이 일었다. 북괴의 고도의 心理戰에 말려들었다는 혹평도 없지 않았다. 情報戰에 조예가 깊은 일본의 군사평론가 마쓰이 시게루(松井 茂)씨 같은 사람은 『북한측이 고의로 허위정보를 흘려 한국과 주한미군의 정보전달 및 반응경로를 알아보는 試圖일지도 모른다』고 논평했다. 최근 「수수께끼의 北朝鮮」이란 저서를 쓴 日本 산케이신문의 논설위원장 시바다 미노루(紫田 穂)씨는 『金日成의 사망소동극은 북한측이 韓國으로 하여금 허위보도를 하게 함으로써 한국의 국제적 信用度를 실추시킬 목적으로 조작한 사건』이라고 단정했다.

또 일부 북한문제 전문가들은 金日成·金正日 후계체제가 굳어지는 과정에서 권력내부의 충성심을 시험하고 反對勢力의 윤곽을 더욱 뚜렷하게 파악하기 위해 側近들까지도 감쪽같이 속이는 金日成死亡說을 퍼뜨려 본 게 아니냐고도 보고 있다.

### 北傀權力 내부의 變故說

이상과 같은 여러 갈래의 추정과는 달리 아직까지도 끈덕지게 나돌고 있는 것이 北韓권력구조 내부에 모종 變故가 있기는 있었다는 說이다. 하나는 金의 생존이 반드시

그의 정치적 健在와 동일시 될 수 없다는 視角이고, 다른 하나는 쿠데타 失敗說이다. 이중 쿠데타 실패설은 다시 吳振宇인민무력부장을 중축으로 한 이른바 革命 一世代에 의한 反金正日쿠데타 미수와 金正日 주변의 極左派에 의한 거사실패, 그리고 최근 金日成의 尙蘇密着에 불만을 품은 親中共派에 의한 거사실패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北韓 내부에는 金日成 40년 장기통치에 대한 염증과 공산주의국가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父子世襲체제, 그리고 계속되는 경제파탄과 그로 인한 인민의 궁핍 등이 복합적 요인이 되어 불만이 고조되어 왔다. 젊고 輕妄하고 안하무인인 金正日의 後繼체제에 대해서는 金日成과 함께 北韓 공산정권을 수립하는데 한 몫을 한 소위 혁명 1세대들로서는 못마땅하기 짝이 없는 일로써 그동안 심한 굴욕감과 불만을 품어왔으리라는 것은 짐작되고도 남는다. 金正日 후계가 표면화된 지난' 80년 6차전당대회 이후 혁명 1세대의 상당수가 권력일선에서 소외되었다. 金正日의 후계자 등장과정에서 혁명의 元老級들을 권력의 序列에서 물러나게 하고 대신 자신의 권력承繼에 필요한 新進인물들을 대거 기용하는 것이 불가피했던 것이다. 繼母와 이복동생과 叔父와의 갈등관계도 고려해 놓을 수 있다. 革命원로들의 석연치 않은 退陣과 죽음은 아직도 權力서열에 남아있는 혁명원로들을 불안케 하기에 충분한 것이다.

前인민무력부장이던 崔賢은 지난' 82년 2

월 金日成과 정치국에 金正日世襲후계 반대서한을 보내 정면으로 도전했다가 2개월 뒤 의문의 죽음을 당했으며 南日 역시 의문의 사고死를 당했다. 또 吳振宇가 얼마전 교통사고로 바깥출입을 못하고 있는 것도 權力內紛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周知하다싶이 金正日은 지난' 73년 이후 黨조직과는 별도로 3大革命小組라는 것을 조직, 대중造作을 통해 자신의 「2偶像化」 운동과 정치적 기반을 확대하면서 방해물로 간주되는 老壯層에 대한 정치작업도 병행해 갔다. 당시 南北調節委 북한측 위원장으로 黨의 실력자였던 金日成의 동생 金榮柱가 失脚한 것도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그로부터 소위 世襲派와 反세습파 간에 대립이 본격화했다는 후문이다.

혁명 1세대를 중심으로 하는 反세습파는 한 마디로 金日成에는 충성을 다해왔으나 金正日에게까지 代를 이어 충성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불발 쿠데타說을 뒷받침하는 가장 큰 근거는 金日成이 몽고의 바트문호국가 주석을 영접하는 순간에도 휴전선에서 吳振宇의 실권장악과 金의 사망을 알리는 스피커방송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 점을 들어 스피커 방송을 내보낸 일선의 군부대들이 平壤의 통제권에서 벗어났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다. 부대마다 정치보위부요원들이 배치되어 있는 북괴군부대에 서 그런 방송이 흘러나올 수 있었던 것은

軍일부의 반란설을 뒷받침 해주는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러니까 吳振宇 등 군부반란파가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동시에 일선부대에 金日成의 제거사실을 방송토록했는 바 拳事에 실패한 것도 모르고 전방의 對南확성기 담당요원들은 계속 방송한게 아니냐는 추정이다.

이에 대해 吳振宇의 거사설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전문가들도 없지않다. 이들 金日成이 지난 8월 15일 吳를 5星장군으로 승격시키면서 자신의 死後 金正日의 後見人役을 당부했다는 점을 反証으로 내세우고 있다. 따라서 金日成치하에서 權勢와 榮華를 누릴 대로 누린 다 늙은 吳振宇가 그런 叛逆을 주도할리가 없다는 것이다.

### 挑戰勢力의 登場

이렇게 따지고 보면 당초 金日成死亡說을 둘러싸고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부터가 虛構인지는 실로 알송달송해진다. 北韓이 과연 일부의 관측처럼 남한과 美軍의 정보 판단능력을 시험하고, 한국의 國際的 信賴度를 추락시키기 위해 죽지도 않은 金日成을 자연사도 아닌 「銃擊사망」 또는 「爆死」 따위의 自害수법을 쓰면서까지 사망설을 조작해냈을까. 그렇다면 그로 인해 저들은 구체적으로 무슨 이득을 얻었던 말인가. 오히려 자유세계로부터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해괴한 集團」이라는 나쁜 인상과 경계심만 살 뿐일텐데…….

만일 쿠데타가 실패하는 과정에서 金의 사망설이 나왔거나, 부하들의 金死後 아들 金正日에 대한 黨과 관료들의 충성심과 반대파들의 動向을 미리 알아보기 위해 자신의 死亡說을 의도적으로 퍼뜨렸다면 이는 北韓權力構造의 내부가 평탄치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금후의 사태발전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지난 40년동안 人間神처럼 군림해온 절대권력자 金日成에게도 무서운 挑戰勢力이 등장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며, 그로 인해 金日成이 측근들을 의심하게 되었다는 증거다. 따라서 金日成 死後의 북한에선 金正日의 자리繼承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지금 北韓에는 東獨,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등 東歐공산권에서 유학하고 돌아와 각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海外派 신진 테크노크라트들도 적지않다. 東歐공산국 가운데에는 西유럽국가와 거의 흡사하게 개방적이고 자유스러운 나라들도 더러 있다. 수년간 해외생활에서 개방적 분위기에 젖었던 그들 젊은 지식층은 숨막히도록 閉鎖的이고 부자유한 北韓사회에 좀처럼 적응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체제에 대한 불만이 高潮되고 있을 것은 분명한 일이다. 비단 해외유학생들 뿐만 아니라 해외원정시합을 자주 나가는 각종 스포츠종목의 국가대표선수들의 口伝을 통해 바깥 세계의 자유분방한 분위기와 여유있는 생활상이 북한 주민들에게도 전해질 것이

다. 심지어 北韓이 두 上典으로 떠받들고 있는 蘇聯과 中共까지도 經濟체제에서 西方 자본주의 방식을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등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社會主義형제국」들이 다 겪고 있는 변화의 물결로부터 유독 北韓만이 언제까지나 담을 높이 쌓고 지낼 수는 없는 것이다.

물론 金日成唯一사상 및 鎖國的 공산주의 덕으로 北韓이 다른 공산주의국가들보다 더 풍요로운 사회를 건설해 놓았다면 별 문제다. 그러나 현실은 그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으니 金日成으로서도 초조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우기 남북경제경쟁에서 北韓은 참패했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그 격차는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다. 헐벗고 굶주린 거지가 우굴거린다고 惡宣傳하던 南韓에서 아시안게임이 열렸고, '88년에는 아시아에서는 日本 다음으로 올림픽이 열리게 되어 있으며, 韓國産자동차가 자동차 왕국인 美國으로 역수출되고 있고 컴퓨터 半導體 등 이른바 尖端 산업분야에서까지 歐美선진국을 바짝 뒤쫓고 있다는 사실을 北韓지도층이라고 모를리가 없다.

### 우리의警戒와 対応

危機는 敵情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거나 과소평가하고 방심할 때 닥쳐오기 마련이다. 北傀는 金日成 사망설을 퍼뜨리고 그것을 분석·수용하는 과정에서 우리측의 정보판단능력에 헛점이 있다고 나름대로 판단

했을 지도 모른다. 북괴는 우리의 정보망을 시험하기 위해 앞으로도 몇 차례 더 기상천외한 허위정보를 의도적으로 유출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나서 우리쪽이 더 이상 속지 않으려는 시기에 진짜 도발을 강행, 意表를 찌를지도 모른다. 그런 시기가 언제 닥쳐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고 부단히 경계하고 대비해야 된다는 부담을 안게 된다.

지난 光州사태 때 북괴는 절호의 재침기회를 놓쳤다고 한탄했다는 소문이 있거니와 만일 앞으로 그와 유사한 極烈左傾亂動이 또다시 대규모로 일어난다면 北傀는 그 찬스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우리에게서 우수한 현대무기체제로 무장된 막강한 60여만 대군이 있으며 駐韓美軍이라는 抑止戰力이 있으므로 北傀가 선부른 불장난은 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現代戰은 군인만이 싸우는 전쟁이 아니며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싸워야하는 總力戰인 것이다.

어느 의미에선 外部의 敵보다 내부의 敵이 더 무서운게 전쟁의 屬性이라는 사실을 越南戰은 보여 주었다. 그러므로 일선을 지키는 國軍의 臨戰태세와 정신전력이 확고부동하고 후방국민들의 국가관과 尙共觀, 그리고 安保意志가 투철할 때 비로소 적이 넘볼 수 없는 완벽한 총력안보는 성취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명심할 필요가 있다.

# 고르바초프의 신 경제정책

고르바초프는 자유시장의 부분적 확대조치를 취하면서 한편으로는 소련이 절대로 계획경제를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이는 레닌의 경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고르바초프도 자본주의적 수정을 변증법적, 전술적 차원에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김 부 기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 1. 협동주의와 계획경제

1 970년대 말 이래 중공이 자본주의적 요소를 도입하는 경제개혁노선을 추구해오던 차에 고르바초프가 등장하면서 소련이 또한 개혁노선을 표방함으로써 공산권의 개혁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에서는 중공과 소련이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자본주의적 방향으로 수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은 공산권이 지향하는 사회주의 이념의 한계를 노정함으로써 자본주의의 우월성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이와 같은 부분적 수정은 과거에도 공산권 경제가 곤경에 처했을 때 채택해 왔던 것으로 전술적 차원 이상의 의미는 없으며 공산권이 지향

하고 있는 이념목표는 계속 사회주의 입에 변함이 없다고 반박한다.

고르바초프경제개혁의 의미를 알려면 먼저 사회주의 이념이 무엇이며, 왜 이 이념에 따른 경제체제가 자본주의적 수정을 왕왕 필요로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답할 필요가 있다.

19세기 전반에 사회주의 운동이 대두된 이래 분과가 있어왔지만 분과를 초월한 공통된 목표는 협동주의이다. 자본주의는 개인의 이기주의에 바탕한 자유경쟁체제인데 이는 필연적으로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불평등을 결과한다.

왜냐하면 자유시장에서 기회균등이라는 전제 하에 아무런 규제 없이 경쟁하는 경우 개인간 능력차가 있으므로 적자생존의 법칙에 따라 반드시 앞서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뒤쳐지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상속제 아래 불평등이 누적되면 기회균등이라는 전제마저 무너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인간사회에 있어서의 사람간의 차별이 구조화되는데 차별있는 곳에 협동이 이룩될 수 없다는 것이 사회주의자들의 논리이다.

따라서 사회주의이념이 추구하는 또다른 기본목표는 평등이다. 평등을 전제로 하지 않을 때 협동이 달성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평등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유시장 하에서는 실천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사회주의가 계획경제를 주창하는 소이다.

## 2. 평등주의와 경제성장

1917년 볼셰비키혁명으로 탄생한 소련은 사회주의 건설을 표방하고 있다. 즉 평등에 기반한 협동사회를 이상으로 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본주의적 자유시장을 철폐하고 계획경제를 실천하는 것을 그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일관성 있게 완전한 계획경제 실행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자본주의적 요소를 때때로 도입하는 전술적 후퇴를 하고 있는가?

소련이 지향하는 사회주의는 마르크스적 사회주의이다. 마르크스주의를 다른 사회주의 분과들과 구별되게 하는 것 중의 하나는 사회주의 건설의 전제조건으로서의 경제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점이다.

마르크스는 사회주의혁명(마르크스 자신은 공산주의 혁명이라고 불렀음)을 2단계로 분류했다. 일반적으로 공산주의라고 불리워지는 2단계에서는 인간이 인간관계에서 파생되는 구속, 즉 계급 등의 불평등에서 오는 구속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풍요경제 하에서 물질적 구속에서 조차 해방되어 그야말로 자유롭게 자아를 마음껏 발현하게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회주의라고 일컬어지는 1단계에서는 아직도 궁핍경제 하에 있기 때문에 물질적 구속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경제발전의 필요성 때문에 평등분배가 아닌 능력급 분배를 할 수 밖에 없어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차별도 완

전히 제거될 수 없다는 것이다.

소련은 마르크스가 말하는 공산주의의 2 단계, 즉 물질적 및 인간관계에서 과생되는 구속에서의 완전한 인간해방을 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완전한 인간해방의 단계는 풍요경제 하에서만 달성될 수 있으므로 아직도 궁핍경제 하에 있는 소련으로서 계속 경제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소련이 안고 있는 이념 상의 고민은 공산주의의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발전이 필요한 것인데 경제발전의 필요성과 계획경제에 바탕한 평등주의 추구 노선이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이다.

계획경제는 자유시장의 낭비성을 제거한다는 의미에서는 경제성장 목표와 합치된다. 자유시장경제 하에서는 투자의 중복성으로 인한 낭비성이 있는가 하면 경기순환의 불가피성 때문에 불황기간 동안에 인력과 장비를 놀리는 낭비성이 있다. 계획경제는 이러한 자유시장적 낭비성을 극복한다. 그러나 계획경제 하에서는 자유시장에서와 같은 자유경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소련경제가 곤경에 처했을 때 자유시장의 폭을 넓히는 것이 불평등의 심화를 결과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자유시장 영역확대라는 정책을 펴왔던 것이다. 이와 같은 정책노선의 대표적 예는 1921년에 레닌이 채택한 신경제정책(NEP)이다.

레닌은 1917년 볼셰비키혁명 후 1918년

중반부터 자유시장을 전면 폐지하고 계획경제 수립을 추구하는 노선을 추구했으나 1921년 봄 농민반란 등 난관에 봉착하자 자유시장을 전면 부활하는 신경제정책을 채택했다. 레닌이 이와 같은 정책선회를 하게 된 것은 농민의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데 있었다.

신 정책을 채택하기 이전에 있었던 전시공산체제 하에서는 생산한 곡물을 생산자가 필요한 양을 제외하고는 국가가 전량 수거하여 배급제로 분배했기 때문에 농민들이 증산동기를 상실했던 것이다. 자유시장은 농민들에게 증산한 만큼에 상당하는 보상을 주기 때문에 생산의욕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

레닌의 신경제정책은 1920년대 말 스탈린에 의한 자유시장 폐쇄로 종말을 고했다. 레닌은 항상 사회주의 이념을 추구하는 방법론에 있어서의 변증법적 사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즉 혁명사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체적 현실여건을 무시한 단선적 사고는 공상적인 극좌모험주의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혁명이상인 공산주의 사회건설을 추구하는 의지의 일관성은 유지하되 그때 그때의 상황에 구체적으로 대응하는, 따라서 때로는 일보후퇴 이보전진 식의 변증법적 사고방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다.

레닌이 사회주의 이상과 배치되는 자유시장을 1921년에 부활시킨 것은 경제적 곤경이라는 구체적 현실에 봉착하여 일보후퇴 이보전진식의 변증법적 대응을 한 것이다.

레닌은 1921년에 자유시장을 부활하면서 이것은 사회주의 건설에 있어서의 후퇴를 의미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경제가 활성화 되는대로 자유시장을 축소하고 계획경제로 나아갈 것임을 천명했다.

스탈린이 1920년대 말에 자유시장을 폐쇄시킨 것은 곡물수매 문제와 관련한 농민과의 마찰이 직접적 동기가 되었지만 볼셰비키혁명의 추진과정이라는 전체적 측면에서 볼 때 레닌의 변증법적 노선의 한 실천형태를 볼 수 있다.

사실 1921년 레닌이 신경제정책을 발표하자 당시의 자본주의권 언론은 사회주의 이념의 근본적 한계를 노출한 것으로 규정짓고 볼셰비키혁명의 붕괴를 확인하는 것도 서슴치 않았다. 이와 같은 자본주의권의 반응은 물론 레닌적 변증법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었다.

### 3. 제27차 당대회와 경제발전최우선주의

1920년대 말 스탈린에 의해 계획경제체제가 확립된 후 1970년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소련경제는 순조롭게 발전하였다. 1930년대를 통하여 약 15퍼센트의 연평균 성장을 달성했고, 1950년대는 약 6 퍼센트, 1960년대는 약 5 퍼센트, 1970년대는 약 4 퍼센트를 달성했다. 이렇게 하여 볼셰비키혁명 직후의 소련 국민총생산(GNP)이 미국의 약 1/6, 2차대전 직후의 경우는 약 1/4이었

는데 1970년대에 와서는 약 1/2로 따라 잡았던 것이다.

소련경제가 이처럼 순조롭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잉여노동력의 존재 때문이었다. 소련이 1930년대에 본격적으로 계획경제하에 경제발전을 시도하기 시작하기 직전의 소련은 아직도 농업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후진경제단계에 있었고 신경제정책에 의한 자유시장경제 하에서 상당한 실업이 존재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여성의 사회진출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계획경제를 실천하게 되는 경우 우선 실업인구와 가정주부 등의 여성인력을 경제발전에 동원할 수 있게 된다. 또 농업을 기계화하는 경우 농업부문에서의 잉여노동력 창출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잉여노동력의 계획적인 동원 또는 창출이 1930년대 이후 소련경제의 순조로운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소련경제의 선진화에 따라 1970년대 후반에 와서는 마침내 잉여노동력의 동원 또는 창출이 소진됨에 따라 잉여노동력 투입에 기반한 고도성장은 불가능해졌다. 특히 1960년대의 출산율 저조로 인해 1980년대의 신규투입 노동력은 더욱 감소되었다. 이와 같은 노동력 부족 현상은 소련경제가 이제 더 이상 잉여노동력에 바탕한 손쉬운 경제성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르바초프 지도 하의 제27차 당대회(1986년 3월)가 경제발전 최우선주의

를 천명한 것은 무엇보다도 잉여노동력의 소진이라는 구조적 도전을 해결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 4. 고르바초프의 신경제정책의 대내적 방향

소련경제가 당면한 구조적 도전이 노동력 부족에서 연유하는 것이므로 이를 해결하려면 생산성 제고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생산성을 제고한다는 것은 기존의 노동력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의 노동력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첫째, 노동기강의 강화가 있다. 소련의 노동기강은 브레즈네프 말기에 와서는 상당히 해이해졌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브레즈네프체제는 현상유지적인 성향을 띠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회분위기가 상당히 이완되는 경향이 특히 말기에 와서는 두드러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근무시간 중에 목욕탕, 이발소, 극장 등 가는가하면 음주과다 등으로 인한 결근율이 증대하는 등 근무태만 현상이 만연되었다. 고르바초프는 이러한 근무태만을 단속하고 노동규율을 강화하기 위해 이발소, 극장 등에서의 순찰을 확대하고 주류가격 인상 등의 조치를 취했다.

생산성 제고를 위해 두번째로 고르바초프에 의해 강조되고 있는 방향은 기술혁신이다. 새로운 기술의 개발은 기존의 노동력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제27차 당대회 이후 소련의 언론은 연일 과학·기술의 발전을 역설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외국과의 과학·기술교류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고르바초프에 의해 채택되고 있는 방향은 경제운영의 효율성 증대이다. 이를 위해 지나치게 중앙집권화되어 있는 경제계획과정을 어느 정도 분권화했다. 즉 기업과 지방경제 행정단위의 경제적 결정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과대집권화로 인한 동맥경화 등의 해소를 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향은 계획경제체제 테두리 내의 조정이다.

고르바초프의 신경제정책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대결이라는 문제와 연관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경제운영의 효율성 확대를 위하여 자유시장 영역의 폭을 넓혔기 때문이다. 고르바초프는 집단농장에 부설되어 있는 자유시장의 역할확대 조치를 취했다. 이제까지는 개인 경작지 생산물만이 자유시장에서 거래되었으나 새로운 조치에 의하면 집단농장이 정부에서 할당한 생산량을 초과한 분도 자유시장에 내다 팔 수 있다. 이는 물론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높이기 위한 유인정책이다. 고르바초프는 또한 개인의 사적 경제활동의 영역을 확대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소련은 그동안 개인에 의한 주택건설, 의사, 교사 등의 근무시간 외의 영업활동, 수리공, 파출부 등의 사적 경제활동을 공식적으로 허용해 왔다. 1987년 5월부터 실시될 고르바초프의 새로운 조치

는 택시영업, 카페 등을 포함한 개인의 사적 경제활동 영역을 대폭 확대했다.

레닌이 1921년의 신경제정책을 통하여 자유시장을 전면 부활했던 것에 비교하면 고르바초프의 자유시장 확대는 극히 제한적이다. 즉 기존의 자유시장 영역을 부분적으로 확대한 것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제한적인 자유시장 확대조치는 소련경제에 있어서의 만성적 침체부분인 집단농업과 서비스업의 활성화를 겨냥한 구체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 자유시장에 참여하는 경제활동이 자본과 노동의 착취적 대립을 결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간의 협업의 수준을 넘어선 고용의 형태를 띠는 것을 금하고 있다.

고르바초프의 신경제정책은 이미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1980년대 전반을 통하여 2~3퍼센트로 연평균 성장률이 침체되었던 소련경제는 1986년에는 약 4퍼센트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 일본, 서유럽 국가들이 2~3퍼센트로 예상되고 있는 것에 비하면 꽤 많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소련경제가 앞으로 계속 이와 같은 호조를 보일 경우 고르바초프의 신경제정책이 제한적 성격 이상의 자유시장 확대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고르바초프는 자유시장의 부분적 확대조치를 취하면서 한편으로는 소련이 절대로 계획경제를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이는 레닌의 경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지로 고르바초프도 자본주의적 수정을 변증법적, 전술적 차원에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 5. 고르바초프 신경제정책의 대외적 방향

고르바초프는 제27차 당대회에서의 연설을 통해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모든 가능한 잠재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했다. 이러한 정신에 따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제한적이거나 자본주의적 후퇴도 불사하는 대내적 신경제노선을 채택했다.

고르바초프의 신경제정책은 대외적으로는 군비축소 협상과 대외경제 협력확대 추구라는 양대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이 국민 총생산고의 6퍼센트 정도를 군비에 쓰고 있는데 반하여 소련은 12~14퍼센트를 쓰고 있다. 소련이 경제발전에 역점을 두는 이상 경제에 대한 군비부담을 줄이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고르바초프는 미국·서유럽과의 군축협상에 상당한 융통성을 보여 왔던 것이고 중공과의 분쟁완화를 위해 몽고에서의 소련군 일부의 철수, 중·소국경에서의 상호 감군 등의 군비축소 방향을 제시했다.

소련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대외적 방향은 대외경제관계의 확대이다. 이를 위해 최근 중공과의 경제관계를 급격히 팽창하고 있는가 하면 최근에는 그동안 단절상태에 있던 이란과의 경제관계

재개에 합의했다. 대외경제협력 확대와 관련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연해주개발을 중심으로 한 시베리아와 태평양경제권의 연계 구상이다.

소련은 투자의 상대적 수익성 때문에 시베리아쪽보다는 소련의 유럽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발해왔다. 이와 같은 상황은 현재에도 변함이 없지만 시베리아의 풍부한 자원과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는 태평양경제권과의 연계를 상정할 때 소련 자체의 재원이 아닌 외부로부터의 협조를 통한 형태가 되므로 소련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 잠재성 동원이란 의미를 가진다. 국내 재원의 사용이 아닌 국외 재원의 동원이란 측면에서 볼 때 앞으로 태평양 경제권과의 연계

를 통한 시베리아개발 방향은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시베리아개발과 관련 블라디보스톡 연설에서 고르바초프는 특히 일본의 협조를 기대했다. 그러나 태평양 경제권의 신흥공업국으로 도약하고 있는 한국의 비중도 무시되지 못할 것이다.

물론 한·소경제관계는 미·소관계, 소·북한 관계, 남·북한관계라는 정치적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겠지만 소련이 태평양경제권과의 연계를 통한 시베리아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면 언젠가는 어떤 형태로든지 한·소 경제관계가 본격화 되리라는 것도 또한 분명한 사실이라 할 수 있다.

# 情報化 時代에의 対処

朴 鍾 善

〈大領·空軍本部〉

## 1. 序 言

**現**대를 가리켜 情報社會라고 한다. 尖端技術의 發達은 以前의 “工業化 社會”에서 “情報化 社會”로의 移行을 急進展시켜감에 따라 社會全般에 걸친 樣相을 持續的으로 變化시키고 있다.

우리 人類가 이와 같은 社會 全般의 變化를 經驗한 것은 過去 18世紀의 産業革命에 依해 農耕社會를 工業化 社會로 轉換시킨 以來 가장 큰 變革으로, 이를 “情報革命” 또는 “第2의 産業革命”이라고 한다.

오늘날 情報革命에 依한 社會 全般의 變革은 이미 經驗한 産業革命의 그것보다 急進的일 뿐 아니라 보다 廣範圍한 變化라는데 對해서 社會 科學者들은 보다 衝擊的으로 받아들이는 傾向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高度 情報化 時代를 맞이하여

産業分野는 勿論 家庭과 個人的 日常生活에 이르기까지 情報化가 急速히 進展되어 過去 國力이 資源이나 機械技術水準 等으로 分類되었던 工業化 社會에서 이제는 情報의 活用能力에 따라 先後進이 区分되고 있으며, 情報化의 競爭은 날로 熾烈해지고 있다.

더우기 우리 나라는 賦存資源이 不足한 대신 人力資源의 比較優位로 過去 工業化 社會보다도 새로이 展開되는 情報化 社會에서의 先進化를 指向하는 것이 重要한 課題가 되고 있다.

이러한 命題에 副應하여 '80年代에 들어와 國家的으로 尖端産業 分野에 對한 技術開發 및 施設投資의 擴大로 컴퓨터의 本格的인 生産이 이루어지면서 情報化 社會를 能動的으로 進展시켜 나가고 있음은 周知의 事實이다.

이와 같은 情報化 社會의 急進的인 發展에 따라 國防을 担当하는 軍에서도 軍事計

情報化 社會의 最大目標은 情報가 特定階層에 獨점되지 않고 고르게 分배되는 情報의 大衆化 實現에 두어져야 한다. 정보의 대중화란 情報利用의 需要가 있을 때에는 언제나, 그리고 누구라도 손쉽게 利用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마련된 상태이다.

이러한 정보의 大衆化를 실현하기 위한 重要課題는 두 가지 基本要素, 즉 컴퓨터 利用의 보편화와 고속의 綜合通信網이 이루어져야 한다.

劃 및 任務完遂를 爲하여 컴퓨터를 利用한 情報과 指示의 習得, 收集, 處理 및 再配合 등을 通하여 人的資源 및 施設 등을 適時에 最適의 判斷決定을 隨伴하는 情報處理가 可能하게 되었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새로이 展開되는 情報化 社會에 對한 諸般 發展現況 등을 分析하고, 이에 따른 對處方案을 提示하고자 한다.

## 2. 産業構造의 變化

### 가. 産業構造의 變遷 特徵

社會, 經濟적으로 家族單位가 根本이었던 農耕時代에서는 物資流通이 없는 靜的社會이고, 少量生産에 의한 自給自족시대였으며 生産에서 消費까지 일괄 處理되는 經濟體制였다. 이러한 時代에 國家가 形成된 이래 계속적인 人口增加와 그에 따른 大量消費 및 生産의 切실한 必要에 依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Watt의 蒸氣機發明과 産業革命에 依해 이루어진 工業化 社會는 物資의 合理的인 收集 및 分配를 爲한 動的

社會이고, 大量生産品의 판매를 爲한 市場技能의 形成과 利潤의 最大化를 爲한 商術의 發達 등 專門化, 分業化, 極大化, 同時化를 通한 集團經濟體制로 變遷하였다.

이러한 工業社會는 規格化, 集中化, 中央集權化를 도모함으로써 利潤 最大追求를 爲한 單純한 方式에 局限된 느낌이었으나 財貨의 創造로 인한 富의 蓄積은 物質的인 豊饒에서 精神的인 豊饒를 追求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이는 보다 많은 서비스를 要求하게 되었다.

따라서 量的인 팽창보다 質的인 확장을 願하게 되었으며, 商品生産도 單一品目의 大量生産보다 多數品目의 少量生産體制로 바뀌어지게 됨으로써 技術과 社會가 多技能化 및 多變化되게 되었다.

이러한 變化는 單純商品 價值보다 서비스를 通한 附加價値의 增大를 要求하게 되었고, 附加價値의 增大를 爲해서는 많은 情報가 生成되기도 하고, 收集, 處理, 加工되어야 할 必要가 切실하게 되었다. 이것이 곧 情報化 社會라는 또 다른 社會를 물고오게 된 것이다.

工業化 社会가 動的社会라면 情報化 社会는 激變하는 社会라고 할 수 있다. 이는 社会의 技能이 複合化되고 变化速度가 빨라졌다는 것을 意味한다.

다시말하면 工業化 社会는 經濟体制의 기반이 局地的이었는데 比하여 情報社会는 汎世界的이라 할 수 있으며, 工業化 社会에서는 地域外의 情報流通速度가 지극히 느려서 数十日씩 걸리던 것이 情報化 社会에서는 全世界가 1시간권 안에 있다고 하겠다. 즉 情報化 社会의 特徵은 脫規格化, 協同化, 시스템化, 分散化, 適正化, 分權化라고 할 수 있다. 상기 서술한 바와 같이 産業構造의 變遷過程을 要約하면 表 1과 같다.

表 1. 産業構造의 變遷過程

農耕社会	工業化 社会	情報化 社会
— 17C — 18C —	— 19C — 20C —	— 21C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道具使用</li> <li>• 가축使用</li> <li>• 水力使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動力發明 (蒸氣機関)</li> <li>• 機械發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電子産業 (真空管, 半導體)</li> <li>• 컴퓨터</li> <li>• 脫工業化 現狀</li> </ul>
	産業 革命	情報 革命

#### 나. 情報化 社会의 特性

情報化의 概念이 導入된지는 컴퓨터가 처음으로 開發된 1946年을 基準으로 해도 아직 40年이 채 못되는 짧은 期間일 뿐 아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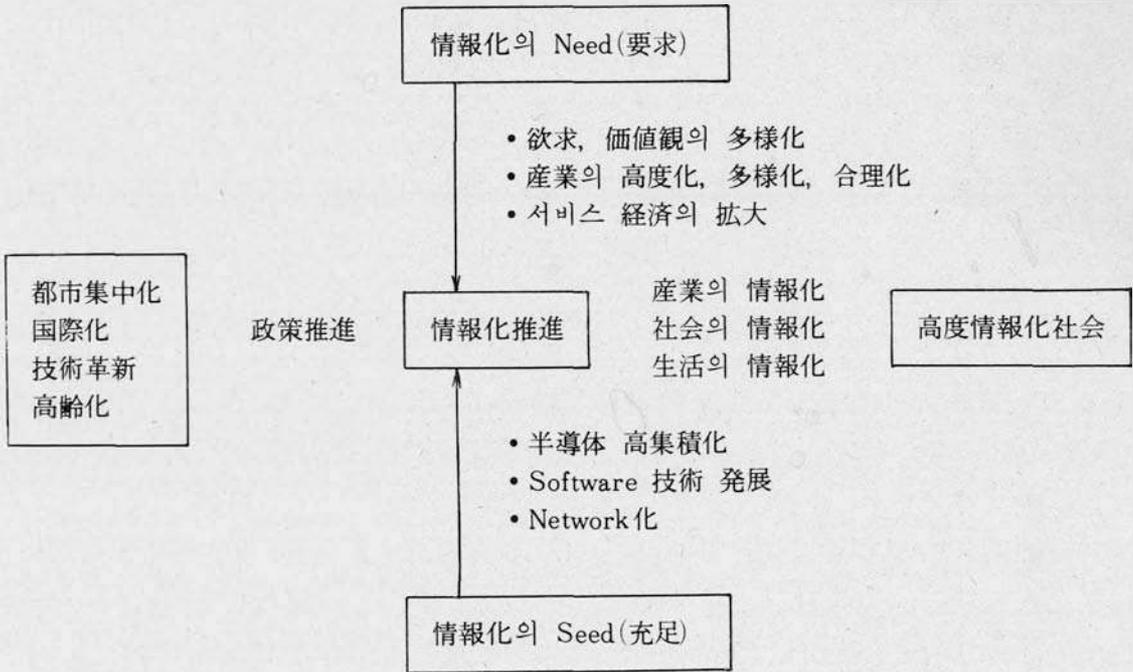
라 當時로서는 오늘날과 같은 情報化의 概念이 전혀 考慮되지도 않았다. 나름대로 情報化의 概念이 登場하기 始作한 것은 半導體의 出現으로 컴퓨터의 實用化가 急激히 이루어지기 始作하면서부터인데 美国의 경우 1957年 美 電子通信学会에서 情報의 重要性이 強調되면서부터라고 말할 수 있으며 日本은 그보다 10년 以後인 1966年 通産省 内の 電子工業審議會에서 情報化의 重要性을 強調하면서부터라고 할 때 情報 革命은 이제 그 年輪이 不過 30余年 前後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동안 컴퓨터 自体의 变化만 보아도 무려 1万7千個의 真空管으로 構成된 컴퓨터가 단 하나의 半導體칩으로 되었으며 앞으로의 技術發展을 考慮할 때 人間의 頭腦에 필적할 完全한 知能컴퓨터가 出現하여 이제까지의 우리 産業社会의 生活樣式을 根本的으로 뒤흔들어 놓게 될 것도 먼 장래의 일은 아닐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情報化 社会에서의 情報化라는 概念에 對하여 日本에서는 情報를 物質과 에너지 다음의 第3의 要素로 認識하고 있으며 이를 生成, 加工, 伝送, 蓄積, 利用 등을 必要에 依해 意圖的으로 하는 活動의 총칭으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情報化는 그동안 産業의 高度化, 合理化 및 省力化와 그밖에 教育, 行政, 文化, 生活 등 社会 全般에 걸친 能率化 등을 통해 人間의 有益化에 寄与하는 것으로 整理되어 있다.

또 다른 側面에서의 情報化의 實體를 보

表 2. 情報化 社会의 Need와 Seed 關係



면 두 가지 側面에서의 理解가 必要한데 그 하나는 情報化의 Needs(必要) 側面이고, 情報化의 Seeds(充足) 側面이다.

表 2에 要約된 바와 같이 먼저 情報化의 Need 側面에서 보면 持續的인 經濟成長을 通해 國民의 所得이 增大되고 工業化 社会가 發達하면서 國民의 欲求와 價值觀이 多樣化됨에 따라 從來의 劃一的 情報의 必要에서 이제는 個別的이고 選擇的이 되어 情報의 必要性은 한층 더 增大되고 또 새로운 미디어를 要求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또 이러한 現象은 産業에까지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미 言及한대로 需要者들의 多樣한 要求는 企業으로 하여금 小品種 大量生産 体制로의 轉換이 不可避하

게 하며 이를 위해서 産業은 高度化, 合理化, 效率化를 指向하게 되었다.

이밖에도 工業化 社会의 發達로 인한 都市의 人口集中化, 都農間의 隔差深化, 國防化의 急激한 推進에 依해 流通情報量이 增大된 것과 社会能率의 向上의 必要性 等도 情報化의 Need를 크게 增大시켜온 要因이 되고 있다.

情報化에 대한 이러한 要求에 對해 Seed(充足) 側面에서 보면 半導体의 高集積化, 컴퓨터 利用의 大衆化, 光通信 等 새로운 技術 및 媒体의 出現(New Media) 等 電子 技術의 눈부신 發達로 이를 充分히 消化함으로써 情報化 社会를 더 한층 擴大, 加速化 시켜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半導體의 高集積化에 依한 컴퓨터의 大衆化, 即 小型化 低價格化, 高性能化(高速化, 大容量化)에 의한 家庭用, 個人用 컴퓨터 등의 普及과 컴퓨터의 시스템化, 네트워크化 技術의 發達로 從來의 集中處理方式에서 分散處理方式으로 發展함에 따른 컴퓨터의 利用 擴大, 그리고 通信의 디지털化로 컴퓨터와 通信의 結合에 依한 새로운 미디어의 多樣한 出現은 情報化 社會를 劃期的으로 發展시키게 된 가장 重要한 要因이 되고 있다.

### 3. 情報化 趨勢

人間的 肉體能力을 소나 말의 畜力 等에 의해 擴大시킨 것이 農業革命(제 1의 물결)이라면 産業革命(제 2의 물결)은 人間的 肉體能力을 機械로 代替한 革命이라 볼 수 있겠다. 예전대 TV나 라디오는 人間的 視覺이나 聽覺을, 自動車나 起重機는 人間的 뛰는 能力과 物件을 드는 能力을 擴大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제 3의 물결인 情報化 革命이 일고 있다. 이 제 3의 물결의 主役은 컴퓨터이며 人間的 頭腦의 能力을 擴大시켜 주는 機械이다. 그러나 이 革命은 '80年代에 들어와 퍼스널 컴퓨터 革命이 일어날 때까지, 또는 퍼스널 컴퓨터를 端末機로 쓰는 데이터베이스(Data Base)가 나타날 때까지는 潛在的인, 즉 숨어 있었던 可能性에 불과했다.

事實 이미 '70年代부터 '情報化 社會' 또는 '社會의 情報化'란 말은 자주 使用되어 오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大關節 어떤 性質의 것인가 하고 그 具體的인 內容을 묻는다면 그 답은 가지각색이고 또 一般적으로 是曖昧해지는 것이 普通이었다. 그저 單純히 現在 以上으로 大量의 情報가 流通하는 時代일 것이려니 하는 量的擴大 以上の 意味를 賦與하려 하지는 않는 것이 通例였다.

情報도 다른 物財와 마찬가지로 그 限界 效用을 體感한다.

예전대 아무리 物質文明이 發達되고 설탕을 만드는 技術이 發達되었다고 해서 糖尿病에 걸릴 覺悟가 없는 한 한 사람의 人間이 한달에 10kg 이상의 설탕을 消費시킬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情報量도 한 사람의 人間이 處理할 수 있는 것에도 限界가 있다. 情報洪水란 말로 表現되듯 어느 生理的 限界를 넘어선 情報의 流通은 苦痛이기까지 하다.

지금까지의 産業社會는 新聞, 雜誌, 라디오, TV 등 매스컴의 發展에 따라 大量의 情報를 쏟아져 나오게 하는 世界를 만들어 놓았다. 産業界, 商業界, 學校, 研究室 할 것 없이 大型컴퓨터, 複寫器, 팩시밀리, 워드프로세서 等の 機械가 導入되어 이들을 통해 每日같이 만들어내는 情報量은 산더미처럼 쌓이고 쌓일 뿐이었다.

加速度的으로 늘어나는 이 情報의 洪水속에서 우리들은 窒息에 가까운 狀態에 놓

여 있다고 해도 過言은 아니다. 이렇게 情報流通의 單純한 量的 擴大가 情報化 社會가 아니란 것은 너무나도 明白하다. 그러므로 眞實한 意味의 情報化 社會란 單純히 大量의 情報가 存在하고 流通되는 社會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高度의 情報處理가 一般 大衆에 의해서도 이루어지는 社會가 바로 情報化 社會의 참뜻이었던 것이다.

現代 高度産業社會에 들어서면서 情報가 物質이나 에너지 못지 않게 重要한 位置를 차지하게 되면서 情報産業은 이 時代의 資本의 核으로 登場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國家別 情報水準의 程度는 곧 先後進國間의 隔差를 가늠하는 重要한 基準으로 評價되고 있다.

따라서 情報의 重要性이 增大해 감에 따라 컴퓨터가 가진 莫大한 情報處理 能力과 電氣通信이 지닌 情報의 即時 傳達能力을 結合한 데이터 통신(Data Communication 또는 Digital Communication)은 情報의 效率的인 傳達手段으로써 國家社會의 發展을 加速化시키는 相當한 期待를 모으는 가운데 先進國에서는 이미 國家社會發展을 加速化시키는 必須手段으로 크게 脚光을 받아 날로 發展을 거듭하고 있다.

이와 같은 情報革命에 의한 社會 全般의 變革에 의해 現在는 물론 未來의 國家發展에 대한 諸般條件은 加速的인 國際競爭體制하에 놓이게 되었으며, 특히 物的資源이 貧弱한 國家에서는 對外 指向的이며, 서비스 産業을 主軸으로 頭腦 및 技術集約 高度産

業을 戰略産業으로 育成할 必要가 있다.

이의 核心은 國際競爭力으로서 單位時間當 勞動密度의 高密度를 통한 生産性 向上과 앞서가는 技術에 의한 製品 및 서비스의 質的 向上이 그 戰術武器가 된다. 이 當爲性의 實現은 物理的 資源活用의 附加價值를 極大化할 수 있는 論理的 資源開發로 可能하다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狀況의 變化가 더욱 더 暴發的이며 유연해졌기 때문에 이에 対処할 수 있는 經濟道具가 必要하게 되었다.

情報化 社會에 있어서 代表的인 經濟道具로는 시스템科學(System Theory), 意思決定論(Decision Theory), 컴퓨터技術(Computer Technology), 通信技術(Communication Technology)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컴퓨터와 通信技術의 發達에 힘입어 各種 管理시스템이 自動化되었으며 人間 固有의 領域이라고 생각했던 思考하고 決定하는 部分의 一部까지도 自動化하기에 이르렀다.

思考하는 것은 人間의 勞動 중 精神的 勞動에 속하며, 精神勞動의 必要性은 科學技術의 發展과 社會技能의 多技能化에 依해 더욱 必要하게 되었다. 즉 이는 具體的인 시스템力의 具現을 意味한다.

시스템力의 表出은 正確한 情報가 正確한 사람에게 適時에 提供되는 情報力(情報資源)으로 分析的 意思決定이 可能하고, 이 分析的 意思決定過程으로 健全한 政策이 生成되며, 그리고 樹立된 政策은 經濟的 方法

과 節次에 따른 實行으로 한 組織의 目的이 最適化되는 狀態이다.

이를 위해서 分析的 意思決定模型, 情報 시스템의 組織構造 등이 有機體制를 形成하여 시스템의 核인 目的을 中心으로 自轉과 公轉을 反復하는 管理體制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閏點에서 社會의 情報化 趨勢에 의해 要求되는 經營情報體制(MIS :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와 이러한 經營情報體制가 發展하여 이루어진 實時間 經營情報體制(Real Time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인 指揮統制體制(C3I System)을 살펴보기로 한다.

### 가. 經營情報體制(MIS)

經營情報體制(MIS :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는 情報利用者の 閏點에서 出現한 것이다.

情報利用者란 組織의 모든 階層을 가르킨다. 원래 組織에는 上位層이 있고, 저변에는 實際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 피라밋형의 階層을 이루고 있다.

이 階層에는 위로부터 最高管理者(Top Management), 中間管理者(Middle Management), 一線實務者(Low Management) 등 세 가지 階層이 있으며, 이 모든 階層들의 意思決定에 必要한 情報를 適時에 提供하려는 것이 經營情報體制이다.

오늘날 組織의 經營情報體制(MIS :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를 組織規模와

閏聯시켜 深度있게 觀察하여 보면 이를 5個 類型으로 分類할 수 있다.

最小單位規模, 즉 家族的 組織의 經營情報體制는 大部分 經營情報가 口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단히 簡單하다. 이보다 規模가 좀 큰 小規模의 經營情報體制는 經營情報가 比較的 定型化되고 그 內容도 文書化되어 報告되는데 手作業으로 處理되고 있다. 또한 中間規模의 經營情報體制는 計算器, 事務用 器機 등을 活用하는 機械的 方法에 의하여 經營情報를 處理하여 管理하고 있다.

다음에는 大規模化되는 過程에 있는 中堅規模의 經營情報體制는 處理速度나 形態가 多樣한 컴퓨터(Computer)를 活用하여 經營情報를 管理하고 있으며 全國을 對象으로 하는 大規模 組織의 經營情報體制는 本部의 大型컴퓨터에 地域別로 小型컴퓨터와 데이터 通信裝置를 連結하여 形成되는 네트워크 시스템(Network System)을 活用하여 經營情報力을 確保하여 管理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經營情報體制의 基本要素는 經營者가 取扱하고 있는 着想(IDEA), 作業, 組織構成員의 3 가지로부터 始作된다. 이러한 三要素의 管理는 計劃의 必須的 部分인 概念的 思考管理과 統率力에 直接的으로 閏聯되어 있다.

世界 第二次大戰 중에 조지 패튼(George Patton)將軍은 戰場에서 部下를 統率하고 士氣를 고취하는 能力은 잘 알려져 있었으나 그의 概念的 能力은 그렇지 않았다. 對照的으로 오마브레드리(Omar Bredly)將軍

은 統率力 보다는 軍事的 行動을 計劃하고 管理하는 能力 등 概念的 能力이 더 잘 알려져 있었다. 이와 같이 指導者와 管理者의 差異에 留意하면 이 두 가지 用語를 相互交換의 으로 使用할 수가 없다.

類似하게 産業界, 教育界, 政府 등 國家 機關에서도 經營者가 그 組織의 潜在的 資源을 包含하여 總有效資源을 効率化시켜 組織의 諸 目標을 達成할 수 있는 것은 特定 個人에게 依存하는 指導力 보다는 시스템의 管理能力이 優先한다고 할 수 있다.

過去에는 카리스마의 指導者(Charismatic Leader)가 要請되었으나 現代와 같이 組織 環境이 복잡하고 能動的인 어려운 時期에는 이보다는 시스템 經營能力이 있는 經營者를 必要로 하고 있다. 따라서 指導者의 經營者는 이 시스템 管理能力을 補強하기 위하여 시스템 經營体制를 導入하고 組織構成 들의 情報分析에 依拠하여 意思決定活動을 遂行한다.

經營情報体制의 一般的인 機能은 連續順序의(Sequential)인 傾向을 나타내며 다음과 같다.

첫째, 組織에서 어떠한 目的 또는 目標가 計劃機能을 惹起하는 것인가를 제일 먼저 質問하는 것이 当然한 것이다.

둘째, 作業을 管理可能 單位로 分類하는 方法을 決定하는 組織技能을 遂行하게 된다.

셋째, 作業을 하기 위해 資質있는 組織構成 員을 選定하는 人員配置이다.

넷째, 諸願望目標을 向해 目的있는 行動

을 하도록 指示하는 것이다.

다섯째, 統制技能은 計劃에 對備한 諸結果의 測定, 実績에 따라 組織構成員에게 補償, 修正하기 위하여 再計劃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適期가 反復的으로 끊임없이 되풀이 되며 問題分析, 意思決定, 意思傳達을 하는 機能들은 特定한 連續順序 보다는 全過程을 通하여 發生하므로 一般的 또는 繼續的 機能이라고 한다.

따라서 能動的 管理者는 連續順序의인 모든 經營의 諸技能을 通하여 問題分析을 하는 것이며, 管理者가 일하는 모든 組織體의 基本的인 構成要素인 着想은 概念的 思考에 대한 必要性, 作業은 管理에 대한 必要性, 組織構成員은 統率(指揮)에 대한 必要性을 創出하는 것이다. 問題分析, 意思決定, 意思傳達의 3가지 機能은 管理者 職務의 모든 局面에서 恒시 重要的 것이므로 管理者의 作業過程을 浸透 分散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機能中 特定한 機能에 대한 管理者의 関心은 職位와 가장 関心이 있는 事業의 完了段階를 包含하여 多樣한 諸要素에 依存하는 것이다. 管理者는 恒시 組織의 脈搏을 感知하고 있어야 한다.

組織의 經營情報管理에 컴퓨터가 導入되어 活用되면서부터 經營組織에 대한 接近法은 組織이 遂行하는 相互從屬된 諸活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取扱할 수 있으며, 組織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諸活動을 하는 過程에서 많은 데이터가 發生하게 된다.

이 데이터는 語源이 라틴어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非構造的인 事實」로서 定着되며 情報시스템의 入力(Input)으로 定型化 되는 情報, 즉 시스템에서 抽出된 表想인 出力(Output)으로 使用者에게 意味를 주는 것으로 定義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이 데이터를 情報로 變換하는 것이 情報시스템의 技能인 것이며 經營情報 統制 역시 一般的으로 「特定目的 또는 目標의 成就를 容易하게 하기 위한 諸方法, 節次 및 資源으로 設計된 命令待機群」으로 定義되는 것이다.

經營情報體制(MIS: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는 組織活動을 維持하기 위하여 計劃, 組織, 指揮, 調整 등 管理 諸技能을 遂行하는데 必要·充分한 情報를 提供하고자 從屬 시스템을 綜合하고 關聯된 프로그램 또는 모듈(Module)들을 集積化한 시스템이라고 定義할 수가 있다. 이는 特定組織의 運營活動을 뒷받침하기 위한 情報를 適時에 出產하여 供給하는 시스템인 것이다. 시스템 經營에 있어서 시스템의 諸構成要素가 相互相関關係를 갖고 最適均衡을 維持하여 가면서 組織의 目標를 達成해 가는 有機體를 形成하고 있는 原動力은 그 시스템의 情報力이다.

이 情報力을 開發하고 體系化시켜 自動的 流通을 可能케 할 수 있는 컴퓨터 시스템 중심의 經營情報體制(MIS)는 現代 시스템의 經營의 核心的 資源이 되는 것이다.

#### 나. 指揮統制體制

C3I라는 것은 1960年代부터 美國防省에서 使用하게 된 말로서 Command(指揮), Control(統制), Communication(通信), Intelligence(情報)의 머리문자를 딴 것이며 經營情報體制(MIS)의 發展된 概念인 實時間 經營情報體制(Real Time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인 것이다. 이 4가지 機能은 人類歷史上 軍隊라고 하는 것이 組織化 集團이라는 형태를 取하게 된 以來 戰鬪를 實施함에 있어 絶對 必要한 機能이다.

軍隊에 參謀組織이라는 것이 생기게 될 때까지는 主로 指揮官 個人的 資質에 의존하여 指揮, 統制機能이 遂行되어졌으며 通信은 깃발, 북소리, 伝令 등에 의해 行하여졌다. 軍隊의 규모가 커지고 戰鬪樣相도 점차로 複雜해짐에 따라 指揮官 한 사람의 能力으로서 이미 全軍을 指揮, 統制하기가 어렵게 되어 指揮官을 도와주는 組織으로서 參謀機構가 誕生하게 되었다.

또한 第2次大戰 말기에 出現한 核爆彈과 誘導武器 및 제트機는 그 이후의 戰鬪樣相에 劃期的이라 할만큼 變革을 가져 오게 하였다. 戰鬪力 行事的 速度가 이제까지와는 比較도 안될 만큼 빨라졌다는 點과 武器의 파괴력이 強力化되었다는 것이다.

戰後에 새로 始作한 東西陣營의 대립관계가 武器의 迅速化와 高威力化에 박차를 걸었다. 그 結果 迅速化되고 高威力화된 武器를 正確하게 管理하는 人間의 能力面에 限

계가 생기게 되었던 것이다.

즉 人間이 지닌 思考力이라든지 情報處理 能力에는 量的으로나 速度的으로 限界가 있으며 어떠한 手段을 빌리지 않는限 武器의 高性能化에 뒤따라 갈 수 없다는 것을 認識 하게 되었으며, 이 問題解決策으로서 생각 해 낸 것이 컴퓨터의 利用이다. 그렇다고 해서 部隊의 指揮와 武器의 管理라는 일을 電子計算機에 일임해 버린다는 것은 아니다.

最新 컴퓨터와 通信技術의 急進의인 進歩 에 따라 C3I는 軍事計劃에 있어 任務完遂 를 위한 最適의 要素로서 利用되는 戰略的 概念으로 中央集中 資料處理를 위한 超大型 컴퓨터의 効用에 기반을 두고 1960年度부터 始作되었다. 이러한 中央集中 處理裝置는 通信施設과 相互 連結되어 디지털 데이터 (Digital Data)를 命令指揮所 사이에 伝送함 으로써 運用効率을 極大化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C3I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定義되고 있으나 가장 適合한 定義를 내리기는 극히 어려운 일이나 情報와 指示의 拾得, 蒐集, 處理(Processing), 評價, 再配合 등을 통한 航空, 陸上, 海上에 있는 我軍의 人的資源 및 施設들을 適時에 最適의 判斷決定을 수 반함으로써 그 利用의 効率性을 높여주는 手段으로 單純히 定義하고자 한다.

네가지 要素로 이루어진 C3I는 서로 相關關係를 가지고 維持되고 있으며 그 各各의 特性은 다음과 같이 分類할 수 있을 것이다.

• 指揮(Command) : 目的한 바를 遂行하기 위하여 任務를 부여할 對象과 決定

• 統制(Control) : 割当된 任務, 目的들에 대한 各參加者, 裝備들의 管理

• 通信(Communication) : 모든 參加者들 사이에서 서로 情報의 交換

• 情報(Intelligence) : 敵의 狀態(State)와 目的의 推定(Estimation)

이러한 C3I의 4 가지 構成要素에 있어서 共通된 要素는 情報處理로서 이것은 다음의 두 가지 目的을 隨伴한다.

첫째, 그들이 解決할 수 있으며, 가장 重要하다고 생각되는 問題들에 대해 利用할 수 있는 參加者, 裝備의 選定

둘째, 各 任務를 띤 要素들이 그 割当된 目的과 만나게 될 確率을 最大로 해주는 것이다.

C3I는 종종 軍事力 증강기 (Force Multiplier)라고도 불리우는데 이는 좋은 C3I가 現在 保有하고 있는 能力보다 効率的으로 부여된 任務를 遂行할 수 있기 때문이다.

例로 AWACS (Airborn Warning and Control System)는 C3I의 한 構成成分으로서 防空防衛에 있어 戰鬥機와 地對空 미사일들의 作戰을 지원하는 體制로 가장 効率的으로 주어진 여건 하에 情報를 蒐集하여 指揮官에게 적절한 任務를 遂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最新의 裝備이다.

C3I에서 相互關係 (Relationship) 概念은 C3I의 全目的이 作戰任務를 遂行하는 중에 다른 要素들을 支援해 준다는 것을 意味한

다.

戰爭狀況下에서 重要な 任務要素(Mission Element)는 敵威脅을 제거할 수 있는 戰鬥員들과 軍事裝備과 할 수 있다. 따라서 C3I는 그들의 効用性(Effectiveness)과 生存(Survivability)을 最大化하기 위하여 使用된다. 그러나 C3I要素들에 있어서 技術的(Technical)인 것과 作戰的(Operational)인 關係는 사람의 關點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技術된다.

指揮官에게 그의 戰鬥資產(例: 保有裝備, 構成戰鬥要員들) 등을 管理할 수 있는 資料를 공급해 주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資產들에게 作戰指揮者는 指揮官으로부터 下達된 그들의 任務를 부여하고, 그 任務遂行에 必要한 情報를 準備하는 人力源(Source)으로써 C3I를 評價할 것이다.

C3I의 應用을 고려할 때 戰略的應用 對 戰術的應用(Strategic VS Tactical)과 民對軍(Civil VS Military)의 區別이 二次元的으로 해석되어진다.

戰略的과 戰術的 C3I에 대한 定義는 職權의 水準(Level)과 計劃作成의 時間限界에 基礎를 두고 있다.

• 戰略的 C3I: 任務의 目的들이 國家의 水準에서 決定되어지고 進步的으로 計劃(비록 그것의 전모가 實行될 때 周邊環境에 맞도록 變更될 수도 있지만)된 任務를 支援한다.

• 戰術的 C3I: 任務의 特定目的과 細部의 計劃이 狀況의 展開에 따라(國家水準

의 指針과 一般目的에 의해 制限되지만) 그 狀況들에 對應하여 決定되어진다.

C3I에 對한 任務強調는 軍事的이지만 民間航空機의 交通統制(Air Traffic Control)도 이와 똑같은 구별을 가지고 있다. 美國의 民間航空機 統制는 空港들 사이의 飛行統制와 같은 戰略的인 要素들과 各 空港에서 着陸, 離陸과 같은 경우에 행하는 戰術的 統制要素를 包含하는 경우로 구분되기도 한다.

命令시스템(Command System) 開發은 上部에 軍事狀況의 報告와 國家의 全地域과 命令階級 組織社會內的 下部까지 命令傳達를 支援할 대규모 容量의 컴퓨터와 資料通信 시스템을 應用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와 같은 命令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種類가 있다.

• WIS: (The World Wide Military Command and Control System(WWMCCS) Information System)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패키지, 通信을 개량한 多重 서비스 프로그램 軍事要素가 그들의 狀況上 上部에 報告할 수 있게 하고 上部로부터 命令을 받고, 그리고 中間水準에서 주어진 狀況과 命令情報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 E-4B: (The Advanced Airvone Command Post) 核爆發後 國家의 統制要員들과 空軍 統制室의 總司令官에게 生存命令센터(Survivable Command Center)를 提供

• TFCC: (The Tactical Flag Command Center) 情報處理와 狀況전시(Display)에

의해 海軍機動艦隊(Naval Task Group)의 기함 司令官을 支援하는 시스템이다.

統制시스템(Control System)은 任務要素들의 方向에 대해 Closed Loop 관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傳統的으로 센서에 基礎를 둔 시스템이며 주로 防空網, 地對標的攻擊(Ground-Target Attack), 그리고 Antiship 파괴와 같은 特別한 作戰任務를 支援하는데 必要한 多重센서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 AWACS : E-3A Airbone Warning and Control Surveillance와 統制要素, 對空防衛에 있어서 戰鬥機와 地對空 미사일을 支援하며 장거리 探知用레이다, 画面 콘솔을 裝備하고 友軍 飛行機와 敵軍 飛行機의 追跡 探索과 同時에 여러 곳에서 展開되는 交戰의 統制를 支援하는 通信裝備를 가지고 活用하고 있다.

• PMES : (The Pave Move Engagement System) AWACS에 對應되는 地對空 시스템으로 突擊軍隊의 2次編成地域에서의 탱크軍隊行列과 같은 아주 重要한 標의들에 대해 實時間 標的情報(Real-Time Target Information)를 提供

• MATCALs(The Marine Air Traffic Control and Lanfing System) 개량된 3세대 民間 ATC 시스템과 비슷한 自動誘導着陸制御를 합하여 수행한다. 作戰의 極한 狀況 중에서도 戰略的 對空作戰을 指揮할 수 있도록 設計되어 있다.

通信(Communication) 시스템은 電磁的

(Electromagnetic) 威脅과 直接的인 공격으로부터의 符號가 C3I의 通信要素에서 아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問題이다. 最近의 發達된 通信시스템들은 새로운 C3I과 軍事武器시스템에 의해 必要한 點과 連結하고 資料分配를 迅速 원활히 하기 위하여 큰 情報容量과 새로운 能力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種類가 있다.

• Secure Aj Voice : 敵의 妨害電波로부터 我軍의 裝備를 防護하여 원활한 通信體制를 구축하기 위해 航空에서 使用하는 경우에는 UHF, 地上에선 VHF의 대역폭에서 通信可能한 시스템

• TRI-TAC : 디지털型으로 遠距離 通信을 提供할 地上에서 다른 地上으로 通信可能한 裝備

• JTIDS(The Joint Tactical Information Distribution System) : 任務要素와 Interface 할 C3I 要素 사이에 Jam 抵抗用 安全 디지털 通信을 提供할 裝備를 말한다.

情報(Intelligence)시스템 成分으로는 그것의 分類하는 方法에 따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으나, 一般的으로 力點을 두고 있는 것은 다음 3가지 問題에다 重點을 두고 있다. 즉 敵軍에 관한 Raw-Data를 얻기 위한 센서(Sensor)와 蒐集處理, 敵軍의 狀態와 의도(例: 戰爭順序, 攻擊目標 등)를 決定하기 위한 情報處理, 軍指揮官들이 作戰計劃을 수립하는데 必要한 蒐集된 情報의 迅速한 分配와 그 處理로 区分할 수가 있다. 디지털 通信의 發達は 超大型 컴퓨터

와 함께 C3I의 領域을 더욱 확대시켜 주었다.

지금까지 蒐集되어 貯藏되어 있는 情報와 衛星通信은 거대한 컴퓨터 連結網과 함께 C3I의 中추가 되며 未來에 開展될 命令과 防衛體制에 대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現代 C3I의 컴퓨터 連結網은 서로 局部的으로 설치된 컴퓨터들로 構成되어 있으며, 有事時 商業的인 시스템 역시 이 전체의 連結網을 위해 存続하도록 대처해야만 할 것이다.

#### 4. 情報化 社會에의 처處

産業社會에 있어서는 物質이나 에너지의 偏在로 인하여 富의 偏在을 招來하게 되었지만 未來의 情報化 社會에 있어서는 누가 情報를 많이 갖게 되느냐 하는 差異로서 貧富가 決定되고 이로 인한 貧富의 差異는 産業社會에 있어서의 그것보다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

따라서 情報化 社會의 最大目標은 情報가 特定階層에 獨점되지 않고 情報가 고르게 分配되는 情報의 大衆化 實現에 두어져야 한다.

모든 種類의 情報를 누구나가 便利하고 公平하게 接觸할 수 있을 때 利用機會는 均等하게 提供될 것이며, 비로소 定義社會와 能動的 福祉社會로 이룩할 수 있는 始發點이 되는 것이다.

21世紀를 指向하고 있는 世界 모든 나라

가 情報化 社會를 앞당겨 實現하기 위해 差를 가하고 있는 바, 이러한 時代的 差에 反應하여 우리나라도 經濟, 社會 發展戰略을 情報化 社會에 두고 이것이 國家 장래의 나아가야 할 目標中 하나로 삼아 이의 實現을 위한 점진적인 政策이 이루어지고 있다.

'82年 1月 韓國電氣通信公社가, '82年 3月 韓國 데이터 通信株式會社가 設立되어 電氣通信分野를 專担하게 되었고 이와 더불어 1984年 7月 25日에는 世界에서 18번째로 尖端通信方式인 PSDN(Packet Switching Data Network)의 개통으로 國內의 情報 産業 多角化에 새 轉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86年 10月 新 産業 구락부 10月 초 찬회 主題講演에서 과기처장관은 世界 10위 권의 技術先進國 具現을 基本目標로 7대 重點 技術系列分野를 選定하여 集中的으로 投資 開發한다는 '2000年代를 向한 科學技術 發展計劃'은 앞으로 다가올 情報化 社會에 대한 國家政策을 發表하였다.

2000年代 科學技術 發展計劃은 앞으로의 高度 情報化 社會를 뒷받침하게 될 情報産業 技術分野에서는 컴퓨터를 비롯, 소프트웨어 半導體, 通信, 生活情報 서비스 技術을 重點 開發하게 된다.

컴퓨터 分野에서는 個人用 컴퓨터에 通信 技能을 접합시킨 高性能 워크스테이션(Work Station)을 集中 開發하며 지능형 컴퓨터와 自然言語 處理技術도 確保토록 할 것이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技術에서는 複雜하고 多様な 소프트웨어를 自動으로 生産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工場」을 實現하는 한편 教育, 医療分野 等 特定 專門分野에서 知能과 思考能力을 兼備한 「專門家 시스템」도 開發할 計劃이며 通信分野에서는 컴퓨터에 의한 情報處理와 데이터 通信網이 유기적으로 結合한 綜合情報通信網(ISDN)을 構築, 多様な 通信서비스가 提供되도록 할 計劃이다.

國家基幹 電算網推進은 '83年 3月 情報産業의 效率的 育成을 위해 政府內 實務協議機構로 비서실장을 위원장에 각 부처 차관을 상임위원으로 한 “情報産業育成委員會”가 構成 運營됨에 따라 始作되었다.

'83年 12月에는 國家基幹 電算網은 業務 關聯性 등을 감안하여 우선 '88년까지 行政網, 金融網, 教育研究網, 國防網, 公안망 등 5個網을 構築하고 2000년까지 단일 電算網을 構成 運營한다는 ‘基本方針’을 確定했다.

그리고 '84年 3月에는 情報産業 育成委員會의 技能을 新設된 技術振興審議會에 吸收하고 基幹 電算網事業을 專担하는 ‘國家基幹 電算網 調整委員會’를 構成, 運營하게 되었다.

'84年 6月에는 行政網, 金融網은 關聯機關의 多様성과 異質性에 비추어 基幹 電算網調整委員會에서 直接 調整 支援토록 하고, 教育研究網, 國防網, 公安網은 關聯機關이 自体 協議 推進하면서 問題發生時에만 調整委員會에서 支援토록 하는 國家基幹 電算網 計劃案을 作成하였다.

따라서 國家基幹 電算網計劃은 '85년부터 網別 착수가 始作되었으며, 특히 國防網은 國防 MIS 構築運動을 目標로 C3I, 資源管理 效率化, 各軍 電算能力 統合運動을 重点 事業으로 하고 있으며 專担機關인 國防部는 管理情報担当官室 主管으로 이미 '84年度에 綜合計劃을 確定하고, '88년까지 統合運營한다는 計劃을 自體的으로 推進中에 있다.

情報化가 經濟, 社會 및 國民生活의 各分野에 침투되고 市場需要와 技術革新이 서로 影響을 주고 받으면서 括目할만한 變革과 함께 發展하는 時代에는 社會규범이 經濟 및 社會의 활력과 發展을 阻해하지 않도록 適切한 対応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컴퓨터 시스템이 電話, 팩시밀리 情報, 画像情報, 映像情報 퍼스널 컴퓨터 等이 네트워크와 接統됨으로써 情報化는 都市의 一般家庭이나 地方의 농가에 이르기까지 널리 補給될 展望이다. 이들은 결국 디지털化되어 綜合情報通信網으로 鎮火될 것으로 健全하고 바람직한 情報化 社會의 具現을 위해 컴퓨터 마인드의 擴散과 風土造成이 絶실하며 더우기 情報化의 進展에 대한 大衆의 理解와 關心을 깊게 하는 올바른 知識의 補給이 絶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技術의 發達 및 應用에 随伴된 社會變化에 대해서 社會科學과 人文科學을 包含한 폭넓은 研究를 하면서 情報化를 推進해야 할 것이다.

## 5. 結 言

情報化 社會은 '80年代를 岐点으로 拠点의 中央集中處理方式에 의한 '限定된 情報化 社會'로부터 어디서든지 누구나 컴퓨터를 利用할 수 있는 '高度 情報化 社會'로의 새로운 局面으로 跳躍하고 있다.

즉 컴퓨터의 高性能化, 大容量化의 追求로 特定機關이나 大企業에 利用이 局限될 뿐 아니라 그 利用形態도 拠点的 中央集中處理方式으로 그 利用의 大衆化가 이루어지지 못해 情報化 社會의 擴散에는 制約이 있었으나 半導體의 高集積化 技術에 의해 個人用 컴퓨터가 大衆化되고 分散處理技術과 通信이 結合한 C & C (Computer & Communication)化로 컴퓨터의 利用과 서비스 提供面에서 新紀元을 이룩하였다. 이로 인하여 一部 制限的인 産業情報化 時代에서 社會 情報化, 나아가 生活情報化 時代로 發展시켜 명실공히 高度 情報化 社會로의 進入을 가능케 한 것이다.

高度 情報化 社會의 基盤이 되는 要素는 컴퓨터와 通信의 結合에 의한 情報通信分野의 뉴미디어 産業으로 世界 主要國들은 뉴미디어 産業分野에 깊은 関心을 갖고 비디오텍스트, 텔레텍스트 등의 家庭用 情報시스템과 LAN, VAN 등의 情報通信網을 急進적으로 試圖하고 있으며 通信網의 效率를 極大化 할 수 있는 綜合情報通信網(ISDN: Integrated Service Digital Network)의 構築을 推進해 앞으로의 情報量 擴大와 서비스 多樣化에 對備해 가고 있다.

특히 여러 技術分野의 結合으로 開發 중

인 새세대 컴퓨터는 現在 研究室에서의 適用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어 '90年代에는 實用化될 展望이다. 이렇게 尖端技術에 의해 開發되는 새세대 컴퓨터 시스템은 우리 人間生活에 全般的으로 影響을 미칠 것이며 모든 사람이 使用者가 될 것이다. 즉 産業自動化, 事務自動化, 科學 및 工學,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宇宙航空工學, 國防, 서비스分野, 教育, 醫療 및 藝術分野 등에 이 새세대 컴퓨터 시스템을 應用할 수 있다.

現在 可能한 應用分野는 綜合 情報管理시스템, 高度의 컴퓨터 設計 및 맨머신 인터페이스(Man-Machine Interface)의 세 分野의 技術發展에 의하며 完全한 音聲認識 등의 重要한 研究問題를 解決하면 그 應用分野는 모든 人間生活에까지 擴大될 것이다.

綜合 情報管理시스템에는 傳統的인 데이터 베이스 시스템, 專門家 시스템(Expert System or Knowledge-Base System) 및 文章, 그래픽, 映像, 音聲 및 一般 데이터를 綜合시킨 Multimedia 情報 등이 包含된다. 進化된 맨머신 인터페이스(Man-Machine Interface)는 컴퓨터 시스템과 人間과의 對話疎通을 좀더 知能的이고 融通性이 있으며 使用를 簡便하게 하는 方法 등이 包含된다.

이 인터페이스는 特殊한 인터페이스 技術, 自動言語處理, 音聲入出力, 專門家시스템, 그래픽 및 映像處理, 綜合的인 通信 네트워크 등의 發展으로 可能해질 것이다.

---

---

# 포클랜드전에서의 공중비화

李 文 浩

(중령 공군본부)

---

“우리는 목표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가능성은 있었으나, 성공적으로 기지에 귀환할 전망은 거의 없었다. 따라서 우리의 신념은 최대의 공격, 공격뿐이었다. 이와 같은 정신은 의무감에서라기 보다는 자연적인 내적 발로였다”라고 한 어느 아르헨티나 조종사의 말처럼 포클랜드전에서의 아르헨티나 공군조종사들의 용맹성은 높이 평가 받아왔다.

본문은 미국의 Jeff Ethell Michael Oleary 기자가 아르헨티나의 공군기지를 방문하여 공중전에 참전한 전투조종사와 인터뷰하여 엮은 생생한 공중전 비화로서, 현대전에서의 무기체계의 질, 전투훈련, 전술, 전기의 중요성을 인식케 해주는 좋은 기사라 생각되어 옮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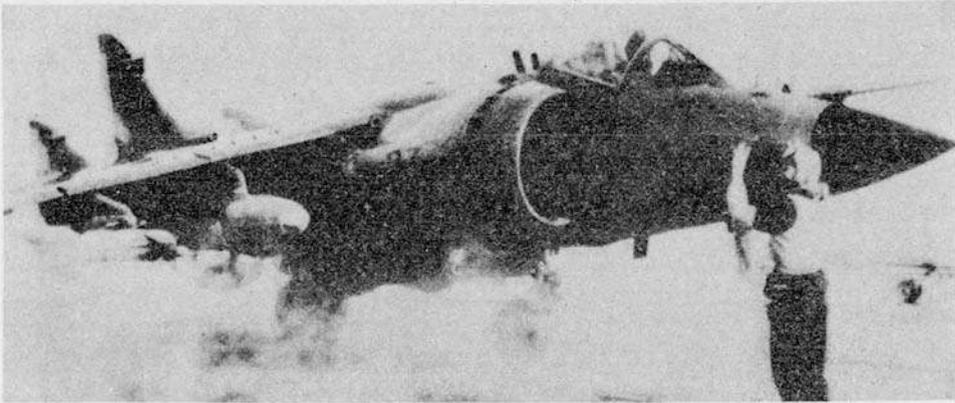
- 역자 주 -

---

## • 머 리 말

에트로루나(Hector Luna)는 포클랜드의

지상 30피트 협곡을 통과하면서 그의 이스라엘제 미라지 편대 밑으로 가로지르는 영국 전투기 Sea Harrier를 보았다. 젊은 중위는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회상하였다.



포클랜드전투에서 위력을 과시한 영국제 Sea Harrier

“편대장에게 상황을 보고하려 하였으나 라디오가 작동되지 않았다. 그 순간 Harrier가 전방에서 접근하여 오는 것이 보였고, 이어서 비행기에 부착된 거울에 Harrier가 Sidewinder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목격하였다. 미사일이 항공기에 충돌하는 것을 느끼면서 조종불능 상태가 되었다. 나는 안정상태를 유지하려 노력하면서 본능적으로 비상탈출하기 위하여 조종간을 잡아다녔으나 항공기는 상승하지 않았다. 수평으로 유지하려 했으나 항공기가 회전하여 겨우 비상 탈출용 손잡이를 작동할 수 있었다. 조종석이 사출됨을 느꼈으며 지상에 큰 충격으로 떨어져 무릎과 팔을 빼었다. 낙하산이 진동하기 시작하였고 바람에 의해 지상에 끌려가는 동안 비행기 조각이 떨어졌다. 나는 낙하산을 분리시킨 후 팔의 관절이 빠고 무릎근육이 늘어났음을 알게 되었으나 기어 다닐 수 없을 정도의 심한 고통은 느끼지 않았으며, 그곳에서 밤을 지새웠다.”

San Carlos만에 있던 영국함대 및 Sea Harrier 공중전투초계기와 조우한 후 일부 동료는 돌아오지 못하였다.

1982년 4월 2일 금요일 아침, 아르헨티나군은 영국이 149년간 점령해온 소유권을 되찾기 위하여 아니면 평화롭게 살고 있는 영국계 국민들에게 외국법을 적용하면서 영토를 점령하기 위하여 포클랜드에 상륙한 것이다.

이와 같은 분쟁이 일어났어야만 했는지 아니면 외교에 의하여 피할 수 있었던지는 후일 논의 될 것이나, 문제는 두 나라가 아무 준비도 없이 과감한 결단 하에 전쟁에 돌입한데 있다.

지금까지 분쟁에 대한 기사는 주로 영국 측 입장만이 언급되었는데 착안하여 아르헨티나가 현대 공중전에서 어떻게 싸웠는가를 돌아보았다.

## ● 제5비행여단 활약상

우리 일행은 아르헨티나에서 생산한 IA 50 Guarani 수송기를 탑승하여 첫 방문 기지인 Reynold시의 제5비행여단으로 가면서 광활한 아르헨티나의 평원에 감탄하였다.

착륙 후 활주로를 빠져 나오면서 전투의 대부분을 담당하였던 제4,5폭격대대 소속의 갈색으로 위장된 A-4B Skyhawk 기를 볼 수 있었다. 이들 두 대대는 포클랜드전 당시 많은 주요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10대의 항공기와 9명의 조종사를 잃었다.

Jose Carlos소위는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조종사들은 첫번째 임무를 마친 후에 Sea Harrier와 항공기에 장착된 AIM-9L 미사일과 지상의 대공포 및 미사일로부터 살아남기 위하여 고속, 저고도로 비행하여야 했다. 50피트 이상으로 상승하면 격추될 가능성이 크고, 50피트 이하로 비행하면 함정에 접근되어 폭탄투하가 곤란하였으며, 저공으로 공격하기 위하여 500노트 속력으로 비행하면 소금이 항공기 창문(Windshield)에 달라붙어 시야 장애로 사격이 곤란하였다.

조종사들은 조준기를 사용하지 않고 그리스펜으로 2개의 선 즉, 하나는 배의 갑판선을, 다른 하나는 수평선을 그어 두 선상에 배를 맞추어 배가 기수밑으로 통과시에 폭탄을 투하하였다. 비록 A-4B 조종

사, Filipini소위가 5월 21일 Antelope의 뜻을 명중시켰으나 어느 항공기도 실제로 함정을 정확하게 명중시키지는 못하였다고 증언하였다.

Harrier는 통상 아르헨티나의 주요 기지인 San Julian, Rio Gallegos, Rio Grande로부터 이어지는 비행방향과 일치하는 세 지점에서 기습에 대비하고 있었다.

A-4B, Skyhawk기는 공대공 전투용 무장이 되어 있지 않아서, 유일한 방어전술은 전 속력으로 공격을 피하는 것뿐이었다. Jorge Neudo는 5월 25일에 있었던 Conventry호 공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우리가 전 속력으로 1분 가량 도주하자 그들은 Conventry에 장착한 Sea Dart 미사일을 발사하였다.

미사일은 900내지 1,200피트 상공으로 통과하였다. 배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폭탄을 투하하기 직전에 대공포에 피격된 것 같은 충격을 느꼈다. 함정을 향하여 직진했을 때 함정은 신속하게 90° 방향 변경을 시도하였으며, 함정에서 40° 벗어난 지점에서 폭탄을 투하한 후 확인해 보니 3발의 폭탄이 명중되었다.”

대체로 공군 조종사들은 공대지 임무로서 함정 공격에 대한 연습을 실시한 경험이 없었다. 1982년 4월 이후, 2주간 해군 A-4 조종사들은 함선 공격에 대한 기본 훈련을 받은 후 전쟁에 임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그들의 임무성과는 성공적이었다.

조종사들은 일반적으로 함정에서 근접한 위치에서 폭탄을 투하하였기 때문에 신속하게 상승해야 만 했다.

미사일에 의해 추락된 비행기들은 대부분 목표물을 향하여 강하할 때 피격되어 아르헨티나 조종사들은 함대의 방어장비가 다른 한쪽에는 구비되어 있지 않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아르헨티나 공군은 KC-130 공중급유기가 본토 서해안에서 100마일 떨어진 포클랜드 북서 및 남서쪽에서 항상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료가 필요한 전투기들은 공중급유기가 대기하고 있던 지점에 가서 연료보급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연료부족으로 희생된 전투기는 한대도 없었다. 연료를 재보급 받을 수 없었던 전투기는 Mirage III, Dagger, Canberra 및 Lear Jet였으나 철저한 연료상태 확인으로 큰 문제점은 없었다.

전투 중 대부분의 손상은 소형무기 및 대공포에 의해 입었으며, 정비요원에 의하여 신속하게 수리 되었으나, 사이더 와인더 공대공 미사일에 의하여 피격된 전투기들은 희생되었다.

도서에 설치된 아르헨티나 공군의 지상 레이더는 Harrier 공격을 피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나, 기상은 양측에 또 하나의 큰 적이었다.

6월 8일 Bluff만에 있던 함정은 공격한 바 있는 A-4B조종사인 Hector Sanchez 중위는 전투경험을 다음과 같이 들려주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가운데 4 번기로서 남쪽으로 비행하던 중 Dawin항 입구에서 병력을 하선하고 있던 함정을 보았다. 우리가 남쪽으로 비행하고 있을 때 후미에서 전투기가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으나 누가 어디서 공격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고도를 초 저고도로 낮추어 땅위를 스쳐 지나갔다.

함정을 공격하고 있을 때 갑자기 반대 방향에서 진입하고 있던 항공기를 목격하고, 상승하여 충돌을 피하는 순간 양측에서 두 대의 Harrier가 2발씩의 사이더 와인더를 발사하여 내 후미에 있던 Skyhawk가 폭발하였으며, 2 번기는 꼬리부분에 피격받아 조종사는 비상탈출 하였으나 낙하산이 불에 타고 있었다.

편대장은 안전하게 공격을 피하였으나 Sea Harrier가 나를 추격하여 외부 연료 탱크와 폭탄을 투하하고 도주하였다.”

## ● 제4비행여단 활약상

Mendoza에 있는 제4 비행여단에 도착해 보니 제1 폭격대대 소속의 녹색과 황갈색으로 위장된 A-4C Skyhawk기가 비행하고 있었다.

A-4C 대대는 120회 출격에 9대의 비행기와 8명의 조종사를 잃었다.

공격목표 우선순위는 (1) 항공모함 (2) 군수지원함정 (3) 육지에 근접해 있는 함정 (4) 적기 (5) 전투함순이었다.

계획된 우선순위에 의거 공격해야 했으

나 대체로 전투함정과 제일 먼저 조우하여 치열한 대공포망에도 불구하고 함정을 우선 공격하였다. 함정공격시 8대의 전투기가 임무지역에 대형을 유지하여 접근한 후 3~4편대로 나누어 파상공격을 실시하였다.

항공기의 제한으로 1대의 Skyhawk에 3명의 조종사가 할당되어 피로를 덜 수 있었다. 조종사들은 단순하게 순번제로 비행하였으며 전투경험은 전쟁직후 몇 주간의 전술훈련을 마친 젊은 소위로부터 대대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다.

Ernesto Ureta중위는 1982년 5월 30일 해군의 Super Etendard와 HMS Invincible 호를 공격하도록 명령받고 4대의 A-4C에 올라탔다. Skyhawk기는 기당 2발의 500파운드 폭탄을 장진하여 두 대의 Super Etendard와 편대를 편성, 비행하였는데 그중 한대의 Super Etendard는 프랑스제의 Excet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었다.

KC-130 공중급유기로부터 연료를 공급받은 후 6대의 전투기는 Super Etendard에 있는 관성항법장비인 INS의 유도를 받아 임무지역으로 비행하였다.

우리는 해면에 바짝붙어 목표지역으로 비행하였으나 파도와 소금의 분무로 전방시야에 장애를 가져와 적절한 폭탄투하시기에 대해서는 자신의 판단에 의존해야 했다.

우리가 함정에 도착하기 전에 Sea Dart 미사일에 의하여 편대장과 2번기는 격추당하였다. 이삭중위와 나는 목표물을 조준하여 함미에서 30° 벗어난 지점에서 공격한

후, 30피트 상공에서, 선회하여 폭탄투하 지점을 확인하여 보니 거대한 연기가 일어나고 폭탄이 함정에 명중되었음을 확인하고, 혹시 발사했음지도 모를 미사일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였다.

Ureta와 인터뷰한 후 오찬을 위하여 장교식당에 가니 전대원이 휴게실에 있는 TV앞에 모여 전쟁이 벌어진 이후, 처음으로 BBC방송에서 제작한 포클랜드 전쟁에 대한 도큐멘터리를 시청하고 있었다. TV를 보고 있던 그들의 표정에서 긴장과 흥분이 감돌고 있었다. 휴게실 안에서 TV를 보고있던 바로 그 사람들이 비행하였던 A-4C 항공기가 공격하는 장면이 여러 번 방영되었다. 이들은 동료인 A-4C 조종사 리카르도 루세로가 5월 25일 격추된 후 영국군에 구조되어 치료차 HMS Fearless 호에 옮겨지는 것을 보면서 TV화면에 빠져들어 가는 듯이 보였다. 루세로는 우리들로부터 불과 몇 좌석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다. 또한 6월 8일 그들이 함정 뿐만 아니라 영국군들에게 공격하였던 엄청난 파괴력에 대해서도 지켜보고 있었다.

영국군 구조용 헬리콥터는 검은 연기속으로 들어가 바다 위에 떠있는 군인들을 결사적으로 구출했으며, Rotor의 바람을 이용하여 불에 타고 있는 함정으로부터 구명정을 밀어 내었다.

헬리콥터 대원들이 자신의 생명을 무릅쓰고 구조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휴게실에 꽂차있던 조종사들은 일제히 환호하였다. 이 순간에는 적이 있을 수 없

었다. 피를 흘리거나 수족이 없는 병사들이 구조헬기에 의해 후송되는 장면에서 전쟁 도큐멘터리는 끝이 났다.

전쟁은 같은 인류끼리 엄청난 희생을 가져온 참혹한 것이었다. 우리는 아르헨티나 조종사들이 그들과 싸웠던 영국 조종사들에 의외없이 찬사를 보내는 것을 들었다.

## ● 제2비행여단 활약상

Parana에 위치한 공군제2비행여단은 Canberra가 출격한 제1폭격대대와 Lear Jet가 소속한 제2항공정찰대대가 있었다.

Alberto Baigorri편대장은 5월 1일 6대의 Canberra가 3기, 2개 편대로 Trelew에서 이륙하였다.

“목표지점에서 약 150마일 떨어진 곳에서 3번기가 나를 향하여 미사일이 접근한다고 소리쳐, 오른쪽을 바라보니 Eduardo Delbauez가 탄 2번기가 미사일에 명중되어 엔진이 화염에 쌓인채 내 오른쪽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였으며, 비상탈출하여 물위에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나는 즉시 우측으로 급선회하면서 3번기에 왼쪽으로 이탈하라고 명령한 후 자세히 보니 Sea Harrier는 아직도 우리 상공에 있었으나 그들의 레이더망에서 벗어난 지점에 있었다. Sea Harrier가 완전히 벗어난 후 비상탈출한 조종사들을 찾아 보았으나 허사였다.

Canberra는 주간공격에 취약하다는 것이 판명되었기 때문에 도서로부터 멀리 떨어

진 함정에 대한 야간공격임무를 부여하여 500피트에서 천파운드 폭탄을 투하하였다.

Roberto Pastran 대위는 6월 13일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였다.

“Kent산에 폭탄을 투하 직후 비행기 후미에 Sea Dart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 우리는 화염에 쌓인 채 4만피트 상공에서 Spin에 들어가 항법사에게 비상탈출하라고 지시한 후, 6천피트 상공에서 탈출한 후, 구명정에서 밤을 지낸 후 다음날 저녁 7시 30분에 영국 헬기에 구조되어 한달간 포로 생활을 하였다. 영국군에 포로가 되었던 조종사들은 대체로 좋은 대우를 받았다.

일반적으로 Canberra 조종사들은 영국군에 의하여 배운 전술을 사용하였다.

Canberra가 장착한 유일한 전자전 대응수단은 레이더탐지 방해용의 Chaff와 Flare뿐이었으며 전쟁도중에서야 매우 기본적인 ECM장비를 장착하였다.

제1항공정찰대대 소속 4대의 Lear 35는 76일간 129회의 출격에 총 34시간 비행하여 群島 및 함대의 배치도를 작성하고, 레이더와 INS를 이용하여 영국함대의 위치를 발견하고, 제6폭격대대의 Dagger를 14회에 걸쳐 목표지역에 유도하는데 많은 활약을 하였다.

목표선정은 대부분 Lear Jet에 의하여 수집된 정보나 레이더 탐지에 의하여 이뤄졌다.

6월 7일 비행대장 Juan Falconier를 비롯하여 4대의 Lear가 종대로 포클랜드 상공을 비행하고 있었다. 그 당시 상황을 편

대장은 다음과 같이 회상하였다. “오전 9 시경에 사진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포클랜드에 인접한 지점에서 2개의 Rocket를 발견하였고, 우리가 보지못한 또 한발의 Rocket가 Colina중위가 타고있던 Lear를 명중시켜, 4만피트 상공에서 폭발되었다. 미사일을 처음 탐지하였을 때 커다란 불기둥처럼 보이다가 점점 비행 중인 미사일을 볼 수 있었다. 미사일이 Lear Jet 후미를 강타하여, 항공기는 화염에 쌓인 채 기수가 밑으로 떨어졌다. 미사일이 Colina가 탄 항공기에 명중되자 그는 침착하게 “그들이 나를 명중시켰다”라고 말하고, 항공기가 조종불능 상태에 들어가자 Dagger에 필요한 항법정보를 제공하고 Spin 상태에 들어갔다”

Omega와 INS 항법장비를 장착하고 있는 Lear는 정밀항법장치가 없는 Dagger에 비행하는데 필요한 방향, 거리, 풍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 ● 제 8비행여단 활약상

다음은 Mirage III가 있는 Moreno의 8비행여단의 제 1전투대대를 방문하였다. Corino사령관은 우리를 환대하면서 공중전에 참가하였던 조종사들로 하여금 그들의 전투경험을 말하도록 하였다.

5월 1일 미라지 항공기들은 전폭기에 대한 엄호기로서 수차례 출격하였다.

포클랜드에 위치한 지상 레이더는 4차례에 걸쳐 수마일밖에 떨어진 적기를 정

확히 포착하여 적기들이 출현할 때마다 미라지들은 25,000피트 상공에 대기케 하여 Sea Harrier를 끌어 올리려 하였고, Harrier는 그들의 최적고도인 10,000 피트이하로 미라지를 끌어내리려 했다.

미라지 전투기는 1,700리터의 외부연료 탱크가 적재되어 있어 연료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은 없었다.

편대장 Gustavo Cuerva 편대장과 요기는 포클랜드 말비나에 위치한 지상 레이더로부터 Sea Harrier가 12시 방향에 있다는 정보를 받았다. Cueva는 2대의 Sea Harrier위치를 확인한 후 2발의 미사일을 발사하였으나 빗나갔다. Harrier는 재빨리 선회하여 Siderwinder 미사일을 발사, Cueva가 조종하던 항공기에 명중되어 치명상을 입고 Stanley항에 내리려했으나 착륙전에 폭발하여 전사하였다(영국군은 미라지 항공기가 착륙을 시도하려 하여 격추시켰다고 주장하였음).

또한 Perona가 조종한 미라지는, Sea Harrier가 발사한 미사일에 피격되어 불길에 쌓인 채 기수가 떨어져 나가, 비상탈출하여 구조되었다.

같은날 6번째로 임무를 수행하였던 Jose Ardiles는 또 다른 Sea Harrier가 발사한 Siderwinder에 명중되어 전사하였다.

이와 같이 막대한 손실과 Puerto Argentino에 대한 Vulcan공격으로 미라지 편대를 본토에 철수하여 부에노스 아이레스 및 남쪽에 위치한 중요 3개 기지에 대하여 경비태세를 갖추도록 하였다.

## ● 제6비행여단 활약상

Tandil시에 있는 제 6 항공여단의 이사 엘항공회사에서 생산한 Dagger와 Mirage5가 소속된 제2,3폭격대를 방문하였다. 포클랜드전시 제2,3비행대대는 160회의 출격에 12대의 항공기와 5명의 조종사를 잃었는데, 2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Sea Harrier에 의하여 격추되었다.

Dagger 전투기는 목표지점까지의 비행거리가 멀어 연료보급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목표지역에서 3분정도 공격할 수 있는 여유밖에 없었다. Puerto Argentino의 지상레이다로부터 경보와 육안에 의해 Harrier를 포착할 수 있었다면, Dagger는 마하 0.9 유지로 Sea Harrier의 용이하게 교전할 수 있었다.

Dagger가 취할 수 있었던 유일한 전술은 포클랜드에 직진으로 침투하여 대기지점에 있는 Sea Harrier에 동시에 공격하는 것 뿐이었다.

Siposki소령은 전투상황을 다음과 같이 회상하였다.

“우리는 목표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었으나, 성공적으로 귀환한다는 전망은 거의 없었다. 따라서 우리의 신념은 가능한 최대로 공격, 공격하는 것 뿐이었다.

이러한 공격정신은 의무감에서 우리 나왔다기 보다는 자연스러운 내적인 발로였다.” 주요 공격대형은 550Knot, 저고도로

1척의 함정에 대하여 3대의 종진대형이었다. 5월 24일 4기편대로 구성하여 15대의 함정에 폭탄을 투하한 후 대공포를 피하여 귀환하였을 때, 2, 3, 4번기가 대공포에 의하여 2발 내지 6발 피격되어 수리하였다. Cesar중위는 영국함대가 Puerto Argentino에 접근한 5월 1일 첫 공격에 참가하여, 3대의 Dagger로 종진대형으로 함정을 공격한 후 대공포를 피하여 귀환하였다.

Sea Harrier가 추격하였으나 엄호기편대인 Mirage III가 적기를 요격하는데 성공하여 무사히 기지로 귀환하였다.

## ● 해군항공대 활약상

해군항공대대는 Super Etendard와 A-4Q 대대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들 대대는 전쟁중 23회의 출격에 3~4대의 함정을 침몰시킨 전과를 얻었다.

Arberto Philippi중령이 이끄는 3대는 HMS Ardent를 공격한 후 Harrier를 피하여 귀환하였으나 Philippini는 사이더와인더에 의하여 피격되어 비상탈출에 성공, 아르헨티나 헬기에 의하여 구조되었다. Skyhawk기 2편대를 이끈 Rotoco는 Snake-eye 폭탄을 투하하였으나 아무런 전과도 올리지 못하였으며 6대가 피격되어 3대를 잃었다. 5월 24일 대대장이 이끈 4대의 A-4Q는 San Carlos만을 공격한 후 그 중 한 대는 대공포에 피격되어 착륙 중 이탈 조종사를 잃었다.

이로써 전쟁 중 많은 피해를 입고 두대만으로 나머지 임무를 수행하였다. Jorge Colomobo소령이 지휘한 Super Etendard 대대는 전투준비에 1달이 소요되었다. 이들은 국제적으로 무기수출 금지를 선언한 후 불란서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얻지 못하였으며 대대원들이 불란서어로 된 기술교범을 번역하여 Exocet 등 공격장비를 장착하였다.

전쟁발발 전에 모든 조종사들은 불란서에서 Super Etendard 비행과정을 마쳤으나 공격장비를 운영해 본 경험이 없었다.

5월 4일 Augusto Bedacarratz 소령과 Armando Mayora 중위는 2대의 Super Etendard로 구식의 Lockheed SP-2H Neptunes 안내를 받아 목표지점에 유도되어 Exocet를 발사 HMS Sheffield를 격침시켰다.

1810년 스페인 정권이 전복된 날을 기념하는 국경일인 5월 25일, 해군소령 Roberto Curilovic과 해군중위 Julio Barranza는 Rio Grande를 떠나, 2차례의 공중급유를 받아 기지로부터 500마일 떨어진 목표지점으로 비행하였다.

해면으로부터 60ft 상공에서, 영국함대로부터 25마일 떨어진 지점에서 각각 1발의 Exocet를 발사하여 Atlantic Conveyor에 명중, 격침시켰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1발의 Exocet로 HMS 무적함대를 격파시키기 위한 계획이 신중하게 모색되었다.

5월 30일 Francisco소령은 Super Etendard에 Exocet 미사일을 장착하고 요기와 함

계 또 다른 공군소속 4대의 A-4C와 함께 이륙, 목표지역에서 연료보급 후 동쪽에서 기습공격하였다. 함정으로부터 7마일 떨어진 지점에서 Francisco는 Exocet를 발사한 후, 4대의 A-4C가 이어서 공격하였다. 이 중 두대의 A-4C는 Sea Dart에 의해 격추되었다. 그들은 항공모함이 분명히 격침되었다고 믿고 있었다. 왜냐하면 피격된 Conveyor는 정지된 상태로 떠 있었기 때문이다.

## ● 맺는 말

아르헨티나 공군은 포클랜드 전쟁동안 2,781시간의 전투, 7,718시간의 수송, 1,952시간의 지원으로 총 12,454전투비행시간을 기록하였다. 505회 계획에 445회 출격하였으며, 272회에 걸쳐 목표를 공격하여 43대의 비행기와 36명의 조종사를 잃었으며, 61대의 항공기는 기타 원인에 의해 실종되었다.

아르헨티나 함대소속의 해군항공대는 550회의 출격(무장공격 및 정찰비행 100회 포함)에 6,250시간 비행하여 전투중 6대의 항공기와 4명의 조종사를 잃었고 12대의 항공기가 기타 이유로 손실되었다.

포클랜드 전쟁교훈은 앞으로 수년간 논의 될 것이다. 포클랜드전은 고도의 기술과 낮은 기술의 배합전으로서, 최신예 정밀유도 무기는 파괴력과 정확성이 판명되었으나 노력만하면 용이하게 회피할 수 있음이 입증되었다.

현대의 군함은 아르헨티나의 용감한 전투조종사의 낡은 무기에 의한 대량의 공중 공격에도 취약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Sea Harrier와 Aim-9L은 위력이 막강하였으며, 이는 영국조종사의 뛰어난 전투기량에 의하여 배가되었다.

현대전에서 전자전과 레이더활용, 공중 공격에 취약한 함대에 대하여 새로운 교훈을 남겼다.

아르헨티나 조종사의 용맹성은 놀라운 것이었으며 치하 받을 일이었다. 그들은 처음으로 출전하여 그들이 사용한 전투기량 및 전술은 세련되지 못하였다. 단순한 비행술과 용기를 가지고 함정에 대하여 공격을 가하였으나 실제로 파괴된 것은 25%에

지나지 않았다.

여하튼 이들은 6대의 함정을 격침시켰고 10대를 파손시켰다. 아르헨티나 공군의 정찰작전은 영국함대의 위치를 정확히 추적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양측은 매스컴전 또한 치열하여서 주요 작전에 대하여 허위보도 등 심리전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결론적으로 포클랜드전은 양측 공히 원하지 않았던 전쟁이었으나 막상 전투에 임하자 양국의 조종사들은 용맹성과 희생정신을 발휘하여 목에 실크 스카프를 두르고 조종석에 올라 전투조종사로서의 투혼을 불살랐다.

# 保安의 基礎理論

吳 世 贊

(대위 · 공군본부)

개개인의 비밀보호 확률을 증진시키는 방법은 곧 보안업무의 목표이며 보안실무자의 과제라 할 수 있다. 보안실무자는 관리자요, 지시 감독자이므로 보안규정에 관한 정확한 이해와 기본임무 수행시 보안이 생활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1. 保安의 意義

**保**안이란 用語는 国内 各機關마다 目的別 對象에 따라 各各 相異한 뜻으로 使用하고 있으나 결국 保安이란 國家 保安法 等を 通하여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國家安全保障에 活用되는 用語로 集約된다.

일반적으로 保安 - Security는 공포, 근심, 걱정 등으로부터 安全하게 하는 狀態와 그 安全을 保障하는 것으로 理解할 수 있으며, 法曹界에서의 약속 이행이나 빛의 청

산을 보증하기 위하여 제공, 예치, 담보된 物件이나 權利의 집행 등의 意味 이외에, 우리 군에서는 적군의 집요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침해행위, 즉 위협에 노출되지 않은 보호된 상태와 부대의 안전이나 군사기지의 안전을 追求하기 爲하여 軍의 비밀이나, 人員, 活動施設, 보호를 要하는 지역 등을 간첩이나 不純分子와 非인가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活動이나 경비를 우리는 保安이란 용어의 일반적 해석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각국의 “보안”에 관한 意義를 살펴보면 中華民國의 경우 “保安”을 “治安保全”의 意

味로 使用하고 國家安全保障上의 비밀이나 人員, 施設, 地域을 간첩이나 불순분자의 각종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보안 활동은 “保秘” 또는 “保防” 등의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또 프랑스의 경우는 一般社會에서의 意味는, 社會的 위험으로부터 公共秩序의 구성요소와 개인의 모든 가족들을 보호한다는 뜻으로 사용하는 반면 군에 있어서는 “군의 士氣를 보호하는 군기관”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와 지리적,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日本은 국가의 안전과 국민생활을 害하려는 阻礙사항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活動으로 “公安”, “保全,” “警備” 등의 용어로 대치 使用하고 있다.

## 2. 軍事保安의 重要性

軍事保安은 예상되는 각종 危害行爲로부터 국가와 生命을 보호하고 국가와 軍의 財産을 보호함으로써 國家安全保障을 爲한 手段으로서의 illian성을 가지고 있다.

現在 北韓의 金日成·正日 共產集團은 남한 적화혁명통일의 기본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그네들의 4 대군사노선을 이의 확립하고 남한 내 혁명기지건설을 위하여 사회계층간의 이간은 물론 신성한 대학가를 붉은 좌경의식의 불구덩이로 획책하는 한편 금강산 “뎀”건설을 은밀히 추진 우리 남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軍事保安이 국가안보의 받침대의 의미를

갖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여 줄 수 있는 것은 역시 軍의 힘이 최후의 보루가 되기 때문이며, 북의 조직적이고도 불순한 첩보수집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만약 軍의 중요기밀이 그들에게 누설된다면 군사작전은 물론 국가안보에 위협이 닥쳐 오리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절감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때에 軍의 안보를 위협하는 不純分子의 각종 위해행위로부터 軍의 전투력을 最善의 狀態로 保護하기 爲하여서는 무엇보다도 完璧한 軍事保安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 3. 保安對象의 價値와 存在形態

保安의 對象은 國家安保上의 가치에 의해서 선정된다. 이 가치는 物質的인 경제적 가치 뿐만 아니라 無形의 정신적 가치로도 형성되며 保安의 가치는 사람의 生命과도 같은 것으로서 그 價値를 상실하였을 때에는 회복하기가 困難한 것이다.

우리가 保護해야 할 보안대상 중 人間, 施設, 장비 등 형태가 있는 것은 일정한 장소에 고정되어 있어 그 보호방책이 비교적 일정하나, 人間은 항상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 보호방책이 위치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다.

文書도, 그 自体로서 보안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文書 그 자체가 갖는 특수성에 의하여 우리 주변에 보호를 要하는

사항이 대부분 비밀문서화되어 있어 문서보안 하면 곧 비밀보호를 연상할 만큼 중요한 보안대상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아무리 견고한 용기 속에 보관되어 있는 비밀문서의 경우도 한번 열람된 문건보다 열번 열람된 문건은 그만큼 保安度가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생산된 비밀문서의 사본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보안도는 감소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보안대상의 숫적 감소를 위하여 최초 생산시 배부선에 대한 통제와 꼭 필요 秘文만을 생산토록 하는 보안실무자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人間은 보안의 대상이면서 다른 보안대상과는 달리 보안의 주체이기도 하다. 개체로서 존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위장, 경계도 사람이 하는 것이요, 비밀문건을 직접 생산하고 관리하는 것도 바로 人間이다. 이러한 보안대상을 관리하는 과정에 인지되는 모든 비밀사항은 人間の 두뇌 속에 기억되고 기억된 비밀사항은 반드시 입을 통하여 누설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人間에 대한 보안대책은 실로 중요하고도 그 이행에 제한점이 따르지 않는다 할 수 없다.

#### 4. 保安對象의 취약성

保安의 對象은 적 또는 不純分子의 태업, 전복, 간첩행위에 의해 항시 침해를 받을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우리의 적은 우리의 보안책을 와해시켜야 만이 그들의 목적 달성 — 우리의 패배 — 을 할 수 있기 때

문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의 전투력 상실을 획책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보안방책에 조금이라도 허점이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군사기밀이 누설될 수 있는 것이다.

#### 가. 누설은 연쇄성을 갖는다

일단 어떠한 보안대상이 누설되었을 때에는 그 피해범위가 누설된 대상 그 자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와 유사한 모든 대상에까지 同一한 위험이 同時에 發生한다. 紛失된 한건의 비밀문건은 해당부대 뿐만 아니라 배포된 전 부에도 그 영향이 미치게 됨은 자명한 사실이다.

#### 나. 유형적인 누설보다 무형적인 누설이 비밀보호에 더욱 피해가 크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나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누설은 즉각 확인이 가능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수 있으나 보이지 않는 무형적인 누설은 확인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막대한 보안상 피해를 입은 후에도 확인이 가능하게 되어 군 전력보호에 깊은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 5. 보안의 기초이론

현재까지의 보안업무는 과학적인 근거이론이 없이 다소 추상적인 이론에 기초를 두고 과거 최초 공군보안규정이 발간 활용하

기 시작된 1959년 이후 보안전문 실무경험자의 경험을 토대로 연구 발전시켜 왔으나 오늘날에 와서는 과학기술의 발달 등 고성능의 각종 장비가 출현함에 따라 기밀을 탐지하는데 동원되는 수단과 방법이 고도화됨으로써 이에 대한 보안대책도 추상적인 이론을 지양하고 과학적 근거이론을 정립하여 발전시켜야 할 시점에 있다고 본다. 따라서 군사기밀을 최선의 상대로 보호하기 위하여 학술적인 측면에서 비밀보호의 기초이론을 설명하고자 한다.

#### 가. 秘密保護 확률

우리가 중요시하고 있는 秘密은 그 중요도에 따라 I급, II급, III급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이 비밀이 통상 문서나 기억에 의해서 전파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문서는 하나의 物理的 存在로서 다른 물건과 마찬가지로 파손되거나, 분실 또는 도난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동일 내용의 문서를 많은 부서에 전파하였을 때에는 그 취급자와 관리자도 또한 비례하여 증가되는 것이며, 보관장소도 부서나 부대별로 각각 상이하므로 분실이나 도난의 위험성도 증가되는 것이다.

또한 문서화되지 않은 어떤 비밀사항을 기억하고 있다가 언어나 메모 등을 통하여 누설하였을 때에도 비밀문서를 분실하거나 누설하거나 도난당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비밀의 보호를

위하여 취해지는 보안방책은 어떻게 하면 완벽한 방책이 될 수 있을까? 이미 해답은 자명하게 밝혀진 것이지만, 同一문건의 수를 최소로 감소시키고, 비밀을 인지하고 있는 자를 최대한으로 줄이는 방법임을 알 수가 있다.

비밀보호 확률이란 어떤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해진 제반방책이 그 비밀을 보호할 수 있는 최대의 보호 가능률을 100%로 기준하여 각 보호방책이 비밀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 가능률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각 방책별 비밀보호 확률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1) 인지자(認知者)의 보호확률

인지자의 보호확률이란 어떤 비밀사항(S)에 대하여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갑” “을” “병” 3인이라고 할 때 “갑”이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확률이 그 사람이 자라온 성장과정, 가족관계, 근무성적, 국가에 대한 충성심 등을 고려할 때 0.9, “을”이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확률이 동일 조건기준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0.8, “병”이 누설하지 않을 확률이 0.7이라고 가정한다면 어떤 비밀사항이 “갑, 을, 병” 3인에 의하여 누설되지 않을 확률은  $0.9 \times 0.8 \times 0.7 = 0.504$ 로서 “갑, 을, 병”의 비밀에 대한 총 보호확률은 50.4%가 된다. 각인이 누설치 않을 확률을 곱하여 총 누설되지 않을 확률을 구하는 理由는 “갑, 을, 병” 3인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비밀을 누설한다면 나머지 두 사람이 아무리 비밀을 보호하려고 노력하여

도 그 비밀은 누설되기 때문이다. 즉, 만약 “병”이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비밀 인자의 총 보호확률은  $0.9 \times 0.8 \times 0 = 0$  (누설)인 것이다. 이를 확률 공식으로 표시한다면,

$$P(S) = K \prod_{\pi=1}^{\ell} P_{\pi}(S)$$

$$= P_1(S), P_2(S) \dots \dots P_{\ell}(S)$$

라고 할 수 있는데,

$P(S)$ 는 인지자들이 同時에 비밀을 보호할 수 있는 확률

$K \prod_{\pi=1}^{\ell} 1$ 은 비밀의 첫번째 인자로부터 마지막 인자인  $\ell$  사람까지란 뜻으로  $\pi$ 는 ( $\dots$ 로 부터  $\dots$ 까지)이다. 또,  $P_{\pi}(S)$ 의  $P$ 는 인지자인 어느 한 사람의 보호확률,  $K$ 는 어떤 비밀문서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의 총괄이다.

이상의 공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비밀보호 확률인 「보안도」를 향상시키고자 한다면, 개개인의 비밀보호 확률을 증진시켜야 하고 또한 가급적 비밀인지자의 수를 감소시켜야 함을 알 수 있다.

개개인의 비밀보호확률을 증진시키는 방법은 곧 보안업무의 목표이며 보안실무자의 과제라 할 수 있다. 보안실무자는 관리자요, 지시 감독자이므로 보안규정에 관한 정확한 이해와 기본업무 수행시 보안이 생활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비밀을 최소화하고 비밀 인지자를 최소의 인원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마치 임무 그 자체를 수행상 제한하라는 자가당착의 말처럼 인식될 수 있으나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일정한 분류지침에 의거하여 비밀을 생산한다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비밀을 3분의 1 정도로 감소할 수 있을 것이며, 생산비문의 배포선도 대폭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비밀문서의 감소작업이나 인지자의 감소도 중요하지만 비밀보관장소나 시설의 보호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어떤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관함, 건물, 철조망 울타리 등을 설치하였다고 하였을 때, 밖으로부터 제1보호방책인 울타리나 제2방책인 건물이나 제3방책인 보관함 모두가 비밀요소를 보호함에는 有效한 보호수단이 되는 것이다. 만일 외부 침입자에 의하여 제1, 제2, 제3방책이 모두 파괴되어 비밀이 위협에 처하게 되는 확률을 구하고자 한다면 각 보안방책을 곱하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제1방책은 철조망을 파괴하지 않고는 제2방책인 건물에 접근할 수 없으며 건물벽의 파괴없이 제3방책인 보호함에 접수할 수 없기 때문이다.

敎理는 動態的이다. 따라서 科學技術과 國家安保政策 그리고 國際情勢와 經濟적 環境에 부응키 위해 끊임없이 發展하고 있으며, 이것은 과거로부터 현재를 거쳐 미래로 발전하는 교량역할을 해준다.

# 空軍敎理 考察

徐 聖 道

〈소령·공군본부〉

## I. 序 言

**空**軍 基本敎理의 空軍目標에서 “大韓 民國 空軍은 國家防衛의 核心戰力” 이라고 明記하고 있으며 또한 空軍은 名實 共히 現代戰의 寵兒로 實証되고 있다.

空軍 基本敎理는 우리의 核心戰力인 空軍 力을 準備하고 運用하는 方法을 收錄하고 있다. 空軍 基本敎理의 目的은 空軍의 모든 構成員들에게 戰·平時를 莫論하고 空軍力 運用에 對한 基礎를 심어주고 空軍力 運用 方法을 상세히 提供하는 作戰, 戰術·戰技, 技術分野, 節次 等 空軍의 諸分野 刊行物에 對한 源泉 내지 根拠를 提供하는 것이다.

1949年 創軍以來 持續的으로 發展된 우리 的 敎理는 오늘날 우리가 直面하고 있는 敵 的 威脅과 挑戰에 對處하는 方法을 提供하여 왔으며, 또한 未來의 挑戰에 對處하는 空軍力을 指導하는 出發點으로 作用하였다.

空軍力은 우리의 國家를 保衛하고 敵의 侵略을 阻止하는 決定的인 戰力으로 作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따라서 모든 空軍의 構成員은 우리의 敎理를 研究하고 評價하며 또한 알아야 한다.

本欄에서는 1986年度 改正된 空軍敎理를 持續的으로 掲載하여 空軍敎理를 널리 理解시키며 空軍力 主唱에 責任을 다하는 우리 的 各分野 構成員들에게 敎理理解에 一翼을 도모하고자 한다.

## II. 空軍敎理의 概念

空軍敎理는 軍事行動에 있어서 空軍力의 適切한 使用에 對한 說明과 그 指針이 되는 公認된 信念과 戰爭遂行의 原則을 記述한 것이다.

空軍은 空軍力을 準備하고 運用하기 爲한 最上의 方法에 關하여 共通된 指針으로 敎理를 公布하며 空軍의 組織, 訓練, 維持 및 發展에 對한 方向을 提示해 준다.

空軍敎理는 軍事的 敎訓, 經驗, 研究 및 試驗을 通하여 얻어진 知識에 基礎를 둔다. 이는 變化하는 軍事情勢, 概念 및 科學技術에 따라 發展되며, 또한 國家目標와 政策 그리고 軍事作戰에 對한 持續的인 分析을 通하여 發展된다.

따라서 空軍敎理가 空軍 任務遂行을 爲한 有用한 指針書가 될 수 있도록 持續的으로 補完 發展시켜야 한다.

### 1. 敎理의 定義

空軍敎理는 空軍力으로 國家目標를 支援함에 있어서 空軍의 活動指針이 되는 基本原則을 말한다. 이러한 原則들은 權威있는 것이나 適用時에는 判斷이 要求된다.

### 2. 敎理의 分類

空軍敎理는 基本敎理, 運用敎理, 戰術敎理, 合同作戰敎理, 聯合作戰敎理로 分類된

다. 各各의 敎理는 空軍力의 準備 및 運用에 關한 指針을 提供하는데 重要한 役割을 担当하며 서로 다른 水準과 深度로 記述된다.

#### ● 基本敎理

基本敎理는 軍事行動을 하는데 있어서 空軍力의 適切한 使用을 說明하고 이에 對한 指針이 되는 가장 根本的이고 持續的인 信念을 記述한 것이다.

基本敎理는 모든 空軍敎理의 基礎가 되며 空軍力의 準備와 運用에 關한 廣範圍한 指針書로서 空軍敎範 1-1로 發刊된다.

#### ● 運用敎理

運用敎理는 空軍의 任務遂行을 爲한 各專門分野別 業務活動의 運用原則과 指針을 提示하며, 空軍의 詳細한 任務說明과 空軍力을 準備하고 運用하는데 必要한 方法을 記述한 것으로서 空軍敎範 2-系列로 發刊된다.

基本敎理 및 運用敎理는 戰術敎理를 開發하는데 基礎가 된다.

#### ● 戰術敎理

戰術敎理는 細分化된 目標를 達成하기 爲하여 特定 武器體系의 適切한 使用을 記述하며, 基本敎理와 運用敎理를 軍事行動에 適用시키고 있다.

戰術敎理는 空軍敎範 3-系列로 發刊되고 戰術, 戰技 및 節次 發展의 基礎가 된다.

#### ● 合同作戰敎理

合同作戰敎理는 2個 以上の 軍이 合同作戰을 遂行함에 있어서 各軍의 責任을 明示하며, 空軍에 關係있는 合同作戰敎理는 空

軍敎理를 合同作戰에 適用하여 空軍力을 地·海上軍과 統合 運用하기 爲한 最善의 方法을 記述한다.

● 聯合作戰敎理

聯合作戰敎理는 2個 以上の 國家가 聯合作戰을 遂行함에 있어서 相互 防衛條約 또는 協定을 支援하기 爲하여 發展되며 防衛同盟國의 各軍間에 調整된다.

空軍에 關係있는 聯合作戰敎理는 空軍敎理를 聯合作戰에 適用하여 韓國 空軍力을 同盟國의 軍隊와 統合 運用하기 爲한 最善의 方法을 記述한다.

### Ⅲ. 空軍敎理의 發展

空軍은 1947年 陸軍 航空隊로 發足하여 1949年 10月 1日 獨立한 以來, 空軍力을 運用하는데 指針이 되는 形式을 갖춘 敎理가 없이 必要한 때마다 指揮官의 指導理論과 決心에 依해 運用되어 왔다. 그러나 自主國防을 指向하고 現代戰의 樣相에 副應하는 空軍力의 急進的인 增強과 現代化로 因하여 獨自的인 敎理의 必要性이 切實하게 되었다.

空軍에서는 1962年 1月 12日 空軍敎理制定에 關한 指示를 空軍大學 敎理研究室에 내려 敎理發展의 始發點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空軍大學은 多數의 外國軍 敎理를 參照하여 1962年 12월에 草案을 作成한 後 여러 차례의 修正을 거쳐 4年 7個月 後인 1966年 8月 1日 韓國空軍 最初의 敎理인 空軍作戰運用 要綱이 誕生하게 되었다. 空

軍作戰運用要綱은 現在의 基本敎理와 運用敎理의 混合的인 性格을 띤 條文形式의 것으로 全 3部(18個章 402個 條文)로 構成되었다.

그 後 1960年代 中盤에 韓國空軍은 超音速 戰爆機의 導入을 契機로 空軍力의 役割이 漸次 增大되고, 戰力이 急進的으로 發展함에 따라 空軍力 運用의 標準化와 概念統一의 必要性을 切感하고 空軍本部에서는 企劃管理參謀部 主管으로 1973年 3月부터 空軍基本敎理에 關한 새로운 研究가 始作되었다.

이 研究에는 25名의 專門委員이 參與하였으며, 空軍敎理 體系를 基本敎理, 作戰敎理, 運用敎理로 再分類하였다. 이에 따라 空軍作戰運用要綱을 改正하여, 數次의 審議를 거친 後 1974年 12月 20日 空軍敎範 1-1로서 空軍基本敎理가 發刊되었으며, 그 主要内容은 空軍敎理의 概念, 空軍力의 意義, 空軍力의 本質, 空軍力의 運用, 空軍의 指揮管理 等 全 5章으로 構成하였다.

'74年版 空軍基本敎理가 發刊된 以後 適用하는 過程에서 任務의 多樣化와 武器體系의 急進的인 發展으로 因하여 基本敎理 改正의 必要性이 漸增됨에 따라 空軍本部에서는 敎理研究委員會를 새로이 構成하여 研究한 結果 1977年 7月 1日 空軍基本敎理 改正版을 發刊하게 되었다.

그 主要内容은 空軍敎理의 概念, 國家政策과 軍事力, 空軍의 特性, 役割, 能力 및 運用原則, 空軍力의 運用 等으로서 全 4章으로 構成하였으며, '74年版의 運用敎理를

機能敎理로 代替함에 따라 敎理體系를 基本敎理, 作戰敎理, 機能敎理로 再分類하였다.

그 後 科學技術의 發展에 副應하고 未來指向의인 敎理로 發展시키기 爲하여 1982年에 敎理研究委員會를 再構成, 數個月間의 研究結果 1983年 5月 1日 空軍基本敎理(草案) 改正版이 空軍敎範 1-1로 發刊되었으며, 1983年 9月 1日 空軍運用敎理(草案)가 空軍敎範 2-系列(29個 專門分野別敎理)로 發刊되었다.

한편, 敎理體系는 基本敎理, 運用敎理, 合同作戰敎理, 聯合作戰敎理로 再分類함으로써 '77年度版 敎理體系中 作戰敎理, 機能敎理를 運用敎理로 一元化하였으며, 또한 基本敎理의 主要內容은 國家目標와 軍事力, 空軍의 基本任務, 空軍의 特性, 能力 및 構成, 空軍의 組織, 訓練 및 維持發展, 空軍力의 運用, 空軍基本敎理의 發展 等 全6章으로 構成하였다.

'83年 改定版 基本敎理(草案)의 特徵으로서는 空軍目標를 最初로 設定하였으며, 精神戰力 分野 等을 追加함으로써 韓國的 條件에 맞는 獨創的인 敎理로 發展시키는데 努力하였다.

1986年 2月부터 6月까지 空軍本部 企劃管理 參謀部 主管으로 敎理研究委員會를 構成하여 '83年 草案 形式으로 發刊된 基本敎理를 再定立하였다. 또한 該간의 敎理 發展體系를 合理的으로 改善하여 空軍大學의 研究機能을 補完시키고 研究業務를 活性化시켰다①.

既存의 敎理體系를 基本敎理, 運用敎理,

戰術敎理, 合同作戰敎理, 聯合作戰敎理로 再定立하였다. 새로 追加된 戰術敎理는 空軍任務遂行戰術로서 既存 敎理의 範疇에 包含시켰다.

'86年度 基本敎理의 主要 改正內容은 '83年度 敎理에서는 國家目標로부터 出發된 敎理概念에서 國家安保에 直接的 影響을 미치는 國防目標로 出發하였다는 劃期的인 變化를 摸索하였다는 點이다. 또한 第2章의 空軍의 任務에서 特記事項은 各 任務에는 明確한 任務目標를 賦與하였다. 第5章은 韓國的 作戰環境, 戰爭原則, 指揮統制 및 空軍力 運用에 關한 合理的인 概念을 導出하는데 注力하였다.

#### IV. 結 言

敎理는 動態的이다. 따라서 科學技術과 國家安保政策 그리고 國際情勢와 經濟的 環境에 副應키 爲해 끊임없이 發展하고 있으며, 이것은 過去로부터 現在를 거쳐 未來로 發展하는 橋梁役割을 해준다.

敎理는 實際 및 假想 威脅을 通하여 形成되기 때문에 空軍力을 準備하고 運用하는데 指針이 될 수 있도록 未來指向의인 眼目으로 發展시켜야 한다.

따라서 空軍의 모든 構成員들은 空軍敎理에 對한 끊임없는 關心과 意見을 提示하여 空軍力의 戰備態勢 完備에 積極 寄與해야 한다.

# “必勝의

# 領空防衛態勢

# 確立의 해”

우리는 북괴의 도발징후를 사전에 탐지할 수 있도록 철통같은 공중감시 및 조기경보체제를 유지 발전시키는 한편, 현존하는 가용전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적의 도발을 초전에 격멸하고 민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완벽한 영공방위태세를 확립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 리空軍의 오랜 숙원이던 戰力增強事業은 장병들의 헌신적 노력에 힘입어 制空權의 국내 조립생산을 완료하여 실전배치 시킴과 아울러 신예전투기 F-16의 도입과 각종 전투장비 및 무기체계의 현대화를 이룩하는 한편, 조기방공체제의 자동화를 이룩하여 空軍力の 질적, 양적 수준을 도모케 함으로써 거국적 행사인 '86 아시아 경기대회의 성공을 지원하였고, 두 차례에 걸친 中共機의 浸透를 완벽하게 전술조치하였던 것은 모두가 이러한 戰力增強의 바탕 위에 이루어졌던 빛난 成果였다. 우리는 이 같은 훌륭한 成長을 더욱

보완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금년을 必勝의 領空防衛態勢 確立의 해로 삼아 각자가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완수하여 4천만의 불침번으로써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이와 같은 공군 운영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시키기 위하여 다음 사항들이 강조되어야 하겠다.

첫째, 初戰必勝의 완벽한 臨戰態勢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야 한다.

지난해까지도 형식적으로나마 계속 해오던 각종 남북대화를 北傀는 일체 중단하고 對蘇 밀착에 의한 준비증강과 기계화부대의 개편 및 전방 추진배치, 지하갱도 준비 등 奇襲南侵을 위한 공격태세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한편, 금강산에 水攻戰略 目的의 대형 댐을 건설하고 그들이 우상화하고 있는 金日成에 대한 死亡說까지도 조작 유포함으로써 고도의 심리전과 도발위협을 통해 한반도에 위기의식을 가중시키려 하고 있다.

더우기 이러한 북괴의 비인도적인 만행과 기만책동은 그동안 악화일로에 있는 그들 내부사정과 '86 아시아 경기대회 방해공작의 실패로 스스로 자초한 국제적 고립과 상대적으로 지위향상된 우리의 국력에 초조한 나머지, 남북한의 정치, 경제, 그리고 군사력 균형이 와해되는 분수령이 될 '88 서울 올림픽대회를 앞두고 이를 방해하기 위하여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포자기적 대남 무력도발책동을 기도할 것으로 예측되는 시련과 격동의 한해일 것이다.

특히, 북괴는 개전 초일초야 전투에 의하여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기 위해 우리의 취약시간을 이용, MiG-23을 주축으로한 기습 남침의 전략전술과 전력배치를 완료시키고 있다. 이러한 북괴의 작전에 대응한 우리의 작전태세의 완비함과 아울러 적도발 징후를 사전에 탐지할 수 있도록 철통같은 공중감시 및 조기경보체제를-유지 발전시키는 한편, 현존하는 가용전력을 최대 활용하여 적의 도발을 초전에 격멸하고 민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완벽한 영공방위 태세를 확립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경제적인 군운영제도를 조속히 정착시켜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처럼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게 된데에는 장병들의 노력의 결실은 물론이거니와 평소 우리 空軍을 신뢰하고 적극 성원해 주신 대통령각하의 의지와 온 국민의 지원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우리는 심혈을 기울여 이룩해온 유형무형의 각종 전투력과 체제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발전시켜야 할 단계인 만큼, 이를 위한 기술축적과 효율적인 자원관리체제 확립, 각종 안전관리 등 경제적인 군 운영이 최대의 과제이다.

우리 경제는 최근들어 다소 호전되고 있으나 아직도 약 460억불에 달하는 외채와 선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근본적인 어려움은 상존하고 있으며, 특히 내년도의 역사적인 '88 서울 올림픽대회는 지속적

인 건축재정을 요구하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국가의 경제현실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인식을 가지고 국방관리 회계제도를 조속히 정착시켜 경제적인 군 운영체제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함은 물론, 근검절약과 저축생활화 등 국가시책에 솔선수범 하도록 가일층 노력해야 하겠다.

세째, 必勝의 精神戰力을 극대화시켜야 한다.

孫子は「攻心為上 攻城次之」(성을 공격하기 보다 먼저 그 성안에 있는 군사의 마음을 공략해야 한다)라는 것처럼, 전쟁의 승패는 장비나 무기체계 등 유형전력의 우열에 의하여 좌우되기 보다는 전투요원의 질과 사기 및 정예화 등 무형의 정신전력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하겠다.

특히 현재 대부분의 장병들은 6.25를 직접 체험하지 못한 전후 세대로서 공산주의의 잔학상과 실체를 정확히 모르고 있는 까닭에 반공의 당위성과 자유민주주의 우월성에 대해서도 확신이 부족한 실정을 감안할 때, 최근 극히 일부 이기는 하지만 사회 및

학원 일각에서 나타나고 있는 용공적인 급진 좌경사상이 병영 내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장병 정신 및 이념교육을 강화시키는 한편, 올바른 시국관과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맡은 바 임무완수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정신전력을 극대화시키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또한 장차 전쟁은 민·관·군 화합과 일체감을 통한 총력전에 의해서만 승리할 수 있음을 명심하여, 장병들의 의식주 등 기본적 복지향상과 병영생활의 명랑화를 이룩하는 한편, 엄정한 군기강을 확립시켜 선진 민주군대로서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더욱 증진시켜야 하겠다.

이제 대망의 정묘년 새아침이 밝아왔다. 새해에는 그 어느때 보다도 국내외적으로 수 많은 도전과 시련이 예상되지만 지휘관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한 지휘체통의 확립과 인화단결을 이룩할 때 어떠한 난관도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이는 한민족 역사의 전환점이 될 '88 서울 올림픽을 성공시킬 원동력이 될 것을 확신한다.

# 정신전력이 군기강에 미치는 영향

장 종 호

〈중위·제 8639부대〉

## 1. 서 론

**유**사이래 계속 이어져 온 전쟁과 평화는 인류사의 한 면을 장식하고 있다. 우습게도 인간은 평화를 위해 전쟁을 했고 전쟁은 승패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고통을 나누어 주었다. 이런 무의미한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해야 하며, 또한 건전한 사고방식을 군인에게 심어주어야 한다. 본 논고에서는 젊은이들로 구성된 하사와 병의 반목 그리고 구타 등 군기강에 가장 해악이 되는 두 요소를 집중 분석해 보고, 문제의 원인, 해소방안을 나뉘대로 제시해 보려고 한다. 모든 문제에 있어 그 근본 해소방안은 각 지휘관의 부대에 대한 끊임없는 애정과 관심이라는 것을 미리 밝혀 둔다.

### 가. 현대전과 정신전력

인류 출현이후 계속 이어져 온 전쟁은 현대에 있어서도 약소국의 생존문제를 크게 위협

## 정신전력 연구논문

하고 있다. 미국이 세계평화를 위해 SDI 계획<sup>1)</sup>을 수립하고 있지만 이 역시 실제로는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 한국을 포함한 동남아 약소국의 방위문제와는 요원한 것이다.

현재 한국이 처한 상황에서 북한 군전력을 압도하여 자체적으로 전쟁을 방지하고 국가 안전을 보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를 위해서는 군사력이 우세해야 하며 군사력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무형전력의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면 무형전력이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병력수, 무기, 장비 등의 유형 전력을 제외한 국민의 정신이나 사상상태, 군내부의 단결을 위시한 군인들의 전의상태를 의미한다. 현대전에서는 각 강대국들이 무기의 최신예화, 기술전력의 최고도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남은 것은 군이나 민간인의 사상을 일치시켜 정신전력을 강화시키는 것 뿐이다.

정신전력이란 Knorr<sup>2)</sup>에 의하면 다른 제전력의 그 기본적 토질이 되는 것으로, 국민의 정신 및 사상활동의 면에서 파악한 것이다. 즉 군·민이 왜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가에 대한 철저한 의미를 결정지어 주며 강한 의지를 소유하게 하여 총력전 수행의 추진력이 되게 한다.

### 나. 정신전력의 개념 및 요소

정신전력의 개념을 간단히 알아보면 신념, 사기, 단결, 군기를 핵심요소로 하여 군 구성원들로 하여금 투철한 군인정신의 바탕 위에 조직적으로 단결하여 부여받은 임무를 능동적으로 완수토록 만드는 것이다.

부연해서 설명하자면 전시에 각 병사들이 왜 싸워야 하느냐 하는 전쟁의 목적을 알게 하고 전투에서의 전승을 위한 신념을 고취시키는데 정신전력의 목적이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정신전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군사심리학에서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간단하게 그 개념을 파악해 보면,

(1) 사기 : 사기란 군구성원 개개인의 심리상태이며 스스로가 자기의 처지에 만족하여 자신과 전우를 믿고 지휘관을 중심으로 효과적이고 효력적으로 맡은 바 임무를 성취하려는 정신상태이다.

(2) 신념 : 신념이란 마음 속에 내재한 확고한 믿음과 자신감을 말하는 것으로 신념이 있는 사람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며, 또한 긍정적인 자세로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항상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이러한 신념은 불같은 의지와 강인한 정신력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3) 단결 : 단결이란 전 군구성원이 그들의 지휘관을 핵심으로 목적달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다. 군대의 존재의의가 승전에 있는 만큼 각 대원은 한 곳으로 전투력을 응집시켜야 한다.

(4) 군기 : 군기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언급하겠지만 개략적으로 알아보면, 군대를 상징하는 기강이나 풍토로써 군내 질서를 유지해 주고 기강을 확립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본 논고에서는 정신전력에 영향을 주는 네 가지 기본요소 중 군기의 측면에서 군기확립을 저해하는 하사·병 간의 반목과 구타의 문제를 분석해 보는 것을 연구범위로 한다.

#### 다. 이상적인 군기확립을 위한 여건

##### (1) 군기의 일반적 정의

군대는 일정한 조직원리에 의하여 군인들로 구성된 특수한 집단이므로 나름대로 몇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서로 다른 환경하에서 출토·성장하여 독특한 개성과 가치관을 형성시켜온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이들을 통제, 지휘,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율과 질서가 필요하다. 군에서의 규율은 매우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는데 이를 유지시켜 주는 것이 바로 군기이다.

“군기는 군대의 규율과 질서이며 생명과 같다.” — 군인복무규율 4-4 — 즉 적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전투력을 보전하는 것이 군기의 역할이다.

##### (2) 이상적 군기를 유지하는 요인

군기란 최선의 상태든 최악의 상태든 절대적인 명령복종에 그 바탕을 두고 있으며, 복종에 대한 태도가 자발적인 것인가 강압에 의한 것인가에 따라 이상적인 군기가 유지되는가의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이상적인 군기는 자기수양(Self-Discipline)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구속이나 속박으로 느끼지 않고 당연한 복종정신의 적용으로 여기게 된다. 그러면 군기를 이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여건들이 갖추어져야 하는가?

첫째로, 명령에 대한 절대복종이다. 단, 상관의 명령이 당위성과 타당성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

둘째로, 상하의 위계질서가 확립되어야 한다.

셋째로, 제규정의 철저한 이행이다. 모든 규정이 제대로 지켜져야 기강이 유지되고, 상하 위계질서가 확립될 것이다.

---

## 정신전력 연구논문

---

네째로, 각각의 책임완수로 곧 상관의 명령지시를 제대로 준수하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말하면 이상적인 군기는 하급자들의 자발적인 복종, 군 법규의 철저이행, 상하 위계질서의 확립으로 쌓아지는 것이다.

### 2. 하사·병 간의 반목과 군기강에 관한 문제

#### 가. 하사·병의 임무

##### (1) 병의 임무

군인복무규율 제 4 조에는 병의 임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국방의 의무는 다른 여러 의무에 앞서는 가장 신성하고 명예로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릇된 인식 때문에 병역을 기피하려는 젊은 계층이 일부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다.

복무규율에서 규정 한 병의 임무를 보면, 군대의 일원으로서 전투원에게 요구되는 강한 정신력과 강건한 체력을 갖추기 위하여 자신을 연마하고,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며 제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즉, 어떤 면에서 보면 상관이 계속적인 판단과 구상으로 전략을 세워 지휘할 때, 병은 그것을 받아 행동하고 실천하는 수동적인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 (2) 하사관의 임무

하사관은 영관급, 위관급의 고급간부와 하급자의 위치에서 명령을 받아 병에게 전달하여 명령을 이행하는 장교와 병 간의 중간교량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즉 하사관은 이들 양자 간에 있어 상의하달로 의사소통이 되게 하고 상사로부터의 명령, 지시를 병의 입장에서서 인도하는 임무를 가진다.

##### (3) 하사관에게 필요한 자질

우선 임무완수에 있어 모범을 보이고 전술한 것처럼 술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사관은 병이 해야 할 모든 일에 있어서 완전하게 또한 기술적으로도 숙련되어 있어야 하며 군내의 제관습과 제도, 세부규정 등 병이 알고 실행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도 통달해야 한다.

첫째, 하사관은 중간지휘자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지휘통솔력의 자질이 필요

하다. 이를 위해서는 하사에게 병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제재권을 주어야 한다.

둘째, 하급 일선관리자로서의 위치에서 요구되는 관리능력을 가져야 한다.

세째로 특기능력이 요구된다. 공군 특성상 각자가 자기의 특정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기술을 소유해야 하며, 더우기 하사관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 나. 하사·병 간의 심리적 갈등

지금까지 몇 차례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하사와 병 간의 반목관계를 피상적이거나 혹은 단순하게 예를 들면 존칭문제나 호칭문제로 인한 갈등 등으로 파악한 감이 없지 않다. 물론 이러한 문제가 하사·병 간 사고의 원인이 되어 왔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양집단의 각 특성 및 이와 관련한 개인적인 심리를 분석하여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라 생각하여 본 논고에서는 이점에 착안해서 서술토록 하겠다.

설문 1. 하사가 군에 입대하는 동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                           |     |       |
|---------------------------|-----|-------|
| (1) 계속 진급해서 군인으로 출세하려고    | 23명 | 19.2% |
| (2) 사병보다 더 편하게 복무할 수 있으므로 | 47명 | 39.2% |
| (3) 보수가 사병에 비해 월등히 높기 때문에 | 35명 | 29.1% |
| (4) 간부로 복무하기 위해서          | 15명 | 12.5% |

설문 2. 계급상 병은 반드시 복종해야 하는가?

- |                |     |       |
|----------------|-----|-------|
| (1) 그렇다        | 21명 | 17.5% |
| (2) 그렇지 않다     | 20명 | 16.6% |
| (3) 상황에 따라 다르다 | 67명 | 55.8% |
| (4) 모르겠다       | 12명 | 10.1% |

설문 3. 하사·병의 관계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 |                          |     |       |
|--------------------------|-----|-------|
| (1) 정기적인 체육활동 및 오락시간     | 22명 | 18.3% |
| (2) 대화를 통한 상호 이해         | 47명 | 39.2% |
| (3) 하사·병을 포함한 친목회 조직     | 15명 | 12.5% |
| (4) 어떠한 방법으로도 관계 개선이 어렵다 | 36명 | 30.0% |

총 120명

(하사 20명, 병장 15명, 사병 8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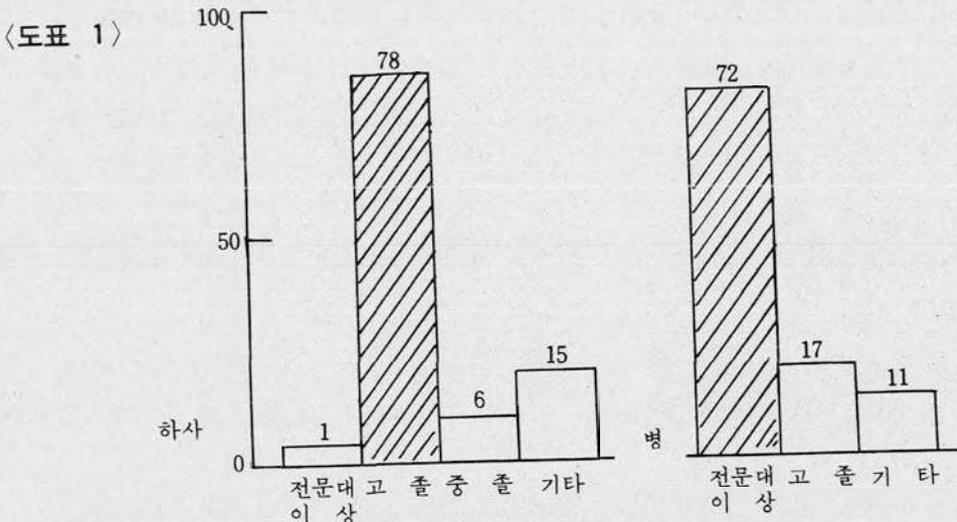
## 정신전력 연구논문

### (1) 병이 보는 하사상

설문을 통해 살펴본 결과 하사의 군입대 동기에 대해 39.2%가 '병보다 더 편하게 군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응답했으며, 29.1%가 '병보다 보수가 훨씬 높기 때문이다'라고 응답했다. 실제로 하사는 대전 교육사에서 6개월의 단기훈련을 받고 각 예하 부대로 배치되어 내무반장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때문에 고참병과 신참하사 간의 대립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이러한 대립은 어떠한 제도적 개선이 없는 한 고쳐지기 어려운 것이다. 또 응답자의 29.1%가 답한 것처럼 신참병의 3,000원의 보수를 받는 데 비해 하사는 약 12만원에 해당돼 그 차이가 현격하다. 즉 병들은 하사들이 그들보다 단지 약간만 더 복무하면서 대우와 보수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다분히 부정적인 하사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갈등의 표면적 원인

'85년의 하사와 병 간의 학력을 보면 하사의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수가 1%, 고졸이 78%, 중졸 이하가 21%를 차지한 반면, 일반병은 전문대 재학 이상이 72%, 고졸 이하가 18%로 학력면에서 병이 월등하게 높다. 또한 연령면에 있어 하사의 평균 연령이 19세인데 비해 병은 21세로 더 높음을 알 수 있다(도표 1).



이로 인해 병은 하사에게 상대적으로 심리적 우월감을 가지게 되며 계급사회에서 요구하는 복종에 반발하게 된다. 병은 병대로 하사를 무시하고, 하사는 하사대로 계급을 우선하는 경향이 갈등의 표면적 원인이다.

(3) 심리적 분석

(가) 병이 가지는 계급 콤플렉스

갈등의 가장 기본적 원인은 병이 하사에 대해 가지는 하급자로서의 계급 콤플렉스이다. 이것은 열등감을 가지게 하며, 또한 이러한 열등의식은 통합된 의식의 질서를 장기간 망각하게 만든다.

Jung<sup>3)</sup>은 콤플렉스를 “의식의 통제를 벗어나 격리되어 마음의 어두운 한 구석에 위치한 심리적인 실체”라 했다. 이러한 콤플렉스는 정상적인 의식적 상황, 또는 태도와 양립할 수 없으며 항상 불안한 심리적 상황을 갖게 한다.

계급에 대한 병의 콤플렉스는 병의 약 72%가 하사의 계급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데서 나타난다. 이들 부류는 그들보다 복무경력이 낮은 하사들이 병역제도에 의해 상관의 계급을 갖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으며, 균규율상 어쩔 수 없이 복종을 요구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콤플렉스를 갖게 된다고 보겠다.

(나) 집단 무의식<sup>4)</sup>

집단의식은 전통, 관례, 규칙이나 편견 등 각 단체의식 전체의 진로를 제시해 주고 있는데 이것에 따라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휩싸이게 된다. 즉, 병의 집단에서는 전통적으로 하사는 편하다는 편견을 가지고 이를 전수시킴으로써 집단 무의식을 형성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 원인은 일부 고참병들이 무조건 하사를 싫어하기 때문에, 신병을 그들의 집단의식 세계로 끌어들이 하사를 경시하는 풍조를 무의식적으로 가지게 만들기 때문이다. 실제 하사에 대해 하사다운 대우를 해주고 싶다는 신병이 32%에 해당하는 것은 일부 병들의 그릇된 인식 때문이라는 것을 실증해 주고 있다.

(다) 갈등의 심화요인

인간은 자기가 속하고 있는 집단의 준칙과 행동을 채택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고 Combs<sup>5)</sup>는 그의 저서 “지각심리학”에서 말하였다. 이것은 곧 자기가 속한 집단에 대한 공격은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이라 여기기 때문에 외부의 공격은 적의로 간주하게 되는 것이다.

집단구성원들은 자신의 지각의 장을 진실이라고 믿기 때문에 자기가 속한 집단의 관습이나 태도는 객관적으로 타집단에 대해 우월하다고 판단하며, 그들을 자기 집단의 표준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느 집단에 소속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타인의 행동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

## 정신전력 연구논문

---

또한 소속집단의 구성원들로부터 칭찬받는 행동을 하면 가치있게 여겨지지만 반면 비판 받는 행동을 할 경우 소속집단으로부터 소외당하게 된다. 이러한 집단심리 때문에 하사와 병은 각 집단으로부터 소외당하지 않기 위해 각각의 틀 속에서 행동한다. 즉 하사와 병의 갈등은 각 집단이 타집단을 적대시하는 고질적인 관념이 사라지지 않는한 어려운 것이다.

### 다. 군기강에 미치는 영향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사와 병 간의 반목은 그 정도가 심각하며 따라서 군내부 기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단결 저해로 인한 전투력 약화라 하겠다.

현대전이 정신전력을 기초로한 사상전·심리전의 양상을 띠게 되어 군자체 단결은 물론, 군인들의 정신상태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 군내에서 쓸데없는 분열이 일어난다면 상호 불신으로 인한 사기저하는 물론 나아가 전투력의 약화를 가져올 것이다.

둘째, 지휘체통의 무질서이다.

군대는 상관과 부하 간에 엄격한 구별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지휘체통의 철저한 구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하사에게 주어진 임무를 고참병이 강점할 경우 지휘체통의 혼란은 물론 상관에 대한 경시풍조가 일어날 것이다.

셋째, 폭력사고에 의한 인력손실이다.

'85년의 경우 전체 폭력사고 중 하사와 병의 갈등으로 일어난 사고가 7건으로 18%의 비율을 나타냈다. 폭력사고의 원인도 매우 단순한 것으로 상호 호칭·존칭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넷째, 상호갈등은 능률저하요인이 된다.

사실 하사와 고참병의 업무수행능력은 누가 더 우수하다고 말하기 어려우며, 제업무에 있어 실질적으로 각자 편리를 쫓게 된다.

### 라. 갈등 해소 방안

각기 독특한 인성을 가진 개인들의 조직체인 군에서 이들의 반목으로 능률이 저하되고 폭력행위로 인원이 손실되어 군전력의 약화를 초래한다는 것은 더 없이 안타까운 일이다.

이러한 무의미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각 집단 속에서 개인이 갖는 심리적 부담을 파악하는 것이 순서라 하겠다.

#### (1) 열등의식의 인식과 분화

Jung의 학설에 의하면 인간의 정신은 네 가지 의식세계를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 즉 제 1의식이 우월의식, 또는 주의의식이며 보조의식으로 제 2의식과 제 3의식, 그리고 열등의식으로 제 4의식이 있다는 것이다. Jung은 상기의 네 가지 의식 중 어느 누구나 제 1의식과 제 4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병이 하사에게 제 1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반면 하사는 병을 대할 때 주로 제 4의식을 가지게 된다.

하사가 병에 대해 열등의식을 갖게 되는 원인은 전술한 것처럼 학력과 연령면에서 병보다 상대적으로 낮고, 병이 그들을 경시한다고 여기는 강박관념에 젖어 있기 때문이다. 하사의 이런 의식은 병집단과의 대화를 단절시키며, 집단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채 스스로의 의식을 고정시켜 버린다. 이런 의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열등의식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여러 곳으로 분화시켜야 한다.

병에 비해 여건이 다소 열등하더라도 하사들은 열등감을 고질화시키지 말고 좋은 방향으로 분산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혹 열등감으로 인해 병을 억누르려고 한다면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할 뿐더러 언제나 약하고 열등한 상태로 인식되어질 것이다.

그러면 열등의식을 분화시키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곧 병들과의 대화시간을 자주 가져 스스로의 약점을 최대한 인정하고 병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 배우겠다는 겸허한 자세를 가지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하사들은 일단 그들의 열등한 여건을 받아 들이겠다는 용기가 필요하다. 동시에 하사들은 하사 고유의 업무에 정통하고 최대한으로 숙련하여 학력이나 연령을 제외한 제분야에서 병을 앞질러야 할 것이다.

#### (2) 해결과 이해이론

문제해결 과정을 분석하면 이해(Compreheusion)라는 단계가 있다. 이해라는 낱말의 어원을 보면 “상대방의 모든 어려움에 동화한다”<sup>6)</sup>고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문제의 윤곽을 파악하여 그 문제의 내용에 파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문제의 내용구조를 통찰함으로써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병은 하사의 고충을, 하사는 병의 고충을 비록 상반된 입장이지만 서로의 위치를 바꾸어 이해해 보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병의 39%가 하사와의 진지한 대화를 원하고 있듯이 하사

---

## 정신전력 연구논문

---

도 계급에 의한 권위의식을 버리고 병들과의 대화에 임한다면 문제해결은 한층 수월해질 것이다.

### (3) 실질적인 해소방안

앞에서 양집단 구성원들의 갈등에 대한 원인과 해소방안을 알아보았다. 그러면 갈등해소를 위해 실제로 어떤 방법이 필요한가?

첫째로 우선 우수한 자질의 하사를 확보하여 병들과 비교할 때 가능한 한 양집단 간의 학력, 연령의 차이를 줄여야 한다.

둘째로 하사에 대해 일정한 한도 내에서 병들을 제재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재권을 부여해야 한다.

현재 하사에게 그러한 권한이 없으므로 지휘체통의 혼란과 더불어 반목이 심화되는 것이다. 이 방법은 다소 물리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므로 관계부서의 충분한 논의 후에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세째, 정기적인 친목회 및 체육활동이다.

상반되는 두 집단을 융합시키기 위한 최대의 도구는 스포츠이다. 주의할 것은 오히려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지 않도록 적절하게 이용해야 한다.

네째, 고참병들의 의식을 깨뜨려야 한다.

고참병은 신병에게 계속해서 하사 경시풍조를 전수시키고 있으며 이를 전통이라 여기고 있다. 신병 중 32%가 하사에게 하사다운 대우를 해주고 싶다는 것의 의미를 고참병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

## 마. 소 결 론

현재까지 발표된 논문은 하사와 병 간의 반목현상을 주로 외형적인 면에서 다뤘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착안하여 본 논고에서는 양집단의 갈등을 성격심리학적 견지에서 분석해 보는 것이 우선이라 여기고 이 방면에서 접근을 시도해 보았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병들이 하사를 적대시하는 이유 중 하나가 '하사는 무조건 편하다' (39%)라는 것이다. 이러한 병들의 의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전교육사에서의 하사관 특기교육기간을 좀더 늘리고 전문화시켜 각 예하부대에서 더 많은 업무를 감당하게 해야 할 것이다.

### 3. 폭행이 군기강에 미치는 영향 연구

#### 가. 폭행의 일반적 고찰

군형법 제9장은 군 내에서의 폭행죄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의하면 폭행죄는 폭행, 협박, 상해, 살인 등 형법상 개인적 범익을 침해하는 범죄이며 신분 내지 직무의 특수성에 의해 가중적으로 처벌하고 있다.

본 논고에서는 폭행 중에서도 하급자나 직무수행인자에 대한 폭행 즉, 구타에 대해 주로 논하고자 한다. 구타는 병영생활에 불안감을 조성시키며, 각종 사고의 직·간접 원인이 되기 때문에 가장 시급히 근절시켜야 할 것이다.

구타에 관해 육군의 경우 참모총장 일반명령 37호로 구타금지를 명하여 많은 실효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도 '66년 12월 19일 참모총장 시행지침 제10호 이후 지금까지 공식, 비공식적으로 수차<sup>7)</sup> 구타행위 금지에 대한 명령이 발표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2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구타사고는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구타는 일제시대 일본군이 한국군을 대할 때 사용하던 무력행위인데 안타깝게도 아직 남아 있다. 물론 독특한 집단인 군에서 몇 차례 때린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지만 정작 문제시 되는 것은 이유 없는 집합 및 음성구타이다.

'73년부터 '84년까지 구타사고는 매년 증가일로에 있었으나 '85년을 계기로 다분히 사고율이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구타에 관한한 통계자료를 이용한 분석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85년 공군에서 발생한 구타사고는 31건이지만, 실제 사고화되지 않은 구타사고를 합하면 엄청난 수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본 논고에서는 언어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타와 폭행 중 폭행이라고 지칭하여 서술하겠다. 이점 착오없기 바란다.

#### 나. 폭행의 군형법상 분류

##### (1) 형법전상의 구별

군형법에서는 폭행을 인간의 신체에 유형력 즉, 물리력을 행사하는 일, 또는 그 유사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군특성에 맞춰 좀 더 세분해 알아 볼 필요가 있다.

---

## 정신전력 연구논문

---

첫째 의미로서는 사람에 대한 물건에 대한 이를 불문하고 모든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최광의).

둘째 의미에서는 일정한 사람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광의). 즉, 그 대상이 일정한 사람이면 족하다는 것이다.

세째 의미로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협의). 예컨대 폭행죄 또는 특수공무원의 폭행죄 등을 말하고 있다.

네째 의미로는 사람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강력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최협의). 그런데 균형법상의 폭행이란 주로 세째의 의미를 말하므로 상관, 초병 또는 직무수행 중인 자에 대한 직·간접의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고 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그 행동이 사람의 신체에 직접 가해지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해당된다. 즉 협박이나 모욕, 욕설 등도 법적 의미에서는 폭행죄의 부류에 속하는 것이다.

### (2) 범죄유형에 의한 분류

여기에는 모두 15가지의 유형이 있는데 그 중 실제로 중요한 두 가지에 대해서만 언급 하겠다.

#### (가) 초병에 대한 폭행죄

본 죄는 초병에 대하여 폭행을 하는 것으로 본 죄의주체는 군인·준군인 외에 내외국인도 될 수 있다.

처벌은 다음과 같은 구별에 의한다.

-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 기타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 (나) 직무수행 중인 자에 대한 폭행죄

상관 또는 초병 이외의 직무수행인 자에 대하여 폭행을 하는 것이다. 여기서 직무란 고유한 직무에 한하지 않고 군인, 준군인의 자격으로 행하는 모든 사항을 포함한다. 단, 직무수행 중에 있어서 직무란 적법한 것임을 요한다. 본 죄의 주체 또한 제한이 없다.

처벌은 다음과 같은 구별에 의한다.

-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 기타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이외에도 폭행죄에는 상관폭행죄, 집단폭행죄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본 논고에서는 언급을 약하기로 하겠다.

다. 폭행이 군기강에 미치는 영향

군이라는 특수조직에서의 폭행행위는 그 자체로 범죄가 됨에 그치지 않고 피폭행자가 군무이탈, 자살, 총기난동 사건 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특히 사적 감정이나 개인적 욕구로 인해 음성적으로 발생된다는 것이 큰 문제점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음성적 폭행은 병사들로 하여금 내무생활에 대한 불안감을 싹트게 하고, 상관에 대한 불신과 적개심을 갖게 하며, 이로 인해 병사들은 사기가 저하되고 불신으로 군의 단결을 저해하여 급기야 전투력의 약화를 초래한다.

생각하기 나름으로는 군대라는 곳이 명령복종이 가장 중요시되는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상급자가 하급자에 대해 어느 정도의 물리적 제재를 가하는 것에 대해 반론을 제기치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설문 5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폭행이 일시적으로는 군기강 확립에 기여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적대감과 회의감으로 변해 사기를 몇 배 더 저하시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설문 4. 구타는 군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구타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 |                           |           |
|---------------------------|-----------|
| (1) 군기확립을 위해선 어느 정도 무방하다. | 25명 20.8% |
| (2) 한국적 상황아래선 당연히 필요하다.   | 24명 20.0% |
| (3) 절대적으로 사라져야 한다.        | 68명 56.7% |
| (4) 별로 상관하지 않는다.          | 3명 2.5%   |

설문 5. 군법으로 구타가 허용된다면 군기강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 |                     |           |
|---------------------|-----------|
| (1)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 2명 1.7%   |
| (2)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한다. | 21명 17.5% |
| (3) 절대 도움이 되지 못한다.  | 89명 74.2% |
| (4) 모르겠다.           | 8명 6.6%   |

설문 6. 구타금지 고발함의 실효성은?

- |                   |           |
|-------------------|-----------|
| (1) 높다.           | 0명 0%     |
| (2) 보통이다.         | 5명 4.2%   |
| (3) 형식적이다.        | 42명 35.0% |
| (4)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 | 73명 60.8% |

설문 7. 구타 근절을 위한 방안이 있다면?

## 정신전력 연구논문

- |                           |           |
|---------------------------|-----------|
| (1) 구타 발견시 즉각 처벌          | 54명 45.0% |
| (2) 수 차례 경고 후 처벌          | 26명 21.7% |
| (3) 스스로 깨닫도록 방임해 둔다.      | 7명 5.8%   |
| (4) 요주의 인물 리스트 작성. 철저히 감시 | 33명 27.5% |

또한 아무리 상급자라 하더라도 이유없이 또는 사적인 이유로 하급자에게 폭행을 행사할 경우, 여기에서 초래되는 사고는 더욱 커지게 되는 것이다. 상급자에 의한 이런 무의미한 폭력이 성행하는 결과, 복무 염증을 느끼고 각종 사고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상급자가 반드시 주지해야 할 것은 젊은 나이에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해 온 것이지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며 수단으로 취급되는 기계적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아니라는 것이다.

### 라. 폭행죄 통계분포 - 현역병을 중심으로 -

공군에서 발생하는 범죄현상을 보면 '74년부터 '80년까지 계속 증가현상을 보이다가 '81년부터 다시 감소하고 있다. 이 중에서 강력범의 비율은 '82년부터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도표 2).

〈도표 2〉

연도 \ 죄종별	'76	'77	'78	'79	'80	'81	'82	'83	'84
군 무 이 탈	224	271	289	286	317	313	227	177	225
강 력 범	37	62	79	88	84	83	122	127	124
재 산 범	24	16	29	33	30	29	49	42	59
자 해 범	12	15	15	10	12	12	8	10	13
차 량 사 고	·	15	20	15	34	19	15	26	28
기 타 범	11	16	24	17	25	16	11	13	20
계	308	295	456	449	502	472	432	395	474
범 죄 지 수	11.0	12.5	13.0	12.5	12.5	10.9	9.3	8.3	10.2

이처럼 강력범의 비율이 낮아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으며, 또한 그 간의

범죄예방활동이 많은 실효를 거두었음을 알려준다. 그러나 군에 있어 강력범죄는 무조건 근절시켜야 하므로, 각급 지휘관 및 관계부서에서는 더욱 노력하여 강력범죄의 비율을 낮춰가야 할 것이다.

강력범죄 중에서 단순폭행 즉, 구타의 비율은 전체 폭행죄 중 '82년 28%, '83년 32%, '84년 27%로 계속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마. 폭행죄 환경별 분류

(1) 강력범죄

(가) 계급에 의한 분류

'83년부터 '85년까지의 폭행죄를 계급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도표 3).

〈도표 3〉

연도	장 교		하 사 관			병장	상병	일병	이병	기타	계
	영관	위관	상사	중사	하사						
'83	1	16	3	9	29	32	34	14	2	12	152
'84	4	15	5	17	21	50	17	7	7	5	148
'85	2	8	4	15	19	10	8	6	·	24	96
계 (%)	7 (1.8)	39 (9.8)	12 (30.3)	41 (10.3)	69 (17.2)	92 (23.2)	59 (14.9)	27 (6.8)	9 (2.4)	41 (10.3)	396 (100%)

도표에 의하면 '83년 152명, '84년 148명, '85년 96명으로 '85년에는 상당히 줄어들었다. 이는 군내에서 폭행죄 감소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년간의 총 발생건수 중 하사와 병장이 접하고 있는 비율이 40%로 어느 정도 군생활에 익숙해 있는 계급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나) 학력에 의한 분류

폭행사안 중 가해자의 학력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도표 4).

총가해자 396명 중 201명이 고졸 이하로 학력이 비교적 낮은 집단에서 폭력이 행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4년제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을 받은 자도 84명이나 된다는 것은 지속적인 인격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 정신전력 연구논문

〈도표 4〉

학력별 연도	대졸	대재	대퇴	전문졸	전문재	전문퇴	고졸	고졸미만	계
'83	15	5	9	19	3	4	91	6	152
'84	25	22	21	4	2	1	70	3	148
'85	6	11	9	13	·	·	40	17	96
계 (%)	46 (11.6)	38 (9.6)	39 (9.8)	36 (9.2)	5 (1.3)	5 (1.3)	201 (5.7)	26 (6.5)	396 (100%)

(다) 연령에 의한 분류

연령에 의해 분류해 보았을 때 무려 68%가 21세에서 25세까지임을 알 수 있다(도표 5). 이는 젊은 하사나 병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인데 충동적이고 우발적인 상황에서 범죄심리를 억제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도표 5〉

(단위: 세)

연령별 연도	20세 이하	21~25	26~30	31~35	36세 이상	계
'83	11	117	15	3	6	152
'84	14	103	16	8	7	148
'85	24	50	11	6	5	96
계 (%)	49 (12.4)	270 (68.2)	42 (10.6)	17 (4.3)	18 (4.5)	396 (100%)

(2) 단순폭행

단순폭행은 민간인과의 폭행사고를 제외하고 군 내부에서 발생하는 상급자에 의한 구타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가) 폭행사고 원인

상급자가 하급자를 폭행하는데 있어 그 원인을 알아보면 170명 중 무려 115명이 이유없이 하급자를 폭행하거나 음성적인 집합으로 교육을 빙자해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급자들에 대한 평상시의 인격교육이 부족한 것을 의미한다(도표 6).

〈도표 6〉

원인별 연도	상급자 횡포	하급자 불손	교육 빙자	지시 불이행	음주 난행	하급자 반항	계
'83	37 (57.8)	10 (15.6)	7 (10.9)	5 (7.8)	2 (3.1)	3 (4.7)	64 (100%)
'84	41 (54.7)	12 (16.0)	8 (10.7)	6 (8.0)	6 (8.0)	2 (2.6)	75 (100%)
'85	8 (26.0)	5 (16.0)	14 (45.0)	4 (13.0)	.	.	31 (100%)
계	86	27	29	15	8	5	170

(나) 계급별 분류

전술한 것처럼 계급에 있어 하사가 37명, 병장 62명으로 어느 정도 군 생활을 보낸 집단에서 폭력이 유발되고 있다(도표 7).

〈도표 7〉

(대민폭행 제외)

계급별 연도	장교		하사관			병장	상병	일병	이병	계
	영관	위관	상사	중사	하사					
'83	.	6 (7.5)	1 (1.3)	1 (1.3)	19 (23.8)	22 (27.5)	23 (28.8)	7 (8.8)	1 (1.3)	80 (100%)
'84	1 (1.1)	8 (9.2)	1 (1.1)	5 (5.8)	6 (6.9)	36 (41.4)	20 (23.0)	6 (6.9)	4 (4.6)	87 (100%)
'85	.	3 (7.8)	1 (2.6)	7 (18.4)	12 (31.6)	4 (10.5)	4 (10.5)	3 (7.9)	4 (10.5)	38 (100%)
계	1	17	3	13	37	62	47	16	9	205

'82년의 경우 병장이 폭행한 비율이 41.4%, '85년에는 10.5%, 하사가 31.6%로 양 계급이 사고의 절반을 점유하고 있다. 더우기 하사와 병장 간의 사고도 자주 발생하므로 제

## 정신전력 연구논문

대를 앞둔 병장들에게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겠다.

### (다) 장소별 분류

폭행사고를 장소별로 보면 내무반에서의 폭행이 '83년 55%, '84년 39%, '85년 3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도표 8).

〈도표 8〉

연도 \ 장소	내무반	사무실	방공호	화장실	식 당	초 소	휴게실	기 타	계
'83	44 (55)	12 (15)	.	.	6 (7.5)	3 (3.8)	.	15 (18.8)	80 (100%)
'84	34 (39.0)	10 (11.5)	8 (9.2)	8 (9.2)	6 (6.9)	6 (6.9)	4 (4.6)	11 (12.6)	87 (100%)
'85	13 (34.0)	5 (13.0)	.	.	.	2 (5.3)	3 (7.9)	15 (39.4)	38 (100%)
계	91	27	8	8	12	11	7	41	205

내무반에서의 폭행이 높은 원인은 각 지휘관이나 직무상관들이 내무반 분위기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무관심이 하급자로 하여금 내무반생활에 불안감을 느끼게 하며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이의 시정을 위해 각 지휘관이하 상관들이 더욱 내무반 생활에 관심을 갖고 고참병들의 정신교육에 힘써야 할 것이다.

### (라) 원인별 분류

사고를 원인별로 분류하면 술에 취해 폭행한 경우가 396명 중 126명으로 가장 높은 비

〈도표 9〉

연도 \ 원인별	가정사정	이 성	사 감	명 정	우 발	사적제재	기 타	계
'83	2	4	36	42	3	47	18	152
'84	.	1	37	55	7	40	8	148
'85	.	.	8	29	28	23	8	96
계	2 (0.5)	5 (1.3)	81 (20.4)	126 (31.8)	38 (9.6)	110 (27.8)	34 (8.6)	396 (100%)

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적 제재가 110명으로 대체로 개인적 우발심리가 충동에 의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난다(도표 9).

그러므로 부대 내에서의 음주를 가능한 억제하고 음주로 인해 사고를 유발했을 경우 더욱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다.

(마) 수단별 분류

폭행을 행사하는데 있어 주먹을 사용하는 경우가 170명 중 89명으로 가장 높고 일명 조인트라 불리는 발에 의한 가적이 20명으로 나타난다(도표 10).

〈도표 10〉

수단별 연도	단 순			특 수								계	
	주 먹	손바닥	발	몽둥이	곤 봉	쇠 파이프	점호판	야전삽	각 목	명 패	기 타		
'83	25	10	10	12	3	·	·	·	·	·	·	4	64
'84	41	8	7	10	·	3	3	1	1	1	·	·	75
'85	23	1	3	·	·	·	·	·	·	·	·	4	31
계	89 (53.4)	19 (11.4)	20 (11.9)	22 (12.8)	3 (1.6)	3 (1.6)	3 (1.6)	1 (0.5)	1 (0.5)	1 (0.5)	8 (4.2)	·	170 (100%)

우려할 것은 몽둥이나 쇠파이프를 사용한 경우가 28명이나 돼 자칫하면 단순폭행이 큰 불행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마. 폭행을 유발하는 심리적 요인

지금까지의 타 논문에서는 대체로 복무염증을 중심으로 파악해 왔다. 그러나 본 논고에서는 각 개인의 심리분석을 더 중요하게 여겨 이 면으로 서술코자 한다.

(1) 개인 심리적 원인

(가) 특수한 성격과 폭행

특수한 인격적 요소(특질)가 폭행에 영향을 준다는 것으로 즉, 어떤 좌절감을 주는 상황에 대한 관용성의 결여가 폭행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어떤 목적달성을 위해 노력하던 것이 좌절되었을 때 이때 좌절감을 준 당사자나 혹은 대상물에 대해 폭력을 사용하게 된다. 군내생활에 있어 상관으로부터 모욕이나 욕설을 들었을 때, 그 원인을 하급자에게 돌

---

## 정신전력 연구논문

---

려 폭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성격의 소유자는 타인과 화합하지 못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 (나) 정신질환과 폭행

공격적이고 충동적인 정신질환의 소유자는 폭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나타났다. 정신질환 소유자는 자신의 본능적 충동과 욕구를 통제하는 것을 배우지 않았으며, 판단력이 약하고 비협조적이며 타 집단에 의해 쉽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들은 항상 변화와 흥분을 추구하고 따라서 순간적이며 무목적적으로 폭행한다. 이들은 모든 일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반항적이며 무책임하다.

### (2) 부대 내 원인

전술한 각 개인의 특별한 성격 외에도 부대생활 환경이 폭행을 유발하게 한다. 여기에는 내무생활의 악습, 불공정한 근무나 대우, 비인격적인 모욕, 또한 부당한 책임회피 등이 원인이 된다.

### (가) 복무염증

군대는 가정 및 일반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있으므로 자칫하면 복무염증을 일으켜 군무를 이탈하거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적정한 외박, 외출제도가 지켜지지 않는다거나 복지시설이 부족할 때 복무염증은 악화되고 조직원간의 다툼이 잦아질 것이다.

### (나) 정신상태의 문제성

군인은 명령을 주고 받으며 지휘체제를 확립해야 하는데 각 계급 간의 계급의식이 투철하지 못하고 국방의 책임을 성스럽게 여기지 않는 등 군복무에 있어 그 정신상태가 해이해졌을 때 폭행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상경하애로 단결을 유지해야 하는 군에서 자기 중심으로 생활하게 만들며 강력범죄 발생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상급자는 문제해결을 계급의식에 의존한 사적 제재와 각종 기합을 방편으로 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

### (다) 음주난행

음주의 무절제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실제 사건 중 32%를 점유하고 있다. 이러한 사안에서는 더욱 강력한 처벌로 응징해야 할 것이다.

## 바. 폭행죄 근절방안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폭행을 근절시킬 수 있는가?

사실 군에서 폭행을 사라지게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어느 정도로 비율을 낮추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그에 앞서 “구타금지 고발함”의 비효율성에 대해 알아보겠다.

(1) 구타금지 고발함의 비효율성

설문에 의하면 구타금지 고발함의 효율성에 대해 “보통이다”가 4%, “형식적이다”가 35%인 반면, “높다”라는 비율은 0%로 큰 효과가 없음이 나타났다. 더우기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가 60.8%로 나타나 오히려 적대시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실효성이 없는가? 처음 취지는 좋았지만 그 방법이 틀린 것이다. 필자가 12명의 일병, 이병과 논의해 본 결과 9명<sup>8)</sup>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가령 A중대 B내무반에서 구타에 대한 투서가 발견되었다고 한다면 관계부서는 B내무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가해자를 찾아내 처벌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 후 발생하고 있는데 일단 조사가 끝난 B내무반에서 교육이란 명목아래 집합을 가져 더욱 강력한 폭행이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하급자들은 폭행이 있어도 고발하는 것을 아예 체념하게 된다고 한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구타금지 고발함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당연히 폐지해야 한다.

즉, 하급자들이 원하는 것은 고발함에 의한 명목상의 조사에 의존하지 말고 실제 각 직무상관들이 함께 내무반에서 생활하며 선도해 나가는 것이다.

(2) 폭행사고 근절방안

설문 7에 의하면 45.0%가 폭행 발견시 즉각 처벌을 요구하고 있으며 요주의 인물 리스트 작성, 철저 감시가 27.5%인 반면 “스스로 깨닫도록 방임해 둔다”는 단지 5.8%로 내무생활에 있어 폭행이 얼마나 암적 요소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현재까지의 폭력행위에 대한 관계부서의 대책이 너무 형식적이고 미온적이라는 것도 나타낸다.

실제 A중대 L하사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친분이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 등을 고려하여 물증을 잡아도 그냥 넘긴다고 한다. 이렇게 무성의한 태도가 내무반에서의 폭력을 더욱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가) 군 가치관 확립

사회학적 연구에 의하면 인간이 한계상황 속에서 생활을 영위해야만 할 때, 미래에 대한 계획에 없이 목전에 보이는 욕구충족에만 충실하게 되고 순간을 현재에 만족하는 생활을 해가고 있다.

이와 같은 현재 지향성이 집단의 각 구성원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수단으로 보게 만

---

## 정신전력 연구논문

---

든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군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형성시켜야 한다.

즉, 모든 군인 및 군무원이 각자의 책임윤리에 투철하고 개인주의 의식보다는 상호 이해하려는 풍조를 조성한다면 폭력행위는 물론, 군내 범죄는 점차 줄어들 것이다.

### (나) 철저한 정신교육

각 부대에서 행해지고 있는 지휘관과 부하 간의 면담은 실제 그 효과가 매우 낮으며, 또한 형식적으로 치우친 감이 없지 않다. 각 지휘관 이하 직무상관들은 보다 철저한 개인 면담을 통해 각각의 정신상태를 올바르게 확립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각 부대는 1주일에 1회씩 정신교육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져야 한다.

### (다) 각종 체육활동과 오락회

지휘관을 포함한 직무상관, 하사, 그리고 신병까지 모두 동화할 수 있는 오락회 및 친목회를 가진다면 내무생활의 명량화는 물론 쌓였던 복무염증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술한 것처럼 스포츠는 인화의 가장 적절한 도구이다. 이를 잘 이용한다면 상호간 친밀해지고 단결되어 폭행의 근절과 함께 즐거운 내무생활을 가지게 될 것이다.

### (라) 내무생활에 대한 지휘관의 관심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각 지휘관이 각자 이끌고 있는 부대에 애정을 갖고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병들에 대해 공정한 상벌제도 및 능력에 따른 인사관리를 유지해 병들의 마음에 불만을 내재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대장이 1개월에 1회, 중대장이 2주일에 1회, 그리고 각 직무상관이 열흘에 한 번씩 내무반에서 생활을 한다면 내무반에서의 폭행은 물론 사라질 것이며 더욱 인화단결하여 강력한 전투력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 4. 결 어

아직 종결되지 않은 이란·이라크전이나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지분쟁, 또한 '82년의 포클랜드전 등에서 본 것처럼 각 강대국들은 무기 및 기술전력의 최신예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전쟁에 있어 승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정신력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정신전력이란 군내 기강 및 단결력에서 나오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각 부대에는 아직도 하사·병 간의 갈등이나 구타로 인한 사기저하로 군무의 능률이 떨어지고 있다. 이의 시정을 위해 지금까지 몇 차례 논문이 발표되었지만 외형적인 면만을 파악한 감이 없

지 않다.

즉, 하사·병 간의 반목을 존칭이나 호칭문제로 인식한다거나 구타사건을 사고발표 후에야 처리하는 등, 형식적인 대응책으로는 근본적인 치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본 논고에서는 이 점에 유의하여 제 2 장에서 하사·병 각 집단의 특성을 분석하여 갈등 해소 방안을 제시했고, 제 3 장에서 폭행사안에 있어서는 각 개인의 심리적 특성에 유의하여 근절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어떠한 문제든지 가장 적절한 해결방법은 지휘관의 애정 및 관심에서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말고 각 대대장 이하 직무상관들은 각자 소속된 부대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 註 解 釈

- 1) 미 레이진이 확정한 우주방위전략계획, 1985.
- 2) Karl Clausewitz에 버금가는 전술연구가.
- 3) Carl Gustav Jung(1875~1961), Swiss 출신으로 분석심리학의 창시자.
- 4) Jolande Jacobi, 李泰東 訳, 〈The Psychology of C. G. Jung〉, 서울, 성문각, p.44~57.
- 5) Combs, A. W, & Taylor, C., "The Effect of Perception of Mild Degree of Threat on Performance", *J. of Abnormal & Social Psychology*, 1952.
- 6) Webster's Third New International Pictionary, Merriam Company, Springfield, 1971.
- 7) 가장 최근에는 '85년 9월에 발표되었음.
- 8) 9명은 본사 3명, K-91 3명, 15전비 2명, K-2 1명을 말한다.

# 항시 전장 공중감시

다음의 두 글은 1986년도 지휘성공 사례 및 정신전력 연  
구논문 공모에서 선정된 최우수작이다. <편집자 주>

## 류 유 대

(중령 · 제8931부대)

### 1. 서 론

**당** 부대는 촌사의 방침도 허용됨이 없이 분초를 다투어 적기의 향적을 추적하며 긴급상황에 대처하여야 하므로 하루 24시간이 ‘항시 전장’이며 공중감시’인 공군 항공관제의 정예 선봉부대로서 지난 1986년 2월 21일에도 중공 MiG-21기의 귀순향적을 포착, 신속하게 요격관제를 성공시켜 필승공군의 면모를 국민에게 유감없이 과시하므로 공군의 신뢰를 드높였던 수훈의 부대입니다.

저는 이렇게 공군사에 빛날 전통을 수립한 부대의 지휘관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막중한 작전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상시에도 모든 장비의 최고도 성능을 유지 향상시켜 왔으며, 이러한 장비를 운용하는 장병 각자가 최정에 전투요원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평시에도 실전과 같은 피나는 훈련을 행하는 등, 우리에게 주어진 귀중한 시간을 유효 적절히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당 부대의 빛나는 전통을 계승하고 현재보다 더욱 막강한 부대로 발전시켜야겠다는 신념 속에 일해 왔

입니다. 부대장 취임식 때도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필승의 신념을 갖고 굳게 단합된 일체감 아래서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참여하면 자연히 이 부대는 나의 것이란 주인의식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다는 것을 강력히 당부하였습니다.

진실로 필승을 기할 수 있는 제일의 요소는 물론 최신 장비자체의 고도의 정밀성에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 각 장비의 성능을 최고도로 향상시키는 것은 직접 스크프를 감시 운용 조작하는 부대원 자신이란 것을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미국의 ‘쉐바’장군은 “우리는 단추만 누르면 되는 고도의 과학병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단추를 누를 수 있는 인간의 용기를 기계적 또는 전자적으로 생산할 수는 없다”고 외치면서 “때문에 군의 지휘관들은 부하를 관리하는 기술을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바람직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용기와 충동을 주어야 하며 그들로부터 존경과 신뢰와 복종을 얻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인은 부대원관리에 있어서 그들이 꼭 있어야 할 정예공군의 전투요원임을 강력히 주장하여 본인의 지휘방침을 “전장병의 정예화”로 설정하고 부대원의 행동을 지배하는 강인한 정신전력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 성취도는 무엇으로도 측정할 수 없으며 단지 부대훈련에 적극 참여하는 휘하 장병들의 모습을 보면서 조만간

이의 결실이 맺어질 것으로 굳게 확신하면서 정예 필승공군 육성을 위해 본인 나름대로 실천해온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 2. 본 론

### 가. 실천사항

#### (1) 필승의 신념 함양

“승자의 의미는 모든 달리는 코스에, 즉 평탄한 신작로와 험준한 고갯길 전체에 깔려 있다.”

정예공군이 필요로 하는 최정예 전투요원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굳은 의지와 “반드시 이긴다”는 필승의 신념이 바탕이 된 군인정신이 확고히 정립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비자’는 그의 저서에서 “군사는 싸워서 반드시 이기겠다는 용맹스러운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여 필승의 신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장병 개개인이 지니고 있는 정신은 강인한 정신전력으로 배양하여 각자가 능동적으로 신념에 찬 행동을 하도록 의욕과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하며 이것을 바탕으로 한 군인정신으로 무장되도록 하여야 하겠기에 다음과 같이 실천해 보았습니다.

#### 가) “순간의 방심은 영원한 후회”

공중감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술적 행동은 먼저 적기를 조기 발견하여 아군기로 하여금 유도 요격토록 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이러한 측면에서 부임시부터 장병들에게 어떻게 적기를 조기발견, 요격토록 하고, 필승의 신념을 계속적으로 주입시킬 것인가를 고심한 끝에 부대장 나름대로 독특한 표어를 부대 곳곳에 게시하여 장병의 경각심을 고취토록 하였던 것입니다. 실례를 들면 “순간의 방심은 영원한 후회”입니다.

처음에는 표어의 의미를 모르는 장병들이 요즈음 향간에 유행하는 유행어로 착각, 우습다고 생각하였으나 부대장의 진실된 큰 뜻과 필승의 신념을 듣고 나서는 모두들 엄숙히 새로운 각오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어게시는 별로 힘 안 들이고 장병들에게 언제나 당 부대의 사명의 막중함을 인식하고 물론 부대장의 신념을 간접적이고 계속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 효과가 있었습니다.

나) “부대장의 정신훈화 및 정훈독서실 운영”

“고을을 정복한 것은 시이저이고, 로마를 전율케 한 것은 한니발이다.”

한 부대의 정신력은 그 부대 지휘관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라 봅니다. 그러므로 ‘정신전력’은 마치 정훈장교와 같은 별개의 참모가 담당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지휘관이 되지 않기 위해 정훈에 대한 이념교육에 대해 부대장인 본인 자신이 적극 참여 다음과 같이 실천해 보았습니다.

#### 1) 부대장의 정신훈화

필승의 이념교육은 정훈교육에 의해 일반

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때로는 부대 정훈 관계자의 형식적 교육 및 장병의 무성의 등으로 무미 건조한 교육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대장 자신이 항시 정신교육의 날에 참여하여 상부로부터 주어진 교육시간은 충실히 100% 이행하고 100% 이상의 효과를 얻도록 독려 하였습니다.

본인 나름대로는 정훈도서, 전우신문 및 주간공군 등을 숙독하며 중요사항을 수집 부대원에게 어떻게 교육을 실시할 것이며 어떻게 하면 사기 고취가 될 수 있을 것인가를 항상 부대 정훈 관계관과 연구 토의하며 본인이 그 연구 내용을 완전히 소화하여 수십번의 강의연습을 실시 나의 것으로 만든 후 지휘관 정신훈화 시간을 통해 이를 발표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부대원들의 정신 전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음은 물론 정훈 관계관에게 정훈교육 준비에 보다 만전을 기하도록 독려케 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 2) 정훈 독서실 운영

부대원의 정신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언제 어디서든 정훈교재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정훈 독서실의 존재가 절실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내무반 사이에 방치되었던 창고를 개조, 정훈 독서실로 운영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우선 우중충한 색상의 벽을 산뜻한 색으로 칠한 후 대학 강의실용 책상을 비치하고 T.V 및 정훈교재를 크기, 색상을 고려하여 가지런히 정돈하고 부대장인 본인 및 정훈장교가 수시로 방문, 소단위 정훈교육

을 실시함은 물론 정훈교재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는 등 성의를 보임으로써 그동안 부대원들 사이에 외면되다 시피 했던 창고가 훌륭한 정훈교육장 및 휴식장으로 이용되게 되었습니다.

다음 단계로 부대 VTR이 각 정훈교육장에 연결되어 문화활동 및 정훈교육 VTR도 한번에 방송할 수 있게 중앙 방송식으로 만들었습니다.

#### 다) 전 장병의 1인 1취미 운동

‘알맞은 휴식은 새로운 힘을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업위주의 현대사회, 특히 기술군인 공군에서 느끼기 쉬운 인간 소외문제에 있어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심리적 여유가 있는 장병이 많을 수록 그 부대는 단결되고 단결된 힘은 바로 전투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적막하게 느껴질 병영생활 가운데 같은 취미를 가진 동호인이 모여서 공통 관심의 주제를 놓고 모임을 가질 수 있음은 정신적으로 안정감과 사고자 및 무의탁 사병 선도효과 등에 이루 말할 수 없이 그 공헌이 지대하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인은 부대원 모두가 자율적으로 한 가지씩 취미를 선택하여 전투체육의 날과 일과 후를 이용, 많이 참여할 것을 권장하여 왔으며 지금은 군가반, 바둑반, 농구반 등 10여개의 취미반을 운영하여 필승의 정신자세 속에 여유와 안정감을 갖춘 팔방미인 국제신사 공군의 일원을 양

성하고 있습니다.

#### (2) 주인의식 함양

“나라에 불화가 있으면 전쟁을 할 수 없고, 군대에 불화가 있으면 적과 대전할 수 없으며, 진지 내 불화가 있으면 회전할 수 없고 적과 회전시 상호 협조하지 않으면 결코 승리를 거둘 수 없다” -오 자- 위와 같이 중국의 오자는 군 조직상의 종적 횡적 단결이 전투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 하였습니다.

부대 목표달성을 위하여 지휘관과 부대원 각자가 부대의 주인이라는 동일한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대운영의 중요 요소입니다.

이에 본인은 첫째, 본인을 포함한 장교들의 자세가 중요함을 인식, 숭선수범하여 존경받는 장교가 되도록 하며

둘째, 부대가 장병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생일자 파티, 조병 위문 부대발전 건의 및 연구발표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 가) 바람직한 장교상의 정립

본인은 장교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의식을 마음껏 누려도 좋다는 이러한 생각을 과감히 버리고 부하들에게 무엇을 명령하기 위해서 장교 자신들이 스스로 기본자세와 군대 예절, 각종 규정들을 준수하는 실천력을 가져야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부하들에게 같은 명령을 수백번 반복하는 것보다 먼저 장교들이 스스로 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습

니다. 그 이유는 인간관리를 합리적이고 원활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출선수범하는 자세로 부하를 위하여 희생할 줄 아는 장교의 자세가 중요한 것이며 그러므로 상관에의 존경과 충성심을 유발케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주간 참모회의를 통하여 장교들 자신이 부대원과 일체감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다음과 같은 표어를 제시하여 전 장교 및 장병이 강력히 실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웃으며 일하자!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화내면 한 번 늙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웃으면서 일 한다는 것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하 명령관계에 의해 딱딱해지기 쉬운 병영생활에 “...하라”를 “...하자”로 바꾸어서 그 동안 지시를 받는 자에게 피동적으로 행동하게 하고 또한 반발이 일어나는 계단을 없애고, 장병 전원이 일체감을 가질 수 있도록 웃으며 하는 명령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를 초래하기에, 이를 장교들 자신이 모범적으로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 보람있게 살자!

장교들이 출선수범하자는 것입니다. 즉 어려운 작업과 위험한 일을 앞장서서 장교 자신이 출선수범하고 공문서 기안, 사무실 청결 정돈, 의류 세탁 등 사소한 일들은 자신이 직접 처리함으로써 사역 행위를 배제하며 부대 운동경기 시에도 가장 먼저 선두에 서서 행동함으로써 일체감을 조성하며 상

하 간에 보람을 느끼는 것입니다.

○ 군인다운 모범을 보이자!

매일 아침마다 실시하는 일조행사에 먼저 참여하며 복장은 최소한 매주 1회 이상 세탁 및 다림질하여 단정히 착용하며 특히 하급자로부터 경례를 받을시 성의있고 예의 바르게 답례함으로써 상호간에 불신감 및 불쾌감을 주지 않으며 규정된 복장으로 생활하는 모습을 하급자에게 보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시간 관념, 엄격한 보고 및 신고체제를 장교 자신이 확립함은 물론 사병을 호출시 “○○○야!” 하는 것을 “○○○일병!” “○○○병장!” 등으로 바꿈으로써 생사를 같이하는 전우라는 의식을 강하게 부각시키자는 것입니다.

나) 일체감 조성

“승자는 행동으로 말을 증명하고 패자는 말로 행위를 증명한다”

본인은 항상 부하에게 자상한 관심을 베풀어 그들이 그러한 내게 대해 보다 열심히 근무하도록 해야겠다는 첫인상을 심어 주려고 무척 노력하였습니다.

○ 병식참여

“인간은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에게 환심을 베풀게 마련이다” 라는 로마 시인 파플리우스 시루 이야기를 항상 마음 속에 새기며 나는 부임 초기부터 사병식당에서 병식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부대장이 사병식당에 들어가면 황송하여 저 멀리 앉는 병들에게 같이 앉아서 식사하기를 권하며 애로 사항을 들어주는 자상함을 보이며

그들과 같이 호흡하는 지휘관상을 심어 주었습니다.

특히 식사를 못하는 병에게 그 이유를 물어 보기도 하고 가끔 식사를 남기는 병에게는 부모와 같은 엄함도 보여주었습니다. 부대장이 직접 병식을 하므로 취사병들도 성의있게 모든 부식을 준비하고 병들도 부대장과 일체감 속에 근무할 수 있습니다.

### ○ 생월자 파티

본인은 부임 즉시 부대원의 생일을 축하해 줄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부대원의 생일을 음력과 양력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본인의 장교수첩과 달력에 적어두고 매월 하루를 정하여 생월자 전원을 초대 간단한 생일파티를 준비하고 축하해 주는 일을 잊지 않았었습니다.

본인 자신도 병영 생활 중에 잊기 쉬운 생일을 부대장이 직접 준비해 줄 때는 생월자의 얼굴은 너무 행복감에 젖고 한결 명랑하게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본인은 그 파티석상을 통해 조국과 부모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훌륭한 군인이 되길 당부하며 그들의 사기 함양에 힘 썼습니다.

### ○ 지휘관실 개방

한국의 전통 가옥을 볼 경우, 문지방이 높아 이것이 곧, 권위와 위엄의 상징인양 여겨져 왔으나 서양문화 특히 민주주의의 사조가 들어오면서 조금씩 문지방이 낮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민주 국군을 지향하는 군에서 지휘관은

부하 위에 군림하는 카리스마적 지도자이기 보다는 그들과 같이 호흡하는 지휘관이여야 한다는 것이 본인의 소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부임 후 지휘관실 개방의 필요성을 인식, 지휘관실 개방을 통해 부하 장병의 고충을 들어주는 자상함이 부대의 일치감 조성에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때로는 찾아오기를 꺼리는 병을 직접 찾아 가기도 하여 다음과 같은 부대 내의 산재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힘 썼습니다.

계층별 융화 적극 지원을 위해 신분별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하사와 병간의 갈등 해소 해결을 위해 오락 및 체육활동을 통해 서로 간의 융화에 힘쓰는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 모두가 지휘관실 개방을 통한 허심탄회한 대화의 덕택이었습니다.

### (3) 자율정신 함양

자발적 참여와 피동적 참여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합법적 권위로부터 발해지는 명령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태도를 갖는 것은 군인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 입니다. 피동적으로 억지로, 명령에 복종할 경우 그 행위를 하는 자의 마음은 무척이나 힘들고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이 인간의 심리적 현상인 것이며 그 결과도 별로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부대원 전원이 자율적으로 내무생활 규정을 준수하여 군기 확립을 유지하고 각자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전심전력을 다할 수 있는 자치제도를 마련하여 신분이 일반 사회인으로 바뀌어도 자기 책임에

성실할 줄 알고 또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민주 시민적 자질을 키워주는 자율제도를 마련 다음과 같이 실천하였습니다.

가) 자율적 내무반 주제발표

거의 모든 부대원은 지휘관 정신훈화 및 정신교육 등으로 이념교육 및 사상 무장교육을 받아서 개개인의 가치관을 확립하여 필승의 군인정신이 고조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반 정신교육은 주입식이며 수동적으로 교육을 받게 되므로 적극성이 결여되어 소기의 효과를 얻기에는 장시간이 필요할 것이 판단되어 본 부대 특유의 자율적 내무반 주제발표 제도를 마련 실시하였습니다.

일일 명령으로 임명된 당직자는 부대 점호 시간 전 20분간 내무반에 자율적 시간을 주어 각 내무반장 주도 하에 시사적인 주제 또는 생활주위 주제를 자유스럽게 주제 발표자가 발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처음엔 서로 꺼리던 주제 발표자도 이 제도가 정착되면서 서로 자기 차례를 기다리게끔 되었습니다. 생활 중 본대로 느낀대로 모든 이야기를 자유롭게 발표하고 여기서 기록된 일지는 지휘관이 직접 결재하면서 부대원 각자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고 부대원의 발표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나) 자율적 배식제도

자율적 주인정신은 실천하지 않고 아무리 백날 말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초기에는 어렵겠지만 그것이 정착되면 상당히 중요한 힘이 될 수 있음을 아무도 부인하지

어려울 것입니다.

자율배식 제도가 자율적 주인정신의 좋은 본보기라 하겠습니다.

본인이 처음 참모회의 석상에서 자율적 배식제도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을 때는 장병들의 의식수준 결여로 여러 가지 문제점 발생을 우려하는 참모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육류 배식시 물량 부족이 야기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세계의 부를 자랑하는 미국의 군에서도 식당에서 육식만은 취사병이 배식한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휘관은 자기 부하를 믿어야 한다는 것이 본인의 소신이었기에 결국 자율배식을 실시한 결과, 부대내의 군량미도 절감되었으며 처음에 우려하던 육류배식의 문제는 도리어 서로 양보하는 우리 “자랑스러운 ○○부대원”의 의식으로 남을 정도가 되었고 사병들에게 자율성의 가치를 인식시켜주는 계기도 되었으며 자율배식 실시 후 그에 따른 잔여 취사병이 항시 취사장 및 식당을 청결하게 유지하므로 더 더욱 위생적이고 자유스러운 식당군기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 명량화 순찰 및 지휘관 참모 순찰제도

이 제도의 취지는 사병들의 내무생활에 무관심하기 쉬운 각 근무장들에게 자기 근무지 부하외 전장병에게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낮에는 선임 하사급이 부대 위락 시설을 중심으로 순찰하고 밤에는 각 급 참모들이 부대 외곽 초소를 중심으로 순

찰하여 항상 근무자를 격려하고 조금이라도 부족하고 불만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점을 조기 발견 조치하는데 있습니다.

이 제도 정착 이후 각 참모도 지휘관과 같이 부대 전반적인 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고 각 근무장이 타 근무지 근무자들과 일일이 접할 수 있어 부대 명랑화 및 구타 근절에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 3. 결 론

이상은 본 부대에서 노력하고 있는 정신 전력 강화의 일부분에 불과하지만 이 조그마한 본인의 착상은 전 부대원에게 지대한 영향을 준 결과를 가져 왔다고 굳게 확신합니다. 즉, 부대원 각자는 이제는 부대장의 복무방침 처럼 정예공군의 “필요한 최정예 전투요원”이 모두 되어 필승의 신념으로 부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공군, 최고부대의 건설을 위해 총원이 한 마음되어 자율적으로 자기의 할 일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고 한편 상·하급자간의 돈독한 신뢰를 바탕으로

로 실질적인 일체감을 조성하여 자타가 인정하는 단결된 부대가 되었음을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의심스러운 비행물체를 찾아 내려 노력하였고 관제사는 관제사대로 눈을 밝혀 이상 항적이 있을 때는 즉각적으로 요격관제에 들어갔고 후방지역은 후방지역대로 부대 후방지원에 만전을 기해 항상 최상의 상태를 유지함은 물론 본 부대에서 타 부대로 전속가는 장병은 떠나기를 무척 싫어하고 지휘관인 본인에게 올 해에도 꼭 철통방공의 면모를 공군과 국민에게 보여주길 기원하며 굳게 잡은 손에 따뜻한 정이 감돌 때 보내는 이도 마음 한구석에 뿌듯함과 아쉬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난 그들에게 항상 마음 속으로 이런 말을 전합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공군이다.

웃으며 일하자!

보람있게 살자!

반드시 이기자!

# 美国의 새로운 戰略爆擊機 B-1B 實戰配置

李 希 權 記

〈書記官·空軍本部〉

美国의 Rockwell B-1B 戰略爆擊機가 實戰 段階에 到達하였다. Texas 州 Dyess 空軍基地에 戰略核戰力으로서 非常待機 態勢에 들어갔다. Dyess 空軍基地의 第96 爆擊飛行團이 1985年 10月 1日부터 B-1B에 의해 非常待機 任務를 開始한 것으로서 同 飛行團은 戰略空軍으로서 最初의 B-1B 部隊이다.

第96 爆擊飛行團은 1986年 6月 29日에 B-1B의 첫 配置를 받은 以來 1986年 9月까지 B-1B Readiness Crew 16team 編成을 完了하고 最近 任務即応의 實戰段階에 到達한 것이다. 美空軍은 現用的 B-52 G/H에 代替되는 新戰略 爆擊機로서 1988年 4月까지 B-1B 100台의 導入을 計劃하고 있다. B-1B의 實戰配置를 機會로 이 戰略爆擊機의 今後的 配置計劃을 紹介하고자 한다.

## 1. 오랫동안에 主力 爆擊機 更新

**S**AC(戰略空軍: Strategic Air Command)의 大望의 戰略爆擊機 Rockwell B-1B가 이제서야 겨우 實戰配置의 段

階에 들어갔다. 戰略空軍(SAC)은 1986年 3月에 40周年을 맞이하였으나 이 SAC가 새로운 戰略爆擊機를 保有하게 된 것은 23年 만이다.

現在 SAC에는 約 240台의 B-52G/H 爆擊機를 保有하고 있으나 이들은 모두 1957



〈Cock pit 前方의 白色 Pattern은 空中給油時에〉

年度부터 '61年度까지 調達한 것이다.

B-1B의 最初の 配置基地가 Texas州 Dyess 空軍基地라고 레이진 美大統領이 發表한 것은 1983年 1月 21日이었다. Dyess空軍基地에는 戰略空軍의 第15空軍, 第12飛行師團 司令部와 第96爆擊飛行團이 所在하고 있다. 그리고 第96爆擊飛行團이 最初の B-1B 部隊로 된 것을 처음으로 發表한 것이다.

第96爆擊飛行團은 團司令部와 第337 爆擊飛行隊, 第917 空中給油飛行隊로 編成되어 第337爆擊飛行隊는 지금까지 B-52H를 裝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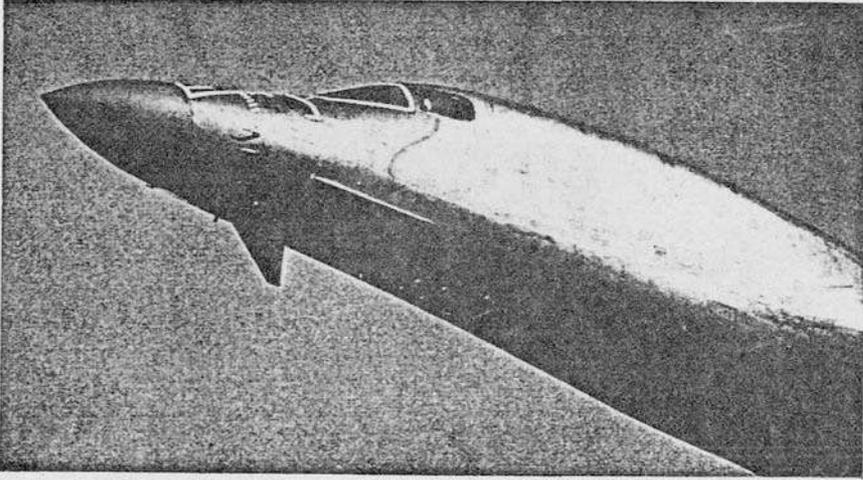
이 337飛行隊는 1984年 8月부터 機種更新을 爲해 縮小段階로 들어가 1985年 1月까지 B-52H의 退役을 마치고 同年 3月 15日付로 4018 CCTS(CCTS:Combat Crew Training Squadron)로 改編하였다. CCTS는 機種轉換에 따른 乘務員訓練을 實施하는

轉換訓練 飛行隊이며, 새로 編成된 4018 CCTS 部隊는 B-1B의 轉換教育을 担当함과 함께 實戰部隊로서 非常待機 任務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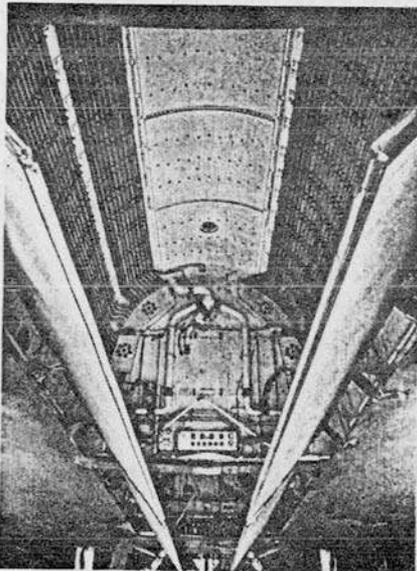
Dyess 空軍基地에 24時間의 非常待機에 就役하고 있는 B-1B는 現在 1台인데 Trouble Shooting의 進展과 함께 轉換訓練도 本格化될 것이 予測된다. 4018 CCTS는 最終的으로는 B-1B 15台와 教官·Grew 17팀을 保有하게 된다.

Dyess 空軍基地에는 California州 Edwards 空軍基地로부터 第420試驗評價飛行隊의 第1派遣隊가 派遣되어 있고 이 部隊는 B-1B의 實用試驗을 行함과 同時에 第4018 CCTS 基幹要員의 養成을 担当한다. 다만 第4201 TES의 第1派遣隊는 航空機를 保有하고 있지 않아 兵力만을 Dyess 空軍基地에 派遣하는 形態이다.

現在 Dyess 空軍基地에는 1週間に 平均 15소티의 飛行訓練 등을 實施하고 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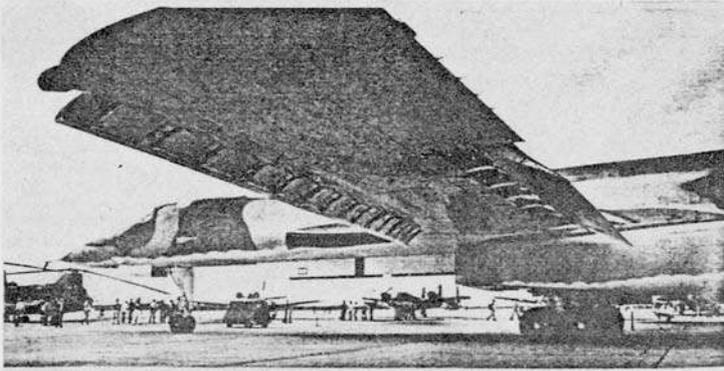


B-1B에는 Cock pit 後方の WSO席에 小窓을 追加하였다. B-1A에는 窓이 없다. B-1의 機首의 線은 FB-111A 또는 RA-5C와 一脈相通한 點이 있다. 돌고래의 머리를 联想시키는 것이 正面의 흰부분. 胴体 中央部 側面에는 自己防禦用 ECM 装置의 Blade antenna 보이고 있다.



(左) B-1A 3号機의 前方 Weapon bay. B-1B에는 사진의 正面에 보이는 Weapon bay 中間 칸막이가 位置를 調節하게 되었음. SRAM에 比해서 全長이긴 AGM-86B ALCM의 搭載 可能.

(右) 低空飛行時의 Gust의 荷重을 輕減하는 Softlid System.



改修前の B-1A 4号機. 1982年 10月 촬영. 前方에는 길게 뻗은 Dorsal Spine는 Mono-pulse 電波妨害裝置 “Cross eye”의 導波管收容部.

1 週間の 飛行時間은 15時間이 된다. 飛行訓練의大部分은 B-1B의 超低空 攻擊訓練 任務를 모의훈련하는 低空飛行이다.

## 2. 調達台數는 100台

美議회가 承認한 B-1B의 調達台數는 合計 100台이다. B-1B의 調達は 1982年度부터 始作하여, '86年度까지 全機의 発注를 끝마친다.

発注 実績을 年度別로 보면 '82年度에 1台, '83年度에 7台, '84年度에 11台, '85年度에 15台 '86年度에 46台 등으로 되어 있다. 셀 넘버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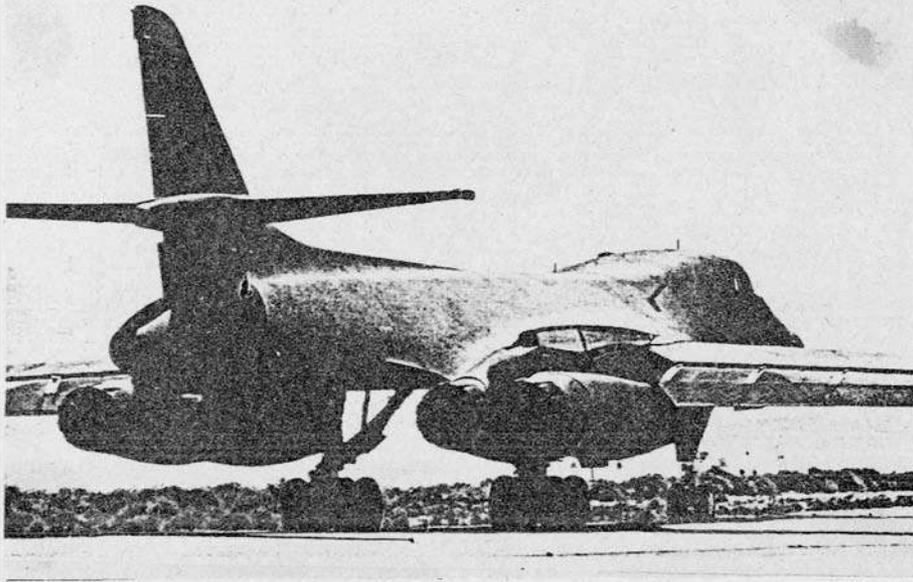
- 1号機..... '82~0001
- 2号機~ 8号機.....'83-1065-0071
- 9号機~19号機.....'84-0049-0059
- 20号機~54号機.....'85-0062-0096
- 55号機~100号機... '86-8093-80140

이와 같이 調達の Pitch가 빠른 것은 B-52 G/H의 老朽化가 빨라지고 있는 것도 그 理由의 하나이지만 그것보다는 短時間에 集中生産으로 効率化를 図謀하여 生産費의 절감을 노리고 있다고 理解하는 편이 좋겠다. 이 때문에 Rockwell International社 生産 Line은 現在 最大 生産단계에 들어가 月間 4台라는 빠른 속도로 生産하고 있다.

美空軍의 現在 取得 台數는 '86年 中盤段階에서 17台南 된다.

한편 B-1B의 部隊 配置도 急速히 進行되어가고 있다. Dyess 空軍基地의 第96 爆擊飛行團의 配置에 이어 '86年 12月부터는 South Dakota州 Ellsworth 空軍基地 第28 爆擊飛行團에의 配置가 始作된다.

第28 爆擊飛行團은 2個의 B-1B 實戰飛行隊를 保有한 唯一한 飛行隊로 될 予定이며, 그 配置數는 予備機를 包含해서 35台南 予定하고 있다.



B-1B을 前方에서 볼 경우 품위가 바뀌어져서 뒷자세는 어마어마한 자세가 힘찬 인상을 보여 준다.

〔表-1〕 B-1B戰略爆擊機의 配備計劃

基 地	部 隊	初 配 備	定 数	予 備	乘 務 員	配 備 完 了	実 戰 化
Dyess AFB	4018CCTS 96BW	1985. 6. 29	15 11	3	18 22	1986. 11 (予定)	1986. 10. 1
Ellsworth AFB	28BW	1986. 12 (予定)	32	3	44	1987. 7 (予定)	未 定
Grand Forks AFB	319BW	1987. 7 (予定)	16	1	22	1988. 1 (予定)	未 定
McConnell AFB	384BW	1988. 1 (予定)	16	1	22	1988. 4. 30 (予定)	未 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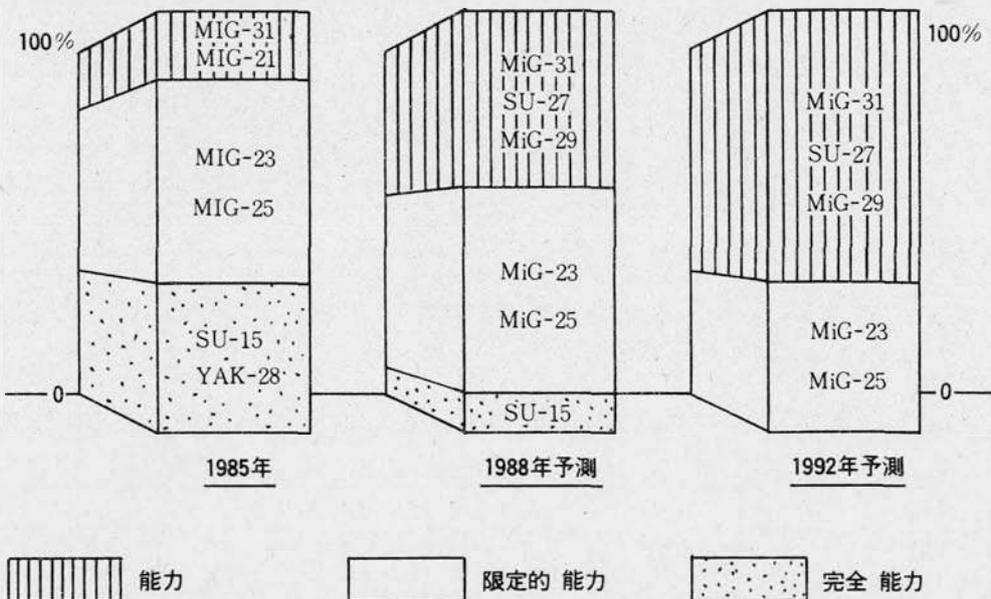
CCTS : Combat Crew Training Squadron / 轉換訓練飛行隊

B W : Bombardment Wing / 爆擊航空團

[表-2] B-1A/B의 比較

区分		型式	B-1A	B-1B
諸元	全長	長	46.07m ※ 1	44.80m
	全高	高	10.23m	10.36m
	全幅 (後退角15°/67° 30')	面積	41.65m / 23.83m	41.76m / 23.77m
	翼面	積	181.2m <sup>2</sup>	181.2m <sup>2</sup>
	自重	重	172,000ℓ b	172,000ℓ b
	最大離陸重量	重量	395,000ℓ b	477,000ℓ b
	最大兵装페이로드		115,000ℓ b	125,000ℓ b
性能	最大速度 (低高度 / 高高度)		M0.85 / M2.22	M0.85 / M1.40
	実用上昇限度		50,000ft	49,000ft
	航続距離 (無給油)		5,200nm	6,500nm
其他	엔진	진	F101-GE-100	F101-GE-102
	推力 (dry / AB使用)		17,000 / 30,000ℓ b × 4	17,000 / 30,000ℓ b × 4
	空氣吸入口		可變式	固定式
	初飛	飛行	1974. 12. 23	1984. 10. 18

소련 邀擊戰鬪機의 RADAR 能力의 推移



(出典: Soviet Military Power 1986)

第28爆撃飛行団은 1987年 7月까지 編成을 完結하게끔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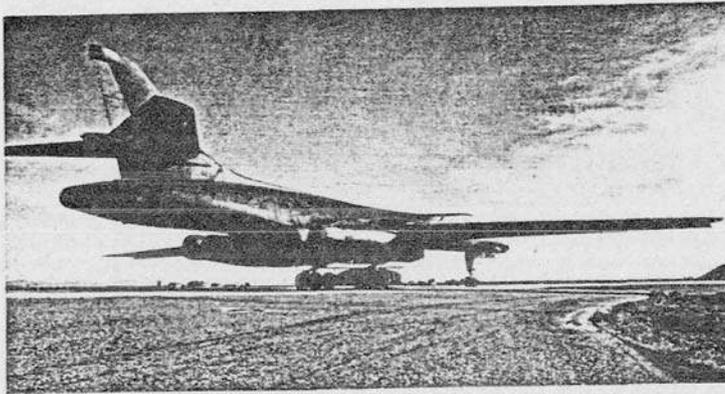
세번째로는 North Dakota州 Grand Forks 空軍基地의 第319爆撃飛行団인데 1987年 8月부터 B-1B의 配置가 始作되어 '88年 1月に 編成을 完結한다. 第319爆撃飛行団의 配置台數는 17台이다.

네번째는 Kansas州의 McConnell 空軍基地의 第384爆撃飛行団인데 이 部隊는 KC-135의 空中給油飛行団에서 改編된다. 第384爆撃飛行団에의 B-1B의 配置는 1988年

1月に 始作하여 予定으로는 同年 4月 30日까지 配置를 完了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時期는 알 수 없으나 Dyess 空軍基地의 第96爆撃飛行団에 B-1B의 實戰部隊가 아마 1個 追加되어 第96 爆撃飛行団은 最終적으로 給油部隊를 包含해서 3個의 飛行隊를 保有하게 될 것이다.

B-1B 配置計劃의 100台의 内訳에는 實戰部隊用이 定數 90台 프라스 8台 나머지 2台(82-0001 및 84-0049号機)는 Edwards 空軍基地에 인계되어 實驗用途에 充當된다.



B-1A의 2号機와 4号機(사진)는 B型에 準하여 改造, B-1B 開發試驗에 充當되었다. 이 중 2号機는 1984年 8月に 事故로 잃어 버렸으나 4号機는 現役に 있다.

B-1B의 實戰飛行隊의 定數는 16台이지만 實際로는 予備機 1台를 包含해서 17台로 編成된다.

그러나 B-1B의 轉換教育을 担当하는 第4018轉換訓練飛行部隊는 15台로 編成되어 있고 予備機는 없다.

2個 飛行隊를 保有한 第28爆撃飛行団의 경우는 定數 32台 外에 予備機 3台가 割當되어 航空團 레벨에의 配置台數는 35台로 되어 있다.

Grew Team 1個飛行隊에 22個 팀으로 各 팀에는 機長以下 4名으로 構成된다.搭

乗員은 正·副 操縦士와 武装担当의 飛行士 2名으로 構成 WSO(무장담당 飛行士)는 攻撃航法士와 電子戰 飛行士로 各各 分担하는 傳統的인 코드네이션方式이다.

이러한 美空軍의 戰略爆擊戰力の 近代化는 B-52G/H에의 空中發射 巡航미사일(A LCM)의 搭載計劃에 이어 지금에는 B-1B의 配置가 軌道에 오르게 된 것이다. 100台的 B-1B로서는 240台的 B-52G/H의 更新用으로서는 分明히 台數가 不足하지만 事實은 B-1B의 뒤에는 Steath 爆擊機라고 通稱되어 알려진 Northrop社의 高度技術 爆擊機(ATB)가 準備되어 있다. 이 ATB는 Steath 爆擊機에 알맞게 1990年代 初에 配置를 予定하고 있다. 予算面에서도 事實上 보이지 않은 機體이다.

그런데 最近에 와서 美國防省은 議會的 壓力에 못이겨 1981年度 貨幣價值로 ATB의 經費를 公表하였다. 그것에 의하면 ATB의 研究開發費 및 調達費用은 366億弗, 132台 調達할 境遇 1台當 生産費는 平均 2億 7,700萬費이 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1981年度 貨幣價值로서의 發表는 「納稅者를 바보로 취급한다」라는 強한 批判이 있다. 이것으로 議會는 納得이 가지 않았을 것이다.

美空軍의 計劃에는 今後 10년에 걸쳐 B-1B를 SAC의 主力爆擊機로 使用한 1995年以後에는 그 任務를 ATB에 移讓하여 B-1B는 Stand Off 攻撃이 可能한 ALCM發射 母機로 轉用하게끔 되어 있다. 이것은 1990

年代 中盤에는 B-1B의 能力을 가졌더라도 소련의 防空網을 突破하기에는 困難하다는 觀測에 基礎를 두고 있다. 그 理由로서는 소련 防空軍의 低空侵攻 對處能力의 改善을 指適하고 있다.

이에 對해 美議會에서는 ATB開發의 技術的인 Risk가 추가되어 高騰이 予想되는 그 研究開發 및 調達費에 難色을 나타내고 B-1B 改良型을 開發하는 편이 費用對 效果의 面에서 좋다고 主張하고 있다.

이러한 意見의 對立이 있기 때문에 今後 B-1B의 調達數가 增加할 可能性도 否定할 수 없다. 원래는 補充하지 않는다는 關係에 있는 B-1B와 ATB가 相互 制동이 걸려 있는 것은 皮肉關係인 것이다.

### 3. 強力한 超低空 高速侵入型 爆擊機

B-1B는 “카터”前 美大統領의 손에서 cancel된 B-1A에서 發達한 超低空 高速侵入型 戰略爆擊機인 B-1A도 같은 型式의 戰略爆擊機였으나 이것을 보다 철저한 Avionics를 近代化한 것이 B-1B이다.

B-1B의 外形은 B-1A와 別로 다른 것이 없으나 機體 構造와 降着裝置의 強化에 의해 最大 離陸重量이 B-1A의 395,000 lb에서 477,000 lb로 增加하여 그 때문에 燃料 搭載量과 武器搭載能力이 向上되고 있다.

飛行性能面에서는 B-1A의 最大速度 마하 2級의 要求가 철회되어 空氣吸入口를 固定

式으로 改良設計한 結果 B-1B의 最大速度는 高高度에서 마하 1.4로 되었다.

性能이 大幅으로 低下한 感이 있으나 高高度에서 마하 2級の 最大速度는 低空侵攻型의 B-1의 運用形態에는 不必要한 것이기 때문에 實用上의 差는 없다고 하겠다. 實際로는 B-1B의 低空에서의 最大速度는 마하 0.85로 되어 있고 이 數字는 B-1A와 같다. 低空에서의 最大速度 마하 0.85라는 數字는 現用의 B-52G/H(마하 0.55)와 比較해서는 約 50%나 向上된 것으로 된다.

可變翼後退翼은 B-1A의 것이 그대로 받아 이어지고 外翼의 可動範圍는 後退角 15°에서 63° 30′ 까지로 되어 있다. 한 때는 後退角을 最大 59°로 變更할 것을 計劃하였으나 그 때문에 設計變更에 要하는 費用을 생각하며는 Merit가 없다고 알게 되어 B-1A와 같은 主翼을 使用하게 되었다는 經緯가 있다.

B-1의 可變後退翼은 良好한 離着陸 性能과 高速性能, 低空飛行時의 돌풍(Gust)를 헤쳐나가는 등을 노린 것으로 戰鬪機와 같은 機動性의 獲得을 目的으로 한 것은 아니다. 거기에서 B-1B는 設定은 메뉴얼 方式을 授用하고 있다. F-14와 같이 對戰鬪機 戰鬪時의 機動性의 向上을 意識하지 않았기 때문에 메뉴얼 方式이라도 특히 不便하지 않다.

이미 記述한 바와 같이 B-1B는 超低空 高速侵入에 의해 敵의 防空網을 強行突入하는 것을 노린 戰略爆擊機이다. 이 때문에

특히 殘存性을 고려해서 設計하게 되었다. 積極的인 對策으로서 高度의 電子裝備를 搭載하는 한편 Steath 性能에도 뜻을 가지고 있다.

獨特하게 複雜한 二次曲線으로 構成된 外形의 B-1은 B型에는 空氣吸入口를 再設計하여 알맞게 電波反射體로 되는 엔진 前面의 Fan Plate를 숨기고 엔진너셀 自体도 둥그스름해진 外形으로 變更되고 있다. 또한 複合材料를 많이 使用하여서 電波反射를 抑制하고 全体에서는 B-1A의 1/10, B-52와 比較해서는 1/100이라는 레이더 反射面積을 억제하는데 成功하였다고 한다.

이 結果 B-1B의 反射面積은 F-4 Class의 戰鬪機와 같이 되었다 한다. 여기에 高度의 電子裝備를 編成하며는 向後 10年 程度는 蘇聯의 防空網을 突破할 수 있다고 自信을 갖고 있다고 한다. 現在 소련 防空軍은 MiG-31 FoxHound와 Su-27 Flanker에 代表되는 Look-down Shoot-down 能力을 具備한 邀擊戰鬪機의 配置를 推하고 있으나 지금 역시 空中早期警報管制機를 實用化하기 到하지 않고 있다.

美空軍은 이 소련防空網의 弱點을 알기 때문에 B-1B의 低空侵入에 成算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며, 소비에트관 E-3 "SUAW ACS"가 完全히 實用化될 때까지는 B-1B로 對應된다는 判斷이다. 그 後에는 事實上 RADAR로 探知안되는 Steath 爆擊機로 代替된다.

B-1B의 中核이라고 할 수 있는 電子裝

備는 攻撃用(Offensive Avionics System)과 防禦用(Defensive Avionics System)으로 二分된다. 前者는 前方監視 및 地形追隨,Radar, AFSAT-COM(空軍衛星通信 System)과 연결하는 高精度의 慣性航法裝置 戰略用 Doppler 航法裝置 및 電波高度計 등으로 構成되는 OAS Packag로서 이 OAS開発은 B-52G/H에의 実績을 가진 Boeing社의 担当이다.

한편 防禦用 電子裝備는 AN/AL Q-161 ECM(電子妨害)裝置가 中心이 되어 있다. 이것은 Contral Computer와 연결되어 威脅 電波의 受信을 分析·評價·位置標定에서 自動化된 高度 System으로 Chaff/Flare 射出管制機能을 가지고 있다.

Weapon Bay는 胴體의 3個所에 設置되어 前方 2個所는 구분하여 位置를 變更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의 武器를 搭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搭載武裝은 空中發射 巡航미사일(ALCM) 防空制圧用의 短距離 空對地核미사일(SRAM), 自由落下式 核爆彈, 在來式 爆彈으로 分類되어 ALCM을 8發, A

G M 69 SRAM을 24發, B-28 또는 B-43核爆彈 / 2發, B61 / B83 核爆彈 24發을 搭載할 수 있다.

在來型 爆彈의 경우 500 lb의 MK 82일때는 84發, 2,000 lb의 MK 84는 24發까지 搭載可能하다. 그 外에 胴體下部의 8個所의 武裝 Station이 있다. 이것을 使用하며는 ALCM과 SRAM는 14發 B 28核爆彈 8發, B 43 / B 61 / B 83 核爆彈 14發을 追加 搭載할 수 있다. 같은 在來式 爆彈도 MK 82는 44發 MK 84는 14發을 追加할 수 있다. B-1B는 在來型爆彈 搭載能力 面에서도 Big Belly 改造를 實施한 B-52D에 거의 匹敵할 수 있다.

이러한 運用의 柔軟성이 풍부한 것이 戰略爆擊機의 特徵의 하나로 말할 수 있지만 무어라고 하여도 B-1B의 眞價는 全面 核戰爭時에 소련領 깊숙이 侵攻할 수 있는 能力이 있다.

Triad(三木柱)體制의 一部를 形成하는 美空軍의 戰略爆擊能力은 B-1B의 實戰配置는 완벽하게 強化되었다고 할 수 있다.

# 蘇聯의 航空武器 發展趨勢

## 및 展望

최 양 수

(사무관·공군본부)

**소**련의 항공무기 발전추세 및 전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방측 기술을 획득하려는 소련의 노력을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소련의 기술 Spy활동과 신기술 개발노력을 언급하고자 한다.

### 기술 Spy활동과 신기술 개발노력

소련은 과거 수년동안에 미국 및 서방측과의 기술적 열세를 만회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군산업제작기반 및 이를 보충할 수 있는 대대적인 연구기관을 조성 및 설립하여 왔다.

또한 소련은 서방측의 최신기술을 합법 및 비합법적 수단으로 도입하기 위하여, 기술 Spy활동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고급정보요원들에게 소련의 과학 및 기술정보요구에 대한 사전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한 후, 과학자로 위장, 서방측의 최신기술을 수집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 와서는 거의 모든 중요한 기술분야에서 서방측과 기술적 Gap을 좁힐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분야에서 더욱 Gap을 좁힐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그 외에도 전차, 포 및 대전차, 지대공

소련은 서방세계와 기술적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계속 연구 및 개발기반을 확대하고, 기술기반을 증대하는 한편, 종전의 설계방식에서 탈피, 서방측의 신기술을 통합 기술적인 열세를 만회하려고 노력할 것으로 예상되나 아직도 서방측은 질적우세에 역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소련측은 양적인 우세에 중점을 두고 있고, 또한 설계자들의 창의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소련의 교리상의 문제점들이 보완 및 수정되지 않는한 2000년경에 개발이 예상되는 차기세대 신예기는 서방측 항공기에 비하여 성능의 향상을 크게 기대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사일과 같은 전술부대에 이용할 수 있는, 자재, 폭약 및 Sensor 기술분야에 있어서는 서방측과 거의 대등하거나 또는 약간 우세한 면도 있으며, 화학전이나 미래의 별들의 전쟁에 이용하기 위한 일부 레이저 연구분야와 같은 몇 가지 주요 분야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최근에 발표된 미의회의 한 보고서에 의하면, 소련은 서방측의 주요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대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군사적인 연구 및 제작능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서방측과의 기술적 Gap을 좁히는데 성공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미국 및 동맹국들의 기술적 우세가 침식당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소련의 이와 같은 목적은 서방측과 대등한 군기술능력을 성취하여 기술적 열세를 만회하자는데 있으며, 소련은 막대한 자원 및 그간에 축적된 기술기반을 토대로, 앞으

로도 계속 기술적 발전을 시도하여,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 국방비 및 R & D비 증가추세

1976년에서 1985년 동안의 소련의 국방비는 미국의 국방비를 크게 능가하여 왔으며 1984년을 기준으로 할 때, 미국의 국방비는 2,582억불 임에 비하여 소련의 국방비는 3,060억불로 이 기간동안에 달러로 환산하여 미국보다 약 1.2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R & D와 같은 중요한 분야에서는 소련의 노력은 미국을 계속 능가하여 왔을 뿐 아니라 과거 2년동안에 소련의 무기조달비로 크게 증가하여 왔다.

소련의 군사적 노력은 소련 GNP의 15~17%에 달하고 있으며, 소련은 군 R & D 노력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여 왔다. 역시 '84년을 기준으로 할 때, 소련의 R & D비는 1조9,200만불에 달하며, 이 수치는 소

련 GNP의 약 3%, 그리고 국방비의 약 20%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소련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과학자 및 기술자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R & D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만도 약 90만명이상이 된다고 한다. 이와 같은 과학자 및 기술자들의 절반 이상이 국방에 관계된 특수 전문요원들이며, 상당수가 국방에 관계된 R & D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고 한다.

### 서방측의 신기술 이전사례

서방측의 기술을 이용한 소련의 특수무기 및 장비 중에서, 방공분야에 관한 몇 가지 무기만을 소개하고자 한다.

소련은 미국의 F-14, F-15 및 F-18 등의 Fire Control Radar에 관한 기술을 획득하여 MiG-29, MiG-31, Su-25 및 Su-27과 같은 최신편 전투기를 개발하는데 성공하였으며, 미국의 Phoenix 미사일에 관한 기술을 Semi-active Air-to-Air 미사일에 이용 미사일의 성능을 향상시켰을 뿐 아니라, IR Radiometer 기술을 이용 항공기의 IR 신호를 감소시키는 한편, 섬유광학기술을 항공기/미사일 등의 통신탐재장비에 이용 통신/유도능력을 향상시켰음은 물론, 공대공미사일에 대한 기술을 이용 신형 공대공미사일을 개발하는 등 방공분야에서 크게 발전하게 되었다.

서방측의 기술획득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분야는, F-14, F-15 및 F-18 등의

Fire Control Radar에 관한 기술로서, 이와 같은 서방측의 최신킨기술을 도용 사용함으로써, 소련의 항공 및 레이더산업의 막대한 비용의 절감은 물론 개발기간을 5년 이상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며, 특히, 최신편 전투기들이 새로운 Look-down/Shoot-down 능력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그외에도 '70년대 후반 및 '80년대 초반에 입수된 서방측의 기술은 소련의 군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항공기 설계방식(과거)

소련의 과거 항공기 설계방식을 살펴보면, 모든 군용 및 민간항공기는 항공기의 설계, 제작 및 조달 등이 정부의 주도 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가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도록 제작되며, 장기적인 경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규제될 뿐 아니라, 소련의 설계교리상에는 가능한한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값이 저렴한 원형기를 제작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소련의 항공기 설계자들은

- 설계상 형적세습성
- 부품의 공통성
- 제작상의 경제성 등을 중시 설계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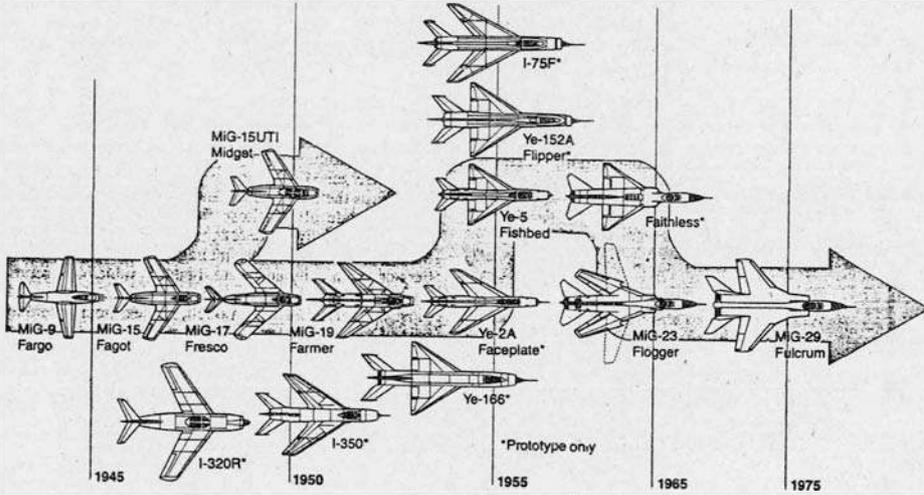
- 설계상 형적 세습성

아래 도표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MiG 기 설계국에서 설계한 MiG 기 계열의 공중우세 전투기는 연대적 발전과정에서 볼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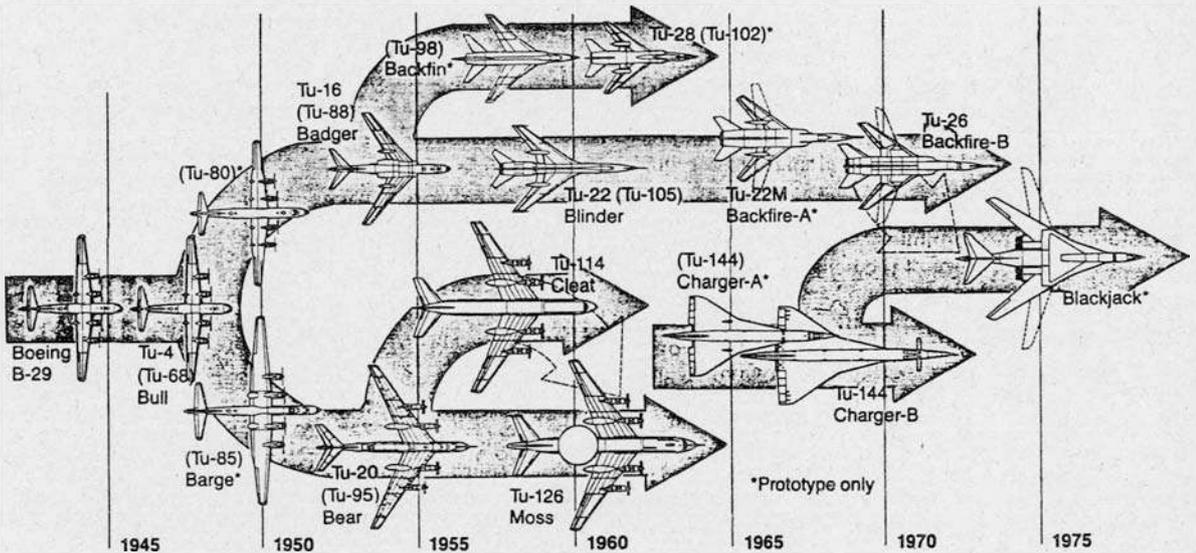
중전의 설계방식과 매우 흡사하게 설계 발전시켜 왔음을 알 수 있고 Tupolev 설계국에서 설계한 설계방식은 중전의 항공기와 직접 관계가 있으며, Tu-126 Moss AWA-

CS기는 Tu-114 Cleat 여객기를 개조한 것이고, Blackjack은 Tu-144 Charger 수송기의 부품을 사용한다, Backfire기의 기술을 사용 변경 발전시켜 왔음을 알 수 있다.

### MiG 기 계열



### 폭격기 계열



소련이 이 방식을 택하는 이유는 새로이 개발하려는 모든 항공기에 소개되는 각종 최신기술의 종류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기 위한 방법이며, 이는 최신기술이 많은 장점은 갖고는 있으나 그만큼 많은 모험이 수반될 가능성도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설계자들은 자기가 종전에 연구한 작업에 연구시험소에서 입증, 승인된 기술적 발전관을 추가하여 새로운 원형기를 설계하나 완전한 신규설계방식을 택하기보다는 계속 개조하는 방식을 택하여 수시로 향상 발전시켜 왔다.

#### ○ 부품의 공통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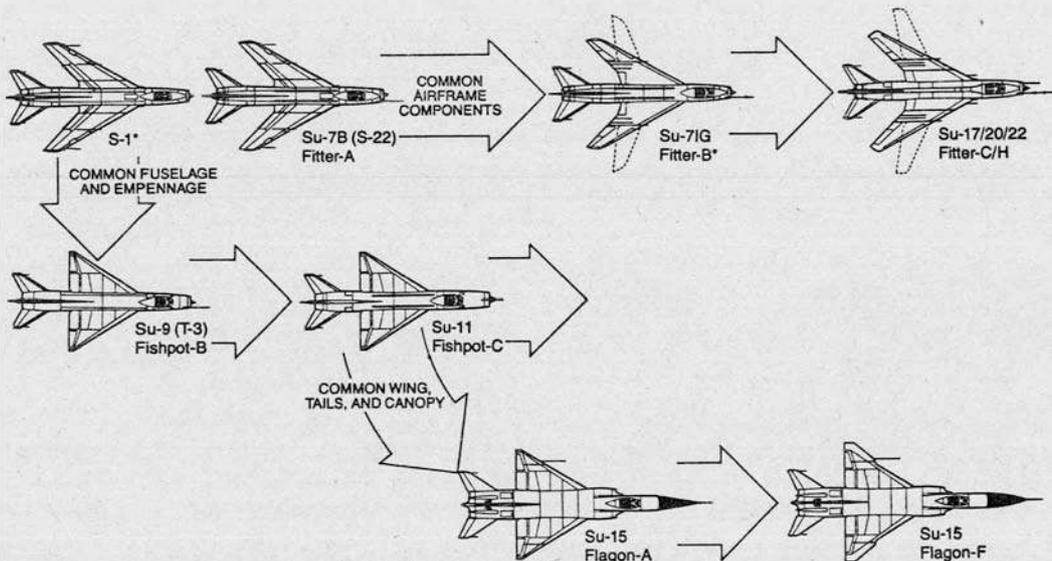
이 방법은 항공기의 제작 및 개조시 위험과 불필요한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계통의 개발을 최소한으로 줄여 사용하는 것으로 신기술보다는 기존 부품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는 설계상의 형적 세습방법을 보충한 방법이라 말할 수 있다.

현재의 항공기나, 그 이전의 항공기의 부품을 개조하지 않고 그때의 원형기에 사용하는 것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그 대표적인 예는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Sukhoi 설계국에서 설계한 설계방식으로 미루어보아 각종 설계부품은 부품의 공통성 개념을 이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아래 그림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S-1과 Su-9의 동체 및 미익은 거의 동일하며, 주요한 차이는 Wing에 있고, 가변익 Fitter-B는 Fitter-A와 똑같은 동체와 미익을 사용하였으며, Flagon A는 Fishpot C와 똑같은 Wing, tail 및 Cockpit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소련이 부품의 공통성과 다른 양



상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MiG-23/27 계열을 생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종전의 항공기의 기체를 최소한으로 개조하여 여러 가지의 기술을 사용, 발전시켜 왔다.

#### ○ 제작상의 경제성

소련에서 새로운 항공기를 설계하여 제작할 때에는 제작상의 경제성을 국가의 제반 목표와 자산에 공히 부합하도록 항공기를 생산하도록 한다.

그 예로써 MiG-25 Foxbat 전투기를 생산할 때, 철강의 사용은 티타늄보다 당시의 소련의 항공산업능력에 더욱 적합하였기 때문에 철강을 주원료로 채택하였으며, 또한 이 물질의 사용으로 항공기 자체에 대한 각종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물론, 티타늄을 항공기의 재질로 사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MiG-25에 티타늄과 대등한 재질을 사용, 제작하여 비행하였다는 몇 가지 징후가 있으나, 이를 새로이 생산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취소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요구충족을 위한 군장비는 극히 간단한 설계방식을 택하여야 하며, 단순한 설계방식은 장비의 개발, 설계 및 제작상 경비의 절감 외에도 고장을 유발시킬 수 있는 복잡한 계통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항공기가 야전에서 보다 신뢰성을 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시에 외부의 지원없이도 각종 항공기조립공장에서 많은 부품을 제

작하도록 하여 각종 무기체계를 생산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 항공기 설계방식의 변화추세(최근)

소련의 항공기 설계방식이 과거에는 설계상 형적 세습성, 부품의 공통성 및 제작상의 경제성을 감안하여 설계함으로써, 개발상의 위험, 고장률 등을 감소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야전에서의 신뢰성을 유지하고, 전시에 각종 무기체계를 신속히 생산할 수 있으며,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장점 등을 기할 수 있었으나, 항공기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없을 뿐 아니라 낙후성을 모면하기에는 상당한 기간이 지연되기 때문에 항공무기의 질적 향상을 기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을 인지한 나머지, 최근에 와서는 기술 Spy를 통하여 입수한 서방측의 최신기술과, 그동안에 축적된 기술기반을 토대로 종전의 설계방식을 탈피하면서, 서방측의 새로운 기술을 통합하여, 서방측의 항공기와 그 능력면에서 대등한 신예기를 개발, 항공기의 정교성을 증대시키는 한편, 항공기분야에 있어서 서방측과의 질적 열세를 만회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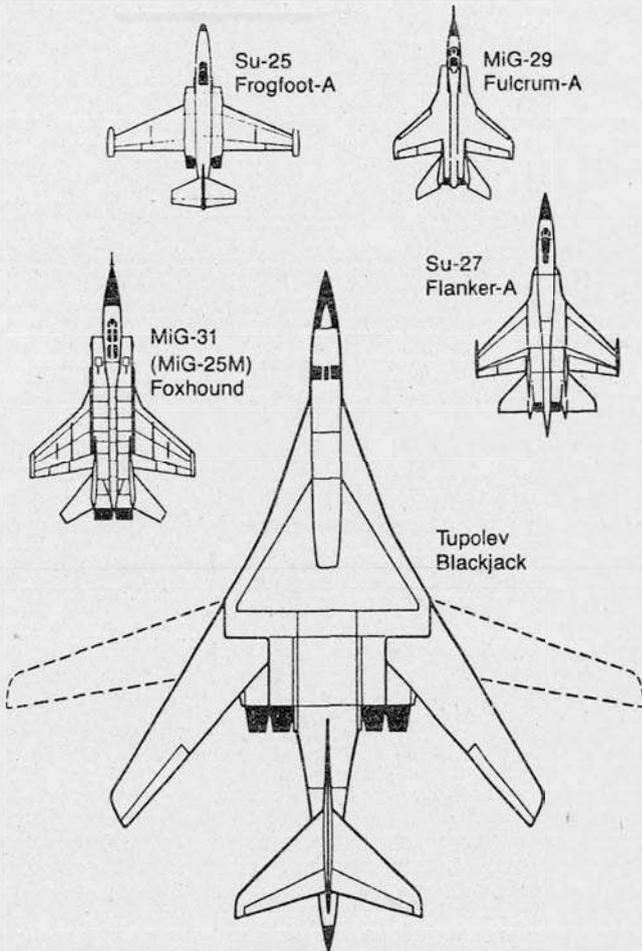
### 신예기 개발추세

최근 소련의 항공기 설계추세는 여러 가지의 개발기종의 사용은 가급적 피하고, 기 생산된 원형기를 사용하여 새로운 계획을

착수하고 있으며, 미국의 B-1 Counterpart 기인 Blackjack은 Tu-95 Bear 전략폭격기를, F-18의 Counterpart 기인 MiG-29는 MiG-23 Flogger를, F-14의 Counterpart 기인 MiG-31은 MiG-25 Foxbat 기를, F-15의 Counterpart 기인 Su-27은, Su-15 Flagon을 각각 대치할 예정으로 있으며, A-10의 Counterpart 기인 Su-25는 소련에서 개발한 유일한 항공기로 CAS 임무에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10 여년 동안에 소련 전투기들은 성능이 크게 향상되어 왔으며, 최근에 와서는 항공기를 설계제작하는데 보다 새로운 기술을 더욱 통합하고, 각 모델의 소개기간을 확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소련의 항공산업은 정부당국의 후원으로, 항공기의 연구 및 개발기반을 점차 확장하여 왔으며, 이와 같이 기술기반이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으므로 설계자들은 보다 빨리 발전된 개념을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을 갖게 되었으며, 새로운 군용기에 발전된 기술을 더욱 통합하여, 새로운 전투기 및 기타 군용기를 직접생산할 것으로 예상될 뿐 아니라 기술적 발전의 속도는 더욱 가속화되어 우수한 항공기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 MiG기 개발 추세

소련의 전투기는 재료처리와 항공역학적 기술상의 제한성 때문에, 최대 속도는 Mach 2.3~2.6의 수준을 유지하여 왔으며, 소련은 요격기의 일환으로 공중우세 전투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차기 MiG 기 계열의 전투기에도 역시 고속기동능력을 갖게 할 것이다.

과거에는 고고도에서의 고속기동을 더욱 중시하여 왔으나, 최근에 와서는 저고도에서의 고속기동

도 중요시하여, 저고도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또한 새로운 세대의 항공기는 그 요구가 점점 다양해 지고, 복잡해 짐에 따라, 중량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왔을 뿐 아니라, 새로운 전투기가 다목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군교리의 발전에 의한 항속거리가 증대됨에 따라, 최대 이륙중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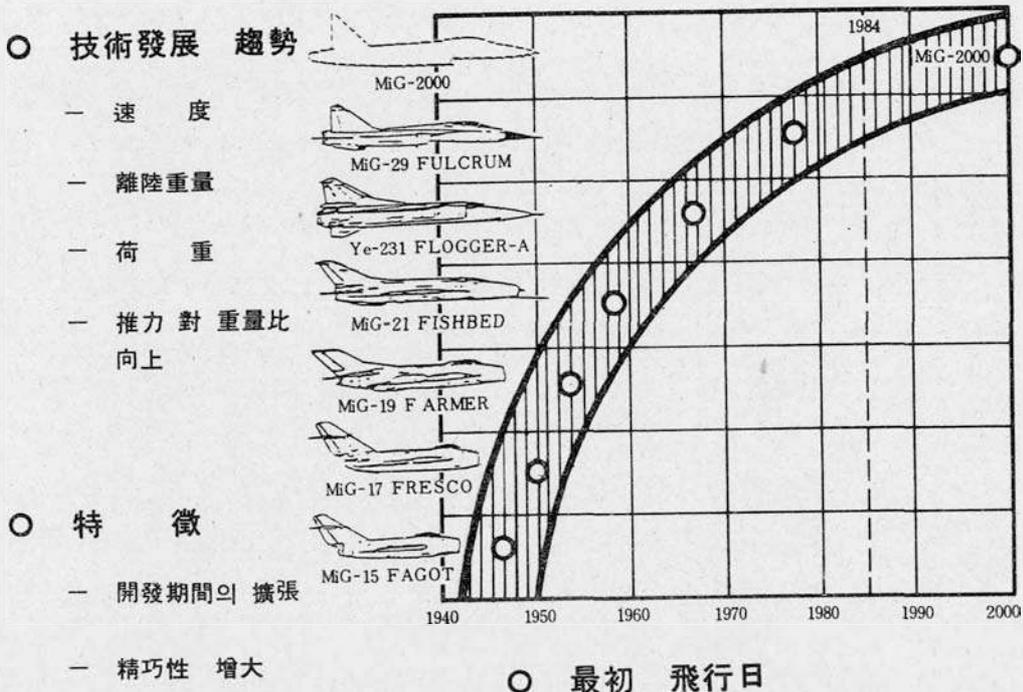
익면 하중면에서는 우수한 기동으로 교전을 하기 위하여 익면하중을 감소시키는 추세에 있으며, 우수한 추력대 중량비를 중시하는 한편, 소련의 엔진기술이 계속적으

로 발전하고 있으므로, 소련 전투기는 추력대 중량비가 계속 향상되어 왔다.

과거에는 Turbine 엔진 기술면에서 서방측보다 열세하였으나, 최근에 와서는 크게 발전하여 왔으며, 장거리임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료의 효율을 향상시키는데 더욱 노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항공기의 중량에 있어서 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감소시키려 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련은 MiG계열의 항공기를 비롯하여 거의 모든 기종에 해당하는 전술기들이 기술면에서 속도, 이륙중량, 하중 및 추력대 중량비가 크게

### MiG機 技術發展 및 開發趨勢



향상되었으며, 위의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 기종의 개발기간이 '60년대 이후부터 점점 확장되어 왔음을 알 수 있고 아울러 항공기의 정교성이 더욱 증대되어 소련 항공세력의 위협이 계속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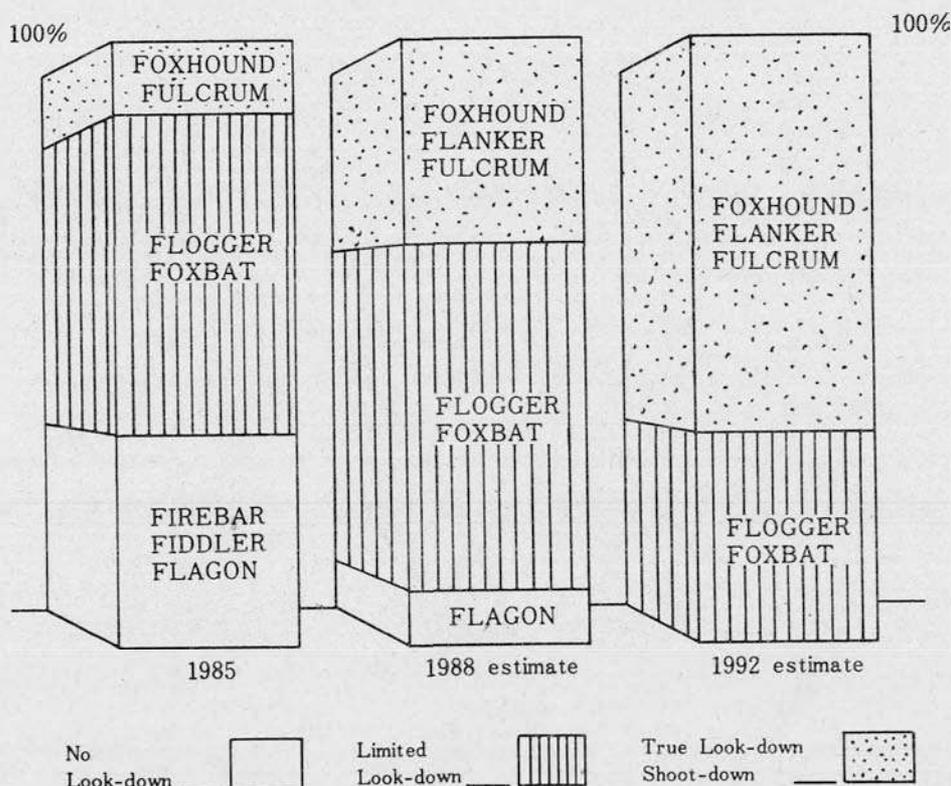
### 요격기 레이더 능력

소련의 가장 우수한 요격기는 MiG-29 /

Fulcrum, MiG-31 / Foxhound 및 Su-27 / Flanker 등 3개 기종으로 이 기종들은 공히 완전한 Look-down / Shoot-down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MiG-29와 MiG-31은 현재 약 100여대가 취역하고 있고, Su-27은 '80년대 후반에 취역할 예정으로 있다.

이들 요격기들의 레이더 요격능력을 살펴 보면, 다음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5년도에는 MiG-29 및 MiG-31 만이 전체 기종 중에서 약 10%로, 완전 Look-down /

### 遊撃機 레이더 能力



Shoot-down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88년에 비하여 약 20%가, 그리고 '92년 경에는 Su-27 / Flanker가 추가되어 '85년에는 '85년에 비하여 약 30%가 Look-down /

Shoot-down이 각각 증가할 추세에 있으므로, 소련 요격기들의 레이다 요격능력은 계속 향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 최신에 기종들은 신형 장거리 AA-9 공대공미사일과 중거리용 AA-10 공대공미사일을 무장하고 있으며, 저고도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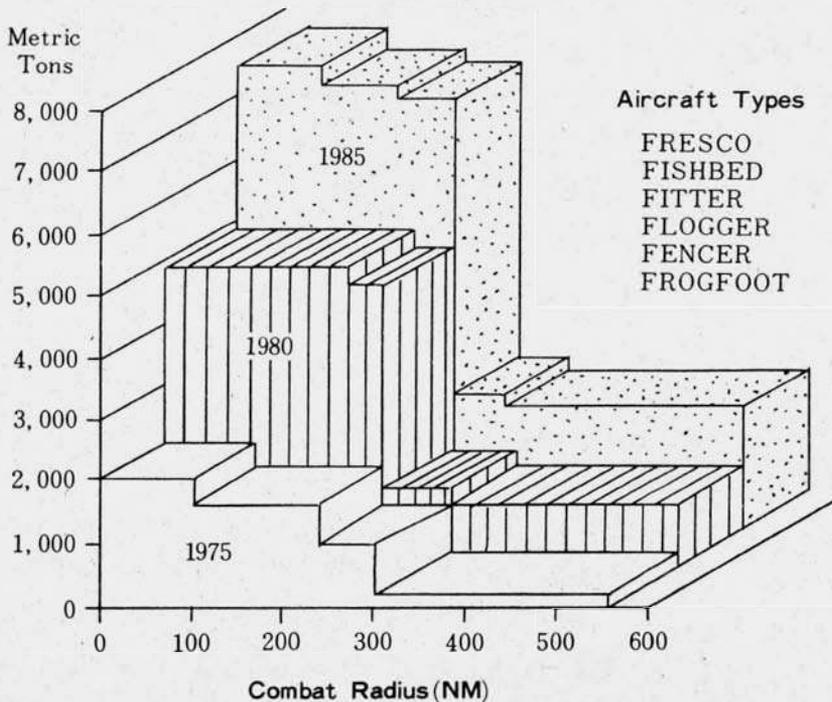
이외에도 소련은 IL-76/Mainstay AWA - CS기를 전개 중에 있고, IL-76 / Candid 수송기의 개량형인 급유기가 '80년대 말에 전개될 예정으로 있으므로 앞으로 이들 요격기의 요격능력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소련은 공중감시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연구 및 개발계획을 적극 추진하고 있을 뿐 아니라, 1983년에 두 가지의 새로운 공중감시 레이다를 전개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소련은 방공 및 전자전능력의 향상 외에도 순항미사일 및 폭격기에 대한 조기경보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전술 대지공격기의 폭격능력

소련의 대표적인 대지공격기로는 Su-17/Fitter와 MiG-27 / Flogger 및 Su-24/Fencer 등을 들 수 있으며, Su-17은 현재 약 800

### 戰術 对地攻撃機 爆撃能力



여대가, MiG-27 및 Su-24는 각각 약 700여대가 취역하고 있다.

이외에도 전술대지공격기로는 MiG-23 / Flogger와 Su-25 / Frogfoot, MiG-21/Fishbed 및 Su-7 / Fitter A 등을 들 수 있다.

위의 도표는 소련 전술대지공격기의 폭격능력을 도표로 나타낸 것이며, 대지공격기의 전투행동반경과 무장적재능력의 증가추세를 설명한 것이다.

연도별로 항속거리와 무장적재능력의 증가추세를 살펴보면, '75년도에는 전투행동반경이, 550NM일 경우 무장적재능력은 250톤에 불과하였으나, '80년도에 와서는 1,500톤으로 '75년에 비해 5년동안에 6배가, '85년도에는 3,000톤으로 '75년에 비해 12배가 각각 증가하였으며, 전투행동반경이 단거리인 100NM일 경우 '75년도에는 2,000톤이었으나, '80년도에는 4,800톤으로 '75년에 비해 5년 동안에 2.4배가, '85년도에는 7,500톤으로 '75년에 비해 10년 동안에 3.75배가 각각 증가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70년대 중반 이후부터 소련의 전술대지공격기의 폭격능력이 계속 향상되고 있는 이유는, 소련이 종전의 설계 방식에서 탈피, 서방측의 항공역학적 기술을 통합하는 추세에 있고, 소련의 엔진기술이 계속 발전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항공기 능력향상 추세

미국의 정보기관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80년말 기준, 과거 5년 동안, 소련의 정보기구가 획득한 서방측 기술자료는 장비, 무기 및 부품의 샘플이 무려 3만여 종 종류 이르며, 각종 기술문서 등이 40만여 종류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한다.

또한 미의회에 보고된 평가서에 의하면, 이와 같이 서방측 기술이 소련으로 유입, 기술이 이전됨으로써, 소련은 R & D의 모험을 감소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R & D 비용을 일천억불 이상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과거 10여년 이상 동안에 소련이 서방측의 컴퓨터 및 마이크로 전자장비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이 분야에서 미국과의 기술적 Gap이 '60년대 중반에는 10~12년 정도였던 것이 최근에 와서는 불과 3~4년 정도로 감소되었다고 하며, 특히 컴퓨터기술에 힘을 입어 각종 군기능의 향상은 물론 각 기술의 설계 및 제작과정의 자동화에 이르기까지 급진적인 발전을 보게 되었다.

따라서, '70년대 중반 이후부터 소련 항공기의 능력이 향상 추세에 있었으며, 전투기분야에 있어서는 과거에는 수적우세, 질적열세로 항속거리/하중이 불량하였고, 단거리 요격능력, 정밀유도무기 사용능력 전투 및 전천후 작전능력이 미비하였던 것

이 최근에 와서는 수적우세, 질적대등한 수준으로 Stand-off 공격능력, 원거리 작전 능력, 다수목표 공격능력, 전천후 작전능력 외에도, Look-down / Shoot-down 능력을 보유하는 등 그 능력이 현저하게 향상되었다.

## 전 망

최근에 와서는 소련의 항공무기의 성능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으며, 앞으로도 소련은 서방 세계와 기술적 격차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계속 연구 및 개발기반을 확대하고, 기술기반을 증대하는 한편, 종전의 설계방식에서 탈피 서방측의 신기술을 통합 기술적인 열세를 만회하려고 노력할 것이 예상되며 2000년 경에는 차기세대 신예 MiG기가 개발될 것으로 예상되나, 아직도 서방측은 질적우세에 역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소련측은 양적인 우세에 중점을 두고

있고, 또한 설계자들의 창의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소련의 교리상의 문제점들이 보완 및 수정되지 않는한 2000년 경에 개발이 예상되는 차기세대 신예기는 서방측 항공기에 비하여 성능의 향상을 크게 기대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재 취역 중에 있는 MiG-29, 및 Su-27 등이 미국의 F-15/16 및 현재 개발 중인 F-19보다 질적으로 크게 우세하지 않는한, '90년대 이후에도 소련 전투기의 위협은 서방측 전투기보다 열세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미국에서는 차기 전투기 및 폭격기로 ATF기인 F-19기와 Stealth 폭격기 등을 개발 중에 있으므로, 소련측이 앞으로 차기 신예기 개발에 소홀히 할 경우에는 '90년대 이후에는 미국에 비하여 기술적 격차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참 고 문 헌

- Soviet Military Power 1986.
- Air Force Magazine 1984. 3.
- Air Force Magazine 1985. 3.
- Air International 1986. 4.
- Soviet Acquisition of Militarily Significant Western Technology, An Update, 1985. 9.

# 中共軍의

## 현대화 및

### 문제점

윤 쾌 한 譯

〈주사·공군본부〉

**중** 공은 1960년경 중·소간의 이념 분쟁으로 소련의 군사 및 기술지원이 전면 중단상태에 있었으며, 당시 중공 항공산업은 제트전투기를 방제(倣製)할 수 있는 능력은 보유하고 있었으나, 미숙한 상태에 있었다. 또한 1966년경에서 1978년 경에는 모택동의 문화혁명으로 인하여 기술발전이 전면 중단된 상태로 약 10여년간 지속되어, 중공의 항공산업은 물론 거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발전하는데 큰 방해요인이 되었다. 따라서 1970년대 중반의 중공 항공산업의 기술수준은 '60년대 수준을 약간 상

회하는 상태에 있었다.

1980년대에 와서는 중공은 군 현대화 및 항공산업의 발전의 일환으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 선진국들과 기술교류를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특히 항공기 개발에 집중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 중공군 현대화

##### ○ 군의 감도

중공은 군의 현대화를 위하여 중공군을

현재 약 400만에서 300만으로 감소하려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정치적인 목적에는 중공군에 대한 등소평의 군통제체제를 확고히 하자는데 있으며,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군의 현대화를 위하여 보다 많은 무기를 구입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하자는데 있고, 또 하나는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을 민간경제에 재 투입하여 경제개발에 활용하자는데 있다.

고령 장성 및 장교들은 현재 퇴역 중으로 젊고 보다 활력있는 장교들로 대체 중에 있으며, 최근에 와서는 이와 같이 인원이 감소되고 보다 새로운 병기로 무장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저하되어 있었던 중공군의 사기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될 뿐 아니라 종전의 많은 인원 및 장비를 운영하는데 따른 각종 병참상의 문제(Logistic Problems)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중공은 현대화를 위하여 많은 군 공장들을 이용, 국내경제를 활성화하려고 있으며 현재 많은 중공군의 공장들이 무기생산체제에서, 트럭, 오토바이 및 각종 소형차량과 같은 수출상품을 생산하는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 주요 수출국으로 지향

중공은 주요 무기수출국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 Xian/Chendue 항공기 생산공장에서 F-7 (MiG-21)을 수출하고 있으며, Shengyang, Shanghai 및 Nanchang 공장들

은 중동 및 라틴아메리카 등지로부터 많은 바이어(Buyer)들을 확보하고 있다.

1984년에 중공은 약 20억불에 달하는 무기를 해외로 판매하였으며 세계 6위의 주요 무기 수출국이 되었다.

중공의 이와 같은 목적은 비록 서방선진국들의 기술수준 보다는 낮은 기술수준이기는 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기술을 해외로 판매하여 달러를 획득, 중공군을 현대화하는데 필요한 보다 정교한 각종 무기를 구입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 장기간의 기술획득 노력

중공은 해외로부터 직접 구매방식을 통한 최신 무기로 중공군을 현대화시키기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미국의 국방성이 평가한 바에 의하면 중공이 미·소와 대등한 최신 무기로 군을 재무장하기 위해서는 약 300~400억불이 소요될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중공은 해외 선진국들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필요한 각종 군기술을 획득하여 자급자족하려 하고 있다.

미국방성의 한 관리의 말에 의하면 중공은 중공의 자립정책에 따라 무기기술 및 생산기술을 포함, 비교적으로 중공의 실정에 적합한 최신무기를 합작생산하려 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미국의 McDonnell Douglas사로부터 MD-80 생산기술을, 영국의 Rolls-Royce사로부터 Spey 엔진생산기술을, 그리고 프랑스의 Aérospatiale 사로부터

Dauphin 헬리콥터기술을 도입하여 전투기에  
서부터 헬리콥터에 이르기까지 각종 항공기  
를 합작 생산하여 기술기반을 확대한 후 자  
립생산능력을 배양하려하고 있다고 한다.

## 현대화를 자극케하는 중공의 외적 요인 및 미국정책

중공은 1980년대에 3가지의 명확한 사실  
들을 알게 되었다. 첫째, 중공은 1979년의  
중·월전쟁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매우 취  
약하였다는 것이었으며 둘째, 중공의 안목  
에서 볼 때 소련은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  
는 등 다시 확장정책을 시도하고 있으므로  
중공에 대해서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는 사실이며 셋째, 미국은 중공이 새로운  
기술을 획득할 수 있는 잠정적인 원천(So-  
urce)일 뿐 아니라, 소련에 대해서 균형을  
유지케 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세번째 요인은 중공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한편 중공군 현대화를 위한 중공과 미국  
간의 군사적 관계는

첫째, 고위급의 대화

둘째, 군사적 교류

셋째, 군기술의 이전 등 3가지 요인이  
있다고 한다.

군 및 회사대 회사간의 교류를 포함한  
미·중공간의 고위급 대화는 원활히 진행되  
어 왔다고 하며 군사적인 교류에 있어서는  
중공 공군측이 가장 적극적이라고 한다.

1985년 7월 17일 Weinberge 미국방장관

이 미·중공간의 관계에 대하여 행한 연설  
에서 “중공을 안전하고 성공적인 방법으로  
현대화시키는 일은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  
적인 평화 및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따라서 미국은 중  
공의 현대화를 위하여 적극 기여하여야 한  
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미국의 정책하에서도 미국은  
미국의 우방 및 동맹국들에게 잠정적인 위  
협이 될 수 있는 중공측의 공격무기 개발  
에는 참여하지 않고 외부의 공격에 대한 중  
공의 취약성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따라서  
중공이 가장 우선하고 있는 대전차무기 및  
대공무기와 같은 방어용 무기를 개발하여  
중공의 방어능력을 향상시키는데는 적극 노  
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노  
력할 것이라고 한다.

미국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분야에 대  
해서 중공측과 다각도로 상세하게 기술적  
토의를 한 바 있으며 이와 같은 기술적인  
토의가 중공측에 유리하다고 결정될 경우  
에는 제반 협정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 중공군 현대화 및 중공의 당면문제

중공은 미국과의 군사적 관계를 유지하  
면서 계속적으로 장기간 기술기반을 확장하  
려 하고 있으며 미국측이 몇 가지 중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방향을 바꾸지 않는 신뢰  
할 수 있는 공급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중공은 미국이 대만에 대해서는

지금보다도 가급적 빠른 속도로 무기판매를 중지할 것을 바라고 있으며 중공측의 목적과 생각상의 이와 같은 차이는 미국과 중공간의 관계개선에 방해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중공은 현대화를 위해서는 당면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으며 이는

• 경제적인 측면(The Money Gap)

중공경제는 1985년에 약화되어 인플레이(16%)가 형성되었고 수입초과 및 상품의 질이 저하되는 등 경제위에 직면하게 되어 국방비를 포함한 예산이 삭감되는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고

• 기술적인 측면(The Technology Gap)

중공은 정교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들에 대한 교육이 결여되어 있고 이와 같은 체제를 지원할 수 있는 하부조직이 결여되어 있을 뿐 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정교한 무기체제를 흡수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

• 미국의 법률적 측면

미국은 중공에 대한 무기판매시 각종 법률에 의하여 제한을 받게 된다.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The Arms Export Control Act) 상에는 1,400만불 이상의 무기판매시에는 미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외원조법(The Assistance Act) 상에는 국가이익이 침해시 300만불 이상의 방어무기 판매조약을 대통령이 승인하지 못하도록 되어있고 의회의 특별한 승인없이도 대통령은 중공에서 어떠한 병력도 운영할 수 없다. 미국의 군수품통제법(The Munitions Control

Act) 상에는 1983년 이전에 중공에 판매가 해약된 품목이 나열되어 있을 뿐 아니라 끝으로 COCOM법에 따라 NATO 이외의 국가에 방어무기 판매시에는 COCOM법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다.

## 중공공군

중공공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는 약 30년 전의 소련항공기의 기술을 모방한 것으로서 따라서 항공기의 성능이 크게 낙후되어 있다(Table 1 참조).

또한 중공공군은 민항기를 더욱 많이 생산하기 위하여 민항공국으로부터 군공장을 사용하도록 큰 압력을 받고 있다. 중공은 군예산이 삭감되고 오직 낙후된 기술을 이용한 장비를 수출하고 있으며 군용기보다 새로운 민항기를 생산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중공공군은 최신 항공기 및 장비를 획득하기에는 앞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Boeing사의 E-3A AWACS기와 F-7용의 공대공 화력제어체제(Air-to-Air Fire-Control System) 및 F-8용의 Emerson Electric사의 APG-69레이다와 같은 최신장비를 구입하는데는 역시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어려움에도 중공공군은 위에서 언급한 몇 가지의 장비를 구입하기 위하여 쌍방간 교환방문하는데 가장 적극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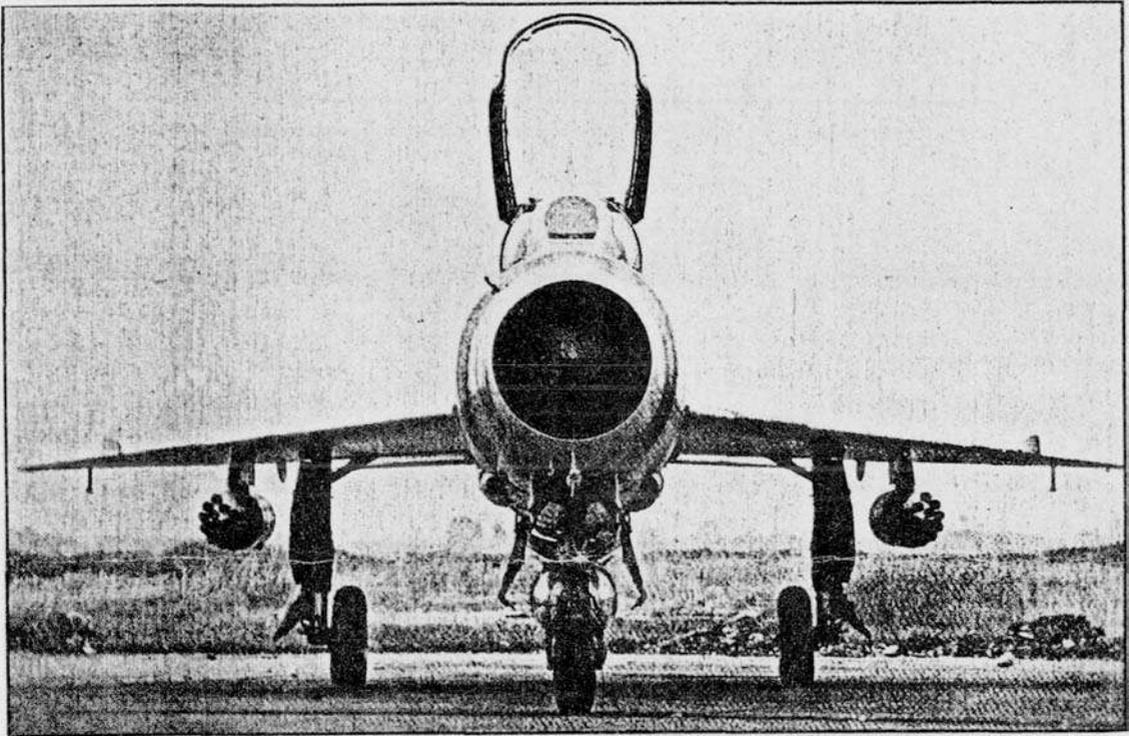
또한 중공은 전투기설계에서부터 헬리콥터, 레이더, 조종사훈련용 장비, 미사일, 전

## 표 1. China's aircraft products

Chinese export designations	Type	Origin
<b>Shenyang aircraft factory</b>		
JJ-5/FT-5	fighter/trainer	MiG-17
J-6/F-6	fighter	MiG-19
JJ-6/FT-6	fighter/trainer	Development of MiG-19
J-8/F-8	fighter	MiG-21 (twin-engined)
<b>Xi'an aircraft factory</b>		
J-7/F-7	fighter	MiG-21F
H-6/B-6	bomber	Tu-16
Y-7	transport	An-24
Design stage	supersonic bomber	(seeking partners)
Design stage	high-performance trainer	
<b>Shanghai aircraft factory</b>		
Y-10	transport (research)	similar to B707(uses P & W engines)
<b>Hanzhong aircraft factory</b>		
Y-8	transport	An-12
<b>Nanchang aircraft factory</b>		
Q-5/A-5	attack	MiG-19
CJ-6	basic trainer	similar to Yak-18
<b>Harbin aircraft factory</b>		
H-5/B-5	bomber	11-28
Z-5	helicopter	Mi-4
Z-6	helicopter	Mi-8
Z-9	helicopter	licence-built Dauphin
Y-11	utility	An-2 replacement
Y-12	STOL transport	Y-11
<b>Key</b>		
JJ	Jianjiaoji-fighter/trainer	
J	Jianjiji-fighter	
H	Hongzhaij-bomber	
Y	Yunshuji-transport	
Q	Qiangjiji-attack	
Z	Zhishengji-helicopter	

자장비 및 C-130 수송기 등과 같은 장비구  
입에 관한 제반문제도 항공회사들 간에 토  
의가 있었다고 한다.

이외에도 Y-7, F-8에 사용할 전자장비,  
RPV 및 중공에서 제작한 전투기에 사용하  
게 될 엔진 등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교섭



중공제 F-7

중에 있으며 1985년 10월에 미공군 참모총장 Charles Gabriel대장이 중공을 방문함으로써 미·중공간의 쌍방구매계획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중공에서 제작한 항공기

#### F-7 전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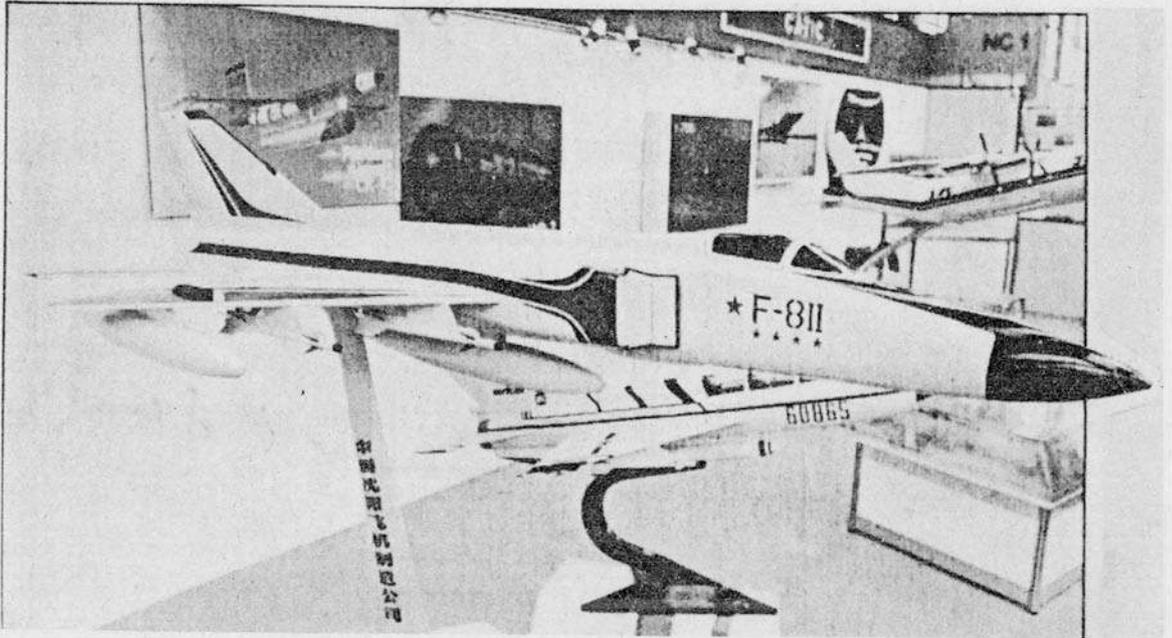
중공제 F-7은 소제 MiG-21을 방제한 전투기로 초기형은 체공시간이 짧고, 공대공 무장능력이 빈약하였다. 그러나 WP-7B Turbojet Engine을 사용하여 추력을 6,100 kg까지 증가시켰다. 또한 동체의 좌측에 30 mm 기총 1문을 추가로 추가시킴으로써 (실

탄 60발 포함) 무장능력을 증가시켰다.

초기형은 알바니아 및 탄자니아 등 국가에 수출되었고 F-7의 부품 및 엔진이 이집트로 수출된 바 있으며 약 160대가 추가로 주문되었다고 한다. 이는 일부는 이집트에서 사용하고 일부는 이라크로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 F-8II 전투기

중공은 국제 Air Show에서 최초로 F-8 II 전투기를 전시하였으며 이 전투기는 종전의 F-8 전투기를 엔진을 제외하고 발전시킨 항공기이다. 가장 특이한 특징은 기수의 Intake를 측면에 장치하였고 기수를 길게 하여 Radome과 Probe를 장치한 것이다.



중공제 F-8 II 전투기

F-8 II는 원형기로서 1년동안 비행시험을 하였고 중공공군의 요청에 따라 여러 가지로 새롭게 개조하였다. 현재 비행시험 중에 있으며 성공할 경우에는 F-8 II는 바로 생산하게 될 것이다.

F-8 II는 단좌, Twin Engine, 다목적 고성능 초음속 전투기로 기동력이 우수하고 장시간 체공할 수 있으며 전투행동반경이 크다고 한다. 또한 요격, 공중전, 후방차단 및 근접 공중지원 임무시 성능이 양호하다고 한다.

항공기의 기장은 21.59m이고, 익폭은 9.34m이며, 기고는 5.41m, 익면적은 42.2m<sup>2</sup>, 자중은 9,820kg, 정상 이륙중량은 14,300kg 그리고 최대 이륙중량은 17,800kg 이라고 한다.

최대속도는 Mack 2.2이고, 최대 IAS 는

1,300km/h, 실용상승한도는 20km, 최대항속거리는 2,200km이다.

무장은 2연신 23mm 기총 1문과, 실탄 200발, IR 공대공미사일, 57mm 로켓, 90mm 공대지 로켓 및 폭탄 등이라고 한다.

이외에도 입수된 첩보에 의하면 중공은 모방기술의 발전과 축적된 경험 및 기술기반을 토대로 자체설계방식에 의한 미라주 2000형의 고정익 F-12A와 MiG-23형의 가변익 F-12B형 등 두 가지 형의 차기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한다.

### 고성능 군용기의 개발상의 문제점

중공은 '70년대 중반 이후부터 고성능엔진을 개발하기 위하여 영국의 Rolls Royce사와 Licence협정을 체결하였고 이집트로부

터 MiG-23을 획득하는 등 항공산업의 발전을 시도하여 왔으며 '80년대에 와서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선진국들과 관계를 개선하여 신기술을 도입하는 등 다각적인 움직임을 보여 왔을 뿐 아니라 1975년 이후에는 소제 MiG-21을 중공에서 대지공격기로 개조한 A-5기를 전개하였고 최근에 와서는 F-8전투기를 중공자제로 개발하였다.

그러나 중공은 아직도 고성능 군용기를 개발 운영하는데는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먼저 항공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술자가 부족하며 따라서 중공은 최근에 미국 등 선진국과의 각종 기술합작 및 국교를 진행 많은 유학생과 기술자들을 파견 항공 과학기술의 인재양성에 전력을 하고 있다.

또한 중공의 항공기 및 엔진생산공장들이 '50년대 중반에 소련의 기술진에 의하여 설치되었으며 '80년도까지 최신생산시설 및 기술이 미비한 상태로 생산시설이 노후화 되어 있었고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경제성의 낙후로 도입되는 신기술에 대한 지원 능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중공경제의 압박으로 국방비가 삭감됨에 따라 신기술 및 신장비의 일시, 대량도입을 금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신기술 도입조건에 있어서도 중공측이 자국에 유리하게 조건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선진국들이 비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등 고성능 항공기 개발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 맺 는 말

현재 중공의 항공기 생산구조는 소련항공기를 기초로 발전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당분간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공은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기술적 내부구조를 재정비할 것이며 과거와는 달리 서방측 항공기를 소개하도록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를 성공리에 성취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 및 기금이 필요할 것이며 따라서 가까운 장래에는 급진적인 현대화는 곤란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중공이 독자적인 노력으로 신형 고성능 전투기의 개발을 시도한다 하더라도 항공기 및 엔진생산공장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기계 및 엔진을 설계할 수 있는 전문적 기술이 결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중공 경제의 낙후 등으로 당분간은 방제(倣製)능력에 불과할 것이며, '90년대 및 그 이후에나 독자적인 최신 전투기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중공은 기존 항공기를 개조하여 항공기의 무장, 속도, 및 기타 성능을 발전시켜 항공기의 작전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할 것이며 서방측의 최신에 항공기가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외국으로부터 고가인 최신에기의 도입은 가급적 제한하고 중공의 실정에 맞는 최신에 항공기를 수입하여 새로운 기종의 개발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 日本航空自衛隊 現況 〈1〉

## (航空總隊篇)

航空自衛隊의 三本柱인 戰鬥機部隊, 對空  
미사일部隊, 警戒管制部隊 등 邀擊, 高射,  
管制的 三位一體로 되어 있는 3個 航空方  
面隊와 1個 航空混成團의 各部隊를 統率하  
고 있는 航空總隊司令部(作戰司令部에 該  
當)의 防空의 重責과 그 編成을 紹介하고자  
한다.

李 相 坤 訳

〈主事·空軍本部〉

### 1. 防空을 使命으로 하는 航 空自衛隊

**航**空自衛隊의 使命은 防空에 있다. 有  
事時는 防空作戰, 平時에는 日本国

의 領空을 侵犯 또는 侵犯할 可能性이 있  
는 航空機를 排除하는 警察行動(領空侵犯에  
대한 措置)를 取하는 것이 航空自衛隊에  
주어진 最大의 任務이며, 使命으로 되어  
있다.

航空自衛隊는 지난 7月 1日 創設하여

32周年을 맞이하였다. 1954年 7月에 美軍으로부터 供與받은 T-33機와 T-6機 등 少數의 訓練機를 가지고 充足한 航空自衛隊가 現在는 F-15J와 F-4EJ 등 邀擊戰鬪機를 筆頭로 日本 自体生産의 支援戰鬪機 F-1, '86年度부터 対領空 侵犯措置 任務를 開始한 E-2C 早期警報機 등 그 正面裝備는 世界 一流空軍과 어깨를 같이 할 程度까지 成長을 이루었다. 專守防衛라는 國家戰略에 立脚하면서도 現在의 航空自衛隊는 实力的인 면에는 世界에서 10等 以內에 들어갈 程度의 “現代의 空軍”이라고 評價할 수 있다.

創設 32周年을 맞은 航空自衛隊의 現保有戰力은 兵力 約 4万 4,900名, 保有航空機는 832台('86年 3月 現在)로 보고 있다. 832台的 航空機中 戰鬪機를 中心으로 한 戰鬪用 航空機는 都合 346台로서 全保有航空機의 約 14.6%를 차지하고 있다.

作戰用 航空機의 合計가 346台라는 現在의 航空戰力은 '76年 日本 閣議에서 決定한 「防衛計劃의 大綱」에서 決定된 約 430台를 下廻하고 있지만 「56中業」이 完成되는 '87年度에는 이것이 395台로 될 豫定이며, 「防衛大綱」에 提示한 數字에 一步다가섰을 뿐만 아니라, 質的인 면에서도 크게 改善될 것이 豫想된다.

그리고 戰鬪機를 中心으로 한 戰鬪用 航空機 등 346台 外에 Nike J 地對空 미사일 約 180基를 正面裝備로서 保有하고 있는 航空自衛隊의 總戰力은 후쥬(府中) 基地에

司令部를 둔 航空總隊(作戰司令部)에 集結되어 있다.

航空總隊는 日本列島를 4個의 防空區域으로 区分한 3個의 航空方面隊와 1個의 航空混成團을 基幹으로 編成되어 있으며, 防空作戰 外에 日本國을 防衛하기 爲해 必要한 各種의 航空作戰을 實施하는 第1線部隊의 集合體이다.

航空總隊의 隸下에는 戰鬪機部隊인 13個 飛行隊, 레이더를 裝備한 航空警戒管制部隊가 28個, 車輛搭載 移動可能한 레이더를 保有한 移動警戒部隊가 7個, Nike J 미사일을 裝備한 高空域 防空用 地對空 誘導彈部隊가 6個聯隊, 이외에 直轄部隊로서 航空總隊司令部 飛行隊, 偵察航空隊, 飛行教導隊(教育隊), 警戒航空隊('86. 4. 5 充足) 防空指揮 聯隊, 프로그램 管理部隊 등 各種部隊가 있다.

航空總隊의 基幹으로 되어있는 3個의 航空方面隊는 北部, 中部, 西部로 各各 割當된 防空區域의 防空을 擔當하고 있으며, 오키나와(沖繩) 등 南西 諸島에는 方面隊에 準하여 編成된 南西航空混成團이 配置되어 있다.

北部 航空方面隊의 司令部는 미자와(三澤), 中部 航空方面隊의 司令部는 이루마(入間), 西部 航空方面隊는 가스카(春日), 南西 航空混成團司令部는 나하(那覇)에 各各 所在하고 있다.

各 航空方面隊는 司令部 外에 2個 航空團과 1個 航空警戒管制團, 1-2個의 高射

群(Group)으로 構成되어, 周辺空域의 警戒 監視 및 邀擊管制에 맞는 航空管制團을 頭腦의 中核로 해서 航空團과 高射群(Group)은 그 手足의 役割을 한다. 各 航空方面隊의 中核의 存在인 航空團(飛行團)의 配置는, 北部航空方面隊의 第2航空團은 지 도세(千歲)에 團本部를 두고 第3航空團은 미자와(三沢) 中部航空方面隊의 第6航空團은 고마쓰(小松), 第7航空團은 하꾸 리(百里), 西部 航空方面隊의 第5航空團은 쓰이끼(築城)에 本部를 두고 있으며, 南西航空混成團의 경우에는 航空團에 準한 編成으로 第38航空隊가 1個 配置되어 있으며, 本部를 나하(那覇)에 두고 있다.

戰團部隊와 高射部隊의 任務 分擔으로서 는 먼저 邀擊戰團機가 地對空미사일(Nike J)의 有効射距離 外에 外側 障害物(Barr-rier)을 形成하고 이것을 突破해서 오는

目標는 Nike J가 처치한다는 順序이다. 다 시말하면 機動性和 柔軟성이 優秀한 邀擊 戰團機가 Nike J의 有効射程距離 外를 広 範圍하게 커버하는 한편 獨立戰團能力이 높 은 地對空미사일을 홉카이도(北海道) 中央 部 아오다테(青函) 地区 간토우(關東), 주 코(中東), 기다쿠슈(北九州), 오키나와(沖 繩) 등의 主要地域 周辺에 配置하여 二段 構造의 防空砲陣을 形成하여 兩者의 特性 을 살려 運用함으로써 縱深性 깊게 防空 作戰을 實施 하려는 構想이다.

## 2. 自動化된 防空作戰

여기에서 防空作戰의 一連의 흐름을 說 明하자면, 먼저 防空識別圈(ADIZ)에 接近 하는 国籍不明 航空機를 防空監視所(레이 다 사이트)의 三次元 레이다에 의해 探知



〈4個 飛行隊까지 成長한 F-15J〉

하는데서 始作된다. 레이다가 不明機를 探知하며는 目標의 位置·速度 針路 등을 計測함과 同時에 追尾가 開始되어 侵入機에 関한 航跡情報가 算出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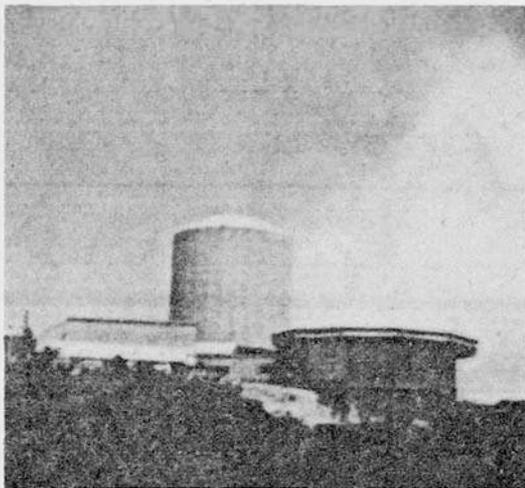
이 目標情報는 BADGE (Base Air Defense Ground Environment : 自動警戒管制組織) System의 Data Link를 통해서 各 航空方面隊의 防空指令所 (DC) 에 自動伝送되어 防空指令所에서는 目標情報에 基因하여 不明機의 味方識別 (識別裝置의 應答 및 Flight Plan의 照合 등)을 實施하여 그 結果 該當機가 侵入機로 判斷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邀擊戰鬪機部隊에 緊急發進이 下命된다. 또한 有事時에는 Nike J部隊에 對해서 目標割當이 行하여질 局面도 생각할 수 있다.

發進한 邀擊戰鬪機에 對해서는 防空監視所와 防空指令所를 連結한 邀擊管制가 行하여 진다. 邀擊機의 パイロット가 機上레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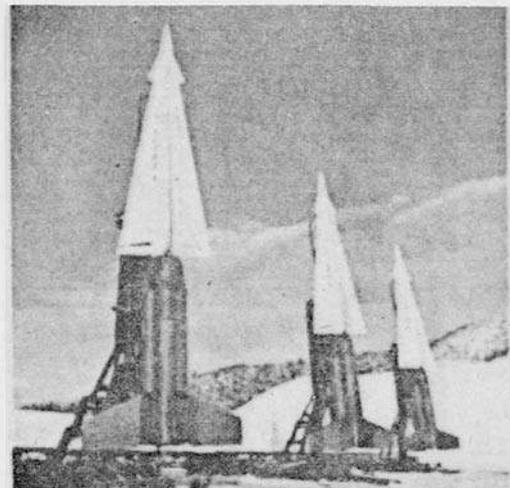
다 또는 肉眼으로 目標를 捕捉할 位置까지 音聲 또는 Data Link 裝置에 依한 誘導를 받는다. 이러한 防空指令所가 實施하는 邀擊誘導計算에 基因하여 邀擊機를 目標에 最短時間에 接敵하게끔 誘導하는 것이 邀擊管制이다.

그리고 Nike 部隊의 境遇에는 防空指令所로부터의 目標情報에 基因하여 自隊의 HI-PAR 레이다로 捕捉하여 Nike J의 發射, 誘導를 行하는 順序로 된다.

以上과 같은 順序의 範圍內에서 侵入機는 邀擊戰鬪機 또는 Nike J 미사일에 의해 擊破되지만, 이들의 一連의 防空作戰은 南西航空混成團의 擔當範圍를 除外하고는 全域이 BADGE System에 의해 自動化되고 있다. 이 BADGE System은 航空自衛隊의 防空作戰의 中心要素로 된 “Big Weapon” 이라고 불리워지는 것으로서 空中目標의 探知와 識別, 邀擊機와 Nike J部隊에 對한 目標割當으로 邀擊管制 등은 大型 컴퓨터



〈레이다 사이트〉



〈地對空미사일 Nike〉

를 驅使하여 自動處理하는 一大 防空管制 組織이다.

BADGE System의 基本 構成은 末端에서 防空監視所(SS), 防空指令所(DC), 防空管制所(CC), 方面隊 作業指揮所(SOC)의 順으로 되어 있어, 侵入機에 關한 情報은 이 흐름에 따라 上級司令部에 傳達된다. 한편 司令은 逆順을 쫓아 邀擊 誘導計算의 結果를 防空指令所로부터 防空監視所를 經由하여 邀擊機에 傳送하게 된다.

그리고 1968년에 運用을 開始한 現用的 BADGE에 代替할 새로운 BADGE System의 整備가 '83年度부터 進行되고 있으며 '83년에는 새로운 System의 運用이 開始된다. 이 새로운 BADGE System에는 처음으로 南西防衛區域이 들어가며 이외에도 레이다 處理方式이 改善되어 探知, 處理能力, 指揮管制機能이 더욱 向上된다. 新 BADGE System이 完成되며는 F-15J 邀擊戰闘機와, E-2 早期警報機, 새로 裝備될 Patriot地對空 미사일과 서로 作用하여 日本列島の 防空態勢는 더욱 더 万全을 기하게 될 것으로 展望된다.

### 3. 戰闘機 部隊

日本の 하늘을 지키며 航空自衛隊를 象徴하는 戰闘機部隊는 前述한 바와 같이 모두 13個 飛行隊가 있으며 이 중에는 10個의 邀擊戰闘機部隊와 3個의 支援戰闘機部隊로 区分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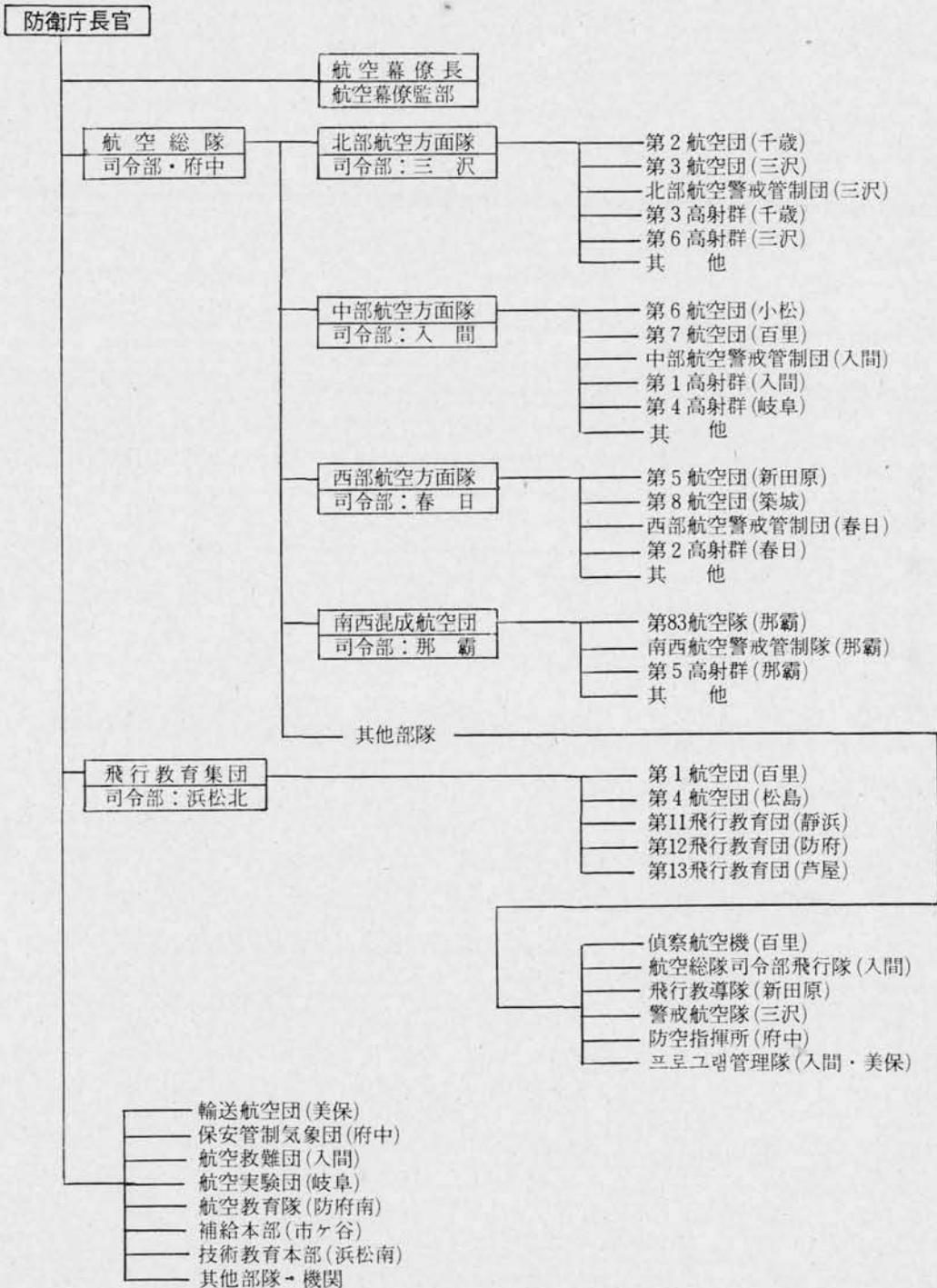
現用的 戰闘機에는 F-4EJ, F-1, F-15 등 3個 機種이 있으며 이들 중 日本自体 生産의 F-1은 支援戰闘機로 分類되고 있는 唯一한 存在이다. 邀擊戰闘機 또는 支援戰闘機라는 Kategorie-区分에는 嚴密한 定義를 내린 것은 아니지만, F-4EJ와 F-15J가 BADGE System과 連結하는 Data Link受信機를 裝備하고 있는데 대해 F-1은 Data Link受信機를 裝備하지 않고 그 대신 對地攻擊用的 爆彈컴퓨터를 裝備하고 있는 것처럼 裝備面에서 多少 差異는 存在한다.

1960-'66年 사이에 戰闘用 航空機 210台가 調達되어 그 最盛期에는 7個飛行隊가 配置되었다. F-104J邀擊戰闘機는 '85年末에 全機가 第1線으로부터 은퇴하였다. F-104J가 은퇴한 現在 航空自衛隊의 主力 戰闘機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은 F-4EJ이다.

F-4EJ機는 '77년까지 모두 140台가 調達되어 6個飛行隊를 編成하여 하구리((百里), 고마쓰(小松), 쓰이끼(築城), 뉴다바라(新田原), 나하(那覇)의 各基地에 展開되어 晝夜를 不問하고 防空任務에 臨하고 있다. 이 F-4EJ는 高性能과 多彩로운 武裝搭載能力의 定評을 받고 있으며 邀擊戰闘, 對戰闘機 戰闘 어느 것이든지 強한 万能의 機體이다.

앞으로도 F-4EJ는 F-15J와 並行해서 邀擊戰闘機의 主力으로서 第1線에서 使用될 것이다. 그런 까닭으로 F-4EJ의 將來

航空自衛隊の編成



航空自衛隊의 戦闘機部隊 配置狀況

航空団(隊) / 基地		飛行隊 / 使用機	飛行隊 / 使用機
北 空	第2航空団 / 千歳	第203飛行隊 : F-15J/DJ 第302飛行隊 : F-4EJ	第201飛行隊 : F-15J/DJ 第203飛行隊 : F-15J/DJ
	第3航空団 / 三沢	第3飛行隊 : F-1 第8飛行隊 : F-1	第3飛行隊 : F-1 第8飛行隊 : F-1
中 空	第6航空団 / 小松	第303飛行隊 : F-4EJ 第306飛行隊 : F-4EJ	第303飛行隊 : F-4EJ 第306飛行隊 : F-4EJ
	第7航空団 / 百里	第204飛行隊 : F-15J/DJ 第305飛行隊 : F-4EJ	第204飛行隊 : F-15J/DJ 第305飛行隊 : F-4EJ
西 空	第5航空団 / 新田原	第202飛行隊 : F-15J/DJ 第301飛行隊 : F-4EJ	第202飛行隊 : F-15J/DJ 第301飛行隊 : F-4EJ
	第8航空団 / 築城	第6飛行隊 : F-1 第304飛行隊 : F-4EJ	第6飛行隊 : F-1 第304飛行隊 : F-4EJ
南 混	第83航空隊 / 那覇	第207飛行隊 : F-104J	第302飛行隊 : F-4EJ
年度		昭和 59年度末	昭和 60年度末

를 보아 相對的인 戰鬥能力的 向上에 對한 計劃이 되고 있다. 이것을 F-4EJ 能力向上計劃이라고 불리어지고 있다. F-4EJ 431 号機를 改造한 計劃用的 試驗改修機는 '84 年 7月 17日에 初飛行하여, '85年 中盤까지 技術實用試驗을 修了하고 있으며, 一連의 試驗의 結果는 만족스러웠다고 傳하여지고 있다.

航空自衛隊에서는 이 成果에 立脚하여 現代의 127台的 F-4EJ 中 約 110 台를 能力向上型으로 改造하여 4個 飛行隊에 配置할 뜻을 가지고 있다. 能力向上 改修에 의

한 延命期間은 10年으로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이 F-4EJ 能力向上計劃이 実行에 옮겨질 경우 F-4EJ는 '90年代 後半까지 防空의 第1線에서 남게 될 것이다.

또한 最新銳 邀擊戰鬥機 F-15는 復座型의 DJ를 包含해서 155台가 調達된다. 155 台的 F-15 가운데 F-15J가 138台, 複座의 DJ가 17台이다. '85年까지 發注數는 모두 124 台, 그 中 '85年度까지 '80 台를 取得(그 中 1 台 喪失)하고 있으며 '86年度의 調達數는 12 台, 取得豫定은 13 台였다.

F-15의 部隊配置狀況을 보며는 '85年末에

에는 第202大隊는 뉴다바라(新田原) 第203大隊는 지도세(千歳), 第204大隊는 하구리(百里), 第201大隊는 지도세(千歳), 順으로 F-104J로부터 改編 또는 新編되어 第201大隊를 除外한 3個 飛行大隊가 이미 非常待機 任務를 遂行하고 있다. 導入한지 5年을 經過해서야 드디어 F-15J가 本格的인 戰力化의 段階에 到達하였다.

또한 F-15J의 5번째의 飛行大隊는 '87年度에 編成될 豫定인데 이 F-15J의 5번째 飛行隊의 発足과 함께 F-4EJ 1個 飛行隊가 整理되어 邀擊戰團部隊는 F-4EJ와 F-15J가 各各 5個 飛行隊로 編成되어 均衡을 이루게 된다.

戰團機로서 세번째로 손꼽을 수 있는 것이 國産의 F-1이다. F-4EJ와 F-15 그리고 退役한 F-104J가 邀擊戰團를 第1의 任務로 하는데 대해 F-1은 航空自衛隊의 本格的인 支援戰團機로서 對地·對艦攻擊을 主任務로 하는 戰團爆擊機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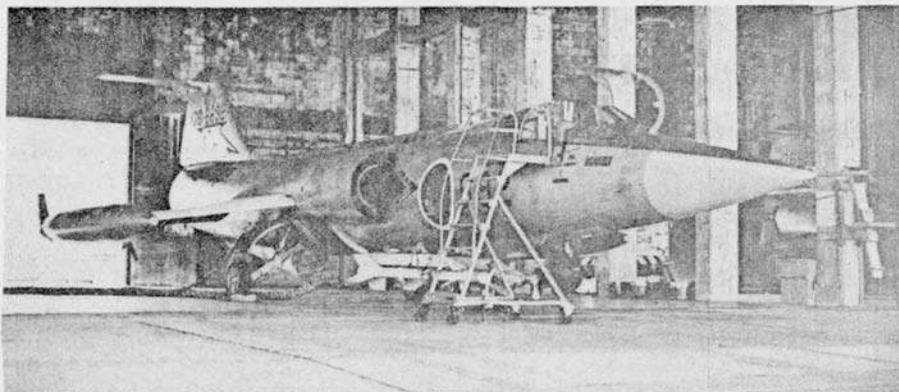
이 F-1은 '75年度부터 '84年度까지 걸쳐

서 모두 77台가 調達되어 第3 航空團(飛行團)의 第3, 第8 飛行隊 및 第8 航空團의 第6 飛行隊 등 3個 飛行隊로 編成되고 있다. F-1은 邀擊戰團機部隊를 補完하기 爲해 領空侵犯에 對処하는 非常待機 任務를 實施하고 있으나, 本來의 使命은 무어라고 하여도 對地·對艦攻擊에 있다. 着陸·上陸 侵攻을 沮止하는 航空沮止攻擊의 尖兵이 되는 機體이다.

F-1의 調達は '84年度에 完了하여 將來에 代替할 次期 支援戰團機(FS-X)의 選定을 國産으로 하느냐 輸入으로 하느냐 등을 包含해서 現在 進行하고 있는 것은 周知의 事實이다.

#### 4. 平時最大의 實任務(領空侵犯에 對한 措置)

「領空侵犯에 對한 措置」라고 불리우는 邀擊戰團機의 緊急發進은 平時의 航空自衛隊에 있어 唯一의 實任務라고 하는 主要한



〈F-104J의 最後의 非常待機(南混團 '85年 11月)〉

行動이다. 이 大領空 侵犯措置는 實際의 橫線이 없는 하늘의 國境을 지키고, 領空侵犯 등 不法行爲를 未然에 防止할 目的으로 行하여 지는 一種의 警察行動이라고 할 수 있다.

日本人에는 틀림없이 그 認識이 높지 않으나 領土 領空(領海)의 保全을 國際法에서 認定된 國家의 主權을 지키는 主要한 行動이다. 이 任務를 遂行하기 위해 北은 홋카이도(北海道)의 지도세(千歳)로부터 南으로 오끼나와(沖繩)의 나하(那覇)에 이르기까지 全國 7個所의 航空自衛隊 基地에는 實彈을 搭載한 戰鬪機가 恒時 4台씩 待機하고 있어 防空指令所의 命令一下 즉시 2台가 緊急發進할 수 있는 態勢를 取하고 있다. 航空自衛隊가 이 對領空 侵犯措置 任務를 開始한 것이 1958年 2月 17日의 일이다. 그때부터 約 3個月 後의 1958年 5月 13日에 第1回의 緊急發進을 行

한 以來 '85年度 末까지의 緊急發進 回數는 1萬 2,669回나 된다. 平均的으로 보면 1.5日에 1回의 꼴로 緊急發進이 行하여진 것으로 計算된다.

특히 1980年 以後는 스크램블 回數가 두드러지게 增加하여 '84년에는 過去에 볼 수 없는 最高 944回를 記錄하였다. 그러나 '85年度에는 조금 減少하여 898回로 줄었다.

그리고 全國 7個所의 基地에 待機하고 있는 戰鬪機는 各各 4台로서 結局 모두 28台의 戰鬪機가 1年(365日) 晝夜 區別없이 非常待機하고 있다. 待機하는 戰鬪機는 各基地 모두 2個編隊 4台이므로 非常待機勤務에 들어갈 操縱士는 4-8名(F-4EJ 飛行隊의 경우)으로 된다.

이 非常待機 勤務는 曜日과는 關係없이 每日아침 08時에 始作하여 翌日 08時에 끝나는 完全 24時間 交替制이다. 操縱士의 非常待機 勤務에는 「5分待機」와 「3時間 待

緊急發進 實施狀況 (空幕広報室 発表)

年 度	56	57	58	59	60
數	939	929	675	944	898
北空方面隊	206	296	267	439	320
中空方面隊	247	237	176	221	238
西空方面隊	315	235	158	218	272
南西空混成団	171	161	74	66	68

機」의 2段階가 있으며, 이것을 6時間 間隔으로 交替한다.

「5分待機」는 操縱士가 飛行裝具를 모두 装着한 狀態에서 待機하는데 對해서 「3時間 待機」에는 救命裝備와 Harness (落下傘 裝備)를 除外한 飛行服 姿勢로 편히 쉰다. 이것을 6時間 間隔으로 되풀이 하지만 先發의 5分待機組가 出動할 境遇에는 3時間 待機組가 즉시 5分 待機組로 移動한다. 또한 狀況에 따라서는 非常待機의 增強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緊急發進하는 戰鬥機에 대해서는 Scramble Order로서 進出形態, 方位, 飛行高度, Engine Power Setting, 레이더 사이트와의 交信周波數 등이 指示되어 이에 따라 15秒 間隔으로 離陸한다. 離陸後에는 3海里 (NM)間隔을 두고 1列縱隊 隊形을 繼續 維持하면서 上昇하여 구름 위에 올라와서 橫으로 2海里 (NM) 間隔의 Fighting Wing의 隊形을 取한다.

進出中 編隊長은 指定된 레이더 사이트와 交信하여 最短時間에 目標의 後方을 占位하게끔 誘導를 받으면서, 이 순간에도 機上레이더를 使用하여 空中에서의 交通安全에 留意함과 同時에 可及的 빨리 接觸에 努力하는 것이 當然하다.

F-4EJ機에 裝備하고 있는 AN/APQ-120 레이더의 探知距離는 約 50海里, F-15J의 AN/APQ-63에는 80海里 (NM) 더 먼곳에 있는 目標를 探知할 수 있는 能力이 있다. 특히 F-15의 경우에는 在來機種과 같이

Precise한 目標情報를 必要로 하지 않아 그만큼 레이더 사이트에의 依存度는 낮다고 생각하여도 좋다.

一般의으로 必要없는 刺激과 Trouble을 避하기 爲해 後方으로부터 正橫 2,000ft附近에 占位해서 行動을 監視하며, 情報蒐集의 目的으로 識別寫眞을 撮影한다. 編隊長機가 接近하는 동안 2番機는 조금 떨어진 位置에서 不意의 事態에 對備해 警戒에 臨한다.

狀況에 따라서는 搭載武裝의 有無 등을 確認하기 爲한 指示가 나올 수 있으나 어떠한 境遇에도 相對方機와의 2,000ft 以內에의 接近에는 防空指令所의 許可가 必要하다. 寫眞撮影은 F-4EJ의 境遇는 後方席이 擔當하기 때문에 前方席은 操縱에 專念할 수 있으나 單座의 F-15와 F-1에는 操縱士가 寫眞撮影까지 혼자서 하지 않을 수 없어 그만큼 “워크로드”가 높다고 하겠다.

그러나 領空侵犯에 대해서는 音聲 (UHF 席의 國際緊急周波數 - Card Channel을 使用)으로 警告通信 外에 ICAO의 邀擊規程에 準據하여 警告行動을 取한다. 이 規定에는 警告射擊까지 認定되고 있다. 蘇聯機의 日本領空侵犯은 지금까지 18件이 發生하였는데 日本 航空自衛隊가 音成에 의한 警告 以上の 手段을 取한 것은 한 번도 없다.

## 5. 防空作戰의 頭腦中枢「航空 總隊司令部와 直轄部隊」

航空自衛隊의 第1線部隊를 統率함과 同時에 日本國의 防衛態勢의 頭腦中枢를 맡은 航空總隊司令部는 總隊司令官 마쓰오노 부오(松尾宣夫) 空將을 筆頭로 兵力 約130名으로 構成되어 그 組織을 監理, 人事, 防衛, 裝備의 4個部門外에 幕僚長, 監理官, 醫務官, 副官 등의 職位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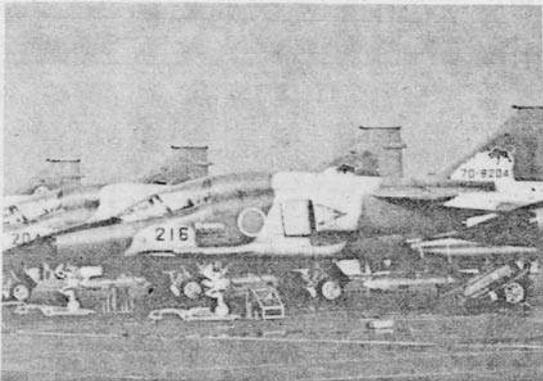
監理部는 總務, 監理, 會計, 人事部는 人事, 訓練, 厚生의 3個班으로 編成되어 있는데 對해 가장 重要한 部署를 차지하고 있는 防衛部는 防衛, 運用, 通信電子, 情報, 指揮의 5個班으로 編成되고 裝備部는 計劃, 補給, 整備, 施設의 4個班으로 編成되고 있으며 各班長의 大部分은 一佐(大領)으로 配置되어 있다.

그러나 航空總隊司令官 및 幕僚長은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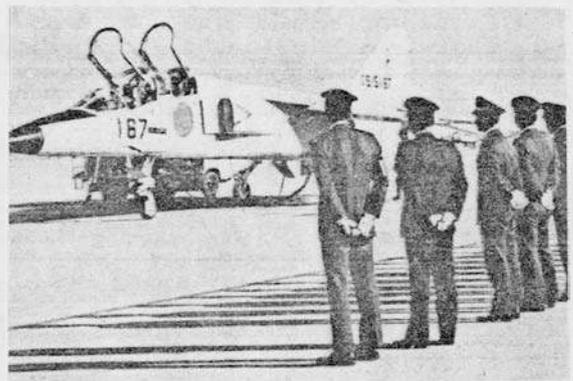
같이 空將(中將)이다. 事實上 航空總隊司令官은 航空幕僚長에 다음 가는 航空總隊의 制服上 NO. 2 Post라고 하여도 좋다.

府中(후쥬)基地에 있는 航空總隊司令部 作戰指揮所(COC)에는 各航空方面隊의 作戰指揮所(SOC)를 統括하는 航空作戰管制所(AOCC)가 設置되어 航空作戰管制所에는 侵入機 및 邀擊戰鬥機의 待機狀態를 나타 내는 스크린이 있어 總隊司令官은 이 表示를 봄으로써 全體의 狀況을 把握할 수 있다. 이 AOCC의 運用을 擔當하는 것이 航空總隊司令部的 直轄下에 있는 防空指揮群(司令: 시다무라(下村教久 一佐(大領)이며, 이 防空指揮群을 후쥬(府中)基地의 基地業務도 擔當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航空總隊司令部的 直轄下에 있는 BADGE System의 컴퓨터 프로그램의 作成 및 “데마크” 등을 擔當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 管理隊는 이루마(入間), 미보(美保) 兩基地에 所在한다.



〈支援戰鬥機 F-1〉



〈飛行教導隊 T-2〉



〈偵察航空隊의 RE-4E〉

航空總隊隸下的 飛行部隊로서는 모두 13개의 戰鬥部隊와 航空總隊司令部 飛行隊, 偵察航空隊, 飛行教導隊 警戒航空隊의 各直轄部隊가 있다. 警戒航空隊는 '83年 11月 15日부로 北部航空方面隊의 隸下에 「臨時警戒航空隊」로서 新編 發足한 後 '86年 4月 5日 「警戒航空隊」로의 改編과 同時에 北部航空方面隊의 直轄下에 編入한 것이다. 이 警戒航空隊가 誕生함에 따라 航空總隊 直屬의 飛行部隊는 4個部隊가 되었다.

그런데 航空總隊司令部 飛行隊는 文字 그대로 總隊司令부의 直屬部隊로서 府中(후주)基地에 가까운 이루마(入間)基地에 所在한다. 이 總隊飛行隊는 指揮 連絡 등의 主要 飛行業務外에 防衛庁 航空幕僚監部 등의 年次訓練의 支援에서부터 이루마(入間)基地의 飛行場 管理業務, 또 한편으로는 各方面隊 隸下的 레이더 사이트에 대한 評價業務 등 広範圍한 任務를 가지고

있다.

航空總隊 飛行隊는 T-33A 約 20台를 中心으로 B-65連絡機와 YS-11 改造의 ECM(電子妨害)機 및 電波情報(ELINT)機 등 約 25台를 保有, 兵力은 司令: 白井治夫 一佐(大領) 以下 300名 程度の 飛行隊로서는 異例的인 大組織이다. 名稱은 飛行隊라고 하지만은 獨立部隊와 같이 大隊本部를 가지고, 飛行班, 中部支援飛行班, 電子訓練隊, 레이더 評價隊, 整備隊, 飛行場 勤務隊 등 4個大隊 2個班으로 編成되었는데, 이 중에서 異色的으로 重要한 存在는 電子訓練隊와 레이더 評價隊의 2個部隊이다.

電子訓練大隊는 各레이더 사이트에 對해 YS-11 ECM機 및 ET-33A(Chaff 撒布)를 使用해서 電波妨害를 實施, 電子戰 環境下에 있어서 邀擊訓練을 支援하는 한 편 同隊 電子測定班의 YS-11 ELINT機는 日本国 周辺空域의 電波情報 蒐集活動에 임한다. 마찬가지로 레이더 評價隊隊는 레이더 사이트의 機能確認과 邀擊 및 監視能力 등의 評價를 擔當하고 있다. 이들은 어느 것이든 航空總隊司令部에 所屬되어 있는 部隊이기 때문에 重要한 任務이다.

飛行教導隊 또한 航空總隊 中에서 異色の 存在라고 본다. 新田原(新田原)基地에 所在하고 있는 飛行教導隊는 部隊司令 增田直之 一佐(大領)을 筆頭로 兵力 約 50名을 保有하고 있으며, 航空機는 T-2訓練機 7台, T-33A訓練機 2台 등 小規模이기 때문에 平均飛行時間 3,000時間을 超過

한 베테랑급 操縱士가 모여 있다.

거의 毎日마다 航空總隊隸下の 各戰鬥機 部隊를 巡回, "Pilot"를 対象으로 對戰鬥 機 戰鬥를 主体로 하는 巡回指導를 行하고 있다. 이 飛行教導隊는 '81年 12月에 発足 하여 歴史는 얼마되지 않으나 航空自衛隊 戰力向上의 根源이 되는 重要な 任務를 가진 部隊로서 「56中葉」期間中에 前述의 航空總隊司令部 飛行隊 飛行教導隊, 教導高射隊의 3隊를 統合 航空教導用(仮称)을 새로 編成할 計劃이 있는 것 같다.

또 하나는 航空總隊의 直轄部隊로서 情報蒐集이라는 重要な 役割을 다하고 있는 것이 하쿠리(百里)에 基地를 둔 偵察航空隊이다. 이 偵察航空隊는 日本国에서는 唯一한 航空偵察部隊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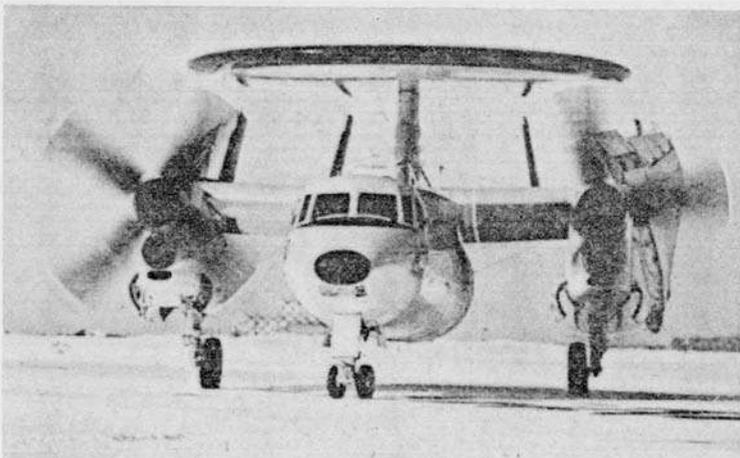
RF-4E 14台를 使用해서 着陸·上陸 侵攻阻止를 爲해 海上偵察과 地上에서 戰鬥를 支援하는 近接航空支援團의 地上偵察任務에 任하는 偵察航空隊는 部隊司令: 야마

모도(山本征衛) 一佐(大領) 以下 兵力 230 名の 小規模 部隊이지만, 陸·海·空 3 自衛隊의 唯一한 航空偵察部隊로서 主要한 任務를 띠고 있다.

偵察衛星 등의 広範圍한 情報蒐集 手段을 가지고 있지 않은 日本의 경우에는 偵察 航空隊가 맡은 役割은 單純히 「戰術偵察」의 範圍에만 그치지 않고 狀況에 따라서는 RF-4E가 戰略偵察的인 用途에 投入되는 局面도 充分히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偵察航空隊의 位置에도 不拘하고 反對로 保有하고 있는 航空機는 RF-4E/1 台라는 現狀은 「防衛計劃의 大綱」이 決定한 偵察機 戰力 24台의 指標를 크게 벗어나고 있다. NATO空軍의 例를 들면 戰鬥機의 15% 程度를 偵察機로 充當하고 있기 때문에 航空自衛隊의 RF-4E 14라는 現狀은 너무도 적은 것이 確實하다.

그런 까닭으로 「中期防衛力整備計劃」에서는 F-4EJ 邀擊戰鬥機의 一部(17台)에



〈今年度부터 正式으로 警戒航空隊가 된 三沢의 E-2C 部隊〉

偵察포드를 裝備하여 戰術偵察機에 轉用할 構想을 提示하여 이것을 받아들여 偵察航空隊의 戰力增強이 予側된다. 平時에는 아무래도 輕視되는 傾向이 強한 偵察機인데 그 같은 役割은 民生協力分野를 包含해서 廣範圍하고 또한 重要하다. 여러 가지 意味에서 偵察航空隊의 擴充이 要望된다.

航空總隊의 直轄下에 있는 部隊中에서「뉴 페이스」로 불리우는 存在는 警戒航空隊이다. 이 警戒航空隊는 '76年 9月의 MiG-25亡命事件에 의해 偶然히 露呈된 低空侵入機에의 対処能力의 欠如를 補完하기 爲해 '80년부터 導入하기 始作한 E-2C 早期警報機를 裝備한 部隊이다.

'83年 1월에 미자와(三沢)에 臨時警戒 航空隊로 新編 發足後 '60年度末까지 北部航空方面隊의 隸下에 E-2C의 運用實驗에 들어가 요즘은 警戒航空隊로서의 編成을 끝마쳤다. '86年度 予算이 成立된 翌日인 지난 4月 5日 警戒航空隊로서 發足함과 同時에 北部航空方面隊로부터 벗어나 航空總隊의 直轄部隊로 編成을 바꾸고 있다.

이 警戒航空隊는 司令: 野野村郁利. 一佐(大領)를 筆頭로 兵力 363名과 早期警報機인 E-2C 8台라는 小世帶이지만 今年度中에는 戰闘機部隊와 함께 對領空 侵犯措置任務를 開始 日本列島 周辺의 2個所의 空域에서 24時間의 持續的 監視活動(現在는8時間)

을 하게 되어있다.

E-2C는 250 海里밖의 目標를 探知하는 Passive로 補捉, 分析하는 AN/ALR-59 電波探知判別裝置 등을 裝備하여 地上 컴퓨터에 의해 同時에 250 目標의 自動處理와 表示를 할 수 있는 能力이 있다. 文字 그대로, 하늘을 날으는 “레이다 사이트”로서 低空侵入機를 早期에 發見할 수 있는 機體이다. 또한 E-2C는 通信 Buffer의 裝置를通해서 BADGE System과 “인터페이스”하고 있다.

早期警戒機의 重要性은 포클랜드 紛爭時의 英國海軍의 戰爭教訓에서도 밝혀진 것처럼 E-2C가 對領空侵犯 措置任務를 開始하며는 航空自衛隊의 防空作戰能力은크게 向上될 것이다.

E-2C의 保有數는 現在 8台이지만 「中期防衛力整備計劃」에는 더 한층 5台를 追加하여 3Point 24時間 哨戒體制를 確立하는 것이 틀림없다. 또한 E-2C의 追加 調達과는 別途로 海上防空強化의 一環으로 E-3A A-WACS(空中早期警報管制體制機)를 導入하는 것이 어때할까 하는 意見도 나오고 있다. 「中期防衛力 整備計劃」中에는 如何한 E-3를 導入하여 E-2C에서 一步 前進한 「空中防空管制·指令所」를 實現할 것도 생각하게 된다고 日本航空評論家 宮本勲氏가 軍事研究 8月号에 記載한 內容임.

# 美軍 懲戒制度에 관한 考察

李 太 鍾

(중위·공군본부)

## I. 一般理論

### 1. 根拠規定

美軍 懲戒制度의 根拠가 되는 規定은 美國의 模範軍刑事法(Uniform Code of Military Justice) 제15조이다. 따라서 보통 美軍 懲戒制度를 제15조 処罰(Art. 15 Punishment)이라고도 한다.

이 懲戒는 우리나라에서는 單純한 行政上의 制裁罰로서 認識되지만,<sup>4)</sup> 美國에서는 單純한 行政的 矯正手段(Administrative Corrective Measures)<sup>5)</sup> 보다는 그 程度가 強하고 軍法會議에 의한 処罰보다는 弱한 것으로서 兩者의 中間的인 性質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懲戒制度가 指揮官에게, 그 所屬部隊員들을 軍法會議에 의한 前科者라는 낙인을 찍음이 없이 部隊內的 秩序와 規律을 維持할

우리 空軍은 他軍에 비하여 가장 우수한 懲戒制度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一般 公務員들의 경우보다 合理的인 懲戒制度를 運營하고 있다.<sup>1)</sup> 그러나 軍懲戒의 目的이 軍人 또는 軍務員이 軍律에 違反하여 軍風紀를 紊亂케 하거나 그 本分에 背馳되는 行爲를 한 때에 軍懲戒法規에 의하여 制裁 行爲를 科함으로써 軍職務規律의 維持 및 그 統合的 機能을 確保함에 있는 것을 생각해 볼 때<sup>2)</sup> 이를 더욱 發展시켜 나아갈 必要性은 여전히 存在 한다. 따라서 以下에서는 우리의 制度에 많은 影響을 미치고 있는 美軍의 懲戒制度(Nonjudicial Punishment)<sup>3)</sup>에 관하여 개략적으로 살펴 봄으로써 우리 軍의 懲戒制度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한다.

수 있는 重要한 手段이 된다는 点에서는 美国이나 우리나라나 同一하다.

## 2. 基本原理

### 가. 指揮官의 責任

모든 指揮官은 部隊内の 秩序와 規律을 維持할 責任이 있다. 一般的으로 指揮官들은 行政的 矯正手段을 行使하는 등 必要한 경우서 適切한 指導力 行使로 秩序를 維持한다. 美軍 指揮官들은 非行의 性質이나 非行人의 身上記錄 등을 參照하여 單純한 行政的 矯正手段으로는 不適合하고 軍法會議에 회부하기에는 未洽한 事件의 경우에 懲戒制度에 依存한다. 즉 指揮官은 具體的인 事件에 있어서 非行의 程度, 秩序維持의 必要性, 非行人의 身上記錄, 懲戒處分의 效果 등 제한 要件을 고려하여 懲戒處分을 한다.<sup>6)</sup>

### 나. 指揮官의 裁量

懲戒處分을 하고자 하는 指揮官은 각 경우 마다 懲戒處分이 適切한 手段인가, 만일 그러하다면 適當한 處分의 種類 및 內容은 어느 程度가 妥當한가 등에 關하여 裁量權을 가진다. 어떠한 上級 指揮官도 懲戒權을 가지고 있는 下級 指揮官에 對하여 具體的인 事件에 關하여, 어느 種類의 非行은 軍法會議 대신에 懲戒에 依하든지, 혹은 懲戒에 依할 때 處分을 어떤 種類로 얼마만큼 하여야 한다든지 하는 등의 命令이나 規定, 指導 등을 發할 수 없다.

### 다. 指揮官의 執行猶予權

우리의 制度는 懲戒委員會에서 懲戒를 議決하고 이를 懲戒權者인 指揮官이 減輕 내지 停止할 수 있도록 하는 2重的인 체계를 취하고 있으나(단 承認을 要하는 事件은 別論으로 한다).<sup>7)</sup> 美軍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2重的인 체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懲戒權者인 指揮官에게 執行猶予權을 부여하고 있다.

즉 指揮官은 非行人이 初범이라든지 혹은 重要한 情狀參酌事由가 存在하는 경우에는 懲戒處分의 全部 또는 一部의 執行을 猶予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러한 執行猶予權은 非行人에게는 다시금 分發하여 職務에 충실히 할 수 있는 動機를 부여하고, 指揮官에게는 猶予期間동안 非行人의 태도를 再評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sup>8)</sup>

## 3. 懲戒權者

### 가. 指揮官

관계규정에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모든 指揮官은 自己가 指揮, 命令하는 部隊構成員들에 對하여 懲戒權을 가진다. 懲戒權者로서의 指揮官이란 그 自身의 階級과 補職에 依하여 部隊의 構成員이나 그 基地에 對하여 關係 根拠規定에 따라 命令한다고 認識될 수 있을 程度의 第一次의 指揮權限을 가진 將校 및 准士官을 말한다.<sup>9)</sup>

#### 나. 懲戒權의 制限

懲戒權을 가질 수 있는 指揮官이라 할지라도 自己보다 上位의 指揮官이 懲戒權限의 全部 또는 一部를 撤回한 경우 또는 關係規定에 별도의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懲戒權을 行使할 수 없다. 예를 들어 特定한 類型의 犯罰, 特定部類의 犯人, 特定種類의 懲戒를 科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懲戒權의 一部撤回이다. 다만 이러한 撤回나 制限은 公式的으로 하는 경우에 限하며, 懲戒權의 裁量性때문에 個別的인 指導에 의해서는 制限할 수 없다.

#### 다. 懲戒權의 委任

一般的으로는 指揮官 自身이 懲戒權을 行使하여야 하지만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例外가 있다. 즉 將官級 將校인 指揮官이거나 軍法會議 管轄官인 指揮官은 自身の 懲戒權을 自己의 首席補助官(Principal Assistant)에게 委任할 수 있다. 또한 重要 陸軍部隊 指揮官은 自身の 參謀長이 將官級將校인 경우에는 그에게 懲戒權을 委任할 수 있다. 10)

首席補助官이란 補助指揮官 혹은 代理人的 役割을 수행하는 將校를 말하는데, 懲戒權을 委任받아 行使하기 위하여는 被懲戒者보다 上級者 이어야 하고, 抗告節次の 경우라면 原懲戒權者보다 上級者이어야 한다. 懲戒權을 委任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書面으로 하여야 하며, 11) 이를 委任하였다고 하여 原懲戒權者인 指揮官의 懲戒權이 消滅하

는 것은 아니다.

#### 4. 被懲戒者

##### 가. 指揮官의 指揮를 받는 者

指揮官은 自身の 指揮와 命令을 받는 者에 대하여서만 懲戒權을 行使할 수 있다. 즉 自己 指揮部隊에 배속되었거나 어떠한 境遇로든지 소속하게 된 자에 대하여 懲戒權을 行使한다.

##### 나. 轉屬된 경우

한 個人이 部隊의 構成員이었다가 轉屬 또는 轉役한 때에는 그 部隊의 指揮官은 懲戒權을 喪失한다.

懲戒節次に 착수하였다 하더라도 懲戒決定 前에 轉屬되면 懲戒權을 喪失한다. 12) 懲戒決定 後에 轉屬된 때에는 새로이 轉屬 받은 部隊의 指揮官이 懲戒決定을 執行한다.

두 명의 指揮官이 어느 한 個人에 대하여 同時에 懲戒權限을 가질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도 어느 한 指揮官이 懲戒處分을 실시하였으면 다른 指揮官은 이제 더 이상 懲戒權을 行使할 수 없다.

#### 5. 懲戒處分の 対象

가. 우리의 경우에는 懲戒制度和 刑事制度가 二元的으로 明白히 分離되나, 美國의 경우에는 위 兩者가 概念上 分離되지 아니하므로, 懲戒의 対象이 되는 非行은 輕微한

犯罰(Minor Offence)에 해당하는 作為나 不作為라고 보통 설명된다. 13) 어떠한 범행이 輕微한 것인지의 與否는 犯行의 性質, 犯行當時의 罪狀 事實, 犯行人의 年齡, 階級, 補職, 身上記錄, 軍法會議에 回附 될 場合의 法定最高刑 등의 모든 要素를 고려하여 決定하여야 한다. 14) 통상 決定最高刑에 罷免刑 15) 이 있거나, 1年 以上の 懲役刑이 있으면 輕微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 또한 一般的인 規定이나 命令에 의하여 禁止되었다는 事實을 除外하고 생각하여 輕微하다고 判斷되면 輕微한 犯罪로 認定된다. 16)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응의 基準에 不過하고 輕微한 犯罪인지의 與否는 懲戒權者의 裁量에 의해 決定한다.

나. 懲戒權者가 犯行이 輕微한 지의 與否를 決定한 場合 이것은 抗告節次 등에서 再考된다. 하지만 이 場合에 있어서도 法院은 原懲戒權者의 決定에 보다 많은 比重을 두어 判斷하여야 한다고 判示하였다. 17)

다. 懲戒받은 犯行이 實質적으로 輕微한 場合에는 後日에 위 犯行을 다시 軍法會議에 回附할 수 없으나, 重大함에도 불구하고 懲戒處分에 의한 場合에는 이를 다시 軍法會議에 回附하는 것이 禁止되지 아니한다. 다만 위와 같은 場合에는 被告人은 이미 同一한 犯行으로 懲戒處分 받은 事實을 參酌事由로서 主張할 수 있고, 有罪判決을 내릴 場合에는 被告人의 위 主張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18)

## 6. 懲戒處分の 限界

### 가. 二重處罰禁止의 原則

어떤 非行事實에 대해서 懲戒處分이 確定된 場合에는 同一한 非行으로 다시 어떠한 懲戒處分을 하는 것은 禁止된다. 19)

### 나. 不利益變更禁止의 原則

일단 懲戒處分이 부과되면 抗告節次 기타 다른 어떠한 場合에도 그 懲戒處分을 非行人에게 不利益하게 增加시킬 수 없다.

### 다. 複數處罰禁止의 原則

指揮官이 所屬 部隊員에 대하여 懲戒處分을 할 때, 이미 알려진 非行事實로서 懲戒에 의하여 處理하는 것이 適切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는 場合에는 이를 同時에 考慮하여야 하며 個別的으로 여러 개의 懲戒處分을 하는 것은 許容되지 아니한다. 20)

### 라. 懲戒時効

美軍 模範軍刑事法(U, C, M, J) 제43조 d항<sup>21)</sup>에 規定된 場合를 除外하고는, 非行事實이 있는 後 2年이 經過하면 懲戒에 處할 수 없다.

### 마. 民間法廷에서 處罰한 것

民間法廷에서 刑事處罰한 非行에 관하여는 再懲戒할 수 없다. 다른 州나 外國에서 刑事處罰 받은 것도 同一하다.

## 바.懲戒処分の 効果

懲戒処分은 연방전과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常習犯 등의 資料로서는 使用될 수 없다. 22) 그러나 非行人에 대한 彈劾資料로서는 쓰여질 수도 있다. 23) 懲戒処分은 非行人의 昇進資料로 쓰여지는 個人別 軍人事記錄 카드에 記錄된다. 첨부된 懲戒処分狀 写体는 非行人이 轉役하거나, 懲戒処分이 取消되거나, 懲戒処分 後 2年이 經過한 경우에 破棄한다. 24)

## II. 懲戒処分の 節次

### 1. 懲戒節次の 開始

懲戒節次가 開始되는 첫 段階는 指揮官이 所屬 部隊員이 規定을 違反하였다는 보고서를 접수하는 것이다. 위 보고서를 접수한 指揮官은 이에 관하여 非公式의인 予備調査를 시행한다. 25) 그 後 指揮官은 위 調査에 基礎하여 非行人을 어느 節次에 의하여 処罰할 것인지를 決定한다. 이 決定을 함에 있어서는 먼저 行政的 矯正手段에 의할 수 있는 지를 檢討한 後 이것이 不適合하다고 判断되는 경우에 懲戒節次에 回附하는지의 与否를 判断하여야 하며, 懲戒節次로도 不適合하면 最後에는 軍法會議에 回附하여야 한다.

美軍制度에 의하면 위 3가지 節次는 단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 먼저 弱한 節

次에 의해 處理할 수 있으면 이에 의하고, 이것이 不適合할 때보다 強力한 節次에 의하는 것이다.

### 2. 通知(Notice)

指揮官이 懲戒節次에 의할 것을 선택하였으면 非行人에게 懲戒節次에 의한다는 通知를 하여야 한다. 위 通知에는 懲戒節次에 回附된다는 취지 뿐만 아니라, U. C. M. J. 제31조 b항의 權利<sup>26)</sup> 弁護人の 助力을 받을 權利, 回附되는 非行事實의 要旨 및 適用法條, 証擲의 要旨, 裁判請求權이 있는 경우에는 이 權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非行人에게 処分하려는 懲戒의 種類나 範圍 등은 通知할 必要가 없으나, 非行人의 要求가 있는 경우에는 賦課될 수 있는 最大 懲戒罰, 만일 軍法會議에 回附되었다면 宣告될 수 있는 最高 法定刑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 3. 非行嫌疑者の 權利

#### 가. 告知받을 權利

非行嫌疑者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自身들이 嫌疑받고 있다는 事實을 通知받아야 하며, 黙秘權이나 自身들의 陳述이 裁判에서 不利한 証擲로 쓰일 수 있다는 事實을 告知받을 權利가 있다.

#### 나. 裁判請求權

非行嫌疑자가 船舶에 所属되어 乘船한 경우가 아니면, 懲戒処分이 決定되기 以前에 懲戒節次 대신에 軍法會議에 의한 裁判節次로 事件을 處理해 줄 것을 請求할 權利가 있다. 27) 이러한 裁判請求權을 保障하기 위하여 指揮官은 非行嫌疑者에게 적정한 期間(통상72時間)을 주어 弁護人과 相談을 거친 後 裁判請求權을 行使할 것인지의 与否를 決定하도록 하여야 한다. 適正한 期間이 經過하였음에도 非行人이 裁判을 請求하지 아니한 이상 懲戒가 可能하지만, 28) 該 期間 內에 裁判節次를 請求하면 반드시 懲戒節次는 中止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 指揮官은 非行嫌疑者를 반드시 軍法會議에 回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軍法會議에 回附할 것인지의 与否는 다시 考慮하여야 한다. 29) 따라서 실제 運營上의 問題로 指揮官이 非行嫌疑者를 懲戒節次에 回附하고자 할 때에는 非行嫌疑者의 裁判請求權 行使에 대비하여 確實한 証拠를 수집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非行嫌疑者의 裁判請求權은 懲戒節次와 刑事節次가 엄밀히 区别되지 않는 美軍과 그렇지 아니한 우리와 사이에 가장 큰 差異点의 하나이다.

#### 다. 弁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

非行嫌疑者는 懲戒処분에 관한 自身の 意思表示를 하기 以前에 弁護人과 相談할 權利가 있다. 여기에서 弁護人이란 軍法務官, 혹은 軍이 고용한 民間弁護士, 연방법원의

弁護士 資格이 있는 將校 등을 말한다. 30)

#### 라. 公開節次請求權

非行嫌疑者가 自身이 無嫌疑라는 事實이나 혹은 情狀參酌事由가 있음을 나타내고자 할 때에는 公開節次에 의해 懲戒節次를 進行할 것을 請求할 수 있다. 위 請求는 軍事的 非常事態가 아니거나, 一般에게 公開해서는 아니될 安保의 利益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받아들여져야 한다.

#### 마. 代弁人(Spokesman) 選任權

懲戒가 口頭譴責, 14日 以內의 課外勞役, 14일 以內의 營倉을 超過하는 경우에는 非行嫌疑者는 代弁人(Spokesman)을 選任할 수 있다. 代弁人의 資格에는 別制限이 없으나, 旅費 등의 費用은 支給되지 아니하며, 代理人이 出席하지 아니하여도 節次는 延期되지 아니한다. 31) 代弁人은 非行嫌疑者를 위하여 弁論할 수 있으나, 懲戒權者가 裁量에 의해 許諾한 경우를 除外하고는 証人을 問할 수 없다.

### 4. 非行嫌疑者의 選擇權

非行嫌疑者는 一定한 期間이 經過하기 以前에 다음과 같은 選擇權을 가진다.

즉(1) 軍法會議에 의한 裁判을 請求하거나, (2) 軍法會議 請求權을 拋棄하되 公開節次에 의할 것을 要求하거나, (3) 위 兩者를 모두 포기하되 情狀參酌事由 등의 방

어자료를 提出하는 것에 그치든지, (4) 모든 權利를 포기하고 有罪임을 認定하거나, 黙秘하는 것이 그것이다.

懲戒節次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非行嫌疑者는 懲戒權者에게 不可避한 事由나 其他 特別한 事由가 없는 限 懲戒權者 혹은 그 委任을 받은 者에게 出席하여 陳述할 權利가 있다. 懲戒權者의 委任을 받은 者에게 出席한 경우에는, 委任 받은 者는 그 結果를 書面으로 作成하여 懲戒權者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非行嫌疑者가 出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는 懲戒權者에게 하고 싶은 말을 書面으로 作成하여 提出할 수 있다.

또한 非行嫌疑者는 指揮官이 自己의 事件과 關聯하여 調査하였으며, 自己에 대한 懲戒處罰의 基礎로 삼으려 하고 있는, 自身에게 不利한 書類나 物件들을 調査할 수 있다. 32)

## 5. 証 拠

軍事証拠規則(The Military Rules of Evidence) 중 非行嫌疑者의 特權部分을 除外하고는 懲戒節次에 곧 바로 適用되지는 아니한다. 33) 따라서 非行事實에 관계된 것은 非行嫌疑者에게 不利한 것이라도 非行嫌疑者에게 口頭나 書面으로 通知한 後 証拠로 使用할 수 있다.

## 6. 懲戒權者의 決定

懲戒權者는 懲戒節次에 나타난 모든 關係資料를 檢討한 後에, 만일 非行嫌疑者가 非行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認定되거나, 処罰할 必要가 없다고 認定되면, 이를 非行嫌疑者에게 알리고, 懲戒節次를 終了시킨다. 그러나 非行嫌疑者가 그 中 一部 또는 全部를 저질렀다고 認定되는 경우에는, 그 事實과 賦課하는 懲戒處分, 抗告할 수 있는 權利등을 非行嫌疑者에게 알려야 한다.

## 7. 搜查記錄에 의한 懲戒

懲戒處分은 搜查記錄에 基礎하여서도 賦課할 수 있는바, 그 경우에 있어서도 非行人은 當事者로서의 權利를 가진다. 34)

다만 非行人이 懲戒節次에 出席하여 제반 權利를 行使할 必要는 없다. 非行人에게는 搜查記錄에 의한 懲戒處분이 考慮되고 있다는 事實을 書面으로 通知하여야 하며, 非行人의 軍法會議 請求權 역시 保障된다.

## Ⅲ. 懲戒處分の 種類 및 執行日

### 1. 序

指揮官이 非行嫌疑者가 非行을 저질렀다고 認定한 경우에는 懲戒處分을 한다. 위 處分은 特定の 事情이 없는 限 非行人의 出席하여 賦課하여야 한다. 賦課하는 懲戒의 種類 및 程度는 懲戒權者 및 被懲戒者의 階級에 따라 相異하다.

一般的으로懲戒処分은 크게 보아 訓戒(Censures), 身體의自由에 대한懲戒処分(Loss of Liberty), 俸給에 대한懲戒処分(Loss of Pay), 降等(Reduction in Grade)으로 나눌 수 있다.

## 2. 訓戒(Censures)

여기에는 警告(Admonition)와 譴責(Reprimand)<sup>35)</sup>의 2種類가 있다. 警告는 特定한 行為가 반복될 때 조심하라는 意味에서 注意를 주는 것이며, 譴責은 過去의 行為를 비난하는 意味에서 發하는 것이다<sup>36)</sup>. 譴責이 警告보다 그 程度에 있어서 重하다. 이러한 訓戒는 U. C. M. J. 제15조에 의하여 懲戒로서 賦課하여야 한다는 趣旨를 明白히 하여야 하며, 그렇게 하여야 單純한 行政的 교정수단과 區別되는 것이다. 警告와 譴責이 將校나 准士官에 대하여 処分될 때에는 반드시 書面으로 하여야 하지만 下士官 以下에 대하여는 關係規定에 特別한 規定이 없는 限 口頭 또는 書面으로 發할 수 있다.

## 3. 身體의自由에 대한懲戒処分(Loss of Liberty)

### 가. 謹 慎(Restriction)

謹慎은 部隊 안에 머무를 것을 要求하는 것처럼 特定地域에 머무를 것을 要하는 処分으로, 身體의自由에 대한懲戒処分 中 가장 輕微한 処分이다. 이것은 實際적으로

身體의自由가 制限된다고 보다는 오히려 心的으로 制約을 加하는 것이다.<sup>37)</sup> 謹慎 処分の 程度는 그 期間과 머물러야 할 地理的 範圍에 따라 決定된다. 謹慎處分을 받는 者는 이 處分이 適切히 執行되고 있다는 것을 保障하기 위하여 必要하다면 特定 時間마다 指定된 場所에 報告書를 提出하여야 한다. 懲戒權者가 謹慎處分을 賦課하면서 달리 指定하지 아니한 以上 非行人은 自身의 通常職務를 遂行할 것이 要求된다.

### 나. 營內待機(Arrest in Quarters)

이것은 오로지 將校에 대하여만 賦課할 수 있는데, 이것 역시 위(1)항의 謹慎처럼 身體的 制約이라기 보다는 心的制約이다. 이 處分은 懲戒權者가 달리 指定하지 아니하는 한 懲戒받는 將校가 그 處罰받는 期間동안 將校宿所 內에 머무를 것이 要求된다. 將校宿所에는 幕舍나 專用房室 등의 軍事的 住居가 提供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個人用 住居도 포함된다. 이 處分을 받는 將校는 關係規定이 賦課하는 業務를 履行하여야 하며, 그 期間 中에는 指揮權을 喪失한다.<sup>38)</sup>

그리고 將校가 이 處分을 받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上級指揮官이 被懲戒者에게 指揮權이 必要한 命令을 내리면 이 處分은 終了된다. 이 處分을 賦課할 수 있는 者는 將軍級 指揮官이거나 軍法會議 管轄官에 限한다.

### 다. 營 倉(Correctional Custody)

營倉은 勤務時間이나 非勤務時間 혹은 兩者 모두의 時間 동안 非行人의 身體를 懲戒処分으로서 監禁하는 것이며, 課外의 勞役이나 其他의 勞役을 부수적으로 併科할 수 있다. 39) 이 処分은 보통 兵들에게만 賦課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40) 그 目的은 懲戒의 程度에 이르지 않고서도 非行人을 진밀하게 교정, 監督할 수 있는데 있다.

營倉處分을 받은 者는 特定한 拘禁場所에서 복역하도록 하여야 하지만, 可能한 한 起訴되어 裁判을 기다리는 未決囚나 懲戒刑의 有罪判決을 받은 既決囚와 直接 접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營倉處分을 받은 者는 賦課된 正規의 業務 뿐만 아니라 懲戒權者가 命한 課外의 勞役 및 其他의 勞役을 遂行하여야 한다.

#### 라. 減食拘禁 (Confinement on Diminished

減食拘禁은 非行人을 許可받은 者 以外에는 접할 수 없도록 拘禁하면서 食事의 배급량을 줄이는 懲戒處分이다. 食事로서는 懲戒權者가 指定한 만큼의 빵과 물만이 供給되며, 위 處分の 執行 前에 醫務官은 위 減食에 의해 非行人의 健康에 重大한 被害가 오지 않는다는 것을 證明하여야 한다. 減食拘禁은 船舶에 所属되어 乘船한 男子 兵에게만 賦課할 수 있다.

#### 마. 課外勞役 (Extra Duty)

課外勞役은 非行人의 通常業務에 附加的으로 일을 賦課하여 非行人으로 하여금 完成하도록 하는 懲戒處分이다. 어느 種類의 勞役이라도 賦課할 수 있는 것이지만 非行人의 安全 및 健康에 危害가 되는 일, 잔혹하고 이상한 勞役, 복무 관행상 認定되지 아니하는 것, 혹은 個人의 下人으로서 부리는 것 등은 할 수 없다. 41)

또한 非行人이 下士官級 以上이면 非行人의 品位에 맞지 않는 勞役은 賦課시킬 수 없다.

#### 4. 俸給에 대한 懲戒處分 (Loss of Pay)

여기에는 俸給의 沒收處分과 押留處分の 2 種類가 있다. 沒收處分 (Forfeiture) 이란 非行人의 일정기간의 本俸, 航海手當, 外國勤務手當을 영구히 박탈하는 것이다.

本俸 (Basic Pay) 이란 階級과 勤続年數에 比例하여 關係 規定에 定해진 대로 支給되는 것을 말하며, 特別資格手當, 危險手當, 熟練手當, 生活手當 등의 보상적 性格을 지닌 手當들은 除外된다. 42) 降等과 同時에 俸給의 沒收가 行하여 지는 경우에는 降等된 階級을 基準으로 沒收를 行한다.

沒收되는 俸給은 반드시 金額으로만 表示되어야 하며, 며칠 분의 俸給이라든지 月給의 몇분의 몇 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한달 이상의 俸給을 沒收하는 경우에는 매달 얼마씩 몇 개월간 沒收한다고 表示하여야 한다.

沒收되기 前의 俸給에 대한 利子는 沒收할 수 없다.

押留處分(Detention)이란 非行人의 本俸, 航海手當, 外國勤務手當을 잠정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懲戒處分이다. 그 期間은 1年까지 可能한 바, 押留期間이 經過하면 個人에게 俸給을 支給하여야 한다.

### 5. 降等(Reduction in Grade)

降等은 懲戒處分 中 가장 強한 處分으로<sup>43)</sup> 個人의 月給에도 影響을 미칠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特權 마저 박탈하는 結果를 가져 온다. 降等은 原來의 階級에 대하여 一般的인 進級權을 가진 指揮官만이 賦課할 수 있는 懲戒處分이다. 兵의 경우에는 2階級 以上の 降等도 可能하나, 下士官級 以上の 경우에는 戰時가 아니면 通常 1階級 만 降等할 수 있다.

降等處分이 賦課된 날로부터 階級은 낮추어 지는 것이지만, 執行을 停止한 경우에는 保留된다. 進級權 없는 者가 한 降等處分은 無効이다.

### 6. 懲戒處分の 併科

위에서 論議한 여러 種類의 懲戒處分들은 서로 併科되어 질 수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은 例外가 있다. 첫째, 俸給에 대한 懲戒處分으로써 沒收處分과 押留處分은 同時로든 連續적으로든 併科될 수 없다. 둘째, 身體

의 自由에 대한 懲戒處분에 속하는 것들도 同時로든 連續적으로든 併科되어질 수 없다.

단 謹慎과 課外勞役은 謹慎期間이 課外勞役期間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範圍 內에서 併科할 수 있다.

### 懲戒處分の 執行日

懲戒處分은 通常 指揮官이 懲戒處分狀<sup>44)</sup>에 署名한 날로부터 執行된다. 懲戒處分이 決定되었을 때 非行人이 抗告한다는 意思表示를 하였어도 降等이나 俸給에 대한 懲戒處分の 執行은 停止되지 아니하지만, 其他의 懲戒處分の 경우에는 抗告節次가 完結될 때까지 停止된다.<sup>45)</sup> 後者の 경우에 있어서도 非行人이 원한다면 抗告節次가 進行中이라도 懲戒處分을 執行할 수 있다.

非行人이 抗告는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追加的인 証拠를 提出하였거나, 抗告하려는 意思가 있음을 알린 경우에는, 身體의 自由에 대한 懲戒處分の 경우, 非行人에게 3日間の 여유를 주어 關聯資料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바로 執行하여서는 아니 된다.

## IV. 懲戒處분에 관한 抗告節次

### 1. 抗告權

懲戒處分을 받은 非行人의 懲戒處分이 非行에 비추어 不當하다거나, 法律에 規定에 따르지 않아 不法이라는 理由로 適法한 經

路를 통하여 次上級 指揮官에게 抗告할 수 있다. 抗告狀은 書面으로 作成하여야 하며, 抗告理由를 記載하여야 한다.

抗告狀은 合理的인 期間 안에 提出되지 않으면 抗告審査者에 의해 却下당하는 바, 通常은 懲戒處分을 받은 날로부터 15日이며, 特別한 事情이 있으면 延長 될 수 있다. 46)

## 2. 抗告審査權者

非行人의 抗告狀은 原懲戒權을 享有하여야 한다. 抗告狀을 받은 原懲戒權者는 다시 이를 檢討하여 減輕措置 등을 取할 수 있고, 措置를 取하였으면 이를 非行人에게 알려 抗告与否를 다시 決定하도록 하여야 한다. 非行人이 그래도 여전히 抗告하기를 希望하는 경우에는 原懲戒權者는 次上級 指揮官(Next Superior)에게 記錄 등을 移送한다.

抗告節次가 終了되기 前에 非行人이 他部隊로 轉屬한 경우에는 轉屬地에 對應하는 次上級 指揮官에게로 事件이 移送된다. 47)

抗告節次의 경우에도 抗告審査權者가 軍法會議 管轄官이거나 將軍級 指揮官이면 抗告審査權을 參謀長 등에게 委任할 수 있다.

## 3. 法務官의 檢討

U. C. M. J. Art 15(2)에 規定된 懲戒處分<sup>48)</sup>의 경우에는 抗告審査權者가 決定을

내리기 前에 法務官의 法的檢討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위 要請을 받은 法務官은 懲戒處分에 不法이나 不當한 要素가 있는지 살피기 위하여 懲戒記錄에 나타난 資料를 檢討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其他의 追加的인 資料로 調査할 수 있다. 49)

## 4. 抗告審査權者의 措置

### 가. 執行猶予(Suspension)

抗告審査權者인 指揮官이나 그 承繼人은 未執行된 懲戒處分의 一部나 全部에 대하여 執行猶予處分을 할 수 있으며, 降等이나 俸給에 대한 懲戒處分에 대하여는 執行与否를 가리지 아니하고 執行猶予處分이 可能하다. 그 規則은 다음과 같다.

(1) 降等이나 俸給에 대한 沒收處分은 執行日로부터 4月 以內에만 執行猶予處分을 할 수 있다.

(2) 執行猶予期間은 猶予處分日로부터 6月 以內이어야 하며, 非行人이 轉役한 경우에는 當然히 猶予期間도 終了된다.

(3) 執行猶予處分이 取消됨이 없이 그 期間을 經過한 경우에는 別다른 措置가 없어도 猶予받은 懲戒處分 部分은 執行이 免除된다.

(4) 執行猶予處分은 그 懲戒處分을 賦課할 수 있는 모든 指揮官에 의해 取消될 수 있는 바, 猶予期間 中에 法律에 違反하는 犯罪를 저지른 경우에만 取消된다.

非行人은 執行猶予處分이 取消되기 전에 이를 通知받아야 하며, 答弁資料로서 情狀參酌事由 등의 弁護資料를 提出할 수 있다. 執行猶予處分이 取消되는 것은 그 自体로 懲戒를 構成하는 것이 아니므로, 取消의 根拠가 되는 새로운 処罰을 받아야 한다.<sup>50)</sup>

#### 나. 執行減輕

抗告審査權者인 指揮官이나 그 承繼人은 未執行된 懲戒處分의 一部나 全部에 대하여 執行減輕處分을 할 수 있다. 執行減輕處分은 懲戒處分의 性格은 그대로 維持하면서 그 程度나 種類를 減輕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非行人에게 개선의정이 현저하다든가 最初에 賦課한 懲戒處分이 너무 過重하다고 생각될 때 使用될 수 있다.

降等の 경우에는 執行이 된 与否를 不問하고<sup>51)</sup> 俸級の 沒收處分으로 減輕할 수 있으나, 沒收되는 俸給은 처음부터 俸給沒收處分을 내렸더라면 可能한 金額보다 많을 수 없다.

身體의 自由에 대한 懲戒處分의 경우에는 그 種類가 弱한 것으로 變更되었다 하더라도 그 期間을 延長시킬 수는 없다.

#### 다. 執行猶予 (Remission)

執行免除는 執行되지 아니한 懲戒處分의 執行을 免除시키는 措置이다. 抗告審査權者인 指揮官이나 그 承繼人은 未執行된 懲戒處分의 一部나 全部에 대하여는 執行免除處分을 할 수 있는 바, 그 事由는 위 執行減

輕의 경우와 비슷하다. 非行人이 轉役하는 경우에는 自動적으로 잔여 懲戒處分은 執行免除된다.

#### 라. 懲戒取消 (Setting Aside)

懲戒取消는 懲戒處分이 執行된 여부를 不問하고 賦果된 懲戒處分을 取消하고 그에 의하여 侵害된 財産, 特權, 權利를 回復시키는 措置이다. 取消할 수 있는 者는 抗告審査權者나 그 承繼人이다.

懲戒取消를 하는 경우에는 取消權者가 事件의 諸般事情을 考慮하여 懲戒處分이 明白한 不法 (Clear Injustice)이라고 認定할 수 있을 때이다.<sup>52)</sup> 이러한 懲戒取消는 懲戒가 執行되었으면 合理的인 期間 안에 行하여 져야 하는 바, 特別한 事情이 없으면 4 月 內에 取해야 한다.

### V. 맺으면서

以上에서 美軍의 懲戒制度에 관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았으나, 外國의 制度를 연구하는 窮極의인 目標은 結局 우리의 制度를 어떻게 發展시켜 나아가느냐에 있다. 現在 우리 軍의 懲戒制度의 運營 實態를 살펴보면 個個 事件의 處理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매우 合理的이고 合法的으로 運營되고 있으나 政策的인 觀點에서 비추어 보면 아직도 개선될 여지는 있다.

예를들어 懲戒節次가 開始되는 原因을 보면 美軍의 경우 事案의 輕重에 따라 處理

함에 反하여 우리는 (1) 刑事立件 後 事案 輕微로 起訴猶予 処分을 하되 非難可能性이 있으면 懲戒節次를 開始하거나, (2) 高級 將校의 경우 刑事節次에 의한 有罪判決의 效果가 너무 크므로 이를 回避하는 手段으로써 懲戒節次에 依하는 事例가 많다. 이는 懲戒節次를 刑事節次의 補完的 節次내지 回避的 節次로 運營하는 것인데, 이것은 懲戒節次와 刑事節次를 엄밀히 區別하지 않고 있는 美軍의 制度와 비슷하게 運營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問題는 우리의 懲戒節次에서는 美軍처럼 非行人에게 弁護人的 助力을 받을 權利나 裁判請求權 등이 認定되지 않는 點에 있다. 위와 같은 權利가 認定되지 않는 狀況에서의 懲戒節次는 指揮官의 恣意에 빠질 危險性이 있으므로 이의 補完策이 要望된다.

또 하나의 問題는 懲戒處分の 效果에 있다. 懲戒處분이 確定되면 人事記錄 카드에 記錄될 뿐만 아니라 우리 軍의 경우에는 컴퓨터 入力까지 되어 非行人의 進級 및 褒賞에 致命的인 打撃을 주는 경우가 종종 있

다. 原來 懲戒制度의 目的이 輕微한 非行의 경우 非行人에게 前科者라는 낙인을 찍음이 없이 손쉬운 節次로 部隊의 秩序와 規律를 維持하는데 있다면, 한 순간의 실수로 말미암은 非行事實로 인하여 非行人의 身上에 타격을 주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이러한 것은 軍 뿐만이 아니라 一般 公務員의 懲戒制度에서도 同一한 바, 最近 國務總理令 제318호로서 公務員人事記錄 및 人事事務處理規則中改正令이 公布된 바 있으나, 53) 懲戒處分の 種類 中 누락된 것도 있어 不完全한 感을 주며, 또한 軍에 特有한 懲戒處分은 規定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따라서 後統 國防部令 등의 制定이 要望되는 狀況이지만, 앞서 살펴본 대로 美軍에서는 모든 懲戒處分狀 寫本은 處分 後 2年이 經過하면 破棄하도록 되어있는 點도 參考할 必要가 있을 것이다.

끝으로 급격히 變遷하는 時代에 完璧한 制度란 있을수 없지만, 그래도 모든 制度 運營者는 그때 그때의 狀況에 適應할 수 있도록 努力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點을 강조하면서 이 글을 맺는다.

## 註 解

1) 이렇게 말할 수 있는 根拠는, 空軍의 경우에는 他軍과 달리 法務將校들이 거의 모든 懲戒節次에 參與하여 非行人 내지 非行嫌疑者의 人權保障의 面에 소홀함이 없고 完璧한 証拋資料를 수집하기 때문이다.

2) 空軍教範 110-2, 軍法, 1982 314~316面

3) 美軍의 Nonjudicial Punishment가 우리의懲戒制度和一致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들어 우리의懲戒  
処分 중 罷免에 해당하는 것은 美軍의 경우 Administrative Discharge라는 별도의 獨立된 制度로 運  
營하고 있다.

또한 우리의 경우 懲戒罰은 刑事罰과 전혀 別個의 것으로 인식함에 반하여, 美軍의 경우에는 非  
行人에게 軍法會議請求權 등을 認定하여 兩者를 程度의 差異, 즉 경미한 것은 Nonjudicial Punish-  
ment로, 중대한 것은 軍法會議(Court Martial)로 處理하는 경향이 있다.

4) 李尚圭(新行政法論(下), 法文社, 1985, 181面 등

5) 여기에서 말하는 行政的 矯正手段(Administrative Corrective Measures)이란 秩序와 規律을 增進시  
킬 것을 目的으로 하는 相談(counseling), 訓戒(admonition), 警告(reprimand), 勸告(dexhortation)  
不承認(disapproval), 非難(censure), 課外的 業務教育(extra military instruction) 및 行政的인 權利  
制限(administrative withholding of privileges)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결코 處罰의 범주에 속하  
지 아니한다. 行政的 矯正手段의 對象은 規定違反에 該當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다. 자세한 것은 Manual for Courts Martial, United States, 1984, p. V-2.

6) Ibid. p. V-1

7) 空軍規定 110-1, 제76조, 제85조

8) Shanor & Terrell, Military Law in a Nutshell, West Pub. Co., 1980, p. 64.

9) 美 陸軍規定 27-10, 제13조 제2항 a(1).

10) 美 陸軍規定 27-10, 제13조 제2항 b.

11) The Judge Advocate General's School, Criminal Law Vol.1, Procedure and Substantive Law, Aug.  
1979, p. 3-5.

12) Supra Note 10.

13) The Judge Advocate General's School, Supra Note 11, p. 3-7.

14) 勤務時間中の 飲酒를 重大한 犯罪로 본 判例, U. S. V. Fretwell, 11 C. M. A. 377, 29 C. M. R.  
193(1960); 過失致死를 重大한 犯罪로 본 判例, U. S. V. Wharton, 33 C. M. R. 729(A. F. B. R.  
582, 584, n. 3 (A. C. M. R. 1972) 이상의 判例는 The Judge Advocate General's School, Supa  
Note 11에서 再引用하였음.  
이하 나오는 判例도 같다.

15) 美軍刑法에는 우리의 달리 罷免(Dishonorable Discharge)의 刑이 規定되어 있다.

16) 美 陸軍規定 27-10, 제3조 제3항 d.

17) U. S. V. Mahoney, 27 C. M. R. 898, 901 (N. C. M. R. 1959)

18) U. C. M. J. Art. 15(f).

19) Manual for Courts-Martial, Supra Note 5, pp. V-1, 2

20) Ibid. p. V-2.

- 21) U. C. M. J. § 843. Art. 43(d)는 公訴時効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犯人이 美国의 逮捕權 行使 可能 領域에 있지 아니하거나, 民間法院에 拘禁되어 있거나, 敵에게 逮捕되어 있는 期間은 時効計算에서 除外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 22) U. S. V. Johnson, 19 C. M. A. 464, 42 C. M. R. 66, 69(1970).
- 23) U. S. V. Lewis, 37 C. M. R. 619(A. B. R. 1967) ; U. S. V. Domenech, 18 C. M. A. 314, 40 C. M. R. 26(1969).
- 24) The Judge Advocate General's School, Supra Note 11, p. 3-27.
- 25) 美 陸軍規定 27-10, 제 3조 제13항 C.
- 26) U. C. M. J. 제31조는 公判節次의 하나로서 自己負罪禁止의 原則 (Compulsory Self-incrimination Prohibited)을 規定하고 있는 바, b항은 다음과 같다. “어떠한 사람도 被告人이나 被疑者에게 犯行의 性質 및 犯行에 관한 陳述拒否權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혹은 被告人이나 被疑者가 陳述한 것은 裁判에서 証拠로 쓰일 수 있다는 事實을 告知하지 아니하고는 被告人이나 被疑者를 訊問, 調査할 수 없다.”
- 27) Shanor & Terrell, Supra Note 8, p. 66.  
乘船者에게 裁判請求權을 認定하지 아니하는 點에 관하여, 美 海軍 軍法會議는 平等保護에 違背되지 아니한다는 見解를 취하고 있다.  
U. S. V. Lecolst, 4 M. J. 800(N. C. M. R. 1978) ; U. S. V. Penn, 4 M. J. 879(N. C. M. R. 1978).
- 28) 그러나 U. S. V. Booker, 5M. J. 238 (C. M. A. 1978) 사건에서는, 非行嫌疑者가 明示의으로 裁判請求權을 抛棄한다는 意思表示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不拘하고 懲戒節次를 進行한다는 것에 대하여 疑問을 提起하고 있다.
- 29) Manual for Courts-Martial, Supra Note 5, p. V-2
- 30) 우리의 경우에는 懲戒節次에서 非行嫌疑者에게 弁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가 明文의 規定에 의해 保障되고 있지 못하다. 非行嫌疑者의 人權保障의 側面에서 위 制度의 導入이 要望된다. 또한 美軍의 國選弁護人 制度는 1960年代 末까지만 해도 現在의 우리 制度처럼 法務官들 중에서 임의의 者를 選定하는 方式이었으나, 그 後 이를 改正하여 Defense Counsel을 別途의 獨立機關으로 設置하고 고정 法務官을 任命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國選弁護人들이 事件에 관하여 편견 및 선입관을 가지지 아니하고 弁護人 本然의 業務를 遂行할 수 있기 위하여는 이를 分離, 獨立시키는 方案도 강구해 봄직하다.
- 31) The Judge Advocate General's School, Supra Note 11, p. 3-12.
- 34) Carnahan, Comment - Article 15 Punishments, 13 JAG L. Rev. 270 (1971)p. 69.
- 35) 美軍의 用語를 우리말로 번역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 서로가 相異한 體系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正確한 일대일 대응은 이루어 지지 않는다. 번역에 있어서는 그래도 우리와 비슷한 性格이 있는 것을 選択하였으나, 우리의 警告, 譴責과 同一한 것은 결코 아니다. 以下에서 나오는 用語도 同一

- 하다.
- 36) The Judge Advocate General's School, Supra Note 11, p.3-14. ; Manual for Courts-Martial, Supra Note 5, p. V-5.
- 37) The Judge Advocate General's School, Supra Note 11, p. 3-17.
- 38) 이것은 우리의 停職의 要素를 包含하는 것이다.
- 39) U. S. V. Shamel, 22 C. M. A. 361, 47C. M. R. 116 (1973) 事件에서 法院은 營倉과 懲役은 區別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 40) 美 陸軍規定 27-10, 제 3 조 제 7 항 (a)
- 41) The Judge Advocate General's School, Supra Note 11, p. 3-16.
- 42) 보상적 성격의 手當은 懲戒處分の 対象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 原則이지만, 航海手當 (Sea Pay) 과 外國勤務手當 (foreign duty pay) 은 沒收나 押留處分の 対象으로 하고 있다.
- 43) 美軍에서는 우리의 罷免, 解任에 해당하는 것을 Art. 15에 의해 懲戒處分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Administrative Discharge로 해결하고 있으므로, 懲戒處分 中에서는 降等이 가장 강력하다.
44. DA Form 2627으로서 懲戒記錄 中에 包含되어 있다.
- 45) The Judge Advocate General's School, Supra Note 11, pp. 3-19, 20.
- 46) Shanor & Terrell, Supra Note 8, p. 66. ; Manual for Courts-Martial, Supra Note 5, p. V-8. ; 美陸軍規定 27-10, 제 3 조 제 27항
- 47) The Judge Advocate General's School, Supra Note 11, p. 3-21.
- 48)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懲戒處分이 包含된다.
- (1) 7日 以上の 營內待機
  - (2) 7日 以上の 營倉
  - (3) 7日 以上の 俸給에 대한 沒收
  - (4) 下士官級 以上에 대한 降等
  - (5) 14日 以上の 課外勞役
  - (6) 14日 以上の 謹慎
  - (7) 14日 以上の 俸給에 대한 押留
- 49) The Judge Advocate General's School, Supra Note 11, p. 3-22.
- 50) Ibid, p. 3-23. ; Manual for Courts-Martial, Supra Note 5, p. V-7.
- 51) 다만 降等處分이 執行되었다면 執行後 4月 以内에만 減輕措置를 取할 수 있다.
- 52) Manual for Courts-Martial, Supra Note 5, p. V-8.
- 53) 公務員 人事記錄 및 人事事務處理規則 中 改正令( 總理令 第318号, 1986. 10. 24.) 제 8 조의 2 (懲戒 등 處分記錄의 抹消)
-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懲戒處分을 받은 公務員이 다음 各項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

8 조 제 1 항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 公務員의 人事記錄카드에 등재된 懲戒処分の 記錄을 말소하여야 한다.

1. 懲戒処分の 執行이 終了된 날로부터 다음의 期間이 경과한 때. 다만 懲戒処分을 받고 그 執行이 終了된 날로부터 다음의 期間이 經過하기 前에 다른 懲戒処分을 받은 때에는 各各의 懲戒処分에 대한 해당기간을 합산한 期間이 경과하여야 한다.

가. 停職: 7年      나. 減俸: 5年      다. 譴責: 3年

2. 초청심사위원회나 法院에서 懲戒処分の 無効 또는 取消의 決定이나 判決이 確定된 때.

3. 懲戒処분에 대한 一般赦免이 있을 때

#### - 参 考 文 献 -

1. 空軍規定 110-1, 法務管理, 1984.
2. 空軍教範 110-2, 軍 法, 1982.
3. 官 報 제 10469호, 1986. 10. 24
4. 李尚圭, 新行政法論(下), 法文社, 1985.
5. Uniform Code of Military Justice, 10 U. S. C. 815(1985)
6. Manual for Courts - Martial, United States, (1984)
7. Army Reg. No. 27-10(1973)
8. DA Form 2627
9. The Judge Advocate General's School, Criminal Law Vol. 1, Procedure and Substantive Law, Aug 1979.
10. Shanor and Terrell, Military Law in a Nutshell, West Pub. Co., 1980.
11. Carnahan, Comment - Article 15 Punishments, 13 JAG L. Rev. 270 (1971)
12. Comment, The Constitutionality of Art. 15, A Rebuttal, 83 Yale L. J. 534(1974)
13. Miller, A Long Look at Art. 15, 28 Mil. L. Rev. 37 (1965)

# 美空軍

## 人事制度 및 構造 紹介

■本稿는 1986年 5月 18日부터 12月 1日까지 約 6個月余에 걸친 渡美教育期間中 보고, 듣고, 배운 內容을 土台로 作成되었으며, 本稿가 韓·美 空軍間의 더욱 緊密한 紐帶強化와 相互理解增進의 資料로 活用된 은 勿論, 韓·美 聯合作戰 또는, 合同勤務時 美空軍要員이 處한 人事的 諸要素를 보다 正確히 理解함으로써 兩國要員間의 人間關係 發展에 一助케 하고, 向後 美 空軍에 軍事教育을 目的으로 渡美할 모든 將兵들에게 美空軍의 組織과 人事活動 등을 簡略히 紹介하여 事前 予備知識을 習得케 하기 爲하여 寄稿된 것이다.

參考로 筆者는 美 空軍 人事分野 要員의 必須教育인 特技教育課程과 參謀要員으로서의 모든 教育을 專修하였으며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林 友 圭

〈소령·공군본부〉

- 人事將校 基礎特技教育(Personnel Progress Officer Course : E30BR7321) : 美 空軍의 新規 任官, 또는 特技轉換으로 人事將校가 되는 者에게 實施하는 基本特技 教育課程.
- 人事參謀教育(CBPO, Chief Management Course : E30ZR7311) : 中領으로부터 大尉級 將校로서 人事參謀로 補任되었거나, 補任될 者에게 實施하는 參謀教育課程.
- 勤務·福祉參謀教育(Chief, Morale, Welfare, and Recreation Course : E30ZR7341) : 中領으로부터 大尉級 將校로서 勤務·福祉參謀로 補任되었거나, 補任될 者에게 實施하는 參謀教育課程.
- 職務教育(Personnel, OJT) : 團級部隊 및 中間司令部와 美 空軍人事總本部인 AF MPC(Air Force Military Personnel Center)에서 實施하는 人事將校 實務教育.

## 1. 序

**人** 事란 包括的인 概念으로 組織의 運用을 爲한 人的 構成要素에 對한 모든 關聯要素를 計劃하고, 支援하고, 管理하는 活動의 總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人事制度는 組織構成員이 處한 環境과 모든 社會的 慣習, 文化의 尺度, 文明의 發達程度 等, 人間에 關係된 諸條件에 따라 變化되어 지는 것이 當然한 것이다.

人事의 觀點에서 볼 때, 우리와 美國은 너무나 많은 相異點을 안고 있다. 그러므로 美空軍의 좋은 人事制度나 政策이 우리에게는 適用 不可能일 수도 있고, 오히려 害가 될 수도 있다. 科學的 武器體系나, 機械的 裝備과 이에 따른 先進技術은 앞서 있는 美空軍에서 배운 內容이 即刻的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適用이 時急한 事項이 될 수도 있으나, 그들의 훌륭한 人事制度나 政策, 管理技法은 參考는 될지 인정, 即刻的인 適用이나 實行이 어려운 것이고, 우리의 實情에 맞게, 새로이 創案되고 活用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 人事制度나 政策의 急速한 發展의 어려움이 있고, 또한 人事制度나 政策의 發展은 急進的이어서는 아니되고 漸進的이어야 한다. 人事業務의 發展은 非可視的이며 恒時 Feed Back되는 순환과정이기 때문에, 他分野에 비하여, 發展의 速度가 느린 것 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이 嚴密한 意味에

서 發展되어가고 있는 過程임을 알아야 하는 것이라는 點을 序頭에서 밝혀 두고자 한다.

人事에는 公式 뿐만 아니라 定型化된 틀이 없으며, TO와 같은 節次가 있을 수 없다. 다만 定해진 業務에 對한 最少限의 規制와 業務進行의 方式이 있을 뿐이다.

本稿의 內容中 우리의 制度와 相異되는 部分에서 一部 讀者는 우리에게 時急히 適用되기를 바라는 內容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思考의 危險性을 앞에서 指摘했거니와 보다 깊은 研究와 꾸준한 努力으로 漸進的으로 우리 空軍人事業務發展에 寄與토록 해야 할 것임을 添言한다.

美空軍은 約 300個의 國內外 基地와 60萬의 兵力을 保有하고 있는 大規模 組織이며 最尖端의 科學裝備과 最新의 武器體系를 運用하고 있음은 周知의 事實이다. 따라서, 이러한 巨大한 組織을 運營하기 爲한 人的 構成要素에 對한 管理技法 또한 매우 科學化되어 있으며, 컴퓨터 等 모든 시스템이 完壁하게 具備되어 있음 또한 不問可知이다.

그러나, 本稿에서는 管理技法이나 시스템 運用測面보다는 一般的 人事制度 및 政策을 概論的 表現으로 紹介키로 하고, 다음 機會에 部門別 管理技法이나 電算시스템 等を 各論的으로 考察하여 볼 計劃이다.

優先 여기서는 美空軍의 組織과 人事機構의 概括, 人力計劃, 人事管理 및 福祉管理制度를 簡略히 紹介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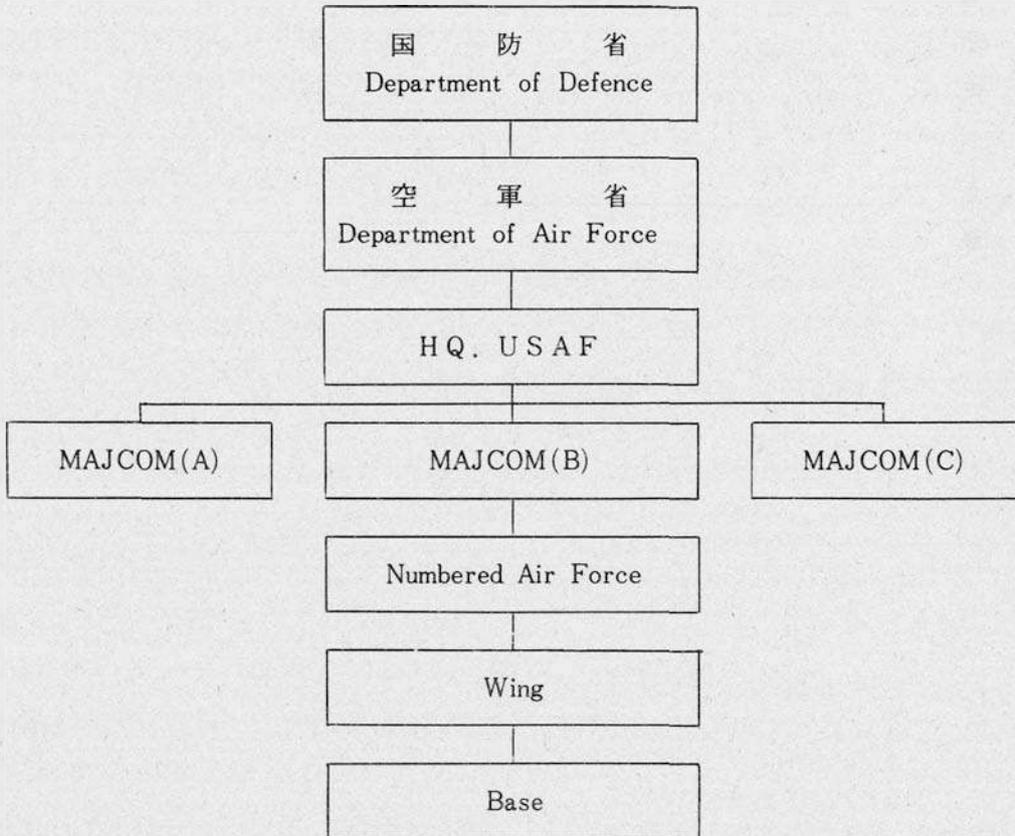
## 2. 美空軍組織 및 人事機構

### 가. 美空軍의 組織

美空軍은 徹底한 軍·民 合同組織으로 되어 있어 相互牽制와 協助機能을 同時에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美空軍의 主要政策이나 指針에 關한 모든 事項의 最終決定은 民間人인 空軍省長官(Secretary of

Air Force)이 行하고, 이에 對한 運用의 責任은 軍人인 參謀總長(Chief of Staff, US-AF)이 行하도록 되어 있다. 그 아래에 中間司令部(MAJCOM : Major Command)가 있다. 예를 들면 太平洋空軍司令部(PACAF)가 여기에 該當된다. 中間司令部 以下에는 數空軍司令部(Numbered Air Force)가 있는데 5空軍司令部와 같은 것이며, 그 아래에 飛行團(Wing), 基地戰隊(Base Group), 大隊(Squadron)가 있다[表 1 參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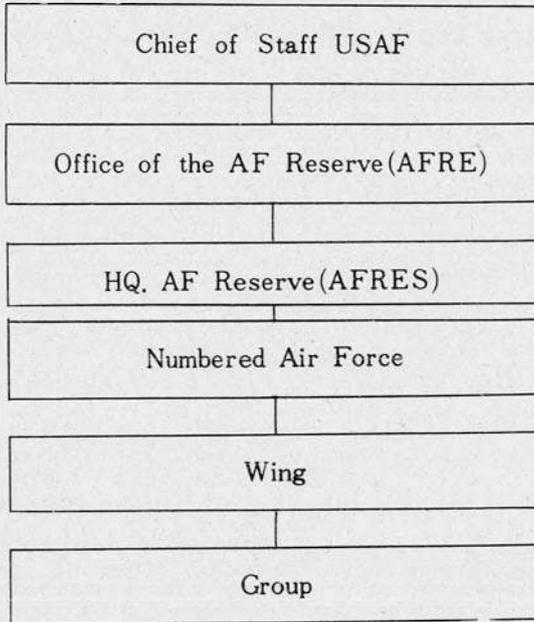
[表 1] 美空軍 組織構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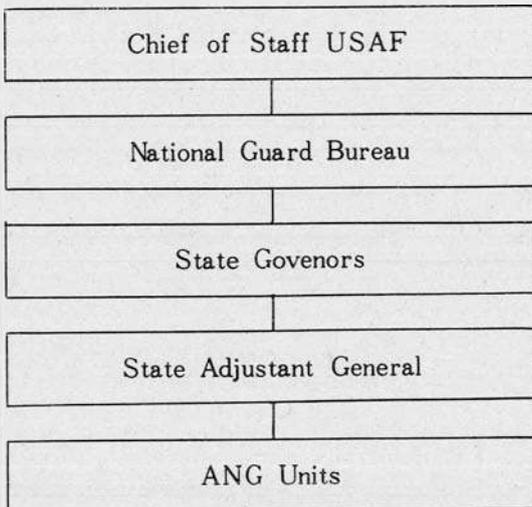
또한 美空軍의 特徵은 予備軍(Reserve Air Force)과 各州別로 設置되어 運營되고

있는 州防衛軍(Air National Guard)이 거의 現役(Active Duty Air Force)과 同一視되고 戰力 또한 비슷하게 갖추어져 參謀總長の 統率을 받고 있다는 點이다.

[表 2] Reserve Air Force 組織



[表 3] Air National Guard 組織



나. 美空軍人事機構

美空軍의 人事機構(表 4 参照)는 크게 4段階로 区分할 수 있다. 첫째는 空軍本部에 設置되어 있으며 主要人事政策과 計劃, 指針을 樹立, 示達하며, 將官級將校 進級을 管掌하는 Pentagon Level이 있는데, Pentagon Level에는 人事參謀部(DCS / Personnel)와 人力參謀部(DCS / Manpower)가 있다.

둘째로, 美空軍의 모든 人事業務를 總括 處理하는 Head Quarter Level로 AFMPC (Air Force Military Personnel Center)가 있는데, AFMPC는 參謀總長の 直轄機構로 되어 있으며, AFMPC의 長(Commander, AFMPC)은 空軍本部의 人事參謀部次長(Assistant DCS/P)이 兼하도록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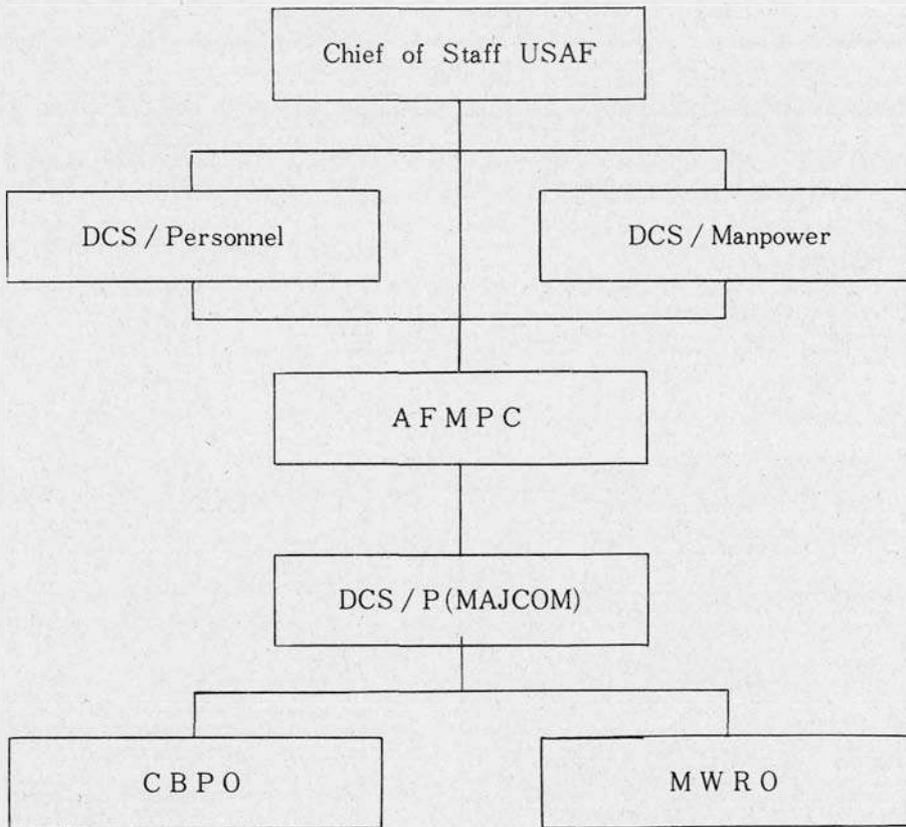
세째는, MAJCOM Level로서 AFMPC의 統制下에서 中間司令官을 補佐하며, 예하제대의 人事權을 行事하는 DCS/P(Deputy Chief of Staff / Personnel) 또는 DP (Director of Personnel)가 있고, 넷째로, Wing Level로 불리는 CBPO(Consolidated Base Personnel Office)가 있는데, CBPO는 우리와 달리 Base 概念으로 運營되어, 1個 Base에 1個의 CBPO가 있어 同一 Base內의 모든 梯隊에 對한 人事支援業務를 遂行하는 우리의 人事處와 같은 役割을 한다. 例컨대 한 基地內에 두 個의 다른 部隊(Numbered Air Force와 Wing)가 共存한다면 各部隊가 別途의 CBPO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

의 CBPO가 모든 部隊에 對한 人事支援을 하는 것이다. 이 때 CBPO는 Base Commander의 指揮監督을 받게 된다.

CBPO는 Base 內의 人事管理的 機能(補職, 轉屬, 進級, 轉役管理 等)만을 遂行하

고, 福祉 및 勤務業務는 別個의 MWR Office (Morale, Welfare and Recreation Office)에서 遂行하는 것이 우리와 다른 또 하나의 差異點이다.

[表 4] 美 空軍人事機構



### 3. 人力運營制度

#### 가. 募 兵

美空軍의 募兵管理는 徵集制가 아닌 志願制度(Voluntary System)임은 이미 아는

事實이다.

士兵의 境遇, 우리와 다른 點은 下士官에 對한 別途의 募集機關이나 養成機關이 없고, 兵에서부터 繼續하여 服務하며 進級에 依해 獲得되어 지는 點이다. 詳細히 說明하면 Airman으로 入隊한 兵이 Sergeant

에 이르면 Retention Program에 依해서 繼續服務 또는 轉役이 決定되어 지고, 審査에서 選拔된 者가 下士官으로서 漸次 進級되어 지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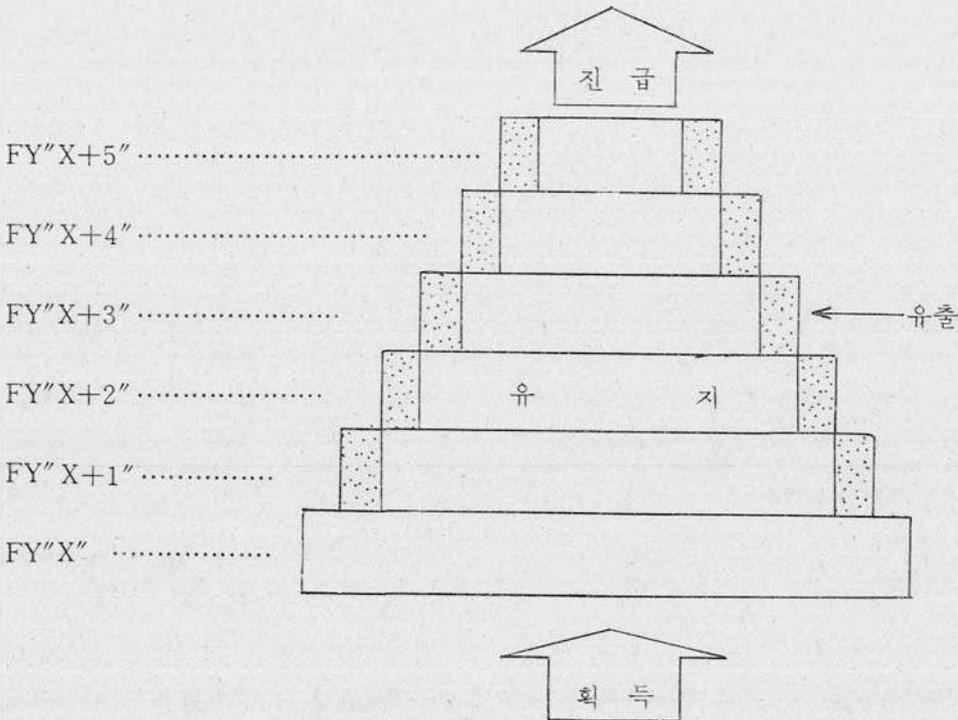
將校의 境遇는 크게 3個의 募集 Source가 있는데, 하나는 定規士官學校 (USAF Academy) 卒業者와, 우리의 士官候補生制度和 비슷한 大卒者로서 將校服務 希望者에 對하여 軍事教育 實施 後 將校로 任官시키는 OTS (Officer Training School)이 있는데, OTS出身은 一般民間大學 出身者 뿐만 아니라, 士兵으로서 軍의 惠沢으로 民間大學 委託教育을 通해 學位를 取得한 者를 包含한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의 같은 ROTC 出身이 있다.

#### 나. 人力計劃 및 運營

人力計劃 및 運營의 基本原則은 階級別·特技別로 獲得年度別 均衡維持를 通한 高른 戰力運營과, 進級競爭比의 一定率을 持續시키기 爲하여, Promotion, Retention, Separation의 三者를 適切히 運營토록 하는 것이다.

例를 들면, [表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特定한 特技分野 및 階級の 獲得人員이 前年度와 같은 水準이라 하여도, 漸進적으로 流出計劃에 依해 一定人員은 流出시키고, 戰力維持上 必要한 適正水準만을 남겨 維持시킴으로써, 資源의 獲得年度別로 피라밋型의 組織管理 基本模型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表 5] 人力運營 基本模型



이에 따라 每年度別로 一定水準의 進級 競争比 維持는 当然한 歸結이 된다. 위에서 다시 說明하겠지만 美空軍의 進級 人員은 空席에 따른 進級人員의 算定이나, 強制的인 一定數 進級人員의 策定이 아닌 自然的 階級別 進級對象者 數에 對한 一定한 進級 比率의 適用으로 決定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大尉에서 少領으로 進級될 對象者가 5,000名인데, 進級比率은 80%라면 그 해의 少領進級值는 4,000名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公正한 進級機會의 賦与가 可能케 되고, 아울러 當該階級 또는 特技分野內에서도 獲得年度別로 高른 兵力分布를 維持할 수 있는 것이다.

#### 다. 戰力維持制度 (Retention Program)

美空軍의 戰力維持制度는 流出政策과 一致되는 概念으로서, 一定 人員의 流出과 適正人員의 維持測面에서 考慮되어진다.

美空軍도 우리와 비슷하게 戰鬪要員 (Rated Person), 即 操縱戰力의 向背가 重要視된다. 特히, 많은 民間航空社를 保有하고 있는 美國에서 操縱士들의 轉役에 對한 誘惑은 끊임없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多幸히도 現在는 美國의 民間航空社들의 操縱士 要求度가 大部分 充足되거나 包化狀態에 있기 때문에 큰 問題는 惹起되고 있지 않다. 오히려 軍內에서 高級將校의 過多現狀이 人力運營上 심각한 影響을 미치고 있다.

美空軍에는 階級停年이 없고, 階級別 勤

続停年과 年齡停年만이 存在하며, 階級別最低進級服務年限이 우리보다 긴 것이 特徵이나, 進級은 通常 2個의 選拔集團(BPZ 또는 IPZ)이 區別되기 때문에, 實際로는 最低進級服務年限이 能力이 낮은 要員에게만 適用될 뿐, 大部分의 優秀將校는 早期進級되게 됨에 따라 上位階級の 過多現狀이 不可避하다. 따라서 美空軍에서는 주어지는 進級機會에 進級되지 못한 要員에 對하여는 可及的 早期流出시키는 方向으로 轉役誘導 또는 行政的 壓力이 加해지는 早期流出政策을 施行하고 있다. 예를 들면, 大尉에서 少領으로 2回 進級脫落되면 Retention 審査委에 回附되어 選拔되지 않으면 다음 進級機會를 喪失하고 Separation 되도록 各種 行政的 規制가 行해진다.

## 4. 人事管理制度

### 가. 進級管理

#### (1) 將校進級

美空軍의 將校進級管理는 一定한 進級競争比下에서 每年 公正한 機會가 賦与되고 있음은 前章에서 말한 바와 같다. 또한 大兵力의 進級을 爲하여 進級審査業務만을 專擔하는 機構가 常設되어 있고, 年中 數十回의 進級審査를 實施하고 있다.

#### (가) 進級審査委員會 構成

進級審査委員會 (Selection Board)는 空軍參謀總長이 任命하는 選拔對象者보다 上位의 階級인 者로 構成하며, 審査對象者의 特

技에 따라 3~5개의 小委員會 (Panel)가 1개의 選拔委員會 (Board)를 形成한다. 1개의 Panel은 5人으로 構成되며 Panel의 委員長은 通常 將官級將校로 任命되고, Board 委員長은 Panel委員長보다 上位인 將官級將校中에서 任命된다[表 6 参照].

[表 6] 進級審査委員會 構成

区分 階級	Board 委員長	Panel 委員長	Panel 委員
大 領	中 將	少 將	准 將
中 領	少 將	准 將	大 領
少 領	少 將	大 領	大 領
大尉以下	准 將	大 領	大 領

[表 7] 進級對象圈

階 級	IPZ		BPZ	
	階級服務期間	勤 統 期 間	階級服務期間	勤 統 期 間
大 領	4.5年	20.5年	2.5年	13.5年
中 領	4年	16年	2年	11年
少 領	8年	12年	5年	9年
大 尉	2年	4年	—	4年
中 尉	2年	2年	—	2年
少 尉				

(나) 進級對象圈

進級對象圈은 크게 두 가지 Type으로 大別되는데 特進對象集團인 BPZ(Belowed Promotion Zone)와 基本進級集團인 IPZ(In the Promotion Zone)가 있다. BPZ는 卓越한 能力을 保有한 將校의 選拔管理를 爲하여 進級對象者에 對하여 MAJCOM의 推薦을 거쳐 對象圈을 設定하며 全体 階級別 進級値에서 適正比率로 選拔한다. 또한 BPZ의 選拔은 各特技別로 均等하게 配分, 進級値를 算定하여 選拔하고 있다.

IPZ는 一般的인 進級對象圈으로서 當該階級에서 最低服務年限을 滿了한 者가 該當된다.[表 7 参照].

(다) 進級選拔人員

앞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美空軍의 每年度別 進級選拔人員은 長期人力運營計劃에 依하

여, 이미 一定水準을 維持하게 된 対象資源에 對한 階級別 進級比率을 適用, 策定된다. [表 8]을 参照하여, 例를 들어보면 少領에서 中領으로 進級되어야 할 対象者가 5,000名이라면,

- 対象者数 (5,000名) × 75% = 進級值 (3,750名)
- 進級值 (3,750名) × 7.5% = BPZ 進級值 (375名)
- 進級值 (3,750名) - BPZ進級值 (375名)

= 3,375名..... IPZ進級值

..... ○ .....

- 中領 總進級人員 (Quota) : 3,750名
- 中領 特進值 (BPZ Quota) : 375名
- 中領 一般進級值 (IPZ+APZ Quota) : 3,375名

위의 例에서와 같이 選拔人員을 策定함에는 各 持技別 均等發展을 爲한 細心한 配慮가 作用하게 되고, 美空軍에서도 戰鬪要員 (Rated Officer)에 對하여는 若干의 加重值가 適用됨은 勿論이다.

[表 8] 進級值算定 (Promotion Quota)

進級될 階級 \ 区分	總 進 級 值 (Total Promotion Quota)	特 進 值 (BPZ Quota)
大 領	IPZ의 55%	Quota의 15%
中 領	IPZ의 75%	Quota의 7.5%
少 領	IPZ의 90%	Quota의 5%
大 尉	IPZ의 97.5%	
中 尉	IPZ의 100%	

(라) 進級選拔節次

60萬에 가까운 大兵力에서 審査委員이 対象者 全員을 個人別로 파악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進級審査 業務担当部署에서 準備한 資料 (Selection Folder)에 依해 各 Panel 委員은 討論없이 個人別로 10

點에서 6點까지의 點數를 賦與하는 것으로 끝나고, 討論은 點數賦與의 要件이나 基準의 設定을 爲하여, Selection Board 全体會議과 Panel別 會議時에만 行해지는 것이 特徵이다.

Selection Board의 委員長은 審査에 直接

参与하지 않고 Panel 間的 基準調整役割과 委員들이 賦与한 点数의 總計에 依한 最終的인 選拔者 決定役割을 隨行하고 最後에 그 結果를 委員들에게 브리핑하는 것으로 끝난다.

이러한 審査方法으로 因하여 進級審査委員이라 하더라도, 누가 選拔되었는지를 公

表前에는 알 수 없고, 다만 本人이 賦与한 点数만 알고 있기 때문에 保安이 철저히 行해 질 수 있는 關係로 審査委員에 대한 연금이나, 외부연락금지같은 제제가 없고, 約 10~15日間의 審査期間동안 出·退勤하며 日課中에만 審査業務를 遂行하는 것이 可能的 것이다[表 9 参照].

[表 9] Scoring Scale

	Scale	
• Absolutely Top .....	10	} Outstanding
• Outstanding Record .....	9.5	
• Few could be better .....	9	} Above Average
• Strong Record .....	8.5	
• Slightly higher than Average .....	8	
• Average .....	7.5	— Average
• Slightly below average .....	7	} Below Average
• Well below average .....	6.5	
• lowest in potential .....	6	

(마) 公 表

進級選拔結果는 Selection Board委員長과 MPC의 CMDR이 Pentagon의 參謀總長과 空軍省長官에게 報告하고 裁可를 받은後 即時 審査內容 全部를 公開한다. 따라서 脫落者라 하더라도 그 理由를 곧 알 수 있게 한다. 進級에 選拔된 者는 1年 以內에 人力

運營計劃에 따라 選拔順位別로 進級發令되게 된다.

(2) 士兵進級

士兵의 進級은 下士官을 除外한 兵은 우리와 비슷하게 예하부대에 委任되어 行해지고, 一定服務期間을 滿了한 者는 基本的으로 進級되게 된다. 그러나 Retention

Program에서 說明한 바 있는 下士官(NCO : Noncommissioned Officer)의 進級은 2가지로 다시 分類되는데 Senior NCO Promotion System과 그 以下の 進級으로 区分되며 Senior NCO의 進級에서는 品性和 Leadership이 主로 考慮되며, 그 以下要員은 進級試驗을 賦課하여 그 結果가 크게 作用한다.

#### 나. 補職管理

美空軍의 補職管理(Assignment Management)는 3告制와 아울러 適正期間 服務後에는 轉屬을 原則으로 한다. 이것은 다시 国内(CONUS)와 海外(Oversea)勤務로 分類되고 약간씩 相異한 原則이 適用되고, 海外勤務는 地域에 따라 2~3年間을 勤務하게 되고 이 勤務記錄은 別途의 個人轉屬記錄으로 次後 人事에 反影되게 된다. 補職管理는 要員의 婚姻与否(特히 배우자가 군

인인지, 아닌지, 軍人이라면, 同一軍인지, 他軍인지) 子女나 父母中 不具者가 있는지와 生活根拠地, 必須 海外勤務 完了与否, 轉役 予定時期, 其他 家庭의 問題 等の 個人的 事情과 軍의 要求 指揮官의 意見을 三角的으로 考慮하여, 管理되는데, 이 때 勿論 가장 優先되는 것은 軍의 要求이다.

#### 다. 轉役管理

轉役은 階級別로 [表 10]과 같이 勤統年限과 年齡停年이 있어 軍의 適切한 世代交替와 人力運營을 圓滑히 調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階級停年이 없는 關係로 階級別로 人力의 過多現狀이 나타나므로 앞에서 言及된 바와 같이 適正進級 機會喪失者에 對하여는 전역권유 형태의 行政措置로 強制流出政策을 併行하고 있음에 留意할 必要가 있을 것이다.

[表 10] 美空軍 停年制度

階級	区分	年齡停年	勤統停年
少	尉	60歲	21年
中	尉		
大	尉		
少	領		28年
中	領		
大	領		
准	將	62歲	30年
少	將		
中	將		64歲
大	將		

## 5. 勤務·福祉管理制度

美空軍은 美軍內에서도 가장 福祉制度가 잘되어 있어 募兵 等 其他 對民 認識이 좋은 便이다. 그러나 美空軍의 MWR System (Morale, Welfare & Recreation)의 特徵은 그 방대한 福祉施設의 運營 및 新設, 補修 等을 爲한 所要經費가 國庫에 依存하는 比率은 不過 33%에 지나지 않고, 67%의 予算이 自体 MWR 運營에 따른 利益金으로 充當됨을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이다. MWR 運營은 美空軍의 人事分野要員(將校, 下士官, 兵과 民間人 고용者)에 依해 經營, 會計, 計劃 等 모든 要素가 行해지고 있다.

그리고 모든 System이 完全히 企業經營的 側面에서 行해지고 있으며 美空軍의 MWR 運營目標가 “모든 Military Personal 에게 주어진 給與의 全額을 다시 回收하여 再分配하는 것”임에 留意해 보자. 따라서 美空軍의 MWR System은 美空軍要員뿐 아니라, 全 美國市民이 구가할 수 있는 모든 福祉施設과 生活必須品供給, 레저施設을 갖추어 놓고 있는 것이다.

## 6. 結 言

위에서 記述한 內容만으로 美空軍의 全體的인 人事活動을 理解하기는 어려울 줄이나 概括的인 紹介는 된 것으로 보고 多少나마 우리 韓國空軍要員들이 美空軍을 알

수 있는 機會는 되었다고 믿고 싶다. 다음에 機會가 있다면 各 活動 또는 事業의 部門別로 詳細히 紹介하도록 하겠다.

美空軍의 基本的인 人事活動의 原則은 軍人 뿐만 아니라 그들의 家族과 軍에 關係되는 모든 사람에게 Service하는 것을 모토로 運營되고 있음이다. 따라서 모든 人事活動은 個人의 便益을 最大로 增進 시키기 爲해 努力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人事活動은 美空軍의 人事分野要員의 發展指向的 業務姿勢나 Service精神도 높히 評價하여야 할 것이나, 그보다도 그들의 活動을 保障해주는 制度的 裝置와 認識이 더욱 重要함을 強調하고 싶다.

人事活動이란 작게는 個人의 一挙手一投足에까지 影響을 미치며, 크게는 個人의 人生目標變更에도 이르게 하고, 더 크게는 軍의 士氣와 戰力에 直間接的으로 影響을 미치는 重要한 活動임을 認識하고 向後 보다 發展되어가는 우리 空軍人事業務를 지켜보아 주길 期待한다.

또한 人事業務發展을 爲해 全 우리 人事分野要員의 努力이 倍加되어야 할 것임을 強調하며, 끝으로 美空軍參謀總長 General. Larry. D. Welch의 空軍運營 目標中 가장 重要한 部門이 “Personel Activity”이며, 그의 一語를 紹介하므로 本稿를 맺을까 한다.

“만일 당신이 당신의 요원들을 보살피지 못한다면, 당신은 비행 뿐만 아니라, 작전도 수행하지 못한 기사다”.

# 프라이드로

## 결정했습니다.

세계 속의 한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세계 어느 나라 말이든 배워야 하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외국어로서 익히고 사용해야지 우리 말을 뒷전으로 미루거나 뒤범벅을 만들어서는 아니되겠다. 깨끗하게, 쉽게, 바르게, 풍부하게 그리고 순수하게 우리 말을 사용하기 위하여 주체성을 살리고 외래어를 몰아내자.

권 우 성

〈중위·정신교육원〉

**요**즘 주요 일간지에 큰 활자로 한 지면의 반이나 차지하는 모 산업의 최신 첨단 자동차 광고문구이다. 무려 16만 5천여건 이상의 차명 중에서 그 회사는 많은 분들의 기대와 자신감, 긍지와 만족감을 반영하여 '프라이드'로 결정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인가 껌하나에서부터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변 모든 것에 외래명이 판을 치고 있으나 별다른 반응없이 아무런 이상 없다는 식으로 외래문명이 동반해온 외래어들에 일상화 되어 버렸다. 텔레비전에서는 노상 기상천외한 상표들을 외쳐대며 구매욕을 충동질하고 도심의 거리 간판들은 마치 외국에 온 느낌을 자아내며 우리가 걸치고 있는 옷은 속내의까지 괴상한 이름들이 새겨져 있다.

우리사회에서 점차 뿌리를 잃어가고 있는 전통문화와 확산이 가속화되어가고 있는 외래문화의 범람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느껴진다. 특히 사용되고 있는 외래어에 대하여 고찰할 절대적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말은 곧 민족의 얼이며, 민족공유의 재산으로 우리들 자신이 지키고 가꾸어가야 하는 우리의 정신, 나아가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피지배자로 국가, 풍습, 언어 등 백의민족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억압당한 일제 36년을 청산하고 다시 그 만큼의 시간을 우리는 이 한국사회의 떳떳한 주인으로 살아왔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그 몇 골절을 지나온 현재, 일제치하에 그토록 갈구하고 자유롭게 표현해 보고 싶었던 우리 것, 우리 문화, 우리 언어를 주인이 된 이후에 얼마나 주인답게 지켜왔는가?

5. 16혁명 이후 우리는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 한 번 잘 살아보려고 현대화를 지향하였고 갑작스러운 고도산업화 과정은 불가피하게 서양 산업사회 문화를 자동적으로 동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급속한 산업사회 문화의 도입은 한국의 전통적인 농업사회 문화와 정면으로 대립되는 것으로 한국의 사회구조는 고도로 전문화되기 시작하였다. 가족을 중심으로 한 신분 서열적 사회관계는 개인을 중심으로 한 평등한 사회관계로 변질되기 시작하여 연고관계를 따지는 특수 의존적 가치관보다는 능력을 중심으로한 보편주의적 가치관을 중

시하게 되었다. 즉 오랜기간 전통을 이어온 군신과 부자의 세계에서 이른바 민주사회로 변하게 된 것이다. 가족주의에 앞서 개인주의의 세계로, 자연의 순환에 조화롭게 순응하던 농업사회가 아니라 상공업 중심의 시민사회로 변한 것이다. 한 마디로 서구의 정치경제 체제가 기초하고 있는 새로운 형식의 인지구조가 도입된 사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늘의 한국은 선진국 진입이라는 명목 하에 서양적 모델을 기준하여 따라가는 것이다.

여기서 서양적 모델은 미국문화의 일방적 영향이라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난 40년간 한국사회의 모든 생활 측면에 파고든 미국적 양식은 한국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고 이는 좋게 말해서 미국의 영향이 세계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세계 속에 자기 위치 설정을 하는 한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주변을 살펴볼 때 개인생활의 의식주로부터 전체 생활의 정치, 경제, 교육 등 모든 영역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외래문화의 홍수 속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서구의 과학적 문물들을 수입하여 우리도 배부르고, 편하고 잘 살아보자는 것에 대하여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여기서 과연 서구문명을 뒤쫓아가는 공업화 과정에서 우리 전통의 문화가 보존되어가며 공존을 하지 못하였을까하는 문제를 던지고 싶다. 서구의 스테레오타입이 되는

것이 과연 우리 백의민족으로서 좋은가? 아침에 일어나서 우유와 콘플레이크 또는 빵과 버터를 먹고, 점심은 켄터키 치킨으로 해결하고 저녁은 칼과 포크를 손에 들고 스테이크를 먹으며 아침, 점심, 저녁으로 커피라는 것은 빠지질 않는다. 우리는 산업화 속에서 외제 선호사상에 빠져 우리 것은 고상하지 못하고 멋도 없고 촌스러워 보인다는 의식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이는 곧 우리가 우리 것을 너무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역설해 주고 있는 것이다.

가장 심하게 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언어이다. 세계 속의 한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길은 필요에 따라 세계 어느 나라 말이든 익히는 것은 좋은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외국어로서 익히고 외국어로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지, 우리 말을 뒷전으로 미루거나 뒤범벅을 만들어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상황은 어떠한가? 지금 매스미디어, 특히 광고물 소비제품명에서나, 가정에서나 혹은 친구들과의 만남에서나 쓰이는 말은 세종대왕님께 빌 면목이 없는 말로 둔갑해 버렸다. 슈퍼마켓의 진열장에 쌓여있는 제품, 제품마다 시골 향취가 물신 풍기는 우리 고유의 제품명이 없고 프랑스에서 왔는지 이태리에서 왔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는 국적 불명의 외래어가 적혀 있다.

국어를 힘써 가꾸어 가려는 노력을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해왔고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참고로 알아보자. 먼저 독일의 경우

학술원어까지도 자기나라 말로 바꿔가면서 순수하고 자주적인 독일어로 자주적인 국민성과 조직적인 사고능력을 길러 오늘의 독일문화를 이루었다는 자부심이 대단하다. “독일 국민에게 고함”이라는 피히테 교수의 연설문 속에 ‘국어는 국민에 의해 형성되지만, 국민은 다시 국어에 의해 형성된다’는 주장은 매우 뜻 깊다.

프랑스에서도 한 때 자기나라 말을 천시하고 라틴어를 받아들여 썼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16세기에 프랑스어를 지키고 빛내자는 주장이 시작되고 모국어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지켜야 한다는 운동이 전국적으로 펼쳐졌다. 그러한 모국어에 대한 긍지가 오늘의 프랑스 문화를 이룬 힘찬 저력이 되었던 것이다.

영국도 비슷한 길을 걸어 왔었다. 1066년에 노르만족에게 정복당했던 영국은 약 3백년 동안 노르만의 말과 문화 속에 살면서 영국인도 노르만말을 섞어 말하는게 자랑이고 유행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14세기 경에 국어정화운동이 세차게 일어나서 국회와 법정에서부터 영어만 쓰기로 결의하는 등 영어쓰기가 본격화 되었다.

14세기 후반에는 랑글란드, 초서 같은 시인이 나와서 영국 문학의 꽃을 피우고 영어의 부흥기를 이루었다. 14세기 말에는 노르만 말도 완전히 몰아내는데 성공했고 이제 세계적인 영어의 긍지를 확립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 첫눈 내리는 날의 斷想



권 용 은

11 월 30일  
오늘 아침에 첫눈이 내렸다. 결혼을 하고는 예전처럼 마음 놓고 눈 내리는 것을 즐기지도 못한다. 창을 열고 「아, 눈이 내리는구나», 「야, 눈이다」하고 감탄을 하려다가도 눈이 많이 쌓일수록 제설작업에 애쓰는 사람들, 눈이라도 많이 쏟아지는 밤에는 제설작업에 나가서 늦게 돌아오는 사람들 생각에 「에이, 그만 내려라」하며 창을 닫고만다.

다른 친구들은 결혼 후에, 대개가 시댁과의 갈등이나 적응에 어려움을 겪지만, 나는 남편의 생활방식과 관사생활에 적응하기가 힘이 들었다. 늦게 결혼한 남편덕분에 주위의 관심이 더 쏠리는 것 같았고, 「아주머니」라든가 「새아줌마», 심지어는 「공새매아줌마」로 불리우는 새로운 호칭이 쑥스러웠다.

작전이나 회식 혹은 파티 때에 부인회에

서 음식을 준비할 때면, 일이 서툴러서 창피하고 특히 김밥 싸는 날은 어디로 도망이라도 가고 싶은 심정이었다.

집에서 김밥을 만들면 남편은 맛있게 먹었는데, 모양은 내가 봐도 형편없었다. 결국은 한 구석에서 다른 사람들이 싸놓은 김밥에 참기름만 발랐다. (얼마전야 겨우 김밥을 모양있게 싸게 되었는데, 내 대신에 다른 새댁이 찢찢매며 김밥을 썬다.)

결혼 초에, 큰 언니가 전화로 남편의 안부를 물어왔다. 「공서방 들어왔니?」 「아니, 오늘 안 들어온대」 「왜?」 나는 통신보안에 대해서 들어오던 터라 Alert 라는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몰라」하고 얼버무렸다. 언니는 긴장된 목소리로 「애, 처음부터 그러면 못쓴다. 외박도 습관이야」 라고 충고를 해왔다. 술 좋아하는 형부처럼, 술에 취해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 줄 알고 말이다.

비행단의 근무상황을 잘 모르는 사람은 그런 오해를 할 만도 하겠지 하긴 나도 처음에는 정신이 없었다.

새벽이나 한밤중에 나가기 일쑤이고, Alert 근무도 여러 가지 종류라서 들어오는 날도 있고 안 들어오는 날도 있고, 휴일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바깥에 함께 외출하기도 힘들고, 명절이나 가족모임에는 의례 빠지고, 모처럼의 동창생들이 마련한 술자리에도 못 나간다.

이러한 생활에도 짜증이나 불평 한 마디 없는 남편이 이해가 안 되고 바보스럽기까지 했다. 출퇴근시간 좀 지켜달라는 교무과의 공문에도 짜증내고, 간혹 밤에 비상근무라도 하려면 입을 한 치나 내미는 나에게는, 이상할 수 밖에.

그러나, 군인의 아내로 몇년 살아가면서, 자신이 하는 일에 책임을 다하고 힘들거나 위험한 상황에서도 불평없이 열심히 복무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느끼게 되었다. 사실 나에게 국가나 애국심이란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이었다. 애국심이란 옛 어른들이 독립을 위해 투쟁할 때나 있었던 것쯤으로 여겼나보다.

대학가가 데모로 시끄러울 때나 최류탄 가스에 눈물을 흘릴 때에 잠깐씩 나라에 대해서 생각해 볼 뿐, 진정으로 나라를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다. 그것보다는 연극이나 음악 혹은 학문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더욱 소중하고 가까운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막연하고 추상적이 아닌, 실체로서 애국심을 느낄 수가 있다. 나를 새로운 것에 눈뜨게 해 준 것은 남편의 한결 같은 태도 덕분이다.

처음엔 시끄럽기만 했던 비행기 소리나 비상벨 소리에 친숙해지면서, 명절이나 어른들 생신에 남편없이 인사를 잘 다니게 되었고, 술취한 남편 친구들의 전화에 변명도 잘 해내게 되었다. 그리고, 김밥도 잘 싸고, 남편을 본받아서 사소한 것에 불평하지 않으려고 애쓴다.

이런 생활 중에, 가끔 가슴이 답답하고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무더운 여름을 휴가없이 보내는데, 「군인이 뭐가 바빠서 휴가도 없느냐」며 자신이 바쁜 것을 설명하며 애프터서비스 늦은 이유를 설명하는 XX전자 수리공 아저씨를 만났을 때 어떤 국회의원이 퇴역군인의 정치참여에 대해서 소박한 군인의 애국심 운운하며 비꼬았을 때.

소박한 애국심-그러면 소위 위대한 애국심이란 어떤 것인가.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는 사람들이 요즈음 하는 행동들, 혹은 분신으로 귀한 생명을 버리는 젊음……그런 것들인가.

---

# 「솔 개」

시 인 조 병 화

하늘에 살고 싶어라  
바람에  
떠 있고 싶어라

날개에, 날개에  
떠 있고 싶어라

바람이 쓸어가는 하늘  
인간보다 쓸쓸히  
보이지 않는 곳에  
눈물보다 쓸쓸히,

바람에 쓸려  
바람에 쓸려  
날개처럼  
살고 싶어라.

## 푸른 창공의 꿈

김 태 근

〈전남 해남국교 6년〉

“꽤애액”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마리의 제비처럼 검은 전투기가 드높은 창공을 가르며 힘차게 날아 어느새 뒷산을 넘어 친구들과 내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와 동시에 친구들과 나는 환호성을 질렀다. 그 중 정이는 “나는 커서 꼭 공군이 되어서 하늘을 날아 독수리와 누가 더 빨리 날으는지 경주를 해 보아야지.”

“야! 공군되기가 쉬운 줄 아니? 그리고 설사 공군이 되었다고 해도 전투기를 잘못 조종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너 지난 번에 텔레비전에서 봤지, 어떤 외국 조종사가 비행시범을 보이다가 그만 기관고장으로 추락해 숨진 사건 말이야”하고 말하였다. 그렇지만 난 공군이 전투기를 타고 날으는 것은 멋 있어도 공군이 그리 중요한 군인이라 생각이 들지 않았다.

해가 저물어 집에 들어와 가족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조금 전 친구들과의 이야기가 생각나 아빠께,

“아빠 공군이 꼭 있어야 되는 군인인가요?”

하고 여쭙어 보았더니 아빠께서

“그럼”

하고 말씀하셨다. 나는 다시,

“왜요, 사람이 살아가는 곳은 땅인데 왜 하늘을 지킬 필요가 있지요?”

하고 여쭙어 보자 아빠께서는 다시

“태근아 예를 들어 우리 나라가 땅을 지키려고 할 때 북한이 하늘에서 전투기를 타고 땅으로 폭탄을 떨어뜨린다면 우리는 막을 길이 없을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공군은 ‘초전필승’이라는 구호아래 언제라도 북한을 물리칠 수 있는 실전을 익히고 있단다. 알았니.”

하는 아빠의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이 생각이 들었다.

지난 번에 키가 작은 삼진이와 키가 굉장히 큰 기선이가 싸움을 하였는데 키가 작은 삼진이가 키가 큰 기선이를 아무리 때려도 키가 큰 기선이는 끄덕하지 않았고 반대로

키가 큰 기선이 키가 작은 삼진이를 위에서 한번만 때려도 멀리 나가 떨어져 넘어지는 것이었다. 이 생각을 하고 나는 공군이 얼마나 중요한 군인인지를 처음으로 크게 느꼈다.

나는 저녁식사를 다 마치고 책상에 앉아 곰곰이 생각했다. 내가 공군을 너무 몰랐다고나 할까. 어찌 됐든 이렇게 생각했던 내가 빨간 머플러를 두르고 열심히 실전을 익혀 북한을 언제라도 물리칠 수 있게 땀을 흘리시는 공군 아저씨께 너무 너무 죄송한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내 장래 희망은 외과의사이지만 남자는 누구나 한번은 군인이 되어 몸과 마음을 나라에 바치는데 나는 공군에 입대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그럴 능력이 있다면 커서 공군에 입대해 드높고 푸른 창공을 가르며 잔악한 북한을 단숨에 물리쳐 남북통일을 이루고 그 자랑스런 전투기를 백두산에 착륙시켜 백두산 꼭대기에 태극기를 꽂고 무궁화를 심은 다음 온 세계, 온 누리를 향하여 목청껏 애국가를 부르고 싶다.

〈 동 시 〉

# 공 군

김 윤 정

(서울 방일국교 6년)

푸른 창공을 뚫고,  
씩씩하게 날아가는

하늘의 독수리,  
우리 공군

공군의  
씩씩한 마음과  
용감한 정신은

흐뭇하고 든든한  
우리의 국력

나는  
공군을 볼 때마다  
힘차게  
손을 흔든답니다.

\* 이 산문과 동시는 제3회 공군 호국백일장 입선작품이다.

## 표지화

설봉기 노철 화백작품  
현대미술대상전 추천작가  
한국서화작가협회 동양화 분과위원



담배연기 숨막힐 듯이 자욱한 구석에서

쉬지 않고 달려가는 시간은 멈추게 할 순 없고,

수집되지 않는 원고에 속 얇이 하던 나날들도

시간 늦게 교재창에 넘긴 지금은 발행계획작성 초기의 의욕과 자신도 파김치처럼 풀이 죽어버렸다.

정기 행사처럼 되어버린 발행시간 단축의 독촉 때문에,

출산기를 넘겨버린 뱃속의 아기를 기다리는 초조한 산모의 심정이랄까.

대작이든 졸작이든 아랑곳 하지 않고 오직 미운 오리새끼나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뿐이다.

새해와 더불어 새 식구도 늘어 났으니 편집자의 뉘두리도 줄어 들겠고 보다 나은 작품을 기대하여 봄직도 하다.

(湖)

## 원고모집

금속성의 폭음속에 촌작을 다루는 영광  
초계 임무,

최첨단의 과학기술 장비를 다루는 작업  
속에서 젊음을 불태우는 보라매들.

사색과 낭만을 즐기기에 너무나 각박한  
시간들이기에 자칫하면 정서생활을 잃어버  
리기 쉽습니다.

장교 전문교양지인 「공군」은 여러분의  
고귀한 생활속의 글들을 모집합니다.

오래전에 놓아버린 붓을 다시 잡고 원고  
지 한칸 한칸을 메꾸어 보십시오. 잃어가  
던 문학세계가 다시금 새로와질 것입니다.

힘들고 바쁜 생활속에서 나온 글들이기  
에 더욱 소중하며 값진 것입니다.

☆ 모집대상 : 장교 및 그 가족

☆ 모집부문 : 군사지식, 교양, 생활수기 등  
문학작품 전 부문

☆ 마감일자 : 제한없음(연중무휴)

☆ 원고매수 : 30매 내외(200자 원고지)

☆ 제출처 : 서울 동작구 대방동 사서함  
10호.

☆ 기타사항 : 제출된 원고는 소정의 고료를  
지급하며, 게재된 작품은 연  
말 종합심사후 시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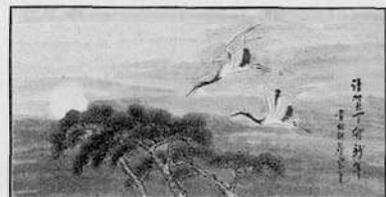
☆ 문의전화 : (호) 5115, 5388  
(직) 813-2691

## 차레화

화강이영우 화백작품

전남 곡성 출생

한국화가협회 이사



3,700
-------

제목 : 공군지 (통권200호)

1987년 2월 25일 인 쇄
1987년 2월 28일 발 행
발 행 : 공군본부 정훈감실
인 쇄 : 공 군 교 재 창



## “돼지 뺏속에 집 한채”

조그만 돼지저금통에 집 한채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불과 십수년 전만 해도 알뜰한 며느리가 부엌에 독을  
묻어 끼니마다 한술갈씩 쌀을 모아 시어머니의 중병을  
고쳤다는 이야기, 달걀 하나가 닭이 되고, 닭이 돼지가  
되고, 돼지가 소가 되어 대학을 졸업했다는 어느  
젊은이의 이야기가 우리곁에 심심치 않게 들렸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우리곁에는 1원짜리, 10원짜리,  
심지어 100원짜리 조차도 돈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축은 큰 돈으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은 돈이라도 알뜰이 모으면 큰 돈이 됩니다.  
작은 돼지저금통에 조금씩 넣은 동전이 황소 한마리가  
되고 황소 한마리가 통장에 들어갈 때 집 한 채가 되어  
행복한 미래도 함께 들어 갑니다.  
절약, 저축, 이상의 행복은 없습니다.